발간등록번호 11-1371029-000176-01

한국 근대문학 해제집

Ⅳ

문학잡지(1907~1944)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한국 근대문학 해제집

Ⅳ

문학잡지(1907~1944)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일러두기

수록범위

- 창간호를 기준으로 1907년부터 1944년까지 발행된 근대문학 잡지 70종에 대한 해제를 담고 있다.
- 본 권에서는 단권으로 종간된 잡지, 지방 문예지, 동인지, 교지 등 『한국근대문학 해제집』 2권과 3권에서 다루지 않았던 잡지들을 포함하였다.
- 해제 대상 자료는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자료의 학술적, 문화적 가치를 객관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해제

- 해제 원고는 1종당 200자 원고지 10매를 기준으로 하되 자료의 가치나 분량에 따라 조절하였다.
- 해제 대상 자료의 표지 및 판권지 사진은 창간호 원본을 기본으로 하되, 창간호 또는 원본이 없는 경우 차호 또는 영인본의 사진을 수록하였다.
- 해제는 대상 자료에 대한 개요, 서지사항, 구성 및 내용, 평가 등을 기술하고 별도로 핵심어와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 각 항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창간 및 종간 연월과 특성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 발행 및 편집, 표지화 및 장정 등에 관련된 특징을 기술하였다.
◎ 전체적인 구성과 참여 필진, 수록된 작품의 특징과 의의를 기술하였다.
◎ 문학사적 가치 등 종합적인 평가를 기술하였다.
◎ 해제를 대표하는 핵심어를 제시하였다.
◎ 해제 대상 자료를 연구한 주요 연구서 및 논문을 제시하였다.

표기

-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의 인명이나 지명, 기타 전문 용어 등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원어를 표기하였다.
- 발행일은 판권지를 기준으로 하고 서력환산기년으로 표기하였다.
- 원본 소장처는 대표기관 한 곳만 표기하였다.
- 잡지명은 겹낫표(『 』), 작품명 및 기사명은 홑낫표(「 」)를 사용하였다.
- 참고문헌은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표기하였다.
- 그 외 일반적인 표기원칙은 국립국어원의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랐다.

배열

- 해제 대상 자료는 창간호 발행일순으로 수록하였으며 번호를 부기하였다.

목록 및 색인

- 해제집의 마지막에 잡지의 각 호별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를 정리한 목록을 제시하였다.
- 잡지명 색인을 가나다순으로 제시하였다.

목 차

002 일러두기

1907~1922

008 대한유학생회학보
011 우리의 가뎡
014 근대사조
018 조선문예
022 학우
026 녹성
029 현대
032 신여자
035 여광
038 문우
041 학생계
044 계명
047 신천지
051 숭실활천
054 부인
057 동명

1923~1928

062 휘문
065 신소년
068 청량
071 여명
074 새벗
077 문우
080 아이생활
083 별나라
086 학조
089 장한
092 습작시대
095 계우
098 백치
101 백웅
104 문예·영화
108 여시
111 신시단
114 신생

1929~1935

120 무산자
123 괴기
126 문예광
129 대중공론
132 음악과시
135 시대공론
138 집단
141 신흥영화
144 동성
147 문학건설
150 문학창조
153 청년조선
156 월간야담
159 소년중앙
162 창작
165 야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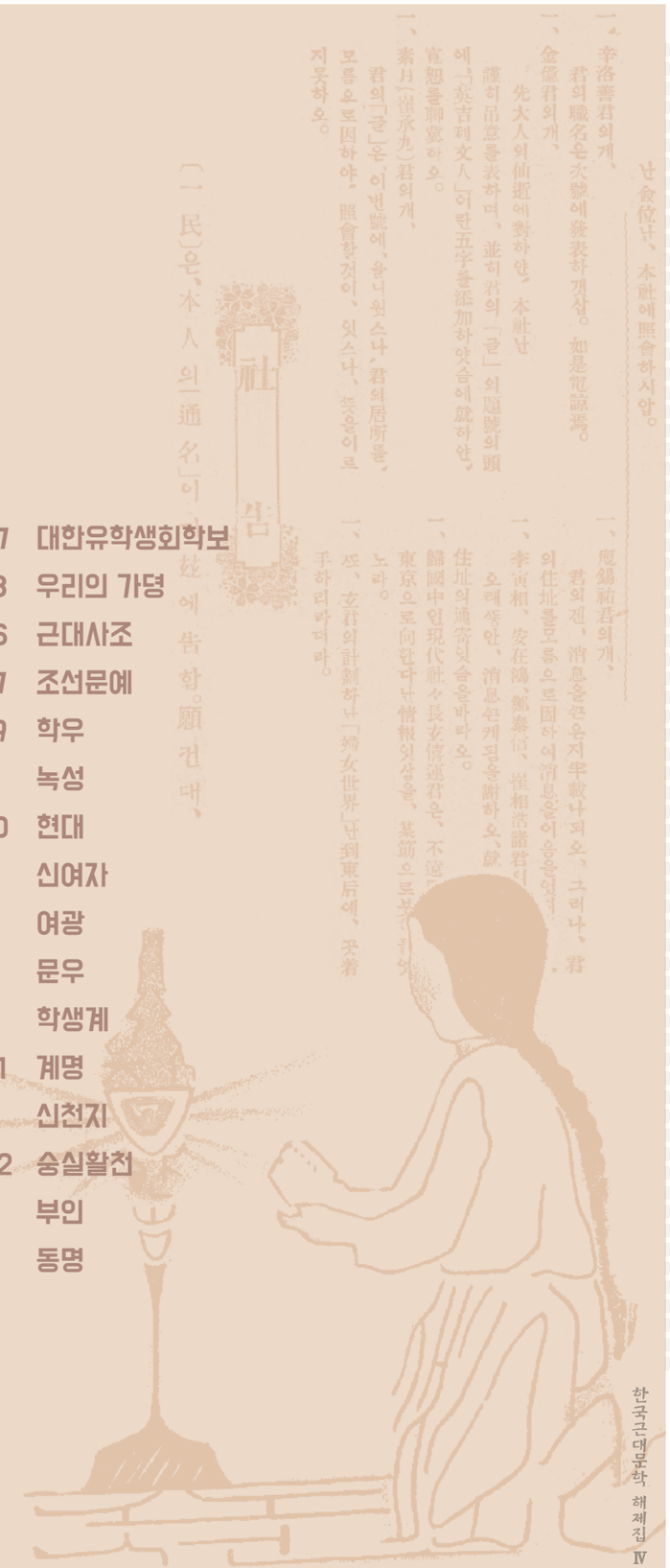
1936~1944

170 문학
173 동화
176 가톨릭소년
179 탐구
182 문예가
185 광업조선
188 낭만
191 요람
194 문원
197 시인춘추
200 웅계
202 시림
205 작품
208 백지
211 순문예
213 태양
216 업
219 국민총력
222 월간 소국민
225 국민시인

232 자료목록
253 잡지명 색인

1907~1922

1907 대한유학생회학보
1913 우리의 가뎡
1916 근대사조
1917 조선문예
1919 학우
녹성
1920 현대
신여자
여광
문우
학생계
1921 계명
신천지
1922 숭실활천
부인
동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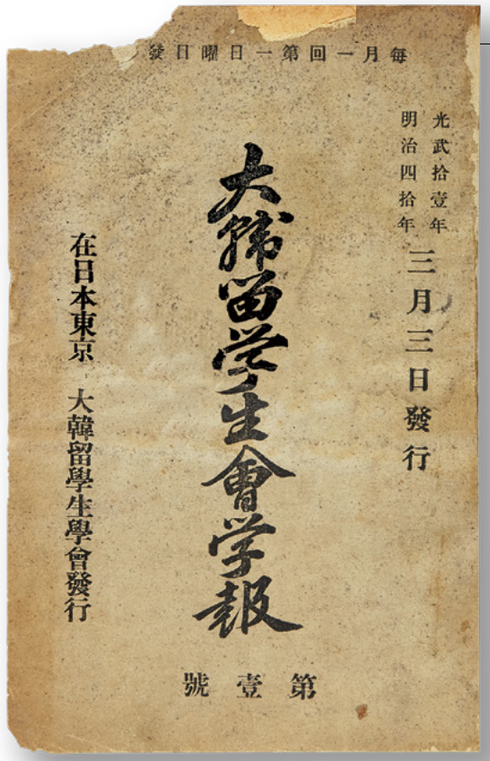
001 대한유학생회학보

大韓留學生會學報
대한유학생회
1907. 3. 3 ~ 1907. 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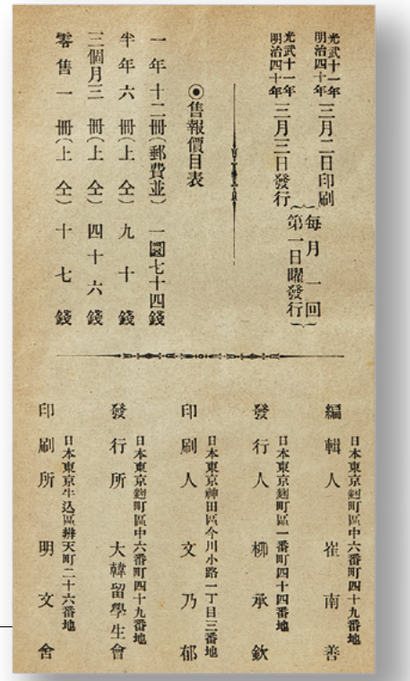
『대한유학생회학보』는 1900년대에 일본 유학생들이 발행한 잡지 중 하나다. 1907년 3월 3일에 창간되어 같은 해 5월 26일까지 통권 3호가 발행되었다. 『대한유학생회학보』의 편집인은 최남선, 발행인은 유승흠, 인쇄인은 문내욱이었다. 발행소는 대한유학생회였고, 인쇄소는 도쿄의 명문사(明文舍)였다. 『대한유학생회학보』의 국내 보급처는 주한영서포였다.

대한유학생회는 주일 한국공관이 철수되는 상황 속에서 허술해진 유학생 관리체계의 공백을 메꾸고, 유학생 사이에서 빈번했던 분파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유학생 자치 조직이었다. 대한유학생회는 일제에 대한 항거를 촉발하기 위해 1905년에 자결, 순국한 민영환의 1주기 추도회를 마친 후 결성되었다. 대한유학생회라는 이름은 대한유학생구락부와 청년회를 합하여 붙여진 것이었다. 1906년 9월에 대한유학생회의 제1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회장에는 상호, 부회장에는 최린이 선출되었다. 『대한유학생회학보』의 편집인으로는 임규와 이형우, 최남선이 선출되었는데, 이 세 명 중 최남선의 이름이 『대한유학생회학보』의 편집인으로 표기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최남선이 『대한유학생회학보』의 편집 책임을 맡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잡지사의 한 획을 그었던 『소년』과 『청춘』의 창간자 최남선의 잡지 편집 경력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셈이다.

『대한유학생회학보』의 취지서를 살펴보면, 대한유학생회가 강조했던 것은 실력 양성이었다. 6, 7백 명에 이르는 유학생들이 세계의 문명을 수입하여 국가의 실력을 공급하는 것이 곧 대학유학생회의 목적임을 취지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대한유학생회학보』는 다른 무엇보다 근대 지식을 소개하고 그 필요를 설파하는 논설, 논단에 많은 비중을 두고 편집되었다. 애국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치시사와 자연과학, 법학, 경제학 관련 지식을 소개하는 데 힘썼다. 이와 함께 성실, 자립, 타자애 등을 강조하는 수양론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패가망신해 가는 도박 중독자의 일면을 그린 진학문의 소설 「쓰러져 가는 집」은 미흡하게나마 근대소설의 초기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소설을 제외하면 『대한유학생회학보』에 실린 글들은 순한문체, 한문에 토를 단 한문현토체, 국한문혼용체 등의 표기방



창간호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창간호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법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한유학생회학보』의 주요 필자는 최남선, 이형우, 이홍근, 윤정하, 이한경, 나홍석, 한흥교 등이었다.

『대한유학생회학보』는 단지 유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함양하며 특히 실질적인 실력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제작된 일본 유학생 잡지였다. 그러나 회원들의 회비 내지 기부금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국내외 여러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재정 곤란을 적지 않게 겪었다. 비록 『대한유학생회학보』의 발행기간은 짧았지만, 유학생 스스로가 유학생 조직들을 규합하여 시대의 필요에 부응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 점에서 『대한유학생회학보』의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해제: 유석환)

핵 심 어 일본 유학생 잡지, 대한유학생회, 실력 양성, 최남선

참고문헌

- 강대민, 「대한유학생회학보에 관한 연구」, 『논문집』 5-1, 경성대학교, 1984.
- 안남일, 「1910년대 이전의 재일본 한국유학생 잡지 연구」, 『한국학연구』 5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02 우리의 가뎡

우리의 가뎡
신문사
1913. 12. 15 ~ 1914. 11. 15

『우리의 가뎡』은 1913년 12월 15일에 창간되어 1914년 11월 15일에 통권 12호로 종간된 여성 대상의 가정잡지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휴간이나 정간 없이 매월 한 호도 빠지지 않고 발간된 월간지였다. 당대 양대 산맥을 이루던 최남선의 신문관 잡지들이 무단통치를 펴던 일제 당국에 의해 빈번하게 휴간이나 강제 폐간을 당했던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가뎡』은 비교적 순조롭게 발행되다가 자진 종간한 잡지에 속한다.

A5판 4~50면으로 꾸며진 『우리의 가뎡』은 매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출간되어 여성 대상 잡지의 시장 잠재력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친 『킹(キング)』이 여성 대상 잡지를 벤치마킹하여 성공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독자층의 확대와 확보에 사활을 걸었던 대중잡지가 목표로 삼았던 것이 바로 여성 대상 잡지였기 때문이다. 1906년 6월에 창간된 『가뎡잡지』 이래 1910년대 일본에서 발간된 『여자계』 외에 여성 대상 잡지로 유일했던 『우리의 가뎡』은 미답의 영역이라 할 가정주부와 여성들을 출판시장으로 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의 가뎡』은 『가뎡잡지』의 순(純)국문 표기를 계승하여 '순언문', 즉 '순한글'의 표기 방식을 택했다.

『신문계』와 『반도시론』 등의 산실인 신문사의 다케우치 로쿠노스케(竹內錄之助)가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아 정가 10전의 염가 판매(참고로 『신문계』 15전, 『반도시론』 25전)를 관철했던 『우리의 가뎡』은 창간의 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조선의 몇 천만 가정 중 한문을 아는 이가 극히 적어 "불가불 순언문으로 한 잡지를 발간"하여 지식을 바치겠다는 것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필수불가결한 "보통지식을 소개"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오늘날 국어(일본어)가 필요한 것은 누

제1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1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구든지 아는 바"이므로 "국어 배우는 기회"를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기르는 이"도 마땅히 가져야 한다는 식민 정책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식의 사명감도 피력했다. 한 마디로 『우리의 가명』 출간은 조선의 몇 천만 가정 경제의 주체인 몽매한 여성(부인)에게 보통지식을 순언문으로 소개해 국어(일본어)를 비롯한 지식과 정보를 널리 제공하고 학습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명잡지』의 순국문 표기를 계승하는 것이면서 1926년 3월을 계기로 전부 '조선문' 표기를 선언했던 『신여성』의 방향 전환과도 맞닿는 여성잡지의 표준적인 규칙과 지침을 『우리의 가명』도 공유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재래의 인습과 관행에서 벗어나 근대적 삶과 문화를 향유할 '신가정'의 모습을 제시할 것을 목표로 한 것처럼, 『우리의 가명』은 창간호 목차를 "1. 가정의 규범", "2. 가정의 학술", "3. 가정의 위생"으로 대별하고 여기에 따른 세부 항목들을 배치했다. "가정의 규범"은 「가정의 주인」, 「각국 부인의 특색」, 「미국 부인의 규칙 있게 일하는 것」, 「부인의 하루일」, 「시부모의 뉘우침」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가정의 학습"은 「국어(일본어) 배우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 신가정의 모습은 창간호 「응접실의 영양」의 화보에서도 잘 드러난다. 응접실이 있는 거실이란 안채와 바깥채가 엄격하게 구분된 조선의 구가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조선의 구가정과 대비되는 신가정의 풍속도는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 국가들을 모델로 삼아 당시의 조선 여성들에게 그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했다. 근대 물질문명의 이기와 효율성, 편리성이 강조되는 실생활 개선은 양육과 가사에 초점을 맞춘 「아이 가르치는 방법」, 「치부하는 법을 배울 일」, 「부인과 출입」, 「부인상회를 환영」, 「여행은 가정의 행복」 등의 경제와 문화의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가정의 위생"은 「목욕과 위생」으로 대표되는 기사를 통해 한 호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실렸다. 특히 1913년 8월 15일에 발행된 제 9호부터 「부인과 법률」 코너가 신설되어 종간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 「부인과 법률」 코너는 이후 여성잡지의 단골 메뉴로 법률 용어와 지식에 익숙지 않은 여성들의 고민 상담과 의견 교환의 공론장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우리의 가명』이 추구했던 신가정은 부부 중심의 현모양처론을 확산함으로써 근대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정 경제의 주체로서의 여성의 지위와 권한 제고에 일조했다. 남편과 함께 가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모 있게 꾸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은 비록 보조 노동력이긴 하지만 양잠과 서비스 등의 직업과 생계 수단에 대한 소개와 안내 및 가정학에 기초한 여성 교육과 계몽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동초인(海東樵人)의 필명으로 최찬식은 가정소설 「해안(海岸)」을 연재했는데, 이 작품은 조선 구가정의 불합리한 결혼 제도에 맞서는 자유연애와 여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가명』은 보통지식의 향유 대상을 남성들뿐만 아니라 유치하고 몽매한 여성들로 넓히는 여성지의 원형이자 가정잡지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해제: 공임순)

핵 심 어 여성 대상 가정잡지, 순언문 표기, 신가정, 보통지식, 여성 교육과 계몽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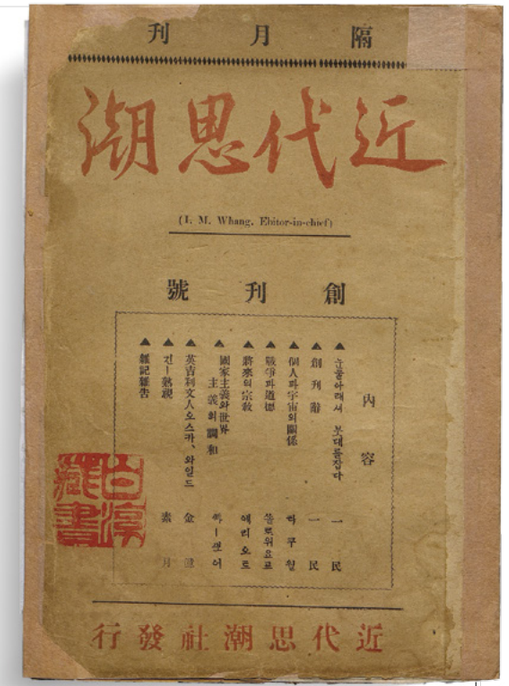
- 김근수, 『한국잡지사』, 청록사, 1980.
- 마에다 아이(前田愛), 유은경·이원희 옮김, 『일본 근대 독자의 탄생』, 이룸, 2003.
- 정진석, 『한국 잡지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003 근대사조

近代思潮
근대사조사
1916. 1. 26

『근대사조』는 1916년 1월 26일에 발행된 격월간의 종합지다.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황석우이고, 인쇄인은 무라마츠(村松源作), 인쇄소는 현대사(동경시 신전구 표원락정 19번지), 발행소는 근대사조사였다. 판형은 A5판 24면이었고, 정가는 10전이었다.

창간사에서 황석우는 "본지를 발간함은, 아 조선민족단체에, 구미선진국의 철학사조, 문예사조, 종교사조, 윤리사조, 기타 학술상 지식을 소개하며, 겸하야 조선사회개량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기 목적함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여(余)난, 본지를 조선민족의게 송함에 제하야, 특히, 조선민족의 차에 의하야 감(感)하난 익(益)의 범위 급 본지에 대한 동정의 범위—날로, 전대(展大)됨을 기하노라. 차로써 창간사에 대코져하노라."고 하면서 '사장 겸 주필'은 황석우라고 밝혀 놓았다. 그리고 본지의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본래 명칭은 『신시대지복음(新時代之福音)』이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근대사조』로 변경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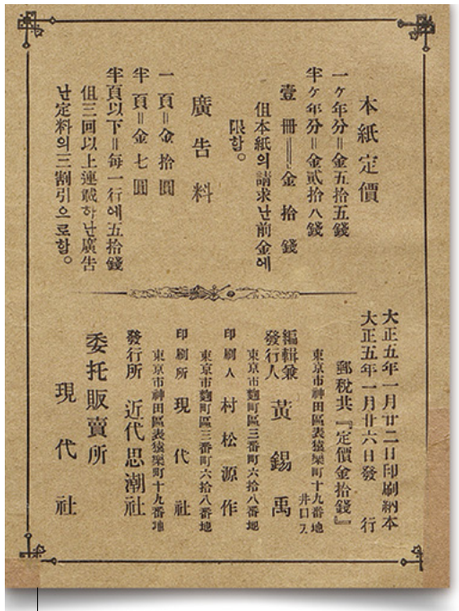
황석우는 권두언에 해당하는 「눈물 아래서 붓대를 잡다」를 통해서 잡지 간행의 감회와 함께 일본 유학생들에게 거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습냉하고 침흑한 암옥"에 갇힌 반도 내지형제에게 "태양의 싸뜻한 쏘힘"과 "광명"을 줄 "반도개척의 사자"로 "일본유학생"을 규정하고, 그 유학생과 지식인, 유지 등이 『근대사조』의 주체이자 대상이라고 밝혔다.

『근대사조』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눈물 아래서 붓대를 잡다	일민
창간사	일민
개인과 우주의 관계	타쿠월
전쟁과 도덕	쏠로위요프
장래의 종교	에리오트
국가주의와 세계주의의 조화	빠—쏘어
영길리 문인 오스카, 와일드	김억
긴—숙시(熟視)	소월
잡기잡고(雜記雜告)	

목차대로 『근대사조』는 4편의 번역 논설과 김억의 평론, 최승구의 시 1편, 창간사와 잡기·잡고 등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번역된 글들은 따로 역자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황석우가 직접 번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과 우주의 관계」는 우주 자연에 영적인 의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간과 우주, 인간과 인간이 합일하는 것이 '참 자기'의 발견이자 자기 해방이고, 궁극적으로 '환희의 생'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전쟁과 도덕」은 전쟁의 성격을 밝히고 평화주의를 주장한 글이다. 전쟁은 "오직 한악(悍惡)한 야심과 욕망, 복수심과 오만심의 발로이고 인도(人道)에 반하는 잔인하고 부자연한 행위"로 여기에 맞서는 저항으로서의 전쟁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래의 종교」는 차세의 행복을 담보로 현세를 도구화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를 부정


本紙定價
一ヶ年分＝金五拾五錢
半ヶ年分＝金貳拾八錢
壹冊＝金拾錢
但本紙의請求난前金에限함。
廣告料
一頁＝金拾圓
半頁＝金七圓
半頁以下＝每一行에五拾錢
但三回以上連續하난廣告난定料의三割引으로함。
大正五年一月廿二日印刷納本
大正五年一月廿六日發行
郵稅共『定價金拾錢』
東京市神田區表猿樂町十九番地 井口方
編輯兼發行人 黃錫禹
東京市麴町區三番町六拾八番地
印刷人 村松源作
東京市麴町區三番町六拾八番地
印刷所 現代社
東京市神田區表猿樂町十九番地
發行所 近代思潮社
委托販賣所 現代社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하고, 현재의 죄악과 고통은 현재의 개량과 개전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국가주의와 세계주의의 조화」는 국가주의의 배타적이고 침탈적인 폐해와 만민평등의 세계주의를 대비시키고, 피식민지 약소국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저급의 국가주의(제국주의)에 맞서는 "고급의 국가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한다. 「영길리 문인 오스카, 와일드」는 김억의 평문으로, 19세기 말의 위대한 천재로 오스카 와일드를 소개하면서 교격한 예술관과 인생관으로 "육적 생존본능을 영성의 사상과 예술적 창조력"으로 돌파하려는 투쟁을 전개한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긴-숙시」는 최승구의 산문시다. 고향은 지금 불모의 사막으로 변했지만 원래는 옥토였다. 모래만 파면 옥토가 다시 나올 것이라는 신념을 잃지 않고 파헤쳐 내려가면 마침내 "나의 생명의 근원"인 옥토에 다다른다는 내용이다.

『근대사조』는 번역된 글들은 통해 구미 선진국의 철학, 문예사조, 종교사상, 윤리사조, 기타 학술상의 지식을 다양하게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생성·유지시키는 정복 전쟁과 배타적인 충군·애국의 국가주의를 반대하고, 만민평등의 평화주의, 세계주의, 인도주의를 주장하였다. 『근대사조』는 1910년대 한국문학사 및 사상사에 의미있는 자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1920년대 동인지 및 문단 형성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해제: 강진호)

핵 심 어 근대사조, 황석우, 김억, 소월, 신시대지복음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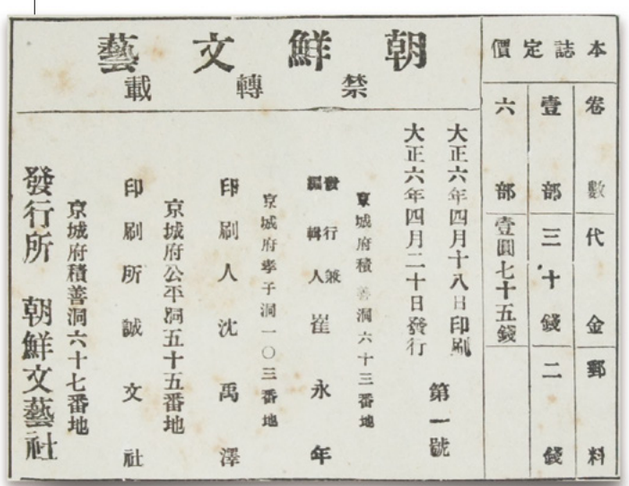
- 정우택, 「『근대사조』의 매체적 성격과 문예사상적 의의」, 『국제어문』 34, 국제어문학회, 2005.
-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04 조선문예

朝鮮文藝
조선문예사
1917. 4. 20 ~ 1918. 10. 20

『조선문예』는 1917년 4월 20일에 창간되어 1918년 10월 제2호로 종간되었다. 창간호는 국판이고, 발행 겸 편집인은 최영년, 인쇄인은 심우택, 인쇄소는 성문사(경성부 적선동 67번지), 발행소는 조선문예사다. A5판 160면이며, 표기법은 한문체 또는 국한문혼용체였다. 정가는 30전이고, 창간호는 2천 권을 인쇄하였다.

『조선문예』를 발행한 '조선문예사'는 당시 한문학계의 원로와 중진을 망라하는 조직체로, 총재는 김윤식, 사장은 민병협, 이사장은 백윤수, 이사는 최영년이었다. 발행인 최영년(1856~1935)은 한학자로, 신교육에 힘썼던 인물이지만 1909년 7월 일진회의 기관지 《국민일보》의 제4대 사장이 되면서부터 친일활동에 앞장섰다(최영년의 아들 최찬식은 『추월색』 등을 지은 신소설 작가다). 조선문예사는 한문학의 부흥을 기치로 내걸고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으며 결성되었던 만큼 처음부터 친일적 성격이 농후했다. 『조선문예』의 제자(題字)를 테라우치(寺內) 총독의 친필로 한 것은 잡지의 그런 성격을 단적으로 시사해준다.


朝鮮文藝
禁轉載
本誌定價
卷數 壹部 三十錢 二錢
代金 壹部 六錢
郵料 壹圓七十錢
大正六年四月十八日印刷 第一號
大正六年四月二十日發行
京城府積善洞六十三番地
發行兼編輯人 崔永年
京城府孝子洞一〇三番地
印刷人 沈禹澤
京城府公平洞五十五番地
印刷所 誠文社
京城府積善洞六十七番地
發行所 朝鮮文藝社

제1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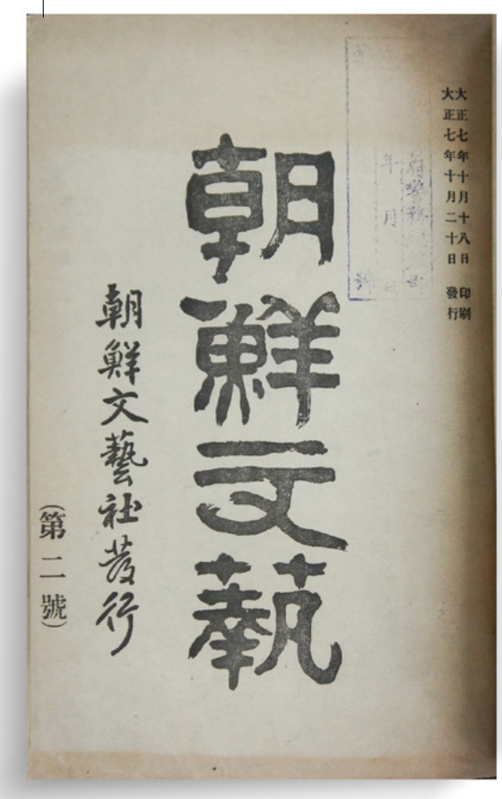
제1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문예의 창간」에서, 잡지의 창간은 "조선문예의 발흥을 위하여 작(作)하는 바"라고 하였다. "조선문예의 위축 부진함"이 오래되었지만 이제 "문화 일진하는 천재 기회를 조봉(遭逢)"하여 "문예의 흥기를 희망"하는 뜻으로, "조선문예" 4자로 제명을 정하고 제1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조선문예라는 잡지를 발행ᄒᆞ야 시문 가요 서화 등 각종 문예를 고심 수집ᄒᆞ야 일개권에 황연 유득ᄒᆞᆫ 효과가 목전에 발생ᄒᆞ기로 소개ᄒᆞ야 노성제가의 비망기를 작ᄒᆞ며 신진제가의 강의록을 대ᄒᆞ며 학생제가의 참고품을 작ᄒᆞ기 위함이오, 문예제가의 문고를 모집ᄒᆞ야 대방가의 고평을 가ᄒᆞ고, 상품의 진증ᄒᆞ야 문예발전의 경쟁ᄒᆞᄂᆞᆫ 보취를 전진케 함이니 차는 조선문예의 대목적이라.

– 창간호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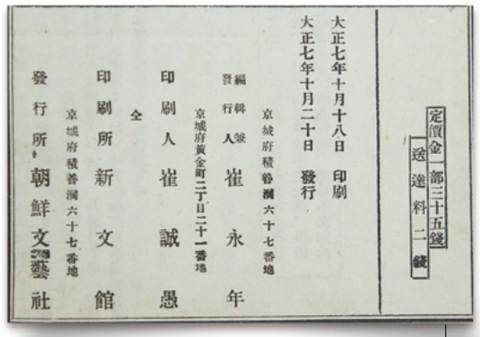
본문은 심성정(心性情)의 개요, 고시 운범, 서화의 원류, 고금가요의 연혁, 여자의 문예, 언문의 문예 등과 같은 문예의 역사와 작법이라든가 여성과 언문 문예 등을 담아 놓았다. 주요 필자로는 정만조, 여규형, 권상로 등 한학자와 서화가인 김규진 등이고, 최찬식은 해동초인(海東樵人)이라는 아호로 글을 발표했다.



제2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시단 제1회 신춘시집」에는 이완용, 조중응, 이지용, 권중현, 여규형 등 75명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인사들로, 조선문예사의 고문을 맡고 있었다. 이완용은 고종을 협박하여 을사조약의 체결과 서명을 주도했고, 이지용과 권중현은 대한제국 시기에 벼슬을 하면서 을사조약 체결에 앞장섰으며 조중응은 정미7적과 경술국적으로 지탄을 받은 인물이다.

『조선문예』 2호는 1호와 같은 형식이나 일부 항목에서 변화를 보여주었다. '사고(社告)'의 경우, 1호는 "광고 수입으로 각 방면에 진증하여 고평"을 받았다고 했으나, 제2호는 "물가 상승과 경제의 곤란으로 부득이 영업부를 설치하였으니 독자들은 애독하되 선금으로 주문하라"는 당부를 실었다. 1호의 목차 항목은 2호에서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학시 초정」, 「고시 운범」, 「고금의 가요」, 「시단」 등은 1호와 같다. 그런데, 「범례」를 통해서 1권을 총 9부로 나누어 게재한다고 언급한 뒤, '총제부, 강의부, 참교부, 예술부, 시단부, 월조부, 현제부, 문답부, 사황부'로 나누어 글을 수록하였다. 2호는 총제부에 「학해」, 강의부에 「학시초정」, 「논서법」, 「논화법」을 수록하여, 1호에 비해 한층 체계적으로 정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2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문예』는 한문학 부흥을 목적으로 창간되었으나 친일적 성격으로 인해 유림층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문예』에는 순한문, 한문현토체, 국한문, 순한글 등 네 가지 문체가 등장하는데, 이는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이해되지만, 사실은 문체상의 혼란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느 계층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를 빚어내었다. 또, 신학과 구학의 공존을 주장하며 시대의 추세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였으나, 유가적 세계관을 완고하게 유지한 나머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하였다. (해제: 강진호)

핵 심 어 김윤식, 최영년, 최찬식, 조선문예, 조선문예사, 한문학 부흥

참고문헌

- 주승택, 「『조선문예』고」, 『진단학보』 62, 진단학회, 1986.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005 학우

學友
학우사
1919. 1. 1

『학우』는 1919년 1월 창간된 경도제국대학 기독교청년회의 기관지다.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김우영(경도제국대학 기독교청년회), 인쇄인은 무라오까(村岡平吉), 발행소는 학우사(경도시 상경구 북백천정), 인쇄소는 복음인쇄합자회사(횡빈시 산하정 104)이다. 판형은 A5판 47면이고, 정가는 20전이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발간사	
예와 법	김준연
노동의 신성	박석윤
교육과 유전	박장용
위생상의 의복론	김시두
여(余)의 포복자하오	이갑수
여(余)의 개성관	김재은
죽장망혜기(竹杖芒鞋記)	정민택
동해안 돌파 실패기	이종준
에튜우드	주요한
동모들아	방원성
자연과 인간	방인근
편집여담	

발행인 김우영은 경도제국대학 정치경제과와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만주 안동현 주재 부영사와 조선총독부 이사관 등을 역임한 인물로, 나혜석의 남편이다. 김우영이 작성했을 것으로

제1년 제1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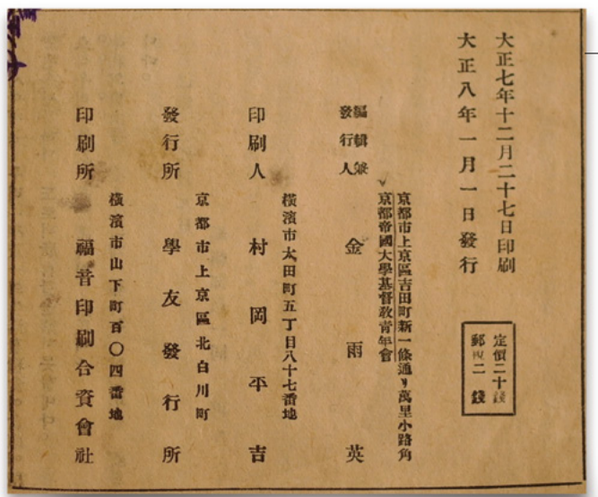
보이는 '발간사'에는 창간 당시 조선유학생의 자기규정과 소명 의식이 서술되어 있다. 곧, "20세기의 생활에는 욕망이 많아야 한다."고 하면서, "세계문명사란 것은 인류의 욕망발달사"라고 규정하고, 특히 "지식욕이 제일 고도의 욕망"이라고 주장한다. '사회'는 "영원 불사하는 것"인지라 "우리 자신의 이해보담도 우리의 사회와 자손의 문제가 더욱 중대하고 절박하다."고 주장하며 바로 그것을 구체화하고 생활화하는 것이 『학우』의 사명이라고 천명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해보담도 우리의 사회와 자손의 문제가 더욱 중대하고 절박하다. 그런 고로 우리는 공통으로 큰 욕망을 가지며 이를 구체화하며 생활화하며 자아의 문화를 수립하고 일보를 갱진(更進)하야 세계문화에 공헌하자 절규한다. 이 절규를 보급케 하는 방편물이 곳 우리 학우보이다. 나는 이로서 발간사를 대(代)한다.

– 「발간사」 일부

『학우』의 필자는 대부분 김우영의 지인들로, 동경과 경도 일대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다. 목차에서 모든 필자의 이름 옆에 현재 위치하는 장소를 명기한 것을 통해서 동경제대 문학부를 거쳐 경도제대 법학부로 온 김우영의 지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919년 당시는 도일 유학의 초창기로 경도에 있었던 유학생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김우영의 네트워크에 의지하여 잡지를 간행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주요한은 「에튜우드」라는 제목으로 시 「눈」, 「봄」, 「니야기」, 「기억」 등 4편을 발표하였다. "샘물이 혼자서/ 춤추며 간다/ 사골작이 돌틈으로// 샘물이 혼자서/ 우스며 간다/ 험한 산길 옷사이로.// 하늘은 말근대/ 즐거운 그 소리/ 산과 들에 울니운다"는 「봄」은 주요한의 첫 시집 『아름다운 새벽』(1924)에 1)샘물이 혼자서, 2)봄의 꿈은 빠르다, 3)할미꽃, 4)복사꽃이 피면, 5)묵상(해가 진다/ 노학산 봉우리로 ···)으로 재배열되어 수록되었다.


大正七年十二月二十七日印刷
大正八年一月一日發行
定價二十錢 郵稅二錢
京都市上京區吉田町新一條通り高瀨川路角
京都帝國大學基督教青年會
編輯發行人 金雨英
印刷人 横濱市大田町五丁目八十七番地 村岡平吉
發行所 京都市上京區北白川町 學友發行所
印刷所 横濱市山下町百〇四番地 福音印刷合資會社

제1년 제1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편집여담」에서는 "동인의 이상은 순학술잡지를 발행함"에 있으나 "아직 전문과학을 연구하는 학생이 많지 않은" 관계로 그러지 못했다고 하면서, 차호부터는 "선배 제씨의 조력으로 처음의 뜻을 관철코자 한다."고 밝혀 놓았다. 하지만 그런 의지와는 달리 『학우』는 창간호를 끝으로 더 이상 속간되지 못하였다. 3.1운동의 발발과 김우영의 귀국으로 차호를 내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학우』는 당대 사회의 구태를 혁파하고 일제 강점기를 극복하기 위한 욕망, 곧 지식욕을 갖추어 조선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초기 유학생들의 소명의식을 잘 보여주었다. (해제: 강진호)

핵 심 어 학우, 김우영, 지식욕, 경도제국대학 기독교청년회

참고문헌

- 안남일, 「재일본 한국유학생 잡지 연구」, 『한국학연구』 55,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5.
- 정종현, 「경도의 조선유학생 잡지 연구」, 『민족문화연구』 5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06 녹성

綠星
녹성사
1919. 11. 5

『녹성』은 1919년 11월 5일에 창간되어, 1호로 종간된 예술잡지다. 편집 겸 발행인은 이일해, 인쇄인 오리사까(折坂友之), 인쇄소는 복음인쇄합자회사(동경시 신전구 원락정 2정목 3번지), 발행소는 녹성사(경성 죽첨정 1정목 39)였다. 판형은 A5판 90면이고, 정가는 40전이다.

표지에는 '예술잡지 녹성(綠星)'이라는 제목 밑에 프랑스 출신의 배우 리타 죠리베(M.R. Jaliuet)의 사진이 실려 있다. 화보에는 미국 가극계의 스타이자 성악가인 여배우 제럴딘 파라(G. Farrar), 유니버설 스타 그래스 가나드(G. Cunard), 남자 배우 조셉 무어(J. Moore), 여배우 마이온 데이비스(M. Davis) 등의 사진이 실려 있다. '예술잡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배우를 비롯한 영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록된 글들은 모두 필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목차에는 「권두어」를 필두로 「애련비화 고송의 가」, 「로로-의 나야기」, 「사회비극 독류(毒流)」, 「연애비극 장한가」, 「세계일의 희극배우 잡후린 선생의 혼인」, 「부친의 대안매」, 「신비가극 월궁전」, 「대복수 대활극 아루다쓰」, 「인정활극 고도의 보물」, 「당당 일백원 현상 이대문제」, 「탐정소설 의문의 사」 등의 제목들이 제시되어 있다.

「권두어」에는 '새로운 시대에 정신을 새롭게 하자'는 희망이 표현된다.

임의 새로운 시대는 왓도다
우리 우리 아- 우리 새로운 세상에 새살님하려는 우리는
아모것보다도 정신을 새롭게 하여야겠다
모든 것을 바리고 닐헛든 정신을 주스라
모든 것을 던지고 정신붓터 붓잡으라
아아 새로운 시대는 왓도다
절믄 푸른 생각은 지리한 쑴에서 깨여서 새소리 치도다
푸른 새별 동천에 쓰도다

—「권두어」 일부

영화를 소개한 글들은 영화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제시하는 방법을 취했다. 「문예적 걸작품 독류(원명 구두)」는 젊은 여성 에바 메아의 이야기이다. 부친의 사업 실패로 에바 메아는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면서 가계를 돕는데 신발이 닳아빠져 더 이상 신을 수 없게 되지만 돈이 없어서 신을 사지 못한다. 신발가게 앞을 서성이는 그녀를 동료가 목격하고 주장(酒場)으로 나오라고 제의한다. 거기서 청년을 만나면 구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물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상상하며 망설이던 끝에 메아는 주장에 나가 남자를 만나 춤을 추는 등 남자의 비위를 맞춰준 뒤 신발을 얻어 신는다. 새 신발을 신고 귀가한 메아는 유혹에 넘어간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어머니에게 용서를 빈다. 다음날,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취직을 했다고 하며 구두도 사주고 옷도 사주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훈훈한 바람이 따듯이 부러온다."로 끝을 맺는다.

「(연애비극) 노예의 반생 장한가(長恨歌)」는 흑인 어머니와 백인 아버지 사이

제1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本誌定價表

每冊金四拾錢也	郵稅壹錢
冊數	先金郵稅合計
壹冊	壹圓拾錢
參個月分	參錢
六冊 半年分	六錢
拾貳冊 壹年分	四圓貳拾錢
參個月分	壹圓拾參錢
六冊 半年分	貳圓貳拾錢
拾貳冊 壹年分	四圓參拾貳錢

廣告料는 京城綠星社에 問議하실事

大正八年十一月一日印刷
大正八年十一月五日發行

東京市神田區錦町二丁目三番地龍龍館內
發行兼編輯者 李海一
橫濱市根岸町三千二百五十七番地
印刷者 折坂友之
橫濱市山下町百〇四番地
印刷所 福音印刷合資會社

東京市神田區錦町二丁目三番地
發行所 綠星社
京城竹添町一丁目三九
發賣所 綠星社

제1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에서 태어난 쥬리오의 이야기이다. "소녀를 사랑하려다 사랑치 못하고 도로혀 그 사랑하는 소녀의 청을 드러서 한목숨까지 밧치엿다"는 식으로 사랑 때문에 목숨을 잃은 쥬리오의 비극적 이야기이다. 「위일손 대통령과 활동사진」은 활동사진 애호가 윌슨이 프랑스를 방문해서도 영화를 감상했다는 일화를 전하고 「세계일의 희극배우 잡후린 선생의 혼인」은 유명한 희극배우 채플린이 미모의 여성과 혼인을 했다는 뉴스를 들려준다. 「탐정소설 의문의 사(死)」[복면귀(覆面鬼)]는 미인이 죽은 사건을 설정하여 끝내 살인자를 찾아내는 탐정소설이다. 경찰이 혐의자를 풀어주는 척하고 미행하는 장면을 제시하고, "이하 차호"라는 말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편집을 맛치고서」에서는 이 탐정소설에 현상 100원을 걸고, "누가 진범일가 생각해 보서셔 만-이 응모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관심을 모으는 광고를 낸다.

『녹성』은 이와 같이 영화와 배우를 소개한 영화잡지다. 1923년의 『예원』, 1924년의 『애조』, 1926년의 『영화』, 1927년의 『키네마』 등으로 이어지는만큼 『녹성』은 영화잡지의 효시를 이루는 잡지로 평가된다. (해제: 강진호)

핵 심 어 녹성, 활동사진, 이일해, 장한가, 리타 죠리베

참고문헌

- 김종욱, 「창간호를 통해 본 한국 영화잡지 70년」, 『(격월간)영화』, 1993년 9월호~1994년 1월호.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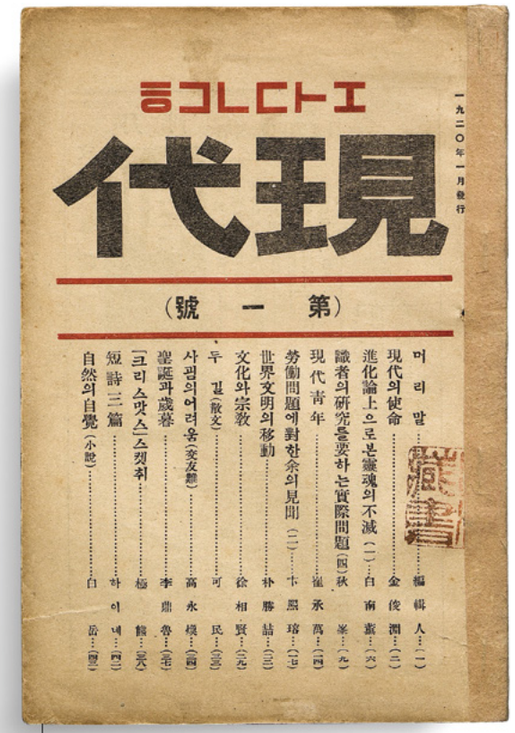
007 현대

現代
조선기독교청년회
1920. 1. 31 ~ 1921. 2. 5

『현대』는 일본 유학생 중심의 조선기독교청년회가 1920년 1월에 창간하여 1921년 2월 통권 9호까지 발간한 종합 잡지다. 『현대』는 조선기독교청년회가 1917년 11월부터 발행한 『기독청년』을 1920년 1월에 『현대』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했다. 창간호의 판권지를 보면, 『기독청년』의 발행인이었던 백남훈이 계속 편집 겸 발행인을 맡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인쇄인 오리사까(折坂友之), 인쇄소 후꾸인(福音)인쇄합자회사(橫濱市 山下町104), 발행소 조선기독교청년회(東京市 神田區 西小川町 2丁目 5), 발매소 영풍서점(경성·견지동 79), 발매소 덕창서관(浦鹽斯德市 213), A5판 48면, 정가 30전이다. 『현대』는 사회 평론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와 문예 관련 글을 담아 놓았고 매 호 10편에서 13편 정도의 글을 수록하여 50면 내외의 분량을 유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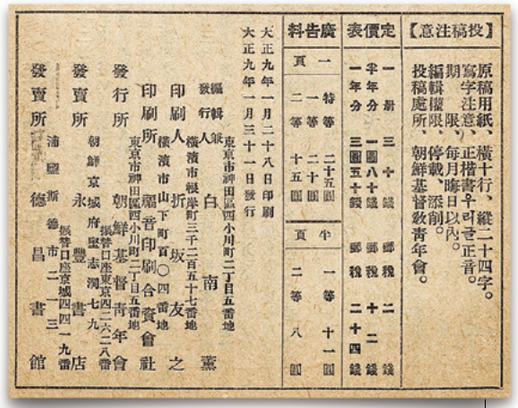
『현대』는 동경 유학생 조직인 학우회의 기관지 『학지광』과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가 발행한 『기독청년』과도 관련이 있다. 『기독청년』의 발행인 백남훈과 『현대』의 편집인으로 추정되는 최승만은 모두 학우회와 『학지광』의 편집에 관여했던 인물들이다. 『기독청년』의 주요 필진이었던 백남훈, 전영택, 김준연, 김영만, 정노식, 홍난파 등은 『학지광』의 필진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들은 『현대』의 주요 필진으로 옮겨갔다. 최승만은 회고록에서 "백남훈 총무가 지금까지 발간하던 8페이지의 『기독청년』이 너무 빈약하여 7, 80페이지의 잡지를 편집코자 하는데 이 일을 도와줄 수 없느냐"라는 제안으로 『현대』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는 기독교청년회의 기관지 성격의 잡지였으나 『기독청년』과는 달리 창간 초기부터 세계정세와 철학, 청년의 사명에 대해 프로파간다를 넘어선 글을 발표했고, 교리 설파보다는 종



제1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교 일반이나 사상 측면에서 접근한 기독교 관련 논설을 다수 실었다. 창간호 '머리말'에서 최승만으로 추정되는 '편집인'은 "세계대전이 정신상, 물질상—종교, 철학, 경제, 사회, 정치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주었다"며, 이제 "인도주의 아래서 세계를 표준으로 삼고 노력"하는 "가장 충실적이오 현실적인 새로운 생활 그야말로 현대적인 생활"로 '현대'의 이상을 밝히고 있다. 제1호의 서두를 장식한 「현대의 사명」(김준연)을 시작으로 「세계 문명의 이동」(박승철, 제1호), 「문화와 종교」(서상현, 제1호), 「진화론상으로 본 영혼의 불멸」(샌덜 랜드 강연, 백남훈 역재, 제1, 2호)과 「사회와 경제」(변희용, 제2호), 「시국의 변천과 세계 금융 시장」(김규호, 제2호)과 데모크라시에 관한 글 「개조의 근거」(최원순, 제5호), 「쌔락만씨의 연설」(쌔락만 연설, 유형기 역, 제6호), 「신세대의 요구에 응하라」(김종필, 제6호) 등에서 사회주의, 데모크라시, 개조, 진화론 등과 같이 세계와 사상으로 시야를 넓힌 사회 평론들을 볼 수 있다. 기독교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성격이 강한 「성탄과 세모」(이정노, 제1호), 「기독교의 전래와 인심의 동요」(박승철, 제5호) 등과 기독교 정신이 현대의 사상 문제를 해결할 정신적 방안이라고 주장한 「사회와 예수교」(김낙영, 제3호) 등이 있다. 또한 『현대』의 문예면 역시 제1호에서 번역시로 『단시 3편』(하이네)을 시작으로 「파우스트」(1, 2)(괴테, 극웅 역, 제2, 3호), 「어린 소크라테스」(톨스토이, 추호 역, 제3호), 「고향분지의 애가」(토마스 그레이, 제9호) 등 세계 문학 작품을 번역하여 소개했다. 또한 염상섭과 김동인의 근대 비평 논쟁을 촉발시킨 염상섭의 비평 「백악 씨의 자연의 자각을 보고서」와 「자연의 자각」(백악, 제1호) 역시 『현대』의 문예면에 소개되었다.



제1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현대』는 치안 문제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제4호와 현재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제7호를 제외하고 통권 9호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당시 『대중시보』의 광고에 『현대』 제10호의 발간 예정일과 목차가 실린 사실이나 수지가 맞지 않았다는 최승만의 회고로 보아 자금난 때문에 발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제: 유임하)

핵 심 어 조선기독교청년회, 기독청년, 학지광, 백남훈, 최승만

참고문헌

- 백남훈, 『나의 일생』, 신현실사, 1968.
- 서은경, 「1920년대 유학생 잡지 『현대』 연구」, 『우리어문연구』 54, 우리어문학회, 2016.
- 최승만, 『나의 회고록』, 인하대학교출판부,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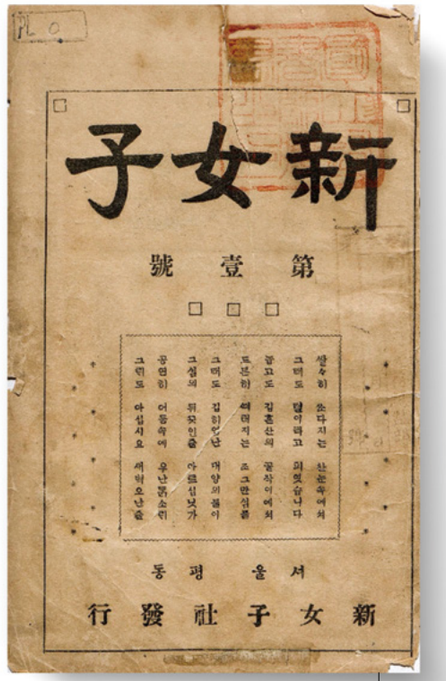
008 신여자

新女子
신여자사
1920. 3. 10 ~ 1920. 6. 20

1920년 3월에 창간되어 6월까지 4호가 발간된 여성 월간 잡지다. 창간호의 발행인은 주소지가 경성부 정동 34번지로 나와 있는 '쎌닝쓰 부인(Mrs. Bilings)'이고, 편집인은 주소지가 경성부 평동 27번지로 되어 있는 김원주이다. 인쇄소는 박문관인쇄소이고 발행소는 경성부 평동의 신여자사였다. 2호부터 4호까지는 '쎌닝쓰 부인'이 편집 겸 발행을 담당했다. "부녀잡지"를 표방한 만큼 창간호의 발간 취지서에서도 부녀의 견문을 넓히고 계몽하는 데 잡지 발간의 취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창간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개조와 해방인데, 이는 사회 개조와 여성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잡지 창간호의 표지에 실려 있는 7·5조 창가의 마지막 구절 "공연히 어둠속에 우난둙소리/ 그리도 아십시요 새벽오난줄"에도 이 잡지가 어둠 속에서 새벽을 깨우는 닭소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창간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한자 사용 빈도가 높은 것도 이 잡지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데, 이후의 여성지에서 한글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때 이는 근대 초기의 여성지가 갖는 과도기적 특징이자 독자를 고려하지 않은 한계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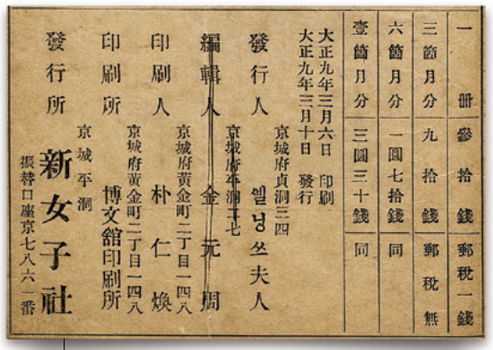
『신여자』는 대체로 논설과 시·소설 등의 문학작품, '편집여언'이라는 편집후기로 이루어져 있다. 창간호의 경우 여기에 창간사, 『신청년』·『개척』 등에서 보내온 축사, 전기에 해당하는 글 「여자 교육계의 대은인 메례 라욘여사전」(박인덕 번역) 등이 실려 있다. 2호부터는 '머리에씀'이라는 권두언의 성격을 지니는 글이 실렸다.

창간호의 논설로는 사설의 성격을 지니는 「신여자의사회에대ᄒᆞᆫ책임을논함」과 '현대의남자ᄂᆞᆫ엇더ᄒᆞᆫ여자를요구ᄒᆞᄂᆞᆫ가?'라는 기획에 실린 양백화의 「내가 요구하는 칠개조」와 이동원의 「나는이러ᄒᆞᆫ여자를!」, 그리고 주은월의 「현대가요구ᄒᆞᄂᆞᆫ신가정」 등의 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여성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남성이 원하는 여성상을 제시함으로써 다소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현모양처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2호의 논설 「우리신여자의요구와주장」에서는 신여자들에게 전설적·인습적·보수적·반동적인 구사상에서 벗어나자고 좀 더 강경한 어조로 제안하였다. 그 밖에도 홍영숙의 「자연과인생」, 김활란의 「남녀동등문제」, 정종명의 보고문 「간호부생활」을 주목할 만하다. 2, 3, 4호로 갈수록 창간호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신여성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난다. 3호의 논설로는 「여자의자각」이 우선 눈에 띄는데, 노예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자의 자각이 필요하고, 여자의 무책임·무교육·무직업이 개선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일정의 「여자교육복권론」, 유각경의 「소녀의책임론」, 손정순의 「사회적건강에대ᄒᆞᆫ우리의책임」 등도 주목할 만하다. 계뫼의 「여자가본현대남자」, 김애은의 「청년남자에게」 등에서는 남자들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고 행동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4호에 실린 논설 중 엠마율 여사의 「반도여자계의선구 『신여자』를위ᄒᆞ야」에서는 가정을 토대로 여성 교육과 계몽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활란의 「남자의반성을촉함」은 남자를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춘 3호의 논설들의 뒤를 이었다.



제1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문학 작품으로는 시와 소설이 꾸준히 실렸다. 시 작품으로 심해자의 「우리의화원」, 방순자의 「새벽의덜」, 「수향의황혼」, 무명 시인의 「봄의 옴」, 근아의 「생의애」, 「신년의신가」, 「달가온대


一冊參拾錢 郵稅一錢
三箇月分 九拾錢 郵稅無
六箇月分 一圓七拾錢 同
壹箇月分 三圓三十錢 同
大正九年三月六日 印刷
大正九年三月十日 發行
京城府貞洞三四
發行人 엘닝쓰夫人
京城府本洞十七
編輯人 金元周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四八
印刷人 朴仁煥
京城府黃金町二丁目一四八
印刷所 博文館印刷所
京城平洞
發行所 新女子社
振替口座京七八六一番

제1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먹뎜」, 추담의 「미스아편설라송별가」, 허영숙의 「처음사랑」 등이 실렸다. 김일엽(김원주)은 「계시」, 「어느소녀의사」 등의 단편소설과 「어머니의무덤」, 「동생의죽음」 등과 같은 수필을 발표했다. 그 밖에도 물망초(김명순)의 소설 「처녀의가는길」, 나혜석의 수필 「사년전일기중에서」가 눈에 띈다.

『신여자』는 이화형·유진월의 판단처럼 "여성의식을 가지고 기획한 최초의 여성 잡지"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문제의식에 의해 여성의 힘으로 창간되었고 여성 해방이라는 명확한 편집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자계』와 구별된다. 개조와 해방을 내세우며 부녀 계몽에 목소리를 높인 여성지 『신여자』는 김일엽, 김명순, 나혜석 등의 1세대 여성 작가들의 시와 소설, 수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면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 밖에도 김활란, 허영숙, 박인덕 등 신여성의 글이 실렸다. 여성지를 표방하면서도 남성들이 기대하거나 바라보는 여성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점은 『신여자』의 한계이다. (해제: 이경수)

핵 심 어 부녀잡지, 김원주(김일엽), 김명순, 나혜석, 김활란, 허영숙, 박인덕, 신여성

참고문헌

- 서정자, 「일엽 김원주·『신여자』·그의 사상 다시 읽기」, 『나혜석연구』 2, 나혜석학회, 2013.
-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출간과 그 의의」, 『비교문화연구』 5, 경희대학교 부설 비교문화연구소, 2002.
- 유진월, 『김일엽의 〈신여자〉 연구』, 푸른사상, 2006.
- 이화형, 유진월, 「〈신여자〉와 근대 여성 담론의 형성」, 『어문연구』 31-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009 여광

麗光
여광사
1920. 4. 5 ~ 1920. 6. 27

『여광』은 1920년 4월 5일 개성에서 발행된 잡지다. 표지에 잡지의 영문명을 'The Light of Korea'라고 붙였고 바로 밑에 '문예잡지'임을 기재하였다. 표지에 '대정 9년(1920) 4월 5일 발행'이라고 기재했고 판권에는 3월 31일 인쇄했다고 표기해 놓았다. '연 6회 발간', '격월 1회 1일 발행'을 내세웠으나, 그해 6월에 나온 제2호까지만 남아 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우관형(禹觀亨), 인쇄인은 최성우(崔誠愚), 인쇄소는 신문관(新文館, 경성부 황금정 2정목 21번지: 을지로2가 21), 발행소는 여광사(개성 만월정 644번지)로 되어 있다. 총판은 숭남서관(崧南書館, 개성 남대문 내)이 맡았다. 잡지 운영은 사장인 이만규와 총무 우관형이 담당했다. 편집은 고한승과 우관형이 주도하였으며 임영빈과 마상규(마해송)가 편집을 도왔다. 판형은 A5판 40면으로 잡지 가격은 30전으로 정했다. 제자(題字)는 고석후(高錫厚)가 맡았다.

2호에 오면 발행인의 주소가 경성부로 바뀌었으며, 가격이 평호는 35전, 특대호는 50전으로 인상되었다.

2호에 수록된 「독자 제위에게 문안」에는 '여광사'의 직책과 인물의 면면이 상세하게 부기되어 있다. 창간호와 2호에서는 당시 송도고보 교유(敎諭)였던 이만규(李萬珪), 마해송(馬海松), 고한승(高漢承), 진장섭(秦長燮) 등이 주요 필진을 이루었다.

「여광에 대하야」(6쪽)에서 이만규는 천 년 전 국도(國都)였던 개성과 연관지어 잡지의 지향점을 밝혔다. 이 글에서 이만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고유한 품성을 기르고 지방문학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지역적 고유성이 서구문학의 기준을 넘어선 소중한 유산임을 강조하였다.

제1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이처럼 『여광』은 개성의 역사성과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삼고 '예술로서의 문학'과 '신문물로서의 문학'을 표방했다.

목차를 살펴보면, 시와 소설의 양식을 부기하여 여타 양식과 차별화하고 있으며 논문과 비평, 서간과 감상 등의 '보통문'에는 따로 양식 표기를 병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편집 방식은 『여광』이 동인지로서 시와 소설을 신문물로서의 근대문학으로 취급하고자 한 의식의 일단을 보여준다. 2호에도 이와 같은 편집 방식은 존속되었다. 2호에서는 수 편의 시·소설·희곡 작품 외에 다수의 기행문, 최남선의 『시문독본』의 내용 등을 수록해 놓았다.

2호에 수록된 진장섭의 기행문 「야마구치[山口]에서 송도(松都)까지」는 당시 『신청년』 주필이

제1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었던 소파 방정환과의 동지적 관계를 보여준다(이경돈: 84). 일본 야마구치를 출발하여 경성을 거쳐 송도에 이르는 진장섭의 귀국 행로에서 그를 맞이해준 이들은 우관형, 고한승, 철연을 비롯한 동인과 학우들 그리고 방정환이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이들의 관계로 미루어 보면, 『여광』의 필진이 『신청년』의 필진과 직접 연계되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다. 1923년 조직되는 색동회의 발기인이기도 했던 진장섭, 훗날 가입한 고한승, 마해송 등이 그들이다. 또한 2호에 수록된 마해송의 「고(故) 원약(圓約) 선생을 조(弔)함」이라는 만가 또한 주목해볼 사례이다. '원약'은 중앙학교 재학 시절의 조선어 선생이었던 '이규영'이다. 심훈이 그를 애도하며 소설 「생리사별」을 썼던 점을 감안하면, 마해송과 이규영의 고리 안에 심훈, 주시경, 최남선 등과 같은 당대 지식인들이 연결되어 있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여광』은 3·1운동 이후 꽃피운 잡지의 시대에 '개성'을 거점으로 한 지역 동인지이자 근대 초기의 순문예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해제: 유임하)

핵 심 어 여광, 신청년, 개성, 지역 동인지, 순문예지, 색동회

참고문헌

- 이경돈, 「동인지 '여광'의 문학과 정체성의 공간」, 『한중인문학』 26, 한중인문학회, 2009.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10

문우

文友
문흥사
1920. 5. 15 ~ 미상

1920년 5월 15일 창간된 잡지로, 정확한 폐간 시기는 알 수 없다. 표지 오른쪽의 인쇄 및 발행일 아래 '(年四回 無定期 發行)'이라는 기록이 있어, 계간지 간행을 목표로 했음을 알게 한다. 편집 발행인은 이병조(李秉祚), 인쇄인은 김중환(金重煥), 인쇄소는 대동(大東)인쇄주식회사, 발행 겸 총 판매소는 문흥사(文興社)다. 출판사 주소는 경성부 송현동(松峴洞) 40번지이며, 분량 54면에 정가는 일책(一冊) 30전이다.

표지 상단부에는 붉은색 바탕 속에 흰색의 제호 '文友'가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다. 그 아래 작은 글씨의 '第一號'와 더불어 11꼭지의 잡지 목차를 인쇄하여 독자가 실린 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아래 '서울·文興사·發行'을 배치했다.

「편집여백」에 "어둔 밤 폐원(廢園)에 말할 수 업는 고(苦)…애(哀)에 울며 떠러져 흣터진 힌꼿 언덕에 부즈럽시 예술의 단 향(香)냄새를 차저 타오르는 불꼿 법열(法悅)의 동경(憧憬)에 밝아 버슨 발로 방황하는 이 무리 울음만코 우슴만은 4252년 동안을 등진 4353년의 첫날에 저 싼에는 어둔 가슴에 불 붓혀 넘처 터지는 붉은 노래를 소리처 놉히 올흐랴 하였던 것"이라는 창간의 소회가 낭만적인 수사로 토로되고 있다.

창간호에는 시, 소설, 평론, 번역문이 골고루 실려 있다. 시로는 소아(笑啞) 홍사용(洪思容)의 「크다란 집의 찬 밤」, 「철모르는 아희가」, 월탄(月灘) 박종화(朴鍾和)의 「왜 이리 슯허?」, 「제야(除夜)에」, 「미친 구름」, 이동원(李東園)의 「차고 밝은 달아」, 「눈의 키쓰」 등이, 소설로는 묵소(默笑) 정백(鄭栢, 본명 정지현)의 「二十一日(21일)」, 박종화의 「백열(白熱)」 등이 소개되었다. 산문으로는 외돗 이서구(李瑞求)의 「첫 빗」, 평론으로는 박종화의 「샘볼리슴(象徵主義)」, 최정묵(崔鼎默)의 「신시대와 신생활」, 차동균(車東均)의 「문예부흥 이후의 문예사조 변천과 우리의 목표」 등이 실렸다. 특히 박종화와 홍사용의 이름에서 『문우』가 감상적 낭만주의를 표방하다 휩쓸려간 『백조(白潮)』(1922)의 전조를 드러낸 잡지였음을 알게 된다.

제1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한편 『문우』에는 조선공산당 맹원 박헌영(朴憲永)이 로엘(로웰)의 「나의 읽은 중에서」와 휠잇트맨(휘트먼)의 「청년은 주(晝) 노년은 야(夜)」를 번역·소개한 것이 눈에 띈다. 로웰의 시편은 부자와 빈자의 상반된 처지를 대조하며 빈자의 '근로'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휘트먼 시에는 "감옥의 가자(歌者) 이하 45행은 당국의 기휘(忌諱)에 인하야 삭제되다"라는 알림이 적혀 있다. 하지만 휘트먼의 시는 청년과 노년, 낮과 밤의 대비를 통해 험난한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밝은 미래를 꿈꾸는 이상주의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을 따름이다. 내용만 따진다면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로웰의 주장이 일제의 식민정책에 더욱 반한다. 일제의 검열과 삭제 조치가 휘트먼의 시보다 박헌영의 불온성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제1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문우』의 필자명은 박헌영을 제외하고는 필명이나 호로 일관했다. 이는 전문 작가로서의 자의식이 미약했음을 드러내는 요소로 해석될 수 있긴 하지만 사회주의 성향의 글이 실렸음을 감안하면, 필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다는 판단도 가능해진다. 『문우』와 『백조』 그리고 경향문학을 연결 지으면 이러한 판단은 억측만은 아니다. (해제: 최현식)

핵 심 어 박종화, 홍사용, 박헌영, 낭만주의, 사회주의

참고문헌

- 이경돈, 「동인지 『文友』와 다점적 혼종의 문학」, 『상허학보』 28, 상허학회, 2010.

011 학생계

學生界
한성도서주식회사 / 조선학생회
1920. 7. 1 ~ 미상

『학생계』는 한국 잡지사에서 학생잡지 시대의 서막을 여는 데 크게 기여한 잡지다. 1920년 7월 1일에 창간된 『학생계』는 현재 1925년 2월까지, 최소한 통권 23호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1925년 2월 15일자 《동아일보》 3면의 하단에는 "신춘호 금일 출래(新春號 今日 出來)!"라는 제목 아래 『학생계』의 목차와 함께 그 발간 광고가 게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간 당시에 『학생계』의 편집 겸 발행인은 오천석이었고, 인쇄인은 박인환이었다. 발행소는 한성도서주식회사였고, 인쇄소는 조선박문관인쇄소였다. 그런데 『학생계』의 편집주간이었던 오천석이 미국 유학을 떠난 후에는 최팔용이 그 후임자로서 통권 7호(1921년 4월호)부터 『학생계』의 편집을 책임졌다. 최팔용 이후에는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전무였던 이종준이 『학생계』의 편집 겸 발행인을 맡기도 했다. 아울러 『학생계』가 조선학생회의 기관지가 되면서부터는 이시웅이 『학생계』의 편집 겸 발행인이 되었고, 발행소도 한성도서주식회사에서 조선학생회로 바뀌었다. 여러 가지 변동 상황 속에서도 『학생계』의 총판은 줄곧 한성도서주식회사가 맡았다.

『학생계』는 진보와 문화의 증진을 사시로 내걸었던 한성도서주식회사가 선보인 첫 번째 잡지였다. 한성도서주식회사는 기존의 출판사와 다르게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기업의 형태로 출판업을 개시한 출판사로 알려져 있다. 처음부터 출판업을 전문 사업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출판업의 전문성을 끌어올리고자 했던 것이 한성도서주식회사였던 것이다.

이러한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시야에 전문 학생잡지가 부재했던 현실이 포착되었다. "남과 같이 살려 하면 반드시 남과 같이 지식을 배워야 하겠으니, 남과 같이 알아야 하겠으니 어허! 슬프도다. 우리 조선인 자녀에게는 완전한 가정교육이 있느뇨, 충실한 학교교육이 있느뇨,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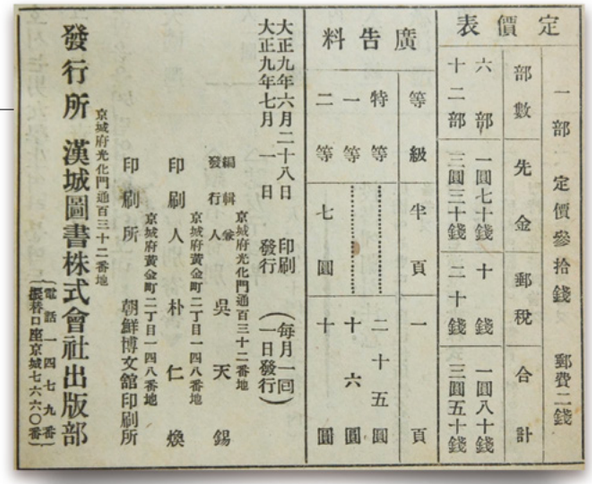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서울대학교 소장

정하는 사회교육이 있느뇨, 돌아볼지로다." 이와 같이 당대의 열악했던 교육 현실을 타개한다는 명분 아래 기획된 것이 바로 『학생계』였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고자 『학생계』가 주력했던 것은 지식의 습득과 인격의 수양이라는 일종의 교양주의였다. 계몽과 수양의 필요성을 설파하는 논설과 함께 근대지식과 문학이 『학생계』가 추구한 교양주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특히 『학생계』는 동서양의 위인을 지속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물의 롤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근대적 인간상에 주목했던 『학생계』의 편집방침은 초기에 위인전기물 출판에 주력했던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출판기획과 맞닿아 있기도 했다. 『학생계』의 주요 필자는 노자영, 오천석, 이종준, 김억, 장도빈 등이었다.

아울러 『학생계』는 현상문예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한국 근대문학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학생계』 현상문예는 시와 소설, 감상문 등에 한정되어 운영되었다. 시에는 김억, 소설에서는 오천석, 감상문에서는 노자영이 심사자로 활동했다. 『학생계』에 현상 당선 발표작이 많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학생계』의 현상문예는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생계』는 현상문예 외에도 "특별기서란(特別寄書欄)"이나 "지우구락부란(誌友俱樂部欄)"도 설치하여 학생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이와 같은 한국 근대잡지사에서 『학생계』의 중요성은 잡지 제목이 보여주는 그대로 학생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있다. 물론 『학생계』 이전에도 학생을 상대로 했던 잡지는 여럿 있었다. 1900년대를 장식했던 학회지들을 비롯하여 최남선의 『소년』과 『청춘』, 이와 경쟁했던 『신문계』, 그리고 『학지광』으로 대표되는 일본 유학생 잡지들 모두가 가장 중요한 독자로 상정했던 것이 학생이었다. 그러나 기존의 그 잡지들은 단지 학생만을 상대했던 잡지가 아니었다. 사실 그 잡지들은 학생을 포함한 청년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학생'을 명시함으로써 교육제도 안에 있는 학생을 분명히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학생계』의 고유한 특색이다. (해제: 유석환)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핵 심 어 학생잡지, 교양주의, 현상문예, 한성도서주식회사, 조선학생회

참고문헌

- 강명숙, 「미국 유학 이전 천원 오천석의 수학과 사회활동: 잡지 『개척』, 『학생계』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39-3, 한국교육사학회, 2017.
- 노춘기, 「잡지 『학생계』 소재 시 작품 연구: 주필진과 독자의 영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38, 한국시학회, 2013.
- 박지영, 「잡지 『학생계』 연구: 1920년대 초반 중등학교 학생들의 '교양주의'와 문학적 욕망의 본질」, 『상허학보』 20, 상허학회, 2007.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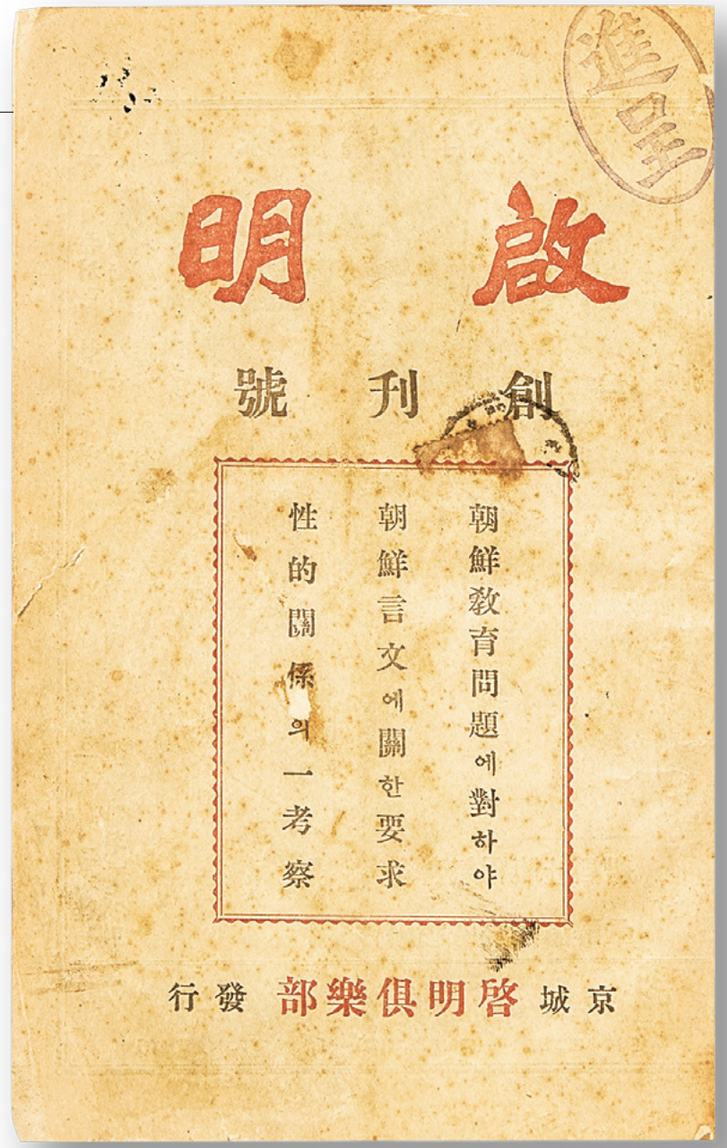
012 계명

啟明
계명구락부
1921. 5. 1 ~ 1933. 7. 31

『계명』은 경성의 계명구락부가 발행한 잡지로 1921년 5월에 월간지로 창간하였고 1933년 7월에 종간하였다. 월간지임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25호만 발간된 것은, 12호가 1922년 10월 발행된 반면 14호는 1926년 10월에 발행되는 등 중간에 휴간 기간이 몇 차례가 있었고, 1931년 발행된 21호 이후에는 비정기적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계명구락부는 사교모임 한양구락부의 후신으로 사회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창간한다는 취지를 창간사에서 밝혔다. 6편의 논문과 2편의 연구 그리고 소설 2편 등으로 시작한 『계명』은 그 표지에 「조선교육문제에 대하여」, 「조선언문에 관한 요구」, 「성적 관계의 일고찰」 등 논문 3편 제목을 제시하며, 잡지의 성격이 문예지보다는 종합지를 지향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독자 투고 안내' 면에 밝힌 모집 분야는 논문, 시가소설, 감상문이었으나, 논문이나 논설 위주의 기조는 종간호 25호까지 지속되었다. 창간호는 판권과 한일은행 광고 포함 68면이고 정가 30전이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남상일(南相一), 인쇄인은 최성우(崔誠愚), 인쇄소는 신문관(新文館), 발행소는 계명구락부였다.

초기 필자로는 사회 계몽 메시지를 전한 안국선(安國善)과 언문 분야의 특질을 탐구한 박승빈(朴勝彬)이 눈에 띈다. 그리고 안서(岸曙 : 김억)의 시 번역도 지속되었다. 1926년 14호부터는 최남선, 홍명희, 이광수, 변영로 등의 필자가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심훈이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분량은 50면 내외를 유지하다가 비정기적으로 내기 시작한 1927년부터 크게 늘어났다. 최남선의 주도로 삼국유사 특집을 엮은 18호는 184면, 샤머니즘 특집과 「금오신화」 원문을 소개한 19호는 169면이다.



창간호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先金
部數 一部 三部 六部 十二部
定價 三十錢 八十錢 一圓五十錢 二圓八十錢
送料 二錢 五錢 十錢 二十錢
每月一回一日發行
廣告料金 特等全頁二十圓、一等全頁十五圓、二等全頁十圓、半頁各等四割減
代金은 總히 先金을 要하며 郵券代用에는 一割增
外國付送料는 一部金拾錢
大正十年四月三十日印刷
大正十年五月一日發行
京城府仁寺洞一五二啓明倶樂部內
編輯兼發行人 南相一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十一番地
印刷人 崔誠愚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十一番地
印刷所 新文館
京城府仁寺洞一五二
發行所 啓明倶樂部
不許複製

창간호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수록된 글들은 여성, 자본주의, 언문, 의상, 실업, 이용후생 등 당대 문제점들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최남선이 주요 필자로 참여하는 중기부터 여러 방면의 조선 역사에 대해 다루기도 하였다. 변호사, 은행원, 의사 등 당대 사회 지도층으로 구성된 '계명구락부'가 독자들을 계몽하기 위한 의도로 『계명』을 창간한 것임을 이런 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제: 김종훈)

핵 심 어 계명구락부, 한양구락부, 삼국유사, 금오신화

참고문헌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13 신천지

新天地

신천지사

1921. 7. 10 ~ 미상

『신천지』는 192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잡지 『신생활』과 함께 필화사건에 휘말렸던 일로 널리 알려진 시사종합지다. 1921년 7월 10일에 창간된 『신천지』가 1924년 5월까지 최소한 통권 15호가 발행된 것을 신문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간 당시에 『신천지』의 편집 겸 발행인은 백대진이었고, 인쇄인은 최성우였다. 백대진은 주간으로도 활약했다. 신천지사의 사장은 오상은이었다. 『신천지』의 발행소는 신천지사였고, 인쇄소는 신문관이었다.

『신천지』는 중성(衆性), 평등, 자유, 겸양, 공제(共濟) 등의 기치를 내걸고 낙후한 구세계의 문명을 타파하고 이상적인 신세계의 문명을 수립하는 것을 천명했다. 특히 "민족적 자각을 촉진함이 본보의 사명", "정치적 사상을 함양함이 본보의 목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시사종합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했다. 실제로 『신천지』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조론, 기독교 및 천도교 등의 종교, 동서양의 철학, 각국의 사회운동 및 독립운동 등 당대에 회자되던 이슈들을 고루 다루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롱펠로우의 시를 비롯하여 홍난파의 연애소설이나 예술가소설 등도 『신천지』의 내용을 풍부하게 했다.

이렇게 『신천지』가 무엇보다 "정치적 사상을 함양함"을 자유롭게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시사종합지로서 발행될 수 있었던 까닭은 『신천지』가 여타의 잡지와 다르게 발간된 잡지였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은 두 가지 법에 기초해서 잡지를 발행할 수 있었다. 하나는 신문지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출판법이었다. 신문지법에 의해 발행 허가를 받은 잡지는 신문처럼 시사와 정치, 요컨대 정론(政論)을 취급할 수 있었는데 반해 출판법에 의해 발행 허가를 받은 잡지는 정론 외의 내용만 다룰 수 있었다. 일제는 정론을 엄격히 통제했기 때문에 신문지법에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해 발행이 허가된 잡지는 몇 종에 불과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개벽』과 『신생활』, 『조선지광』 등이 이른바 신문지법 잡지였는데, 『신천지』도 그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하지만 『신천지』는 창간호 때부터 창간사를 비롯한 여러 편의 기사들이 검열 때문에 삭제당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 채 발행되었다. 당연히 그러한 검열의 흔적은 『신천지』가 발행되는 내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 『신천지』의 운명을 결정한 필화사건이 발생했다. 1922년 11월호(통권 6호)의 기사 하나가 그 도화선이 되었다. 그 기사는 백대진의 「일본 위정자에게 여(與)하노라」였다. 조선총독부는 백대진의 기사가 조선 독립의 사상을 고취하여 정치의 변혁을 선전하고 조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신천지』에 발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기사를 집필했던 백대진은 1923년 1월 31일에 징역 6개월이 확정되어 결국 1923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감당해야 했다.

신천지사는 『신천지』의 실질적인 편집을 맡았던 백대진의 공백을 메꾸면서 어떻게든 『신천지』의 발행을 이어나가려 했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았다. 조선총독부의 탄압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신천지』는 또 한 번의 필화사건을 겪었고, 마침내 1924년 2월과 5월에 속간호로 발행된 두 호를 끝으로 잡지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신천지』는 일제의 검열 때문에 그 목적한 바를 실현하지 못하고 단명한 시사종합지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신천지』는 같은 시기에 탄압을 받았던 『신생활』과 함께 일제 검열의 역사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잡지가 되었다. 당시에 일제는 『신천지』를 통해서는 독립 사상에 대해, 『신생활』을 통해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경고를

노골화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일제강점기에 합법적으로 발행하려는 모든 인쇄물은 그 두 가지 내용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해제: 유석환)

핵 심 어 신문지법 잡지, 백대진, 필화사건, 신사회

참고문헌

- 김근수, 『한국잡지연구』, 한국학연구소, 1992
- 장신, 「1922년 잡지 신천지 필화사건 연구」, 『역사문제연구』 13, 역사문제연구소, 2004.
-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14 숭실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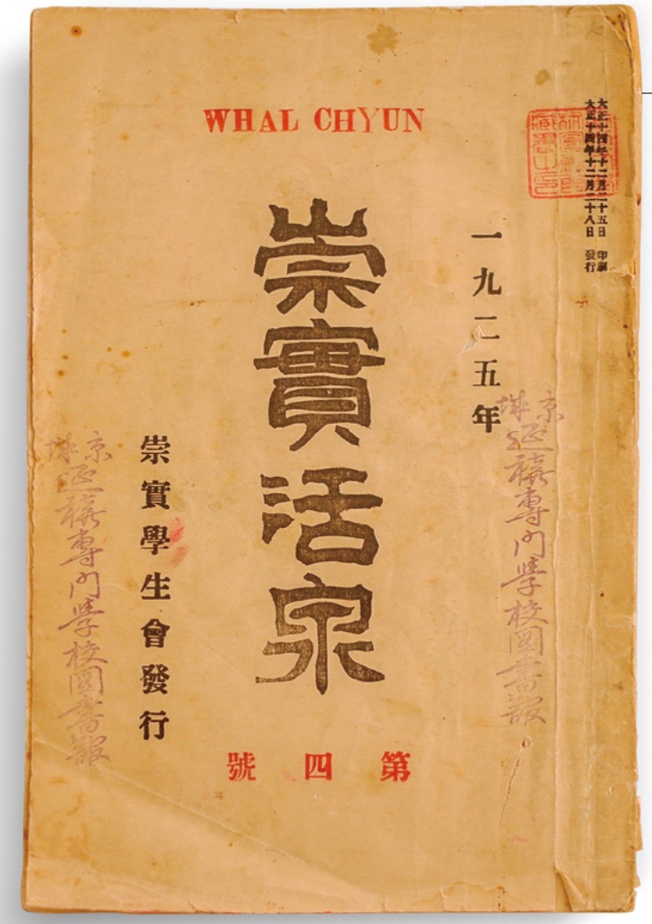
崇實活泉
숭실학생회
창 · 종간일 미상

『숭실활천』은 1922년 평양의 숭실학교가 창간한 교지로, 대개 일 년에 한 회씩 발행하였으며 현재 1935년 15호까지 확인할 수 있다. 교지에 수록된 분야는 학술, 논문, 종교, 문예 등이었으며, 숭실학교 원고를 편집한 부서는 학생회 지육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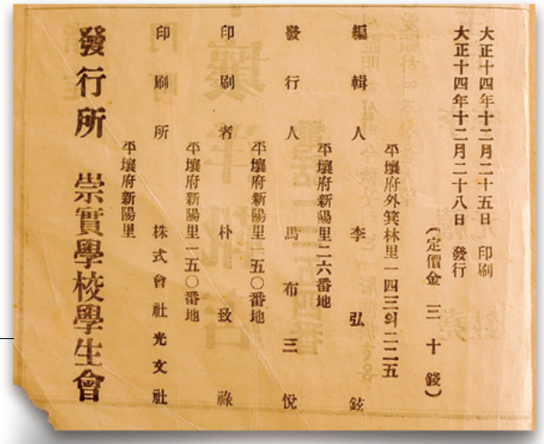
1925년 발행한 4호와 1927년 발행한 5호의 편집인은 지육부장 이홍현, 발행인은 학교장 마포삼열(마펫)이었고 정가는 30전이었다. 1932년 12호의 발행인은 윤산온(맥큔), 정가는 25전, 총 150면이고 발행소는 숭실학교학생 YMCA 지육부였다. 책자의 분량은 대개 100~200면이었으며, 논문, 문학 작품, 기행문, 체험기 등이 실려 있다. 『숭실활천』 표지에는 그림 없이 '崇實活泉'이란 잡지명이 가로로 표기되었다가 이후 세로로 표기되기도 했다.

1927년에 간행된 제6호는 30면에 걸쳐 톨스토이 특집을 다루었는데, 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졸업생 등의 글도 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폐교 3년 전인 1935년의 15호에는 조만식 동문의 글과 당시 3학년생인 윤동주의 시도 실려 있다. 8호에는 학교 연혁 특집호가 실렸고 12호에는 숭실학교 4학년생이자 편집을 담당했던 지육부의 일원인 황순원의 글이 실렸다. 숭실학교 출신의 문인 중 『숭실활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필자는 김조규, 윤동주, 김현승, 황순원 등이다. 이는 현재 유실된 호가 많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어려운 까닭도 있지만 필명을 사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숭실활천』 초기에는 소설이 한두 편 실렸으나 중기 이후에는 네 편 이상 실렸다. 이중 황순원의 「남경충:빈대」는 200자 원고지 60매 가량의 단편 소설로 주목할 만하다. 한 하숙방에 지주의 아들 인보와 무산자 계급의 학일이 지내면서 빚어내는 갈등을 그린 이 소설은 둘이



제4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제4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싸우고 헤어지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 '남경충'이라는 '빈대'는 실제 학일의 밤잠을 괴롭히는 곤충이자 낮에 그를 괴롭히는 자본가를 비유한다.

시의 경우 김조규는 12호에 「이날도 저들의 가슴엔」 외 2편, 15호에 「북으로 띠우는 편지」 외 1편을 실었고, 윤동주는 제15호에 「공상」이라는 시를 실었으며, 황순원은 15호에 「봄을 압두고」 외 1편을 실었다. 한편 김현승의 연보에는 「화산」이라는 시를 교지에 발표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현재 남아 있는 잡지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으며, 또한 70여 행의 장시 「쓸쓸한 겨울 저녁이 올 때 당신들은」을 교지에 투고했으나 양주동 교수의 권유와 추천으로 1934년 《동아일보》에 실었다는 회고가 남아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문인의 산실로서 『숭실활천』이 지닌 위상이다. (해제: 김종훈)

핵 심 어 숭실학교, 지육부, 황순원, 윤동주, 김조규

참고문헌

- 숭실100년사편찬위원회, 『숭실100년사1』, 숭실학원, 1997.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15

부인

婦人
개벽사
1922. 6. 1 ~ 1923. 8. 10

1922년 6월 1일자로 개벽사에서 창간해 1923년 8월호까지 통권 14호를 발행한 여성 잡지다. 편집 겸 발행인은 이돈화, 인쇄인은 민영순, 인쇄소는 신문관, 편집 주임은 현철(현희운)이었다. 1922년 9월에 발간된 제4호부터는 편집 주임이 박달성으로 바뀌었다. 잡지 발행의 실무는 편집 주임이 대부분 맡아 한 것으로 보인다. 1922년 12월에 발간된 제6호는 11·12월 합병호의 성격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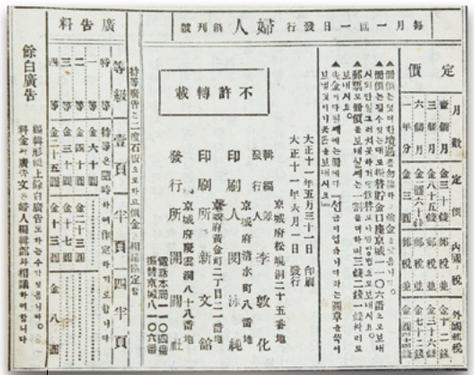
창간호는 A5판 100쪽 미만으로 정가 30전이었다. 주 독자층이 구여성인 점을 고려하여 국문체 위주의 표기법을 취했고 어려운 말 옆에는 한자를 병기했다. 판권장에 광고료 설명이 붙어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며, 표지화로 한복을 입은 부인의 얼굴을 컬러로 그려 놓아 상업 여성지를 표방했다. 1920년 6월 25일 천도교 측은 『개벽』 창간호를 내고 이후 『개벽』을 발행하면서 따로 여성 잡지를 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부인』을 간행하게 되었다. 특히 창간호는 '지식 없는 부인'을 독자층으로 해서 현철이 책임 편집을 맡아 간행하였다. 『부인』은 일반적으로 『신여성』의 전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경에 따르면, 『부인』은 교육받지 않은 구여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삼은 잡지였는데 사실상의 독자였던 신여성들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12호부터 나혜석, 김일엽 등의 신여성 필진을 추가하는 등 논조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다가 결국 근대 교육의 혜택을 받은 신여성을 대상으로 한 잡지 『신여성』을 내게 된 것이다.

『부인』은 머리말, 기사, 잡문, 소설·창가·가극 같은 문학작품 등으로 구성되었다. 부인층의 계몽을 목적으로 발간한 잡지이다 보니 한자 사용을 자제하고, 논설 같은 시사적이고 어려운 글보다는 생활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는 기사문을 주로 실었다. 『부인』은 출판법으로 허가를 받은 잡지로 사전 검열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시사적인 글을 싣는 데 제약이 있었다. 매달 1일이 발행일이었으나 실제로는 검열이나 필자 사정 등으로 인해 늦게 발간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주요 필진은 이종린, 이돈화, 현희운, 김병준, 박사직, 춘파(박달성), 방정환, 묘향산인 등으로 『개벽』의 필진과 상당 부분 겹친다. 창간호에 실린 춘파의 「어머님께 엿줍든그대로」에서는 『부인』의 특징으로 "순전히 조선글로 아주 알아보기 쉽게" 만들었다는 점, "아무리 지식 없는 부인이라도 다 알아보게 재미있고도 유익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부인』을 읽으면 부인의 도리를 알게 되고, 남편을 잘 섬기며, 살림살이를 잘하고, 아이를 잘 기르며, 손님 접대나 위생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된다고 그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양처현모로 계몽하기 위한 것이 『부인』 발간의 취지였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부인들에게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거나 그들을 계몽하는 성격의 너무 어렵거나 무겁지 않은 글이 『부인』에 수록된 글의 주된 특징을 이룬다. 삽화나 사진 자료가 많이 쓰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인 점도 눈에 띈다. 이후 여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집 체제나 특징이 『부인』에서도 발견된다. 문학작품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매호 한 편 정도 소설이 실리다가 제3호에서 현철이 '효성'이라는 필명으로 장편소설 「녀자의길」을 연재하기 시작하였으나 짧은 분량이 한 번 실렸을 뿐이다. 이후 소설 대신 '녯날이약이'로 대체되기도 했다. 『부인』에 수록된 소설로는 상일의 「자장가」, 리석정의 「미친놈」, 효성의 「녀자의길」, P생의 「가난에쪼낀자」, 정병순의 「칠호실」, 최웅남의 「사랑의○」, 우춘의 「동무를쌀하」 등이 있는데, 본격 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양질의 면에서 부족한 무명작가의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지식 없는 부인이라도 다 읽을 수 있는 잡지를 표방한 『부인』은 현모양처를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내세우며 부인을 계몽해 건전한 가정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러한 까닭에 여성지임에도 신여성을 필자로 거의 활용하지 않았고, 남성 필진들을 중심으로 남성들이 바라는 여성상을 제시하는 데 그쳐 시대착오적인 한계를 드러냈다. 편집진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독자층이었던 신여성들이 잡지의 논조에 불만을 드러내며 개선을 요구하면서 『신여성』으로 탈바꿈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은 흥미롭다. (해제: 이경수)

핵 심 어 개벽사, 여성 잡지, 현철, 이돈화, 구여성, 현모양처, 신여성

참고문헌

- 이상경, 「『부인』에서 『신여성』까지-근대 여성 연구의 기초자료」, 『근대서지』 2, 소명출판, 2010.
- 이상경, 「근대 문헌에 대한 열정과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부인』과 『신여성』 완질 영인본」, 『근대서지』 5, 소명출판, 2012.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16

동명

東明
동명사
1922. 9. 3 ~ 1923. 6. 3

『동명』은 동명사가 발행한 타블로이드판 신문 형태를 띤 잡지로, 1922년 9월에 창간하여 1923년 6월에 종간하였다. 창간호 표지의 경우, 큰 원 안에 닭이 날개를 펼치고 당당하게 입을 열어 우는 그림이 중앙에 크게 배치되어 있으며 그 위에 제호가 있고 양옆에는 '朝鮮民族아 一致합시다', '民族的自助에一致합시다'와 같은 두 개의 표어가 있다. 표지나 판권장에서 매주 일요일 발행한다고 밝혔으며 스스로 '시사 주보', 『동명』 주보'라고 명명했다. 그러나 적게는 한 달에 2번에서 많게는 5번씩 부정기적으로 간행되었다. 『동명』은 10개월 동안 1권은 1호부터 17호까지, 2권은 1호부터 23호까지 총 40호가 발간되었다.

창간호 기준으로 마지막 면이 24면(18면부터는 광고)이며, 본문은 5단으로 구성되었다. 첫 호의 첫 기사 「조선민시론(朝鮮民是論)」은 10회 넘게 연재된 것으로 사회 계몽을 위해 일치단결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필자는 무기명 처리했으나 실질적 발행인 최남선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최남선이 1919년 삼일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1921년 10월 풀려난 뒤 처음 한 일이 동명사를 창립해 잡지 『동명』를 발행한 것이다. 또한 창간호 표지에서는 육당 최남선씨의 '조선역사강화'를 3호 이후에 연재한다는 광고 문구를 실어놓았다. 정가는 15전이었다.

창간호에는 변영로의 창작시가 실렸으며 2호에는 변영만이 번역한 예이츠의 시 「천(天)의 직물(織物)」이 실렸다. 3호에는 현상윤의 「청년의 심리와 일전기의 필요」가 실렸다. 1호에 광고한 3호의 최남선의 글 제목은 '조선역사통속강화(朝鮮歷史通俗講話)'였다. 태극의 연원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으로 시작된 글은, 2권 9호까지 19회 연재되었는데, 선사시대의 석기 고분, 무형적 유물인 종교, 신화, 전설, 언어, 조선어, 불함문화(不咸文化), 언어와 문화, 이자(夷字) 등을

제1권 제1호 1면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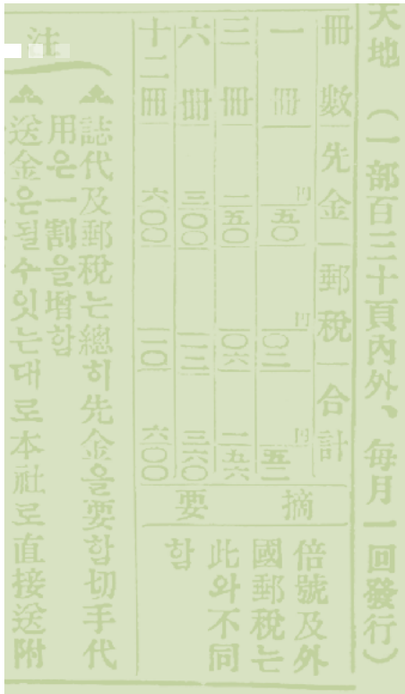
소재로 취해 '조선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8호인 2권 1호부터 문예글과 번역글을 확대한 것은 당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염상섭(「E선생」 연재), 노작 홍사용, 김동인, 곽말약, 김일엽, 오상순, 박종화, 김억, 홍명희, 이광수, 양건식, 양주동 등이 주요 필진을 이루었다.

2권 12호, 즉 29호부터 표지 그림이 바뀐다. 표지 중앙에서 우렁차게 울고 있던 닭은 조그맣게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한다. 그 닭의 울음과 동음이의어가 금성을 뜻하는 계명성인데, 제호를 둘러싼 상반부에는 풍요의 여신이기도 한 금성의 여신, 즉 비너스로 추정되는 여신이 한쪽 손에는 곡식 바구니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삼족오가 있는 태양을 들고 있다. 이 그림은 종간호까지 쓰인다. 종간호 표지의 권두언 「그러면 그대는 어찌하랴는가?」는 현재의 조선, 조선의 산하, 산하의 정령이 안타깝다며, 현세대의 조선인에게 합일하고 단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창간호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발행인 최남선이 생각한 시대정신을 이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해제: 김종훈)

핵 심 어 타블로이드판 신문형태, 동명사, 최남선, 조선역사통속강화

참고문헌

- 육당전집편찬위원회, 『육당 최남선 전집』, 현암사, 1974.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天地 (一部百三十頁內外、每月一回發行)

冊數	先金	郵稅	合計
一冊	五〇	一〇	六〇
三冊	一五〇	三〇	一八〇
六冊	三〇〇	六〇	三六〇
十二冊	六〇〇	一二〇	七二〇

摘要

倍號及外國郵稅는 此와不同함

注

誌代及郵稅는 總히 先金을 要함 切手代用은 一割을 增함

送金은 될수 있는대로 本社로 直接送附

1923~1928

新年號刊創

하강여무동

몸이 승물조

編輯을마치고서

文藝狂이포태하기는 발서오래엿다 그러나 자유가업는이몸이라 발서나오지를못하고 가진고초를當하여가면서 오날서야 겨우애응애응부르짓고 二十世紀의조선싸에나오게되얏노라 압날에하신여러분이여 苦待하실여러분이여 눌너보시고 용서하여주시기만 創刊號에紙面關係로編輯關係로 揭載치못한것은第二號에 ㅎ하겟습니다

1923 휘문
신소년
1925 청량
여명
새벗
문우
1926 아이생활
별나라
학조
1927 장한
습작시대
계우
1928 백치
백웅
문예·영화
여시
신시단
신생

017

휘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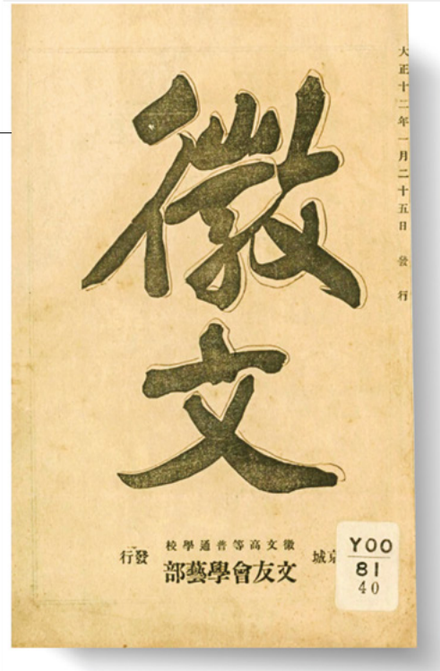
徽文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23. 1. 25 ~ 미상

1923년 1월 25일자로 창간된 휘문고보 교지다. 편집 겸 발행인 니가키 에이쇼(新垣永昌), 발행소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경성부 원동(苑洞) 206번지), 인쇄인 차순영(車順永), 인쇄소 한성도서주식회사이며, 창간호 분량 123면에 비매품이다. 교지 『휘문』 이전에 학생 대상의 강연회 및 토론회를 열고 문예작품을 현상모집한 이로는 월탄 박종화(朴種和)가 손꼽힌다. 한편 휘문문우창간호 본회임원 학예부에서 '鄭芝溶(정지용)을 찾을 수 있다. 그는 1920년 4월부터 문우회의 새 임원이 되어 많은 일을 한 것으로 학교사에 기록되어 있다.

표지는 비교적 간결하다. 표지 전면을 검은색의 커다란 붓글씨 '徽文'으로 채웠다. 오른쪽 위로부터 '大正 十二年 一月 二十五日 發行'을 작은 글씨로 내려 적었다. 하단부에는 2단 구성으로 "京城 徽文高等普通學校 文友會學藝部 發行"이라고 표기했다. 본문은 대체로 한글 우위의 국한문혼용체를 상용하고 있으며, 간혹 일본인 교사나 조선인 학생이 일본어로 쓴 글을 볼 수 있다. 교사와 학생의 글을 함께 섞어 배치함으로써 사제지간의 정의(情誼)를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물론 '선생'과 '군'이라는 호칭을 써서 서로의 위치를 구분하기는 했다.

『휘문』의 지향점은 설립자 민영휘의 휘호 '무실역행(務實力行)'이 분명한데, 이는 희천(希天)의 권두언 「적은 데로서」의 말미 "우리는 적은데로서 나즌데로서, 갓갑은데로서, 微賤(미천)한데로서, 苦勞(고로)한데로서, 차츰차츰 나아가자"라는 말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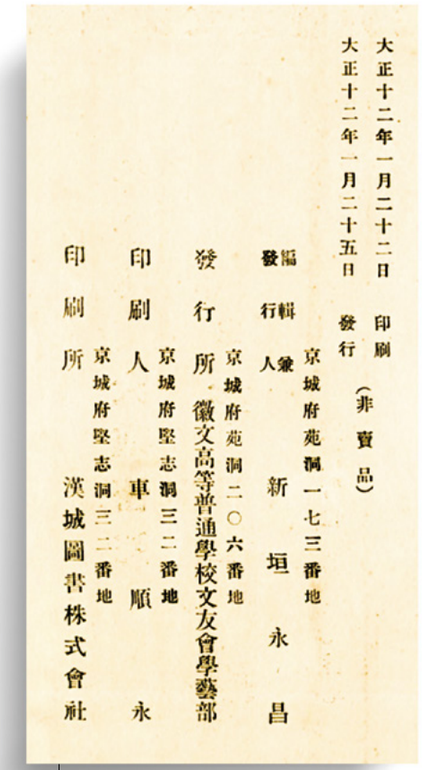
『휘문』의 문학사적 위상은 보성고보와 더불어 조선 근대문학의 배양지로 그 소임을 다했다는 사실에서 찾아질 것이다. 창간호에서는 정지용의 영시 번역 「퍼-스포니와 수선화」, 「여명의 신 오-로아」, 「끼탠잴리」와 미래의 소설가 이태준의 시 「秋感(추감)」을 읽게 된다. 정지용의 영문학 선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또 구태(舊態)의 한자어 시편에 머물렀던 이태준이 어떻게 빼어난 문체와 감각의 단편소설 완성자로 거듭나게 되었는가를 거꾸로 짚어보게 된다.



창간호 표지
서울대학교 소장

정지용은 1923년 졸업 후 교토 도시샤대학(同志社大学)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작품 투고를 중단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뛰어난 시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그는 조선에 귀국한 뒤인 1930년 11월 『휘문』 제8호에 영국시인 블레이크의 시 5편(「브레일시 5편」)을 번역하여 발표했다. 이태준은 제2호(1924.6)에서 단연 문학적 재능을 뽐내었다. 시 「미듬과 사랑」, 수필 「바람에 불녀 백월(白月)을 한고」, 「물고기 이약이」, 「억울한 노릇」, 「江戶(에도)에 계신 K누님께」, 여행문 「부여행」 등 여러 작품을 발표했다. 정지용과 마찬가지로 이태준도 1926년 일본 도쿄의 조오치대학[上智大學] 진학과 더불어 『휘문』을 떠났다.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때는 조선으로 귀국한 지 한참 뒤인 1933년 2월 제10호에 수필 「까치」를 발표하면서였다.

정지용 및 이태준과 더불어 1939년 창간한 『문장』의 지주로 자리했던 가람 이병기는 '가람선생'이란 이름 아래 제2호에 시 「갈 길」외 2편을 필두로, 제5호(1928.3)에 수필 「교단에 선 마음」을, 제8호에 수필 「매화」를, 제10호에 여행문 「朴淵行(박연행)」을 실었다. 다음으로 일본 유학 당시 '무산자사'의 맹원으로 활동했던 박노갑도 제2호에 여행문 「개성여행기」를, 제3호(1925.12)에 여행문 「부여여행기」 및 소설 「귀농」을, 제4호(1927.3)에 여행문 「금강산행」을 실었다.


大正十二年一月二十二日 印刷
大正十二年一月二十五日 發行 (非賣品)
編輯兼發行人 京城府苑洞一七三番地 新垣永昌
發行所 京城府苑洞二〇六番地 徽文高等普通學校文友會學藝部
印刷人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車順永
印刷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창간호 판권지
서울대학교 소장

1930년대 『휘문』을 예술적 재능의 훈련장으로 적극 활용한 학생으로는 월북 미술가 이쾌대(李快大)와 정지용의 제자였던 시인 오장환이 손꼽힌다. 이쾌대는 제9호(1931.12)에 수필 「黃泉江(황천강)을 건느며」, 제10호에 수필 「十五對零(십오대령)」을 실었다. 오장환도 1934년 도쿄 메이지대학(明治大學)으로 유학을 떠나기 전인 1933년 제10호 및 제11호에 「아츰」, 「火焰(화염)」, 「조개껍데기」, 「郊外(교외)의 강변」 등의 시와 「그들의 형제」라는 소설을 발표했다.

『휘문』은 교지였지만, 그 편집을 '문우회 학예부'에서 담당한 것에서 보듯이, 특히 학생들의 창작능력 향상을 위해 널리 개방한 글쓰기 수련의 장이었다. 스승 이병기 아래서의 정지용, 이태준, 박노갑, 이쾌대, 오장환의 등장과 졸업 후 퇴장은 1930년대 이후 한국 문학과 미술의 새로운 전개와 성취를 위한 '예열(豫熱) 기간'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해제: 최현식)

핵 심 어 교지, 학예부, 정지용, 이태준, 이병기, 오장환.

참고문헌

- 장석원, 「『휘문』의 이태준」, 『한국학연구』 3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 장석원, 「교지 『휘문』의 오장환」, 『Journal of Korean Culture』 23,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3.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 편집부, 『휘문 70년사』, 휘문고등학교, 1976.

018 신소년

新少年
신소년사
1923. 10. 3 ~ 1934. 5

『신소년』은 신명균(申明均, 1889~1940)이 주재한 월간 아동잡지로, 1923년 10월에 창간되어 1934년 4, 5월 합본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어린이』, 『별나라』, 『아이생활』 등과 함께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아동잡지 중 하나로 꼽힌다. 창간 때에는 편집인이 김갑제, 발행인은 이문당의 대표 다니구치 데이지로(谷口貞次郎)였으나, 1925년 1월호부터는 편집인이 신명균으로 바뀌었다. 1925년 8월호부터 몇 개월 동안 편집인 신명균, 편집 겸 발행인 다카하시 유타가(高橋豊)인 적도 있었으나, 1926년 11월호 이후부터는 편집·발행인이 신명균으로 바뀌었다. 정열모, 맹주천, 이상대, 이주홍, 이동규 등도 편집 실무를 담당했다. 표지 및 삽화는 김석진, 손일봉, 이주홍 등이 자주 그렸다.

『신소년』은 1924년 6월호의 권두에서 '본지의 사명'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조선소년들의 가장 성실한 벗이 되어 모든 지식과 덕성을 밝히고 조선문(朝鮮文)의 향상을 힘쓰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같은 호의 목차는, 동요, 동화, 사담, 토막 지식, 산술, 만화, 지문(地文), 이과, 지리, 이솝 이야기, 꾀주머니, 속담, 입학시험 문제, 현상모집, 독자문단, 독자명부, 독자통신, 우슴거리, 소년신문, 그림그리기, 그림 맞춰내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간 무렵에는 보통학교 학생을 주 독자층으로 상정했으며, 1928년 말에 이르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노동자 소년들도 읽을 수 있도록 창간 당시 15전이었던 가격을 5전으로 낮추는 변화를 꾀한다. 『신소년』 수록 작품들에서 계급주의 경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930년경부터였다.

『신소년』은 한글학자이자 교육자였던 신명균이 주재했던 만큼, 조선어연구회 회원 및 교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원들이 필자로 많이 참여했다. 신명균이 〈지상 조선어강좌〉를 연재했으며, 역사 인물 이야기도 많이 실었다. 동요 분야에서는 정열모, 김석진, 정지용, 이병기 등이 활동했다. 정열모는 「다람쥐」, 「날대가리 무첨지」와 같은 동요를 발표했으며, 신소년사에서 『동요작법』(신소년사, 1925)을 내기도 했다. 정지용은 일본 유학 중인 1926~1927년에 「겨울밤」, 「할아버지」, 「해바라기씨」 등 여러 작품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 동화 분야에서는 맹주천, 이호성, 심의린, 마해송, 송완순, 이주홍, 권환 등이 활동했다. 맹주천은 「천년 묵은 홰나무」 등을 발표하였으며, 마해송은 고전소설 「홍길동」을 동화화하여 연재했다. 이주홍의 「청어뼉다귀」, 「우체통」, 「돼지 콧구멍」이라든가 권환의 「아버지」, 「언밥」 등도 기억할 만한 작품이다.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한편 『신소년』 또한 당시의 대부분의 아동잡지와 마찬가지로 창간 때부터 독자들의 작품을 공모하였는데, 독자문예란에서 왕성하게 활동한 대표적인 '소년문사'로 승응순, 송완순, 신고송, 윤복진, 서덕출, 이원수, 엄흥섭, 안평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이 신진작가로 성장하여 문단 중심에서 활동하게 된 1930년대에 『신소년』은 계급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게 된다. (해제: 조은숙)

제4권 제2호 표지
서울대학교 소장

핵 심 어 신명균, 정열모, 정지용, 이주홍, 권환, 계급주의적 성향

참고문헌

- 류덕제, 「일제강점기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방향전화론과 작품적 대응양상 연구」, 『문학교육학』 4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4.
- 박정선, 「『신소년』 독자담화실의 특성과 기능」, 『어문학』 128, 한국어문학회, 2015.
- 원종찬, 「『신소년』과 조선어학회」,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5,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4.
- 장만호, 「민족주의 아동잡지 『신소년』 연구」, 『한국학연구』 43,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019 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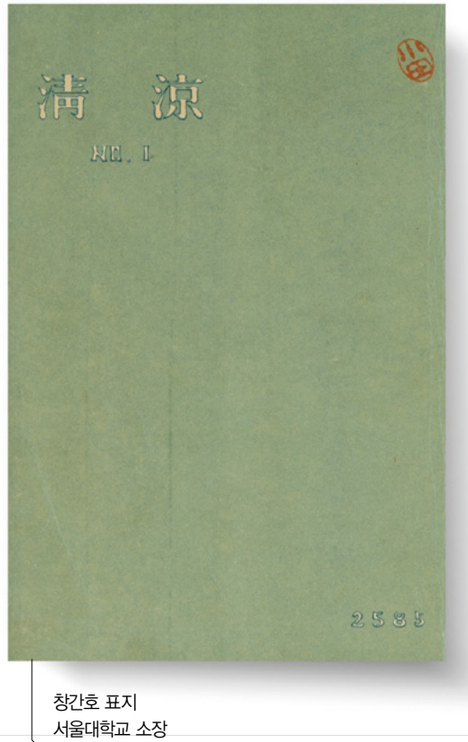
清凉
경성제국대학 예과 학우회 문예부
1925. 5. 18 ~ 1941. 3. 15

『청량』은 '경성제국대학 예과 학우회 문예부'가 경성제국대학 예과 개교 1주년을 기념해 1925년 5월 18일에 창간하였다. 이 잡지는 1년에 2~3차례 부정기로 간행되다가 경성제국대학 예과 학우회가 해산되면서 1941년 3월 15일 통권 30호로 종간하였다.

『청량』은 예과의 공식 교지였다는 점에서 조선인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발행한 『문우』와는 다른 성격을 띠었다. 『청량』 제1호에 실린 발간사는 초대 예과 부장 오다 쇼고(小田省吾)가 썼는데, 사학을 전공한 그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수과장으로 재직하다가 1924년 5월 경성제대에 부임하였다. 그는 발간사에 "잡지 『청량』은 학우 회원을 중심으로 우리 학교 생도의 생산물로서 처음 세상에 내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우리 대학 예과의 특색을 갖춘 것으로 있었으면 한다. 진면목의 연구, 건실한 사상, 순미한 감정의 발표기관이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가장 바라는 바이다"라고 쓰고 있다. 발간사에서 드러나듯이 이 잡지는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이념과 맞닿은 조선총독부(총독 사이토 마코토)의 문화통치 정책 노선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호부터 4호까지 『청량』의 초창기 책임편집은 예과 문예부장인 다나카(田中) 교수가 맡았다. 학생들로 구성된 문예부 위원은 대부분 일본인이었는데, 1호에는 조선인으로는 유일하게 유진오(兪鎭午)가 참여하였다. 유진오는 1926년 3월 예과를 마치고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에 진학했던 만큼, 1926년 3월에 발간된 『청량』 제3호의 편집까지만 참여하였다. 이후 1928년 12월에 발간된 6호의 문예부 잡지계원으로 사학 전공의 김종무(金鍾武)와 법학 전공의 홍봉진(洪鳳珍)이 이름을 올릴 때까지 조선인 학생은 편집에 참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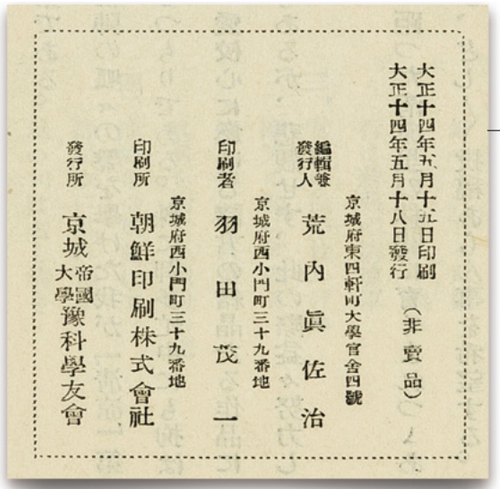
유진오 등이 편집에 관여한 초기에 이 잡지는 영문학 등 세계문학에 대한 평론과 창작 등을 다수 게재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영문학과에 재학하고 있던 이효석(李孝石), 조용만(趙容萬), 최재서(崔載瑞) 등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이효석은 『청량』 제2호(1925.12)에 예이츠(Yeats)의 시 「도둑맞은 아이」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실었고, 4호(1927.1)에는 창작시 몇 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재서는 5호(1928.4)에 예이츠를 다룬 장문의 평론 「예이츠의 신비와 현실(イエイツの神祕と現實)」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고정옥(高晶玉), 구자균(具滋均), 김갑수(金甲洙), 김태준(金台俊), 박치우(朴致祐), 이숭녕(李崇寧), 이재학(李在鶴), 임학수(林學洙) 등 조선인 학생의 글이 드문드문 실렸다.



창간호 표지
서울대학교 소장

이재학, 조용만, 구자균, 고정옥 등 조선인 학생의 소설도 여러 편 실려 있다. 이 중에는 조용만의 「신경질시대(神經質時代)」(5호, 1928.4)나 「여자의 일생(Une Vie)」(6호, 1928.12)처럼 카페 등을 배경으로 당대 풍속의 재현에 충실한 작품도 있었지만, 근대인의 정신적 질병을 그려낸 고정옥의 「시-크(シーク)」(9호, 1930.7)나 유민으로 전락한 농민의 삶을 형상화한 구자균의 「헤어지다(別れ行く)」(15호, 1933.3)처럼 식민지 근대인의 비극에 주목한 것도 있었다.

『청량』은 경성제국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의 시대적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초창기에는 문예의 비중이 강했으나 14호(1932.9) 이후에는 학술논문의 비중이


大正十四年五月十五日印刷
大正十四年五月十八日發行 （非賣品）
編輯兼發行人 京城府東四軒町大學官舍四號 荒內眞佐治
印刷者 京城府西小門町三十九番地 羽田茂一
印刷所 京城府西小門町三十九番地 朝鮮印刷株式會社
發行所 京城帝國大學豫科學友會

창간호 판권지
서울대학교 소장

커져 학술연구, 창작, 감상, 인상, 기사, 번역, 시, 희곡 등 다양한 성격의 글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잡지의 호수가 늘어날수록 조선인 학생의 참여도는 점점 저조해졌다. 전쟁기에 발간된 23호(1937.9)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배속장교인 마루야마의 전사를 조문하는 특집으로 꾸며 대일 협력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청량』은 경성제국대학 예과에서 오랜 기간 발간한 잡지인 만큼, 일제 강점기 아카데미즘의 중심에 있던 경성제국대학의 재조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의 학문적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충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자료이다. 특히 당시 영문학을 적극 수용하거나 한국 고전문학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를 꾀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해제: 안용희)

핵 심 어 경성제국대학, 유진오, 이효석, 최재서, 식민지아카데미즘

참고문헌

- 김욱, 「경성제국대학 일본어잡지 『청량(淸凉)』 발간과 초기 작품 연구」, 『한림일본학』 27,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 신미삼, 「『청량』 소재 이중어 소설 연구」, 『한민족어문학』 53, 한민족어문학회, 2008.
- 이충우, 『경성제국대학』, 다락원, 1980.
-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020 여명

黎明
여명사
1925. 7. 1 ~ 1927. 1

『여명』은 대구에서 발행된 문예교양지다. 1925년 7월 1일에 창간되어 1927년 1월에 통권 4호까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창간 당시 『여명』의 편집인은 김승묵, 편집 겸 발행인은 아사다 아츠시(淺田篤), 인쇄인은 장하명이었다. 발행소는 여명사였고, 인쇄소는 대동인쇄주식회사였으며, 『여명』의 서울 총판은 청조사였다.

『여명』의 창간호 판권장에는 편집 겸 발행인이 아사다 아츠시로 되어 있지만, 『여명』의 편집 책임자이자 실질적인 발행인은 김승묵이었다. 일본인을 편집 겸 발행인으로 내세운 까닭을 창간호의 편집후기에서는 이렇게 밝혔다. "우리로서는 더욱이 많은 난관이 있으므로 금번에는 발행인으로 일본인의 명의만을 빌지 아니하면 안 될 부득이한 경우에 처한 것을 깊이 양해하실 줄 믿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검열정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했다. 잡지를 출판할 때 일본인은 조선총독부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한국인은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잡지를 출판할 수 있었다. 이런 차별적인 검열정책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목표한 바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일본인의 명의를 빌려서 『여명』을 창간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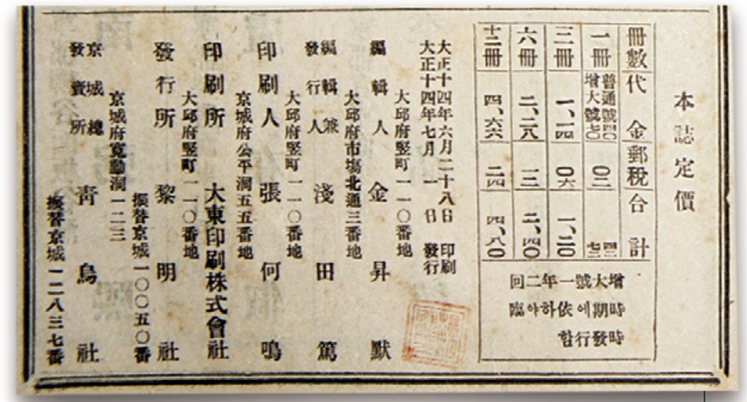
『여명』 창간의 중심인물이었던 김승묵은 경북 출신의 언론인이었다. 1925년 4월 4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김승묵은 《조선일보》 대구지국장을 1년 동안 역임한 후 『여명』을 창간했다고 한다. 이 《동아일보》의 기사에서는 또한 "경성에 있는 일류문사 수십 명이 동인(同人)의 책임을 가지고 일제히 붓을 들게" 되었다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여명』에는 당대의 주요 문인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김기진, 김억, 김명순, 나도향, 노자영, 박종화, 박영희, 방인근, 변영로, 변영만, 양주동, 염상섭, 이광수, 이일, 조명희, 최남선, 최서해, 송진우, 신흥우, 한기악

제1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과 함께 김승묵, 김창숙, 배성룡, 백기만, 오상순, 이상호, 이원조, 이장희, 최호동, 현진건, 허헌 등과 같은 대구지역 출신 문인들도 『여명』에 적극적으로 투고했다. 『여명』 필자의 이름만 봐도 『여명』이 서울에서 발행된 웬만한 문예교양지 이상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신시대의 서광을 찾는 것이 조선 사람의 공통되는 절실한 요구"라는 점을 환기하며 "암흑으로부터 여명에"라는 슬로건을 앞세운 『여명』은 무엇보다 문예에 많은 힘을 쏟았다. 창간호만 보더라도 문학작품이 잡지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나도향의 「벙어리 삼룡이」도 『여명』을 통해 세상에 태어났다. 『여명』이 폐간된 후 1년 반 정도가 흐른 때인 1928년 7월에 여명사는 잡지 『여명』에 수록되었던 글들을 추려 『여명문예선집(黎明文藝選集)』을 발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여명』은 지방성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던 지역 문예교양지였다. 『여명』 필진도 그렇고, 대구에서 편집되어 서울에서 인쇄, 판매되었던 『여명』의 유통 경로를 살펴봐도 그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요컨대 서울을 끌어들여 이른바 전국지(全國誌)를 지향했던 것이 『여명』의 편집 전략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여명』은 대구지역의 문예교양지의 전통을 이어갔던 잡지이기도 했다. 김승묵의 조카 김유영에 의해 창간된 『시대공론』이라든지, 남만희가 주도한 『이러타』



제1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와 『집단』, 이상춘에 의한 『연극운동』 등은 모두 『여명』과 무관하지 않다. 비록 『여명』은 단명했지만, 그 이름 그대로 지역문화와 향토문학을 꽃피우는 데 여명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 (해제: 유석환)

핵 심 어 문예교양지, 지역문화, 향토문학, 대구, 여명문예선집

참고문헌

- 박태일, 「1925년 대구 지역매체 『여명』 창간호」, 『근대서지』 3, 근대서지학회, 2011.
- 박태일, 「1920~30년대 경북·대구지역 문예지 연구: 『여명』과 『무명탄』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47, 한민족어문학회, 2005.
- 박태일, 「『여명문예선집』 연구」, 『어문론총』 43,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21 새벗

새벗
새벗사
1925. 11. 1 ~ 1933. 3

『새벗』은 1925년 11월호로 창간되어 1933년 3월에 종간된 4·6배판의 월간 어린이 교양 잡지다. 창간 당시 발행 겸 편집인은 노병필(盧炳弼), 발행소는 새벗사, 정가 10전이다. 창간 2주년 되는 3권 10호(1927.11)에 보면 당시 『새벗』 편집을 담당하던 주요 인물의 사진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사장은 고병교(高丙敎), 주간은 노병필이었다.

1908년 최남선의 『소년』, 1923년 방정환의 『어린이』 이후 『새벗』이 창간되는 1925년은 한국 어린이 문예 운동이 황금기를 맞이하던 시기였다. 제호에 '소년소녀잡지'라고 표기한 점, 수수께끼, 현상모집, 허허대학, 훈화·미담·사화 등 각종 기획은 『어린이』의 후발적 성격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동시', '소년시' 등의 장르 명칭이 일찌감치 등장하는 등 동요의 시적 인식에서 얼마간 앞선 면모가 나타난다. 금성(金星)의 '동시' 「달밤」이 창간호에 실려 있고 1권 2호에 '동시' 「잠자는 꽃」, 7·5조 동요의 정형률을 탈피한 '소년시' 「가을이 온다」가 실렸다. '동시'라는 장르 명칭은 이미 1923년에 창간된 『금성』에서부터 나타난 것이다.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새벗』은 운문보다는 주로 서사물 중심의 전설, 진문(珍聞), 괴기물, 탐정물, 영화 이야기를 많이 실어 독자들에게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새벗』의 주요 집필자로 동요·동시에 신항, 이정구, 동화·소년소설 부문에 한동욱, 홍은성, 박인범, 김송규, 최규선, 연성흠, 최규선, 최청곡, 김재철 등이 주로 활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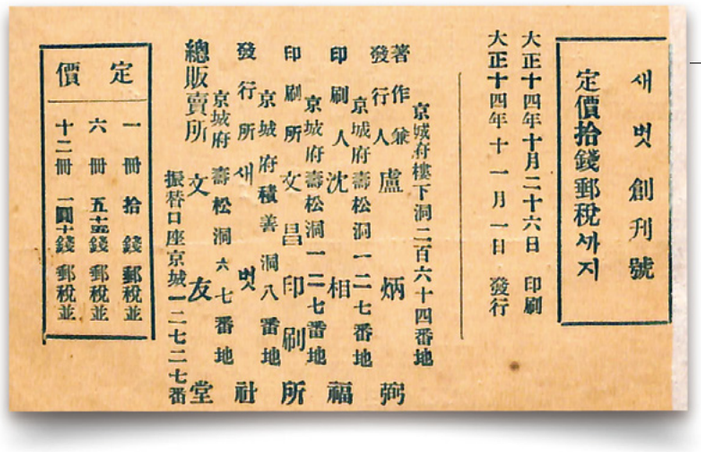
특히 한동욱은 창간호부터 「동화를 쓰기 전에」를 발표하고 다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 그가 3권 10호(1927.11)에 발표한 「꽃나라를 찾은 병신새」는 한쪽 다리와 날개가 없이 서러운 병신새가 사람의 손에 잡힐 뻔하였으나 나비의 도움으로 꽃나라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다. 꿈속에서 어머니 품에 안기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병신새 이야기는 온갖 설움과 위협 속에서 견디고 살아가야 하는 조선 민중의 삶을 보여 준다.

동화극은 주로 김영팔, 고장환 등이 썼다. 4권 1호에 고장환이 쓴 '대명작 동화극' 「한네레의 승천」이 발표되었다. 총 2막의 이 동화극은 독일 하우프트만의 원작이 아닌, 방정환 판 '한네레의 죽음'을 원작으로 삼고 있다.

이재철은 동 시대 어린이 문예 잡지의 성격에 대해 "『어린이』가 적극적인 민족의식 고취에 앞장을 서고, 초기 『신소년』이 그와는 달리 소극적이며 타협적인 편집 태도를 취한 데 반하여 『새벗』은 그 사이를 왕래한 것 같은 절충적 중간지적 경향이 강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절충적 중간적 성격'이라는 것에는 여러 해석이 부여될 수 있겠지만, 『새벗』은 순수 문예지라기보다는 흥미 본위의 오락 잡지에 가까웠다.

『새벗』에서도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논조가 없지는 않았다. 4권 1호 권두언에서 고병교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각기 우리의 처지가 어떠함을 생각하여 정의의 마음으로써 싸워 이를 도달하도록 맹세해야만 합니다." 하고 쓰고 있다. '검열'이라는 일제 당국의 감시 체계 밑에서 '말 못하는 이야기'를 피력하고자 한 편집자의 언술 태도를 엿볼 수 있다.

후기에 와서 『새벗』은 당시를 대표하는 아동지 『어린이』·『별나라』·『신소년』과 마찬가지로 역시


새 벗 創刊號
定價拾錢郵稅사지
大正十四年十月二十六日 印刷
大正十四年十一月一日 發行
著作兼發行人 京城府壽松洞一二七番地 盧炳弼
印刷人 京城府壽松洞一二七番地 沈相福
印刷所 京城府壽松洞一二七番地 文昌印刷所
發行所 京城府積善洞八番地 새벗社
總販賣所 京城府壽松洞六七番地 文友堂
振替口座京城一二七二七番
定價
一冊 拾錢 郵稅並
六冊 五十錢 郵稅並
十二冊 一圓十錢 郵稅並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프로문학의 영향권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시대 조류에 따른 변화이며 『새벗』이 지향한 일관된 편집 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새벗』은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전반까지 문예란을 통해 신인 배출, 소년 문사의 활동 무대 제공, 소년운동의 효과적 전개 등과 같은 성과를 가져왔다.

『새벗』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5호, 고려대학교 3호, 연세대학교 2호, 아단문고 14호로 총 24개 호가 남아 있다. 창간호는 아단문고에 소장된 것으로, 현존 마지막 호는 제6권 제1호 연세대학교 소장본으로 확인된다. (해제: 장정희)

핵 심 어 아동문학, 아동 잡지, 새벗, 신소년, 어린이, 고병교, 방정환

참고문헌

- 마상조, 「두 새벗 이야기」, 『아동문학평론』 31-2, 아동문학평론사, 2006.
-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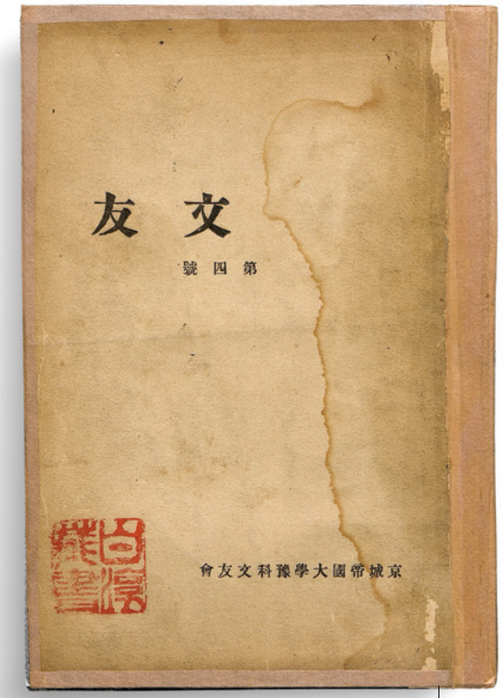
문우

文友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우회
미상 ~ 1927. 11. 10

『문우』는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재학 중이었던 조선인 학생들이 발간한 교지다. 그들은 학교 내에서 문우회를 조직한 후 조직명을 따라 잡지의 이름을 붙여 『문우』를 창간했다. 아직까지 창간호의 실물을 찾지 못해 『문우』의 정확한 창간일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1927년 2월 20일에 『문우』 4호가 발행되었고, 1924년 5월에 예과가 개설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문우』는 1924년 후반에서 1925년 사이에 창간된 것 같다. 이후 『문우』는 1927년 11월 10일에 통권 5호를 끝으로 종간된 것으로 보인다. 6호를 내려고 원고를 수집하던 중 1928년 2월에 있었던 기념 촬영을 끝으로 문우회 자체가 해산되었다는 회고담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우』 4호의 편집 겸 발행자는 이강국이었고, 인쇄인은 노기정이었다. 5호의 편집 겸 발행자는 김재철, 인쇄인은 김재섭이었다. 4호와 5호의 발행소는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우회였고, 인쇄소는 한성도서주식회사였다.

『문우』 5호에 첨부되어 있는 문우회의 회칙을 살펴보면, 문우회의 목적을 "조선문예의 연구 및 장려"로 밝히고 있다. 그 일환으로 "조선문예 잡지를 발간"한다고도 명시했는데, 『문우』가 바로 그 결과물이었다. 실제로 『문우』 지면의 대부분은 재학생들의 수필, 시가, 소설로 채워져 있다. 『문우』 4호와 5호의 목차만 일별해 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김태준, 이희승, 이효석, 유진오, 김재철, 신남철, 조용만 등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우』는 훗날 한국의 근대문학사와 근대학술사를 이끌어간 인물들의 습작기의 장이 되었다. 비록 "매 학기 1회씩" 발간한다는 원칙은 준수하지 못했지만 『문우』가 문우회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우』에서는 1927년 11월에 문우회의 회원 수를 104명으로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1924년의 1회부터 1927년의 4회까지 경성제국대학 예과에 입학한 조선인 학생 수는 약 200명이었다. 1회와 2회의 졸업생 수가 약 90명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예과 재학생 전체가 문우회의 회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우회는 문학 동아리라기보다는 조선인 총학생회와도 같았고, 『문우』는 문예지의 차원을 넘어서 그 학생회의 기관지와 다를 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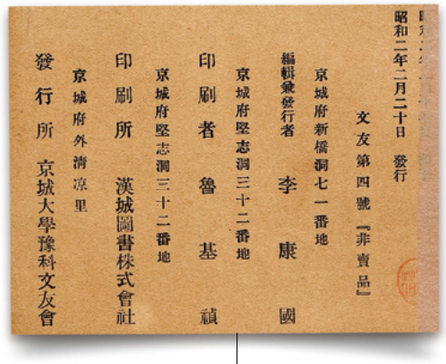


제4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문우』가 폐간된 이후 경성제대 법문학부의 조선인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여 1929년에 『신흥』을 창간했다. 결국 『문우』는 『신흥』의 전신이었던 셈이다. 또한 『문우』 5호의 편집 겸 발행자이자 예과 3회 입학생이었던 김재철은 동창생이었던 이희승, 조윤제, 김태준 등과 함께 1931년에 조선어문학회를 창립했는데, 그들 모두가 『문우』의 필진이었다. 문우회는 조선어문학회가 결성되는 데 모태와도 같은 역할도 했다.

교지 『문우』는 당대 최고 수준의 젊은 지식인의 사상과 의식세계를 보여주는 문예지다. 특히 『문우』와 마찬가지로 교지의 형태로 발행되었던 『연희』나 『이화』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식인의 자의식이 『문우』에서는 엿보인다. 최고 수준의 지식인이라는 특권 의식과 함께 그와 괴리를 보이는 현실의 모순에 따른 내적 갈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우』는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된 직후 발행됨으로써 조선인 재학생과 졸업생의 문필활동 장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해제: 유석환)


昭和二年二月二十日 發行
文友第四號 『非賣品』
京城府新橋洞七一番地
編輯兼發行者 李康國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印刷者 魯基禎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外淸凉里
發行所 京城大學豫科文友會
제4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핵 심 어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우회, 교지, 엘리트 지식인, 조선문예

참고문헌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 하재연, 「『문우(文友)』를 통해 본 경성제대 지식인의 내면」, 『한국학연구』 31,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023 아이생활

아이생활
아이생활사
1926. 3. 10 ~ 1944. 1. 1

『아이생활』은 1926년 3월에 창간되어 1944년 1월까지 총 19권 1호 통권 194호가 발행된 아동잡지였다. 창간 당시 제호는 『아희생활』이었고 발행인은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사 나의수(羅宜秀, Rice), 편집인은 정인과(鄭仁果)였다. 이후 허대전(許大殿, Holderoft, J. G.), 반우거(班愚巨, BonWick, G. W.), 안대선(安大善, Anderson, W. J.)에 이어 한석원(韓錫原)의 순으로 발행인이 이어졌다. 편집주간은 한석원(1대), 송관범(2대), 전영택(3대), 이윤재(4대), 주요섭(5대), 최봉측(6대)이었고 편집실무는 전영택, 방인근, 이윤재, 최봉칙, 임홍은, 한석원 등이 맡아보았다. 창간 당시의 판형은 4·6판에서 국판(A5, 1933.3)으로 커졌다가 폐간 무렵에는 다시 국판으로 축소되었다. 1926년 발행된 1집이 74쪽으로 10전이던 것이 1943년 18권 발행 때는 25전으로 올랐지만 쪽수는 오히려 줄었다.

『아이생활』의 괄목할 만한 양상에 따라 그 편집체제와 내용을 몇 가지 면으로 살필 수 있다. 『아이생활』의 발간 동기는 '미래지향적 기독의식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를 통해 식민지 시대의 암울한 어린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심어주고자 절대긍정의 정신으로 정리된다. 『아이생활』의 초기(1926~1933) 활동 중 가장 두드러졌던 점은 한국 민족정서의 근간이 동요에 있음을 자각하여 "힘있고 건전한 노래, 밝은 노래" 보급을 위해 주요한은 '학생작품 전람회' 투고작품을 읽고 동요월평 작업을 통해 신진 동요작가를 배출하여 한국동요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김태오는 '동요운동의 당면임무', 홍은성은 '조선동요의 당면임무' 등 평필로 3·40년대 한국아동문학의 형성과 발전을 이끌었다.

중기(1934~1938)에는 '근대적 과학의식화'에도 주력하면서 '해외동화 소개' 및 모험소설, 추리소설, 학교소설, 모험동화도 등장하여 현대 아동문학의 장르에 가까운 명확한 장르구분에도 기여한다. 그중 가장 특이한 것은 주요섭이 주도한 '세계일주여행기'로 1932년 5월호부터 7회에 걸쳐 약 2년 동안 소개되었고 역사사화, 성경 이야기, 위인전기, 세계명작 소개 등의 교양물, 그리고 일기, 동화, 동시작법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게재하여 민족정체성 확립, 세계인으로서의 교양확대 등으로 한국 아동문학의 지평확대에 기여하였다. 기존의 다른 잡지들에 비해서 그림, 사진, 삽화 등 시각적 처리를 증대시키면서 독특한 발상과 기획을 보여주었다.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아이생활』은 표지 하단에 'The Chidren's Magazine' 또는 'The Chid life's Magazine' 등과 같이 제호와 발행 연월일을 영어로도 표기하였고 매해 정월의 표지화에 그 해를 상징하는 동물그림이 들어가고 계절에 알맞은 동심 취향의 진취적인 그림을 집어넣었다. 그중 임홍은 김동술, 임동은 등에 의해 꾸려지던 '아기네 차지' 페이지가 1938년에 『아기네 동산』으로 발간되니 근대적 그림책의 효시로도 보여진다(정선혜: 2012).

『아이생활』 말기(1939~1944)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1938년 발행인 강병주 목사가 장홍범 목사로 경질되면서 '황국신민의 서사', '일본 첫임금인 신무천황에 대한 글' 등 친일적 글쓰기 등으로 얼룩졌다.

일제 말 1943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미국 선교부로부터의 재정 지원이 단절되어 『아이생활』이 폐간될 운명에 놓이자 잡지에 관계하던 임인수, 김창훈, 우효종 등의 활동으로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아이생활후원회'가 조직되어 박경종 등의 도움으로 그 명맥을 이어 갔다. 『아이생활』의 정신은 전영택, 주요섭, 강소천, 임인수, 윤복진, 박경종, 피천득, 박목월, 강승한, 윤동주, 김성도, 목일신 등에 의해 계승되어 해방 후 한국아동문학의 근간이 되었다. (해제: 정선혜)

핵 심 어 아이생활, 반우거, 정인과, 주요한, 김태오, 전영택, 주요섭, 임인수, 세계일주여행기, 아기네 차지, 임홍은, 아기네 동산

참고문헌

- 이재철, 「『아이생활』지에 변모양상과 그 기독교적 배경」,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 정선혜, 「한국 기독교 아동문학 회고와 전망」, 『한국기독교문인협회 50년사』, 도서출판 기독교신문, 2018.
- 정선혜, 「한국 기독교 아동문학 회고와 전망」, 『아동문학평론』 161, 2016.
- 정선혜, 「거울과 나침판, 구원의 문학의지, 아이생활」, 한국아동문학학회학술대회 발표문, 2012.
- 정선혜, 「『아이생활』 속에 싹트는 구국의지」, 『한국 기독교 아동문학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정선혜, 「아이생활 속에 싹튼 한국아동문학의 불씨」, 『아동문학평론』 119, 아동문학평론사, 2006.
- 최명표, 「『아이생활』 연구」, 『한국아동문학연구』 24, 2013.

024 별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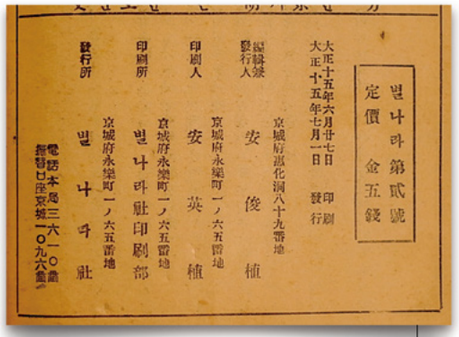
별나라
별나라사
1926. 6. 1 ~ 1935. 2. 15, 1945. 12. 15 ~ 1946. 2. 10

『별나라』는 1926년 6월부터 1935년 2월까지 통권 80호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방 이후에 속간되었으나 계속 나오지는 못했다. 매호 60면 내외의 분량으로 편집되었는데, 창간 당시의 정가는 5전으로 다른 잡지에 비해 저렴한 편이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안준식이었으며, 김도인, 최병화, 박세영, 임화, 송영, 염근수, 엄흥섭 등도 편집에 참여했다.

『별나라』는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계급주의 아동문학 잡지로 카프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 그러나 창간 때부터 계급주의적 경향이 뚜렷했던 것은 아니었다. 류덕제는 『별나라』가 1926년 말부터 소위 카프의 제1차 방향전환 시점까지는 소박한 경향성을 보이다가, 제2차 방향전환을 한 1929~30년 이후에 가서야 목적의식적인 계급 사상이 좀 더 뚜렷해졌다고 파악했다. 물론 창간 당시부터 계급주의 문학을 표방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수록 작품들은 가난 문제에 대해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자연발생적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2주년 기념호인 1928년 5월호에 이르러 안준식이 「별나라의 새로운 선언」에서 " '무지개 나라'와 '도깨비 천지'는 여지없이 반대하고 자연스런 과학의 나라를 짓자. 넘어져서 울기만 하던 약한 것을 버리고 정숙하게 머리를 가다듬어서 일어나며 나아가며 잘살며 하자"고 주장했던 것과 같이 방향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1930년대 이후에는 계급주의 경향의 작품 위주로 편집되어 잡지의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변모된다.

『별나라』는 '소년소녀 별나라 문예' 잡지를 표방하였다. 발간 초기에는 주로 '현대소년구락부'(1925)·'별탑회'(1927)·'꽃별회'(1927) 등의 문예단체라든가 동인지 『습작시대』와 관계를 맺고 있던 연성흠, 유도순, 최병화, 안준식, 주요한, 염근수, 한정동 등이 적극 참여했으며, 김억,

제1권 제2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제1권 제2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주요한, 최남선 등의 기성 작가가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정동은 『별나라』가 창간될 때부터 왕성하게 활동한 작가로 「동요작법」을 연재하였으며, 염근수는 동요에 그림을 더한 '그림동요'를 선보였다.

1920년대 말부터는 송영, 임화, 박세영, 김기진, 박아지, 이기영, 윤곤강, 이주홍, 엄흥섭, 양우정, 신고송, 손풍산 등 카프문인들이 필진으로 대거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별나라』 1930년 10월호에는 권두에 '공장', '소년전령', '망보는 소년'을 그린 강호, 정하선의 화보가 실렸으며, 박영희의 「맑스는 누구인가」, 송영의 「월급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1931년 5월호는 '국제소년데 특집호'로 꾸려졌는데, 안준식은 "지금까지 조선에서는 이 날을 '어린이날'이라 하여 다만 기나 들고 노래나 부르고 길거리를 휘휘 다니었을 뿐"이었지만, 국제소년일은 "때와 땀에 젖은 기름옷을 입은 공장의 우리 어린 동무들, 흙이 묻고 거미줄이 얽히고 뚫어진 무명옷을 입은 농촌의 어린 동무들"의 진정한 설날이라면서 1920년대 어린이 문화운동과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자 했다. 송영은 아동극 활동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의 선동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창작한 '벽소설' 「을밀대」, 「고국이 그리운 무리」 등을 발표했다. 박세영은 과학소설 「아하마의 수기」, 「대지를 우리는 소리」, 아동극 「소병정」, 「어린 소제부」 등을 발표했다. 임화는 『별나라』 1934년 2월호에 발표한 「아동문학 문제에 대한 이삼의 사견」에서 아동의 교육은 "아동적 생활의 모든 구체성으로 된 문학적 형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아동의 생활감정, 정서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해제: 조은숙)

핵 심 어 안준식, 송영, 임화, 현대소년구락부, 별탑회, 꽃별회, 습작시대, 카프, 계급주의적 성향

참고문헌

- 류덕제, 「『별나라』와 계급주의 아동문학의 의미」, 『국어교육연구』 46, 국어교육학회, 2010.
- 박영기, 「일제강점기 아동문예지 『별나라』 연구」, 『문학교육학』 33, 한국문학교육학회, 2010.
- 원종찬, 「1920년대 『별나라』의 위상-남북한 주류의 아동문학사 인식비판」, 『한국아동문학연구』 23,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 정진헌, 「1920년대 『별나라』 동요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7,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5.

제2권 제4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2권 제4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025 학조

學潮
재경도조선학우회
1926. 6. 27 ~ 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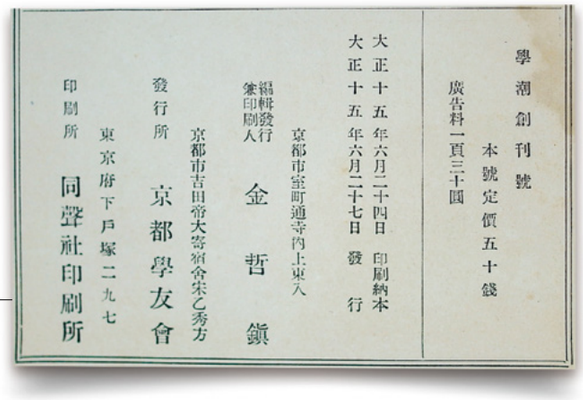
1926년 6월 27일자로 창간된 '재경도조선유학생학우회'의 기관지다. 편집·발행·인쇄를 모두 김철진이 맡아했다. 판권장에 발행소는 경도학우회로 되어 있고, 인쇄소는 동성사인쇄소로 나와 있다. 발행소인 경도학우회의 주소가 '경도시 길전제대 기숙사 송을수방'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경도제대 요시다 캠퍼스 기숙사에 있는 송을수의 방에서 『학조』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정가는 50전이고, 광고료는 한 쪽에 30원이다. 2호도 1927년 6월에 발간되었다고 하나 아직 실물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잡지의 체재는 크게 권두언, 논설, 시와 시조·동요·희곡·소설 등의 문학 작품,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여적'이라는 이름의 편집후기도 부록에 실려 있다. 권두언을 보면 『학조』를 창간한 주체인 재경도조선유학생학우회는 문화의 창조주로서의 선발대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논설로는 최현배의 「기질론」, 김철진의 「경제가치의일고찰」, 정철의 「여성해방운동의사적고찰」, 송을수의 「생물학상으로본인류의장래」, 문원주의 「동양천문학의발달과점술의유래」, 김구경의 「남당이후주의사」, 함필영의 「국가운동과사회운동」, 곽종렬의 「노동고의본질과그이상화」 등이 실렸다. 다양한 전공의 재경도조선유학생들이 『학조』 창간호에 참여했음을 논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최현배의 「기질론」은 사람마다 기질이 다름에 주목하면서 기질의 어원과 기질론의 역사를 살펴보고, 오늘날까지 통용되는 기질을 다혈질, 점액질, 흑담질(신경질, 우울질), 담즙질의 네 가지 종류로 나누어 논한 글이다. 각각의 기질을 살펴본 후 기질의 기인을 살펴보고 기질과 교육의 관계를 논하는 것으로 끝나는 꽤 긴 글이다. 이 글에서 최현배는 기질은 각 개인의 선천적 신체 조직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기질을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다양한 분야의 글이 실린 『학조』는 경도에 있는 조선 유학생들에게 서로의 지식을 나누는 학문적 교류의 장이 되었다.

창간호에 실린 문학 작품 중에서는 정지용의 시 3편이 가장 눈에 띈다. 정지용의 초기 시 「카페-·프란스」, 「슬픈인상화」, 「파충류동물」이 여기 발표되었다. 이 무렵의 정지용은 다다풍의 실험적인 시 형식에도 관심을 보였는데 세 편의 시에서 모두 그 흔적이 드러나 있다. 특히 「카페-·프란스」의 "나는 나라도 집도 업단다./ 大理石 테이불에 닷는/ 내 쌤이 슯흐구나."에는 식민지 조선 청년으로서 당시 정지용의 비애감이 잘 드러나 있다. 비애의 감정은 「슬픈인상화」에서도 드러난다. 이 시의 화자에게는 전등도 흐느끼며 깜빡거리는 것으로 보이고, 기적소리도 침울하게 울려오는 것으로 들린다. "부질업시 오레ㄴ지 썹질을 씹는 슯흠"에서 고향을 떠나 일본에 와 유학하며 느끼는 식민지 조선 청년의 비애와 고독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파충류동물」은 당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리던 기차를 "식거먼 연기와 불을 배트며/ 소리지르며 달어나는/ 괴상하고 거-창 한 파충류동물"에 비유한 시이다. 기차가 갈 때 나는 소리를 "…털크덕…털크덕"이라고 글자 크기를 키우고 옆으로 뉘어 씀으로써 기차가 달리는 모습과 소리를 동시에 형상화한 것이 인상적이다. 그 밖에 제찬, 노풍, 조옥현, 공화, 포영 등의 시가 실렸고, 김종주의 동요도 두 편 실렸다. 사실상 문예면에 제일 많은 작품을 실은 이는 정지용인데, 시작품 외에도 「마음의 일기」에서 발췌한 정지용의 시조 9수, 「서쪽한울」, 「띄」, 「감나무」, 「한울혼자보고」, 「짤레(人形)와아주머니」 등의 동요 5편이 함께 실렸다. 그 밖에도 희곡 작품으로 산김수의 희극 「두뎨기시인의 환멸」(1막)과 유인탁


學潮創刊號
本號定價五十錢
廣告料一頁三十圓
大正十五年六月二十四日 印刷納本
大正十五年六月二十七日 發行
京都市室町通寺內上東入
編輯發行兼印刷人 金哲鎭
京都市吉田帝大寄宿舍宋乙秀方
發行所 京都學友會
東京府下戶塚二九七
印刷所 同聲社印刷所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의 「요리ㅅ집의밤」(1막)이 실렸으며, 로코코의 「신경병환자」라는 창작 소설도 한 편 실렸다. 편집 여적에는 구체적 입안이나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학조』 발간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의기투합하여 경도학우회 기관지를 냈음을 밝히고 있다. 원고 수집과 인쇄 변통 문제, 경비 문제 등으로 발간에 애를 먹었지만 학업에 충실했던 것 이상의 경험을 했음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학조』는 재경도조선유학생학우회 기관지로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인 글을 주로 수록했다. 비록 2호 발간에 그쳤지만 경도에서 유학한 조선 유학생들끼리 학문적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려 한 의욕이 드러난다. 한국 현대 문학사에서는 정지용의 초기 시 세 편, 「카페-·프란스」, 「슬픈인상화」, 「파충류동물」의 최초 발표 지면으로 주목받았다. (해제: 이경수)

핵 심 어 재경도조선유학생학우회 기관지, 김철진, 정지용, 송을수, 최현배, 카페프란스, 슬픈 인상화, 파충류동물

참고문헌

- 안남일, 「재일본 한국유학생잡지 〈창간사, 발간사〉 연구」, 『한국학연구』 6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026 장한

長恨
장한사
1927. 1. 10 ~ 미상

『장한』은 1927년 1월 10일 발간되었는데 경성에 있었던 권번 소속의 기생들이 만든 잡지다. 서해(曙海) 최학송(崔鶴松)이 편집한 권번 기생들의 동인지 형식의 이색적인 잡지였다. 그해 《매일신보》의 신간 소개에 "경성 4권번 기생의 기관지"라는 광고 문구를 읽을 수 있다. 정가는 40전이고 3개월 1원 10전, 6개월 2원 20전, 1년 4원 등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발행소는 '장한사', 인쇄소는 한성도서주식회사였다. 『장한』은 월간지로 발간되었는데 현재 확인된 것은 1927년 1월, 2월호다. 편집인 겸 발행인은 김보패(金寶貝), 인쇄인은 노기정(魯基貞), 발행지는 경성이었다.

책 크기는 23cm, 제1년 제1호(1927년 1월)와 제1년 제2호(1927년 2월)로 명기되어 있다. 쪽수는 134쪽에 달한다. 1927년 2월호에는 발간일이 2월 12일이었다는 것 밖에 다른 점은 없다.

『장한(長恨)』, 말 그대로 '오래도록 잊지 못할 원한'이라는 뜻이다. 스스로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낸 오래 한(恨)에 찌든 기생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재연되는 듯하다. 『장한』의 표지에 나타난 여인은 프레임의 한쪽에 치우쳐 있다. 이 여인은 심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때 나타나는 웅크린 자세로 앉아있으며, 한 손을 턱에 괴고 물끄러미 응시하며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구나 그 여인은 새장 속에 갇혀있기까지 하다. 『장한』의 표지는 이 새장 속에 갇혀 앉아있는 여인의 모습을 표지에 실어 보여줌과 동시에, 그 둘레로 '동무여 생각하라, 조롱 속의 이 몸을'이라는 말을 넣었다. 천민 신분으로 기생에 대한 연민을 유도하였다. 즉 이 표지는 『장한』의 작자가 곧 기생들 자신이며 『장한』의 제일 첫 번째 독자도 역시 기생들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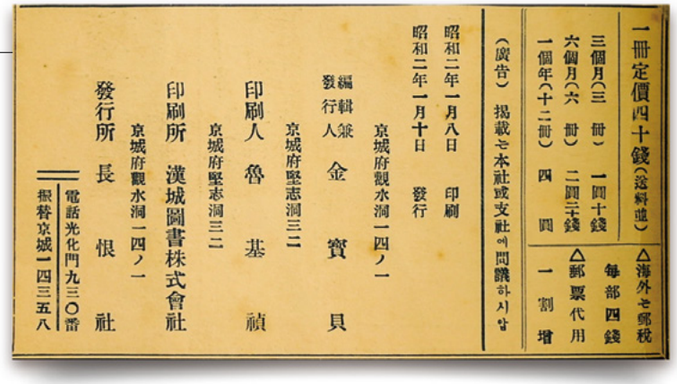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을 예견하여 그들의 한(恨)과 의식 촉구 의지를 효과적으로 담아내었다.

『장한』은 권번 소속의 기생들이 모여 동인지를 발간하였다는 것도 주목할 점인데 단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낸다든가 여성의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글을 실어 여권신장 운동의 일익을 담당했다.

『장한』 창간호는 총 50여 편의 글로 짜여져 있다. 기생 필자의 글이 26편, 논설류 20편, 수필(수기)과 애화 3편, 시 5편, 동화 1편 등이다. 특히 논설류 20편은 자기 정체성의 불합리성 지적과 사회에 대한 비판을 아울러 꾀했다.

『장한』 2월호는 창간호의 원고 수합과 편집이 동시에 이루어져 발간일만 나눈 것이다. 총 40여 편으로, 기생 필자의 글 26편, 논설류 11편, 수필 4편, 시 10편, 애화 1편 등이 수록되었다. 창간호와 마찬가지로 기생의 사회비판적 논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창간호와 2월호에서 중복되는 기생 집필진은 김은희, 김계현, 김녹주, 전난홍, 전산옥, 김난홍, 박점홍, 윤옥향, 김계


一冊定價四十錢(送料共)
三個月(三冊) 一圓十錢
六個月(六冊) 二圓二錢
一個年(十二冊) 四圓
△海外七郵稅 每部四錢
△郵票代用 一割增
(廣告) 掲載セ本社或支社ニ問議ヨ
昭和二年一月八日 印刷
昭和二年一月十日 發行
京城府觀水洞一四ノ一
編輯兼發行人 金寶貝
京城府堅志洞三二
印刷人 魯基禎
京城府堅志洞三二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觀水洞一四ノ一
發行所 長恨社
電話光化門九三〇番
振替京城一四三五八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화, 김도심, 이월향 등이었다.

권번 소속 기생들은 그들만의 문화적인 고유 영역을 확보하고 싶어 했고, 사회적 관심과 연민을 불러일으켜 현실 극복의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 『장한』이라는 월간 잡지의 발행이었다. (해제: 신현규)

핵 심 어 기생, 권번, 기생잡지, 장한, 최서해, 김보패

참고문헌

- 신현규, 『꽃을 잡고(일제강점기 기생인물생활사)』, 경덕출판사, 2005.
- 신현규, 「기생 동인지 장한(長恨)서지 고찰」, 『근대서지』 창간호, 소명출판, 2010.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27

습작시대

習作時代
습작시대사
1927. 2. 1 ~ 미상

1927년 2월 1일 창간되어 제4호까지 내고 종간된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역의 순문예 동인지다. 편집 겸 발행인 진종혁(秦宗赫), 인쇄인 노승진(盧承軫), 인쇄소 경성 소재 동흥(同興) 인쇄소였다. 발행소는 '습작시대사'로, 주소는 인천부 용리로 진종혁의 소재지와 같았다. 반타블로이드판 20면 내외의 분량에 정가는 10전이었다. 진종혁은 나중에 희곡작가가 된 진우촌(秦雨村)으로, 잡지 발행소는 그의 집 주소이기도 했다. 잡지 권말에 인천, 진남포, 마산, 경성 등지에서 동인과 잡지를 후원해준 상회와 개인의 명단을 3면에 걸쳐 실었다.

『습작시대』 창간호는 상단부 중심에 '文藝雜誌 習作時代 創刊號'를 멋을 들여 3단 구성으로 내려 적었다. 오른쪽에는 벽에 걸린 촛불 3자루와 원고지 및 펜이 놓여 있는 책상을, 왼쪽에는 창문 사이로 달과 별이 빛나는 밤 풍경을, 중앙의 제호 아래에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화병을 그려 넣었다. 목차에 따르면 창간호 표지화는 노수현(盧壽鉉)이 맡았다.

『습작시대』 3호(1927)는 '4월 혁신호'라는 이름의 책자 형태로 발행되었다. 잡지 내용은 평론, 수필, 육호란(六號欄), 시가, 창작, 기타 취미기사, 편집후기로 구성되었다. '편집여언'에서는 "습작시대는 우리 것입니다. 무명작가의 공기(公器)임을 다시 말하여 둡니다."라고 강조함으로써 지역 문인들의 습작 활동이 동인지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주요한은 창간호에서 일종의 격려사요 문단시평인 「습작시대」를 통해 첫째, 이 잡지의 출현은 "무명작가가 유명작가 되려 하는 노력, 즉 일종의 항쟁이다", 둘째, 이 잡지는 "방금 형성 중도(中途)에 있는 문단에 획시기적 사명을 수하고야 말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발랄한 시대정신의 침투를 제군(諸君) 속에서 발견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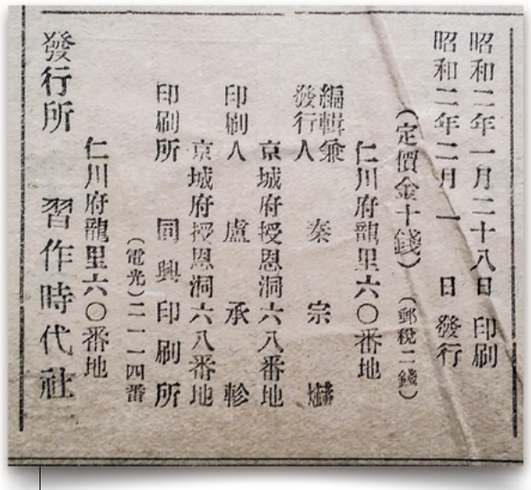
習作時代
文藝雜誌
習作時代
創刊號

창간호 표지
개인 소장

『습작시대』 창간호와 3호에는 당시 이미 이름 높던 몇몇 유명 문인들뿐만 아니라 이후 문단에 진출하게 되는 열렬한 문청(文靑)들의 글이 다수 실렸다. 먼저 창간호에서는 파인 김동환의 민요시 「월미도 해녀요(海女謠)」와 「그 애 못 본 날은」, 김여수(金麗水, 본명 박팔양)의 「인천항」이 눈에 띈다. 또한 동요작가와 시인으로 활약하게 될 유도순(劉道順)의 시 「과부」, 카프작가로 성장해갈 엄흥섭(嚴興燮)의 시 「내 마음 사는 곳」도 함께 실렸다.

3호를 펼치면, '평론'에 박아지(朴牙枝)의 「농민시가소론」, 전영택의 「문예창작의 태도」, 양주동의 「문예단상」, 유도순의 「문예잡담」, '수필'에 엄흥섭의 「신춘예찬의 일절을」, '육호란'에 홍효민의 「일기 2편」, '시가'에 박아지의 「힌나라」 등이 보인다. 카프 맹원 박아지의 평론은 프로문학의 대중화 문제와 관련된 농민시가의 창작과 향유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전영택과 양주동의 글은 문학 활동에 필요한 태도와 자세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습작생'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습작시대』는 지역 문예지를 표방하며 열정적인 문예활동을 전개했으나 총 4호로 단명했


昭和二年一月二十八日 印刷
昭和二年二月一 日 發行
(定價金十錢) (郵稅二錢)
仁川府龍里六〇番地
編輯兼發行人 秦 宗 爀
京城府授恩洞六八番地
印刷人 盧 承 軫
京城府授恩洞六八番地
印刷所 同 興 印 刷 所
(電光)二一一四番
仁川府龍里六〇番地
發行所 習作時代社

창간호 판권지
개인 소장

다. 이처럼 『습작시대』는 1920년대 후반의 어떤 문학지형과 움직임, 예컨대 지역문학의 형성과 발전 가능성, 무명작가에서 유명작가로의 성장 과정이라는 두 가지 테마를 실증적으로 재구할 수 있게 하는 문헌자료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해제: 최현식)

핵 심 어 인천, 지역 문예지, 무명작가, 주요한, 박팔양, 엄흥섭

참고문헌

- 이희환, 「발굴전제·『습작시대』 해제」, 『인천문화비평』 10,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2002.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28

계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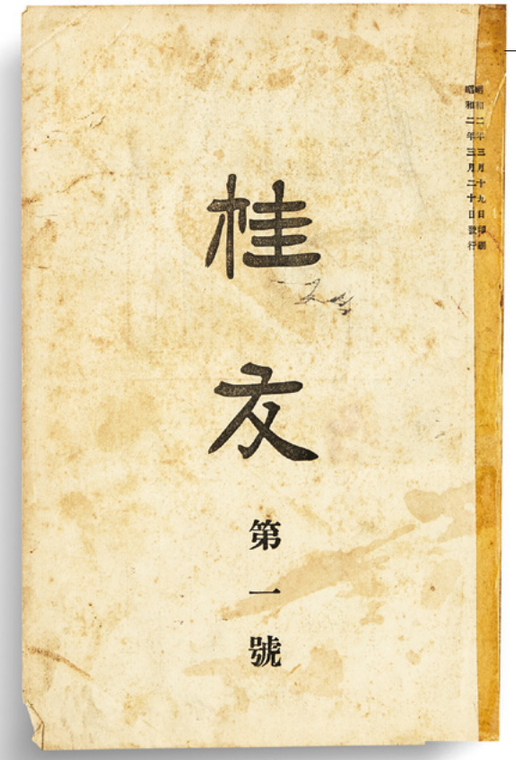
桂友
중앙고등학교동창회
1927. 3. 20 ~ 1936. 7. 20

『계우』는 중앙고등학교동창회가 발행한 잡지로 1927년 3월에 창간하여 1936년 7월에 발행한 16호까지 확인할 수 있다. 중앙고등학교는 기호흥학회에서 1908년 설립한 학교로 흥사단과 합병하여 융희학교, 중앙학회 등의 이름을 거쳐, 1915년대 김성수가 인수하였으며 그로부터 10여년 만에 교지를 출간한 것이다.

교가부터 소개한 창간호에는 자기수양의 정신, 수필, 그리고 개성·부여·함흥·경주 수학여행기, 야구부와 빙상부 등 각 부 현황과 21편의 시 등이 실려 있다. 저작 겸 발행자는 권덕규, 인쇄자는 김재섭, 인쇄소는 한성주식회사, 발행소는 중앙고등보통학교동창회이다. 비매품으로 제작되었으며 분량은 총 58면이다.

저작 겸 발행자가 이찬, 발행인 정경덕으로 제시된 10호에서는 정구대회 우승기념 사진이 첫 면에 제시되어 있다. 젊음과 자유, 문명에 대한 관심, 그리고 문예면의 활성화 등은 당대의 특징이자 교지의 특징이다. 『계우』의 특이점은 기행문과 학교 체육부의 활약상에 대한 소개가 꾸준히 실리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존하는 『계우』 중 글의 성격이라든가 표지 디자인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주목할 호수는 1932년 7월에 발간한 12호이다. 목차 구성이나 디자인도 혁신적이며 표지에도 색을 입혔다. 특집 「명사가 본 학생 수양 문제」의 필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광수, 세전(세브란스)교수 이용설, 중앙보육학교 교장 박희도, 동아일보사 사장 송진우, 보전교수 옥리진, 천도교 고문 최린 등이었다. 《동아일보》 사주로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인촌 김성수의 영향력이 반영된 필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호 「주요 열국 학생생활」 특집란에서 『동광』 주필인 주요한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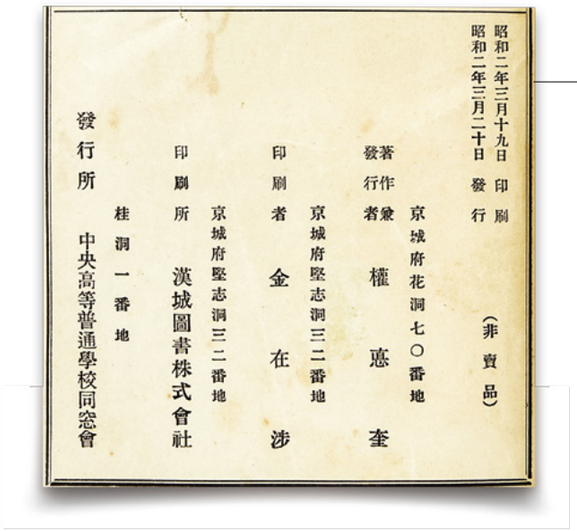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국 학생을 대상으로 글을 쓴 것도 주목할 만하다. 분량도 217면으로 이듬해인 1933년에 발간한 '본교창립 25주년기념호'(13호)의 127면보다 거의 100면이나 더 많다.

이광수의 「'전체'의 관념을 인식하라」는 짧은 글이기는 하지만 수양의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누어, 목표를 세우고 건강을 유지하고 전문화할 것, 전체를 인식하고 학교 교육을 충실히 할 것, 매일 '전체'를 위해 봉사하고 노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외에도 전체를 생각하라는 것인데, 전체의 의미는 "전체라 함은 '우리'라는 뜻이니 개인 곧 '나'에 대립한 말이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버려 봉사하는 것이 현재 청년의 지도정신이 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935년 15호는 표지도판을 기하학적으로 처리하였고 1936년 16호는 동창회 각 부 대표 부장의 감상문이라는 꼭지를 마련하여 학예부, 경기부, 농구부, 야구부, 축구부의 부장의 소


昭和二年三月十九日 印刷
昭和二年三月二十日 發行
(非賣品)
著作兼發行者 京城府花洞七〇番地 權 悳 奎
印刷者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金 在 涉
印刷所 京城府堅志洞三二番地 漢城圖書株式會社
發行所 桂洞一番地 中央高等普通學校同窓會

창간호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회를 들려주었다. 견문을 넓히고 체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기조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제: 김종훈)

핵 심 어 중앙고등학교동창회, 김성수, 체육부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 『고려대학교 100년사 1』, 고려대학교 출판원, 2008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29

백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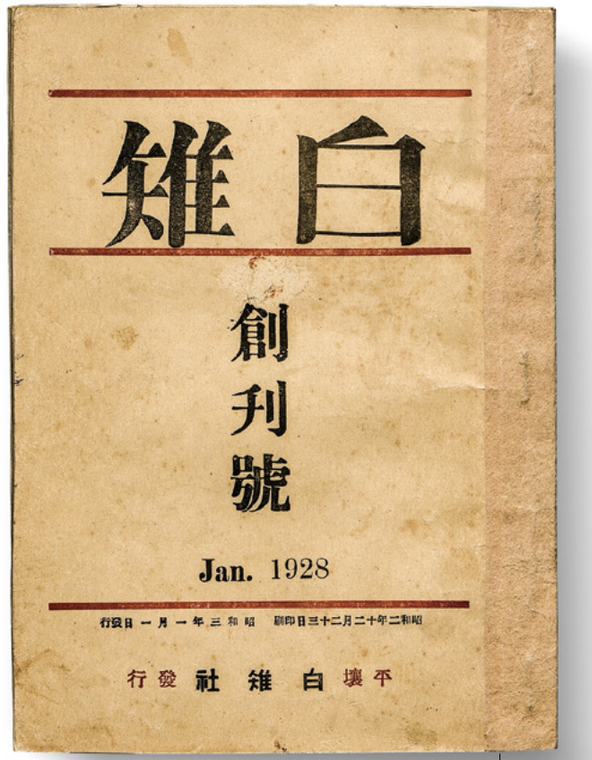
白雉
백치사
1928. 1. 1

1928년 1월 1일 평양에서 창간된 문예지로 시와 소설, 평론을 두루 다루었다. 희귀한 지방 문예지라는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창간호로 종간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 홍종인(洪種仁), 인쇄인 권지용(權址龍), 인쇄소 광문사(光文社), 발행소 평양부 하수구리(下水口里) 170에 위치한 백치사(白雉社)였다. 분량 64면에 정가는 20전이다. 「편집을 마치고」의 한 구절 "상품화식힌다하여도 팔니지 안는 문예잡지란 것은 잘 안다. 한 표현기관(機關)으로 우리의 진실한바를 세상에 내노을뿐"에서 단명으로 마감될 잡지의 앞날이 예감되고 있는 듯하다.

표지는 상단부에 붉은 줄 사이로 '白雉'를 가로글씨로 굵게 새겼고, 중간부에 '創刊號'를 세로글씨로 인쇄했으며, 그 아래 'Jan. 1928'을 적었다. 하단부에 인쇄 및 발행일을 적은 뒤 '平壤 白雉社 發行'을 맨 밑에 배치했다. 홍종인과 함께 동인지 출판을 주관한 것으로 보이는 '광재(光哉)'는 「백치를 세상에 내놋는 감상」에서 "인생은 덧업다. 그러나 예술만은 영원한 게 아니냐. 이와 가튼 생각이 머리에 떠올을 때 상아탑을 세울 곳에 터를 잡고 대리석을 조각하고 있는 무리(辟)의 그림자를 나는 본다. 다만 나는 그네들의 건강함을 빌며 상아탑의 찬연한 제막식을 마음에 그릴 뿐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백치』 발간의 목적과 의의를 간접적으로 밝혀 놓았다.

'백치창간호목차' 부분은 상단부에 활짝 핀 해바라기를 판화로 새겼으며, 소설, 시, 평론, 문단 꼬십(가십), 동인 수필, 편집여록 등의 항목을 차례대로 배치했다. 눈에 띄는 작가와 작품으로 임노월, 김억, 정노풍 등이 있다.

임노월(林盧月)의 소설 「사후(死後)의 정서(情緖)」는 죽음의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 최면술에 빠져든 채 "처음도 업고 나종도 업고 거즛도 업고 참도 업는 세상에 와 있는 것"을 깨달은, 다시 말해 "이상한 쾌락"을 구하는 H의 정신세계를 성찰하는 S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김억의 시 「바람에 날니운 노래」는 「黃浦(황포)의 첫봄」, 「無心(무심)」(민요), 「가는 봄」(민요) 등 3편으로 짜여졌다. 앞의 시가 봄을 맞은 '황포'와 그 둘레의 따스함을 묘사한 반면, 뒤의 두 편은 '민요'라는 장르명 아래 이별의 상념과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의 안타까움을 노래한다. 정노풍도 「동경」과 「양심이여」를 함께 발표했다. 전자는 '조선의 아가씨'를 청자로 내세워 "십자가 진 간나위의 불근피에 피여나는 새로운 조선을 무궁화꼿송이에 수노아" 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후자는 젊고 곱고 아리따운 '양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시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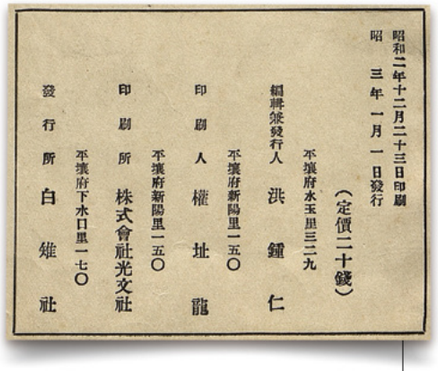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한편 「문단 꼬십(가십)」에서 편집자는 문학가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적정한 원고료의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한다. 합리적인 원고료 요청은 신문예 도입 이후 "직업으로써 생활전선에 나선 시인, 소설가, 평론가를 인정하여라 하는 것"에 대한 "잇섬즉한 웨침"의 하나라는 것이 편집자를 비롯한 당대 문인들의 생각임을 짐작게 한다.

『백치』는 평양에서 발간된 종합문예지로, 『창조』(1919) 이후 평양(평북)지역 문인들의 동인

지 활동을 보여준다. 김억과 임노월 등을 제외하면, 유방(柳坊), 수암(水岩), 김건(金鍵), 광재(光哉), 서화촌(絮花村), 정철(鄭哲) 등 대체로 낯선 필자들뿐이지만, 예술의 영원성을 신뢰하며 그것의 표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만큼은 전문작가들에 뒤지지 않는다. (해제: 최현식)


昭和二年十二月二十三日印刷
昭 三年一月一日發行
(定價二十錢)
平壤府水玉里三二九
編輯兼發行人 洪 鍾 仁
平壤府新陽里一五〇
印刷人 權 址 龍
平壤府新陽里一五〇
印刷所 株式會社光文社
平壤府下水口里一七〇
發行所 白 雄 社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핵 심 어 평양, 예술의 영원함, 김억, 정노풍, 임노월.

참고문헌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30 백웅

白熊
백웅사
1928. 2. 1 ~ 1928. 3.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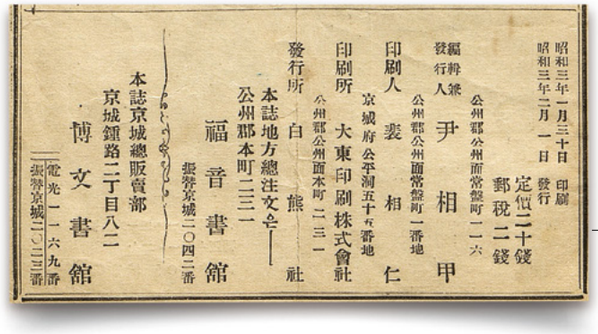
『백웅』은 1928년 2월 1일 창간하여 동년 3월 12일에 발행한 2호로 종간된 공주 지역의 문예지다.

편집 및 발행인은 윤상갑(尹相甲)이고, 발행소는 백웅사(공주군 공주면 본정 소재), 인쇄소는 서울의 대동인쇄 주식회사(경성 공평동 소재)다. 지방 주문은 공주 복음(福音)서관, 서울 총판은 박문(博文)서관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음부터 전국 총판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A5 사이즈 총 54면으로 된 창간호와 50면으로 된 제2호의 표지 도안은 모두 염근수(廉根守)가 맡았다. 창간호 51~53쪽과 잡지 뒤표지에는 공주 지역 유지와 신간회 공주지부,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축하 후원 광고가 실려 있다.

창간호의 편집후기 「백웅을 내여 노흐며」는 편집인 윤상갑과 신문기자로 활동한 윤귀영(尹貴永) 등이 주축임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후기에서는 지방 잡지이긴 하나 "쇠잔한 우리 문단에 고조만치라도 새로운 기운"(51쪽)으로 기여하겠다는 결의를 피력하고 있다. 창간호 목차를 보면 창작(소설과 희곡), 시가, 수필 및 소품, 문단가십, 후기 등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 3편 중에서 낯선 여인의 방문과 파업 운동의 관련을 소재로 삼은 윤귀영의 「첫치위와 함께」가 문체나 구성, 주제의식에서 돋보인다. 윤귀영은 공주에서 출생했고 『개벽』 현상모집에도 입선한 작가였다. 기성문인으로는 카프 맹원인 엄흥섭과 박아지, 소설가 방인근, 인천 태생으로 시·소설·동화 등 다방면에서 활동한 우촌 진종혁(1904~?), 평론가 겸 소설가 홍효민(1904~1975) 등이 참여하였다.

제2호에서는 앞표지에 '문예월간'이라는 네 글자를 세로로 기입해 놓아 순문학 잡지로서의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제2호 목차는 창간호와 달리 분홍색 색지로 두 면을 한 장에 인쇄하여 반을 접어 제책하였다. 제2호에 수록된 21편의 글에서 편집후기를 제외하면 창작물은 모두 19편이다. 검열로 인해 전문 삭제되었거나 편집 후 삭제된 작품도 발견된다. 청춘 남녀의 자유연애를 주제로 한 우촌 진종혁의 단막극 희곡 「불 붓는 마을」, 조선 여성의 해방을 기대하며 깔끔한 묘사력을 보여준 엄흥섭의 소설 「갈등에 억매인 무리」, 7·5조 민요 운율을 능란하게 구사한 박아지의 시 「남쪽 한울을 바라보며」, 전통 시가의 리듬과 농민문예 창작을 논한 박아지의 평론 「시단만필」 등이 주목할 만하다.

『백웅』은 공주지방을 근거로 하였으나 필진을 해당 지역 동인으로 국한하지 않았다. 수록 문인들은 공주라는 지역에 연고를 두고는 있으나 서울, 인천 등지에서 활동한 문인들의 글도 수록했다. 제2호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김도인, 이경손, 최병화, 진종혁, 박아지 등은 대부분 인천에서 활동하던 '습작시대' 동인이었다. 또한 게재된 글의 범위가 시, 소설, 희곡만이 아니라 수필, 한시 번역, 영시 및 서구문학 번역 소개 등의 분야에까지 걸쳐 있어서 월간 종합 문예지를 지향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렇듯, 『백웅』은 잡지사의 관점에서나 문학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중앙문단에서 활동하던 문인이 지역 유지의 후원으로 근대적인 종합문예지를 기획한 한 사례였다. (해제: 유임하)

핵 심 어 공주, 백웅, 지방문예지, 습작시대

참고문헌

- 조동길, 「공주의 근대문예지 백웅 연구」, 『한국언어문학』 77, 한국언어문학회, 2011.
- 조동길, 「근대 문예지 백웅 연구」, 『새국어교육』 96, 한국국어교육학회, 2016.
- 조동길, 「1920년대 공주에서의 한글 연구」, 『한어문교육』 18,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7.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31 문예·영화

文藝·映畫
문예영화사
1928.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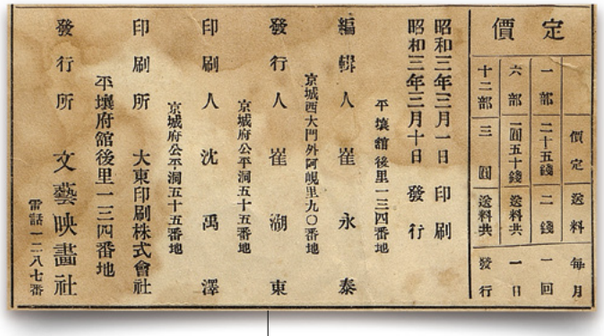
『문예·영화』는 1928년 3월 평양에서 발간된 잡지로 창간호 이후의 발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발행인 최호동은 다수의 동화를 집필하고 조선소년연합회를 조직하는 등 아동문화 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로, 『문예·영화』에 앞서 "일반 소년소녀를 위하여 역사와 종교, 과학 등의 지식을 함양할 목적"으로 잡지 『담해(潭海)』(1925)를 창간하기도 했었다.

1920년대 후반은 식민지 조선에서도 영화의 대중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던 때였다. 특히 나운규가 감독과 주연을 맡은 영화 〈아리랑〉(1926)의 흥행은 조선영화의 관객을 확대하고 조선 문화계 안에서 영화의 지위를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문예·영화』의 발간은 그러한 '영화 붐'의 맥락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잡지가 폭넓은 대중 독자를 겨냥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영화 잡지라고 하기에는 화보가 빈약하고, 영화 팬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최신 영화 정보는 거의 없다. 유니버셜 특약을 맺고 있는 단성사와 파라마운트사 특약을 맺고 있는 조선극장의 광고가 실리기는 했으나 개별적인 영화 광고는 없다. 속표지 화보의 비비 다니엘스(Bebe Daniels)를 비롯해 폴라 네그리(Pola Negri), 아돌프 멘주(Adolphe Menjou) 등 몇몇 할리우드 배우의 사진이 간간이 배치되어 있지만, 본문 내용과도 맞지 않고 시각적으로 일반 대중을 끌어당기는 매력도 크지 않다. 이는 물론 화려한 화보를 풍성하게 수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조건 때문이겠으나, 애초부터 이 잡지가 일반 대중을 주요 독자로 고려하지 않았던 것과도 연관되는 듯하다.

『문예·영화』라는 잡지명은 '문예'와 '영화'를 합쳐놓은 것이자 '문예로서의 영화'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그 표지에 선명하게 인쇄된 문구—"이 잡지는 문인의 구락부, 이 잡지는 영화

제1권 제1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인의 구락부"—대로 '문인'과 '영화인'을 독자로 호명했다. 창간사나 권두언은 없지만 『문예·영화』는 편집인 최영태가 쓴 글을 첫 기사로 수록해 이러한 편집 방향을 암시한다. 최영태는 「미국영화의 일전기」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영화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미국영화가 현재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유럽으로부터 인적·문화적 자원이 미국영화계에 유입되고 '문예영화'가 유행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한다. 이제 미국에서도 오락적인 연속영화(serial film)가 주류를 형성했던 시대를 지나 '문예물'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권 제1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이 글을 필두로 『문예·영화』 창간호는 동시대 미국영화뿐 아니라 일본과 서구에서 전개되는 문화 예술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문예'라는 관념을 구체화했다. 가스넬의 「노서아극은 어대로 가나」, 일본 근대무용의 선구자 이시이 바쿠(石井漠)의 서울 공연을 간략하게 소개한 「서울서 공연한 석정(石井) 씨의 무용」, 할리우드 스타 찰리 채플린(Charles Chaplin)의 파리 방문에 대한 「촵푸링 외유기초」, 프랑스 영화 〈메닐몬탄(Ménilmontant, 1926)〉을 소개한 「문제의 신영화 〈메닐몬탄〉은 엇더한 내용이냐」 등이 이러한 기획에 해당된다. 이 기사들은 영화와 연극을 통해 동시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일본을 매개로 중역된 것으로 짐작된다. 예컨대, 「노서아극은 어대로 가나」는 러시아 메이어홀드 극장의 조연출 그레고리 가스넬(1907–1934)의 일본 강연 일부를 김상진이 편역한 것이다.

한편 『문예·영화』는 표지에 '고문 이경손'의 이름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당시 영화계에서 '영화감독 이경손'의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잡지가 이경손에서 나운규, 정기탁 등으로 이어지는 영화계 인맥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예·영화』는 이구영, 심훈 등의 비평가보다 이경손, 나운규, 남궁운(김태진), 강홍식, 정기탁, 이이철, 김상진, 신일선 등 현장 영화인의 글을 우선 수록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조선키네마프로덕션과 계림영화협회, 나운규프로덕션 등으로 연결되는 인맥이었다. 또한 잡지가 평양에서 발행되고, 그 뒤표지에 영화 〈춘희〉의 광고가 게재된 것도 잡지의 인적 구성과 연관된다. 〈춘희〉는 정기탁이 고향에서 설립한 평양시네마의 '제1회 작품'으로, 이경손이 감독한 영화였다. 〈춘희〉에서 주연을 맡았던 정기탁은 이후 중국 상하이(上海)로 건너가 〈애국혼〉, 〈출로〉, 란링위(阮玲玉)가 주연한 〈상해여, 잘 있거라〉 등을 연출한다. 정기탁이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경손 역시 상하이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문예·영화』는 곧 상하이로 떠날 정기탁과 이경손이 평양에서 남긴 행적이라고도 하겠다.

『문예·영화』는 미적 대상으로서의 영화 그 자체에 대한 탐구보다 '영화인의 구락부'로서 '조선영화계'라는 인적 네트워크를 다지는 것을 더 중심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나운규의 「나의 러시아 방랑기(자서전)」, 이이철의 「그날의 남궁운군」, 김용국의 「그날의 나운규군」에서 두드러진다. 강홍식의 「기예에 대하여」, 임운학의 「배우지원의 비결」, 이이철의 「텀부링 잡고」 외에 정기탁, 신일선 등의 기고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이처럼, 『문예·영화』는 1920년대 후반 조선에서 '문예로서의 영화'에 대한 관념을 암시하면서, 조선영화계의 인물들에 대한 풍성한 기록을 담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조선영화계에서 사용하는 영화대본 각색용 용어해석」과 함께 러시아 작가 안톤 체호프의 단편소설 「관리의 죽음」(1883)을 각색한 「그의 죽엄」(1권)을 수록해 당시 무성영화 시나리오의 형태와 그 독해 방법을 동시에 짐작하게 해준다는 점 역시 『문예·영화』의 자료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해제: 이화진)

핵 심 어 문예영화, 나운규, 이경손, 조선영화계, 무성영화

참고문헌

- 강옥희·이순진·이승희·이영미, 『식민지 시대 대중예술인 사전』, 도서출판 소도, 2006.
- 김종원, 「영화잡지의 역사 1919~1978 : 연속사진 시대의 '녹성'에서 '영상시대'까지」, 『공연과 리뷰』 20-4, 현대미학사, 2014.

032 여시

如是
여시사
1928. 6. 1

여시(如是)』는 방인근(方仁根)이 주도하여 1928년 6월 1일자로 경성에서 창간한 학예잡지로, 문예 작품을 중심으로 하고 학술기사와 평론 등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 방인근이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고, 인쇄소는 한성도서주식회사, 발행소 여시사(如是社)로 되어 있다. 이미 종합문예지 『조선문단』(1924.10)을 창간하고 17호(1926.6)를 내고 종간한 경험이 있던 방인근은 제2의 『조선문단』을 꿈꾸면서 2년 뒤에 매우 의욕적으로 170면의 종합 문예지를 다시 한 번 펴냈다.

편집후기에서 방인근은 "조선의 그동안 잡지계 역사는 하루살이나 아침이슬과 같이 되어 독자 제위(諸位)가 애착심을 가질 사이가 없고 항상 불안한 생각을 품게"되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그리고 "『여시』는 그렇지 않기로 굳게굳게 결심하고 그만한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어달라고 청하고 있으나 결국 창간호가 곧 종간호가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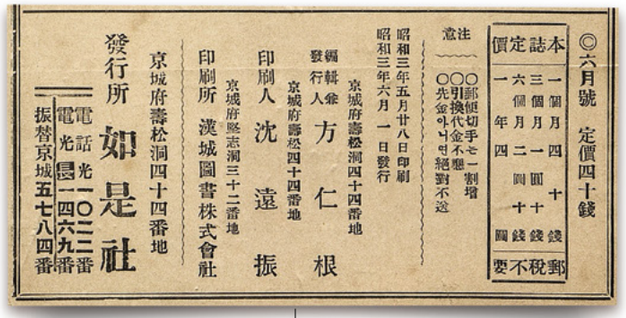
『여시』의 집필진은 당시 일급의 지식인과 문인들로 진용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는 이미 『조선문단』을 통해 쌓은 방인근의 지명도와 신뢰에 기인한 것일 터이다. 먼저 학술 분야에서는 권상로(權相老)의 「현대와 불교」, 신원(信遠)의 「헤겔의 철학」, 전영택의 「예수와 그의 교설(敎說)」 등 철학 영역의 글들이 다수 수록되었다. 잡지의 표제가 불교 용어인 '여시'(如是, 이와 같음)를 차용하고 있으므로, 불교의 현대성을 다룬 글이 수록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마치 이와 균형이라도 맞추려는 것처럼 대표적인 기독교 문인인 전영택의 글을 함께 배치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장면이다.

그 외에도 정인보의 「지나문학논총」, 진장섭(秦長燮)의 「시론 단편(斷片)」 등 문학론과 최남선의 「민족적 시련기의 조선—임진란의 본말(上)」, 이한복(李漢福)의 「조선예술사상에 나타난 완당선생」 등 역사물을 포함하여 문사철(文史哲)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지의 '여시(如是)'라는 글씨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따와서 디자인한 것으로 이한복의 글은 이런 맥락에서 게재되고 있다. 속표지에 전면 삽화로 단원 김홍도의 「유계수조도(幽溪垂釣圖)」 등을 걸어 두고 있는 것도 제호(題號)와 제자(題字)에서 이어지는 편집자의 일정한 취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특히 염상섭의 「예술가의 사회성」이라는 평론은 전문(全文)이 삭제되어 본문 페이지에는 제목만이 남아 있다. 수록된 모든 글들 중에서 검열의 대상이 된 것은 이 한 편이 유일하다. 편집후기에서 방인근이 "신문지법(新聞紙法)이 아니니 시사(時事)나 우리 쓰고자 하는 기사(記事)를 실리지 못하는 것은 섭섭하오나 그것은 장래기회로 밀"어야 한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는 염상섭의 글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그는 이 매체에서 학술과 문예에 한정된 내용만을 독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문학 작품들에서도 장르의 편성을 고르게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먼저 유엽의 단편소설


◎六月號 定價四十錢

本誌定價 一個月四十錢 三個月一圓十錢 六個月二圓十錢 一年四圓 郵稅不要

注意
○○郵便切手ヲ一割增
○○引換代金不懇
○先金ナキ向絶對不送

昭和三年五月廿八日印刷
昭和三年六月一日發行

京城府壽松洞四十四番地
編輯兼發行人 方仁根
京城府壽松四十四番地
印刷人 沈遠振
京城府壽松四十四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京城府壽松洞四十四番地
發行所 如是社
電話 光一〇二三番
電光 長一四六九番
振替京城五七八四番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정성스럽게 살기 위하여」와 함께 방인근 자신의 장편연재소설 「天堂과 地獄」, 콩트 「處女의 머리채」 등 2편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희곡으로 홍사용의 「할미꽃」, 백화(白樺) 양건식(梁建植)의 「四絃秋」 등이, 수필로는 유엽(柳葉)의 「건실(健實)」 1편이 실렸다. 시는 김억의 「해마다 생각나는」, 김영진(金永鎭)의 「첫봄」, 이장희(李章熙)의 「저녁」 등 3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종합문예지로서 수록된 시 작품은 적은 편이다. (해제: 노춘기)

핵 심 어 여시, 방인근, 학예잡지, 경성, 조선문단

참고문헌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 최동호, 최유찬,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텍스트 연구(III)」, 『서정시학』, 2013.

033 신시단

新詩壇
신시단사
1928. 8. 1

『신시단』은 1928년 8월 진주를 거점으로 창간된 시 전문 동인지이다. 월간 시 전문지를 표방하였으나 창간호에 머물고 말았다. 편집인 겸 발행인 신명균(申明均)과 총판인 한성도서주식회사는 경성에 있었으나, 인쇄를 진주 진양당인쇄소에서 하였고, 발행소인 신시단사도 그 주소를 진주로 하고 있었다.

신시단사의 창립을 주도한 것은 김찬성, 김병호, 엄흥섭, 진우촌 등이었다. 김병호와 엄흥섭은 신문과 잡지매체를 통해 이미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진우촌도 1925년 무렵부터 신문 매체에 지속적으로 시를 발표하고 있었다. 1928년 3월 18일 창립총회 개최 당시 5월 초순 창간호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총독부의 검열로 5월 7일부로 발행금지를 당하고 만다. 이에 따라 1928년 8월에 발행된 임시호(제1권 2호)가 곧 실질적인 창간호라고 할 수 있다.

『신시단』은 진주 지역의 문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전국단위의 필진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여기에 거제 출신의 이구월, 통영 출신의 탁상수, 개성 출신의 민병휘가 참여함으로써 신시단의 인적 네트워크는 단순한 지역 동호인지의 수준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필진 구성은 이 동인지가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고 지역적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전국적 위상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입증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신시단』은 재미(在美) 문인인 주요섭, 임영빈, 오천원 등을 통해 우수한 작품을 해외문단에 소개할 예정임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폭넓은 필진의 구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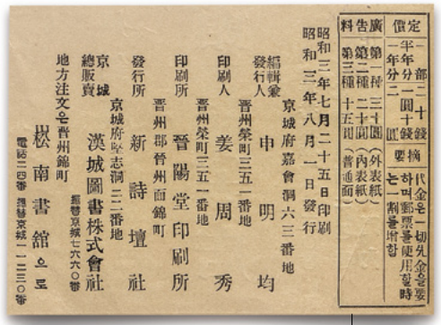
『신시단』은 시 전문지를 표방하였으므로 전체 54면 중 이찬, 이학인, 안함광 등의 시 작품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이 29편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김찬성, 김상우 등의 수필 4편과 이성로(李城路)의 평론 「예술이란 무엇인가」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 작품에 비해 시론이나 비평의 비중이 매우 낮은 편이다. 시 작품은 시가와 신시, 동요 등을 목차에서 구분 표시하여 하위 장르를 세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검열에 의해 삭제된 작품들은 목차에 제목과 필자명을 그대로 두고 본문 페이지에는 "시(詩) 일제(一題) 삭제(削除)", "십구행 삭제", "칠행 삭제" 등으로 표시하여 강제로 훼손된 흔적을 그대로 노출하였다.

편집후기를 보면 창간호가 '불허가(不許可)'처리된 후 "발간독촉장이 매일 수없이 날아들어오"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시 전문지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 때문에 지면 자체에 대한 독자와 문인들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었다는 점과 창간호 몰수 보도 이후 이에 대한 저항의식이 응집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창간호 전면 압수라는 조치를 당했던 점, 필진 중 엄흥섭, 이찬 등 1920년대 프로문학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해서 전체적인 시 작품의 경향은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색채를 크게 드러내지 않은 편이었다. 가령 카프 해산 때까지 소위 동반 작가의 경향을 보여주는 단편, 중편 소설을 발표하였던 엄흥섭의 시 「시집」은 남강(南江)의 고요한 풍경과 그 속에서 들려오는 노래들을 일컬어 "달밤의 진양성은 / 커다란 시집"이라고 그려 보인 서정시다. 이는 대표적인 카프 문인 중 한 사람인 이찬의 시 작품 「봄은 간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를 그리워 우는 이 마음을 가엽다 하거든 / 세 마리 소 등에 꽃 한 짐만 짊어 갖고 / 기어이 시들어진 이 마음도 찾아와 달라!"라고 하여 계절에 대한 감상만을 보여주고 있었다.


昭和三年七月二十五日印刷
昭和三年八月一日發行
京城府嘉會洞六三番地
編輯兼發行人 申明均
晋州榮町三五一番地
印刷人 姜周秀
晋州榮町三五一番地
印刷所 晋陽堂印刷所
晋州郡晋州面錦町
發行所 新詩壇社
京城府旭志洞三二番地
京城總販賣 漢城圖書株式會社
振替京城七六六〇番
地方注文は晋州錦町 松南書館へ
電話二四番 振替京城一一三三〇番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변추풍(邊秋風)의 시 「노동자의 장사(葬事)」가 예외라고 할 수 있다. 전반부 19행이 삭제된 채 수록된 작품으로 한 노동자의 죽음과 장례식을 소재로 한 것으로 삭제되지 않은 후반부에서는 장례식이 다 끝난 후의 담담한 장면만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슬픔에 취하고 술에 취한 머리를/숙이고 말없이 한숨만" 쉬는 장면과 "오호 고달픈 밤! 구슬픈 밤!/너는 언제나 새여 물러 가려느냐?"라는 절망적 외침을 남겨 두고 있다. 몸통이 지워진 작품의 흔적을 굳이 남겨두는 편집자의 의중에 많은 독자들의 공감이 따랐을 것이다.

『신시단』은 당대의 주류 시인들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시의 미학이나 동인 의식이 다소 소박한 한계를 보였다. 그러나 신시를 위시한 문예운동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흐름에 지역 문인들이 의욕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독자적인 문학 공간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해제: 노춘기)

핵 심 어 신시단, 신시, 시전문지, 월간, 진주, 지역문단, 동인지

참고문헌

- 강희근, 「시 전문지 '신시단(新詩壇)'에 대하여」, 『경남문화연구』 6, 1983.
- 이순욱, 「근대 부산·경남 지역의 매체 현황과 지역문학의 양상」, 『국어문학』 64, 2017.

034

신생

新生

신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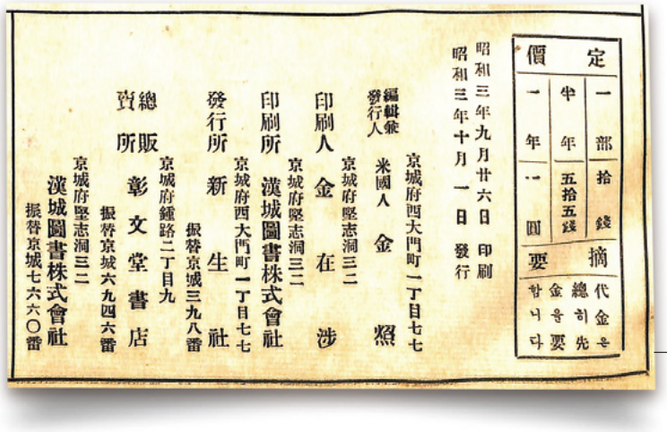
1928. 10. 1 ~ 1934. 1. 1

『신생』은 기독교계 문예교양지다. 1928년 10월 1일에 창간되어 1934년 1월까지 통권 60호가 발행되었다. 창간 당시 『신생』의 편집 겸 발행인은 미국인 김소(金炤, J. F. Genso)였고, 인쇄인은 김재섭이었다. 주간은 류형기였는데, 그는 2호부터 편집 겸 발행인을 맡았다. 그러다 나중에는 기이부(奇怡富, E. M. Cable)로 발행인이 바뀌기도 했다. 발행소는 신생사였고, 인쇄소는 한성도서주식회사였으며, 총판은 창문당서점과 조선야소교서회였다.

『신생』 창간의 핵심 인물인 류형기는 도쿄 유학을 마치고 도미하여 미국의 주요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귀국한 인물이었다. 지식인으로서 조국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이 구체화된 것이 곧 『신생』이었다. "우리는 먼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학술적으로 신생함이 있어야 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적은 힘을 모두어" 창간된 『신생』 곳곳에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조국의 청년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자 했던 류형기의 신념이 잘 나타나 있다.

『신생』은 기독교계 잡지였지만, 기독교적인 내용만으로 구성되지는 않았다. 잡지의 절반 정도는 일반적 교양물에 할애되었고, 필진의 절반 정도도 기독교와 관계없는 문인들이었다. 조윤제, 이병기, 이은상, 문일평, 이광수, 권덕규, 최현배, 이윤재, 안확, 전영택, 정인보 등이 『신생』에 글을 실었다. 김동명, 박아지, 변영로, 유도순, 김동환, 양주동 등의 시가라든지 최서해와 염상섭, 이무영의 소설도 『신생』의 가치를 더해주었다. 한글운동과 절제운동, 청년운동에 관한 글도 실어 그와 같은 사회운동을 측면에서 지원하기도 했다. 독자투고란을 운영하여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했다.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그렇다고 해서 『신생』이 기독교의 정신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니었다. 문학을 비롯하여 종교, 역사, 문화, 철학, 사회, 세계정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기독교의 정신 아래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앙의 지도자들의 설교, 강연, 성경연구 등의 글도 지속적으로 수록되었다. 한마디로 말해 『신생』은 흔히 성과 속으로 구분되곤 하는 기독교와 사회와의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했던 기독교계 잡지였다.

그러나 『신생』도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결국 그 운명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1934년 2월 20일에 발행된 『감리회보』에서 류형기는 "5,6년간 기독교 정신 하에서 반도 교화운동에 적은 힘이나마 다하여 왔"던 『신생』 대신 "신생문고"를 발행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다른 글에서 류형기는 『신생』의 마지막 무렵을 이렇게 회고한 적이 있었다. "원고 얻기도 어렵고, 원고 검열도 귀찮은 데다가 판매 부수 늘리기가 그렇게 어려웠다. 그러니까 재정난이었다. 『신생』은 류형기 일이라 하여 아무도 협조를 않는다. 먼저 이윤재 장로의 거의 무보수 도움을 받다가 노산 이은상, 그다음 유도순, 그다음 이태준 씨 도움을 받다가 약 4년 만에 폐간했다."

『신생』은 기독교계 잡지의 명맥을 이어나가며 기독교의 사회운동을 보조했던 문예교양지였다. 『신생』에 앞서서 창간된 기독교계 잡지로는 『청년(靑年)』, 『반도지광(半島之光)』, 『활천(活泉)』, 『신생명(新生命)』, 『시조(時兆)』, 『진생(眞生)』 등이 있었다. 『신생』은 그와 같은 잡지들의 연장선에서 기독교와 사회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던 잡지였다. (해제: 유석환)

핵 심 어 기독교계 잡지, 문예교양지, 류형기

참고문헌

- 윤병춘, 『한국기독교 신문·잡지 100년사: 1885~1945』,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대한기독교출판사, 1987.
- 정인숙, 「근대 잡지에 수록된 전통시가의 존재와 그 의미: 『신생』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9, 반교어문학회, 2015.
-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1』, 현암사, 2004.

1929~1935

編輯後記

同人誌의評價는 量보다質에두어야할것은 無論이다。第1号編輯後記으로貧弱을 늣긴것을告白한다。허나質에잇서케법堅陣을폈다고밋는다。創作의質은 이케方今판새암이다。허나黃土水가가라안즌뒤의 明朗한물맛은 이씨쓰는 무근새암보다맷층新鮮함을밋는다 (청병호)

1 「童話」 注文하실때는 반드시 누구나先金으로 주문하서야 책을 보내드립니다。

2 「童話」 注文하실때는 우편소에가서 振替京城五八七〇番으로 보내십시요。토가 제일싸고 어김없이 잘읍니다。振替토보내실때에는 우편소에서振替用紙를 請求하시여 이를 써서 쓰시면됩니다。

주소 京城府鍾路二丁目四五

이름 童話社

진체금번호、京城五八七〇番

3 「童話」 注文하실때 우편소가멀어 진체로 부치기 불편하시면 우표로보내도무방합니다 우표로보내실때는 五깨리나 一錢깨리 우표로보내주시면이 편리하겠습니다。

★ 문 하 실 때 ★

「創作」 創刊号를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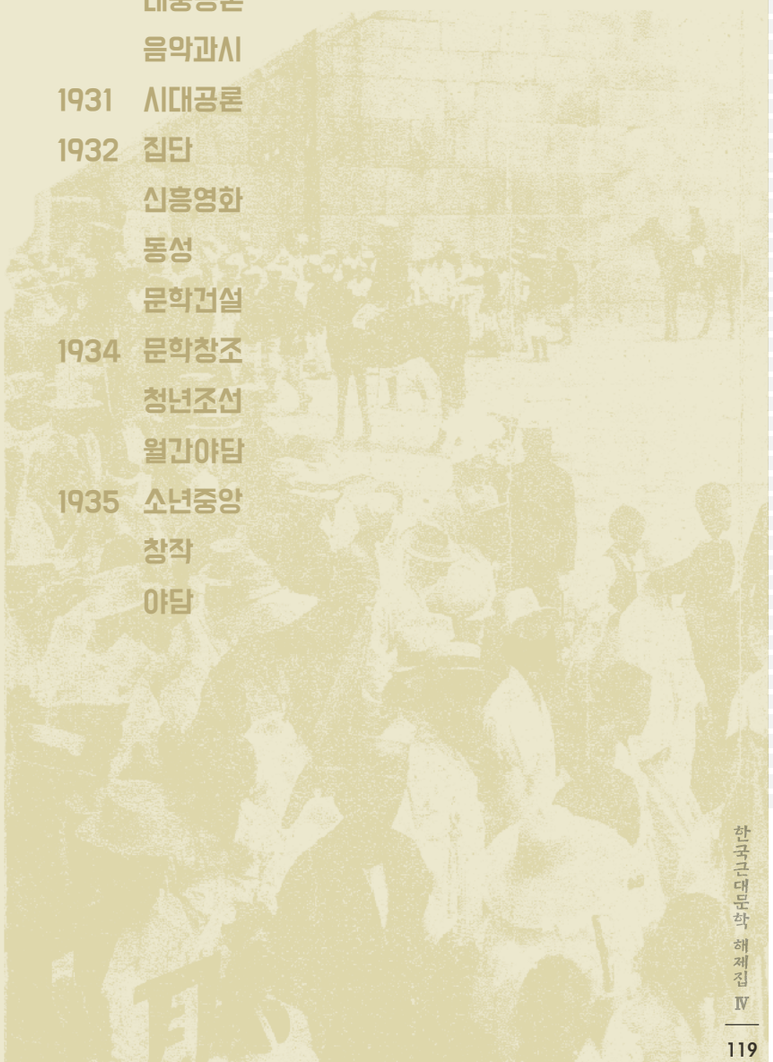
「創作」은 主張을 가지려고하지는안는다。朝鮮文學을 眞實히생각하는 사람이면누구나抱擁하련다。

「創作」은 出發할예부터 커들지는 아느려고생각한다。

「創作」을 앞흐로沈着한、그리고健實하게키워보련다。第2輯은 來年二月中에 發行할 豫定。二輯부터는 讀者의原稿를시르려고한다。健全한作品을 만히보내주기를바란다。

同人朴東根君의 原稿는 奔忙中脫稿되지안허 못실게된것을 섭섭히생각한다。

1929 무산자
괴기
1930 문예광
대중공론
음악과시
1931 시대공론
1932 집단
신흥영화
동성
문학건설
1934 문학창조
청년조선
월간야담
1935 소년중앙
창작
야담



035 무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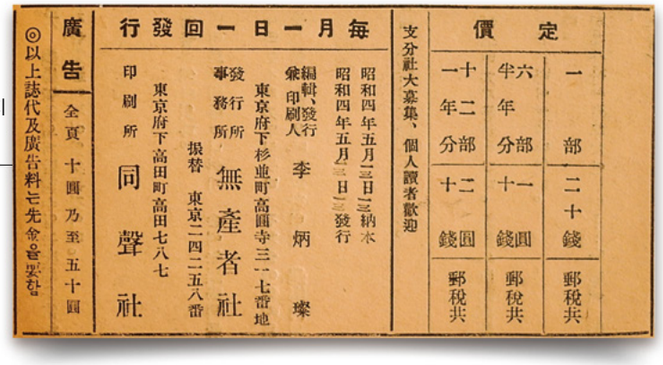
無産者
무산자사
1929. 5. 13 ~ 1929. 7. 26

『무산자』는 1929년 5월 13일에 창간되어, 1929년 7월 26일 통권 2호를 내고 종간된 종합지다. 창간호의 권호가 제3권 제1호인데, 이는 「편집여언」에도 나오듯이 『예술운동』을 새롭게 꾸며 『무산자』로 바꾸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호 판권장에는 편집·발행 겸 인쇄인 이병찬, 발행소·사무소 무산자사(동경24258번), 인쇄소는 동성사로 기록되어 있다. 판형은 A5판 55면, 정가는 20전이다.

목차에는 「정치적 시각에서 본 예술투쟁」(김두용), 「원산 ××적 로동자의 궐기」(이북만), 「전조선 로동자에 격함」(선한종), 「범태평양연안노동조합회의 제2회 대회에 대하야」, 「메-데-의 역사와 의의」(장두진), 「동무들아! 메-데-는 준비되얏는냐?」(적포탄), 「잇지 말아! 개량주의를 박멸하라!」(전맹), 「이길을 닥거서」(정용산), 「비날이는 품천역(品川驛)」(中野重治), 「이동극장」(이병찬), 창작으로 「봄」(최성수), 「화염」(신석연) 등이

제3권 제1호(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제3권 제1호(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제시되어 있다.

창간호에서 다음과 같은 창간의 취지를 엿볼 수 있다. 「산자사지분국(産者社支分局) 설치에 관하야」에서 "금일 우리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지식이 필요불가결한 것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피압박계급으로서의 지식이 필요하고, 이것을 무기로 지배계급과 항쟁하지 안으면 안된다는 것을 깨다럿다.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만 할 지식을 얻기 위하여 만히 배우지 안하면 안된다. 무산자사는 이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야 나왓다는 것을 깃버한다. 그리고 우리 무산자사에서는 금후로 만흔 출판물을 내여서 우리 조선 피압박민족의 정신적 양식을 공급하려 한다."고 하였다. 곧, '무산자사'의 설립은 피지배 민족의 지식 교양을 위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적의 발간 보급에 그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고, '무산자'는 그 활동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2호 판권장에는 편집·발행 겸 인쇄인은 이병찬, 발행소 및 사무소는 무산자사(동경2국258번), 인쇄소는 동성사로 밝혀져 있다. 판형은 A5판 67면, 정가는 25전이다. 「육십만세 사진」을 필두로 김두용의 「우리는 엇더케 살것인가?」와 「우리는 엇더케 싸울 것인가?」, 「육십만세 추모 특집」, 「조선문예를 배격함」, 「문예공론을 배격함」, 「추급(追及)과 역습」 등과 같은 논설과 평론이 수록되었고 임화의 시 「병감에서 죽은 녀석」과 권환의 「이슬이 되다니」, 서상호의 「피」와 최성수의 「봄」, 그리고 「무산자 교정」 등과 같은 창작이 발표되었다.

목차 다음 면에는 "6월 10일을 기하야 자유의 길을 차지려 밀집하는 백의대중" 사진과 "선전 비라를 비밀 인쇄한 ×의 집과 비라가 발견된 천도교회당"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김두용의 논설 「우리는 엇더케 살것인가?」에서는 《조선일보》의 '생활개신운동'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 노동자 농민은 이 자본주의 사회 밑에서는 가장 착취와 압박을 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생활도 가장 비인간적이며 노예적이다. 《조선일보》는 지금 "색의단발, 건강증진, 상식보급, 허례폐지, 소비절약"을 내걸고 있지만, 무산자들의 실제 생활은 그와는 전혀 상관없다. 생활개신운동은 개량주의자의 기만정책이다. "동지제군! 우리를 구할 사람은 우리 이외에는 없다.", "생활개신운동을 박멸하라! 개량주의자를 모라내라! 노동자 농민은 단결하라!"로 끝을 맺는다.

「우리는 엇더케 싸울 것인가?」에서는, 『무산자』가 간행된 익일에 발매금지를 당하고, 편집 겸 발행인이 29일 억류를 당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그 원인을 객관적 정세와 『무산자』 잡지의 내용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객관적 정세란 반동문학의 대두를 말하는 것으로, 『조선문예』(1929년 5월, 박영희 창간)와 『문예공론』(1929년 5월, 양주동 창간)은 교묘한 방법으로 소부르주아적 경향을 조장하고, 전진하는 노동대중을 일보 후퇴시키며, 모두 노동자 농민의 의식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전진을 방해한다고 비판하였다. 그래서, "뿌르조아적 문필상의 야심과 개인주의를 배격하자! 소뿌르조아문사를 배격하자! 소뿌르조아문예를 매장하자!"는 구호로 끝맺음하였다.

"편집후기"에서 이번 호는 육십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편집하였다는 것, 지난 5월호보다 내용이 풍부하다는 것, 들어온 원고 중에서 이북만의 논문이라든가 록지용과 신석연의 창작 등은 지면 관계상 수록하지 못했다는 것, 이 책을 모든 무산노동자 농민에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해제: 강진호)

핵 심 어 무산자, 무산자사, 계급문예운동, 육십만세 기념호, 김두용, 생활개신운동비판

참고문헌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036 괴기

怪奇
동명사
1929. 5. 20 ~ 1929. 12. 20

제1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괴기』는 1929년 5월 20일 제 1호를 시작으로 동년 12월 20일 제 2호로 마감된 단명(短命) 잡지다. 2호로 종간되리라는 것은 편집자인 최남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2호의 편집후기를 겸한 「독자께」에서 매월 1회씩 발간하려는 계획이 여러 사정으로 어긋났음을 알리며, 3호를 다음 해인 1930년 2월 중으로 발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동아일보》의 「독서고문」란은 "최남선 씨 개인잡지 『괴기』를 구독하고자 3개월 분 선금 주문을 한 바 창간호 일(一) 책만 보내주고 그 후로는 책도 대금도 보내주지 아니하니 무슨 곡절인가요?"와 같은 질문에 담당 기자가 "최남선 씨에게 직접 물어보시구려."라고 답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전해주고 있기도 하다.

1호에서는 저작 겸 발행인으로, 2호에서는 편집 겸 발행인으로 《시대일보》에서 함께 일한 정일(鄭鎰)이 판권지에 이름을 올렸지만, 실상 『괴기』는 최남선 혼자 꾸려간 잡지였다. 1호와 2호 표지 상단의 '최남선 편'과 '최남선 집필'은 이 잡지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다. 당시 잡지로서는 보기 드물게 잡지명과 나란히 편집자를 표지에 싣는 이러한 파격적인 실험은 『괴기』가 온전히 최남선의 개인 역량에 기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발행사인 동명사는 일제 당국과 갈등을 빚은 끝에 인쇄소로 명맥만 유지하던 신문관을 대신해 최남선이 1922년에 설립한 출판사였다. 이곳에서 그는 시사주간지 『동명』에 이어 일간지 《시대일보》를 창간했으나 자금난으로 실패하고, 친일 논란을 빚어내었던 조선사편수회의 촉탁으로 들어간 1928년 이듬해 A5판 각 59면(1호)과 126면(2호)의 『괴기』를 펴냈다. 『괴기』 1호와 2호의 인쇄는 경성부 공평동 55번

지에 주소를 둔 심우택의 대동인쇄주식회사가 맡았다.

변절자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조선사편수회 촉탁을 역임하던 시기 최남선은 월간지를 목표로 『괴기』를 창간했다. 『괴기』 1호 창간사 격인 「인(人)급(及)조선인에게 고함」은 이 미묘한 시기에 그가 『괴기』를 발행한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조선은 동방문화의 추축으로 인류 전 생활의 비밀한 계기를 잡은 나라"임에도 "자기네의 문화를 자력으로 학술화하지 못"하여 세계로부터 "학문상으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술적 제국주의의 강포(强暴)"에 노출될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지 위해 그는 "사학(斯學)의 보급"과 "학리의 취미화가 여기 있는 중요 과정"임을 웅변하게 된다. 고루한 전통과 인습에 머물러 급변하는 세계 학문과 지식을 따라잡지 못하는 문맹의 상태를 그는 가장 우려했던 셈이다. 이것이 창간호 표지의 "조선 중심 인문과학 통속잡지"의 캐치프레이즈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창간호와 달리 2호 표지에서는 "조선 중심 인문과학 통속잡지"의 문구가 사라진 대신 제호인 '괴기'가 좀 더 뚜렷하게 부각된다. 이는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괴기』라는 개인잡지를 발간"한 것을 "참 알 수 없는 일"로 꼬집은 세간의 비판적인 시선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는 백과사전'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세계와 조선에 대한 무한한 지적 욕구와 열망을 잡지 출판의 핵심 사명으로 여기고, "재료는 청신한 것, 분량은 간단하게, 문장은 평이하도록 이 세 가지를 준칙으로 하여 학술의 대중화에 변변치 아니한 성력"을 다할 것임을 『괴기』를 통해 재천명했다. 매월 약 50페이지를 한도로 가볍고 유익하며 흥미로운 대중잡지를 만들고자 했던 그의 일생에 걸친 노력이 『괴기』 창간의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염정소설류의 "통속 저급한 잡지"와 구별되는 종합 인문 교양지로서 『괴기』는 "통속 취미 잡지"를 지향했다. 현재 통용되는 통속과는 궤를 달리하는 철학·신학·천문학·인류학·고고학·문자학·도서학·문학 등을 망라한 박물지, 이를테면 백과사전적 지식의 보급과 전파자로 『괴기』를 활용했음은 1호와 2호의 내용이 입증하고 있다.

1호와 2호의 잡지 기사와 논설을 대상과 내용별로 정리하면, 1. 성적 화제, 2. 역사 이야기, 3. 이국적 풍속과 문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고금에 걸친 생식기 숭배를 다룬 1호의 「생식기 숭배의 속(Phallicism)」을 비롯해 남녀 음부와 상형문자의 상관성을 학술적으로 접근한 「남녀 생식기의 상형자」는 성적 화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일본·한국의 부계 전통인 「성(姓)과 씨(氏)와 족(族)에는 어떤 구별이 있나」와 개체 발생과 계통 발생의 유사성을 근거로 아동과 미개인을 비교한 「아동과 미개인」 및 하느님의 신원 조사를 통해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오랜 염원임을 강조한 「하느님의 신원 조서」는 과학적 탐구와 분석에 입각한 역사 이야기에 해당한다. 2호에서는 「조선사의 기자는 지나(중국)의 기자가 아니다」와 지나(중국) 괴담인 「뇌조(雷曹)」, 남쪽 나라 상선과 우연히 마주친 "소설 같은 사실"을 표방한 「임란 외사」, 「조선의 콩쥐팥쥐는 서양의 신데렐라」와 같은 이국적 풍속과 문물을 담은 역사 이야기들이 지면을 가득 채운다.

이처럼 『괴기』는 아직 조선인이 알지 못하는 무궁무진한 세상사를 '괴기'로 규정하며, 과학적 이해와 고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세상사의 학술적 탐구와 학술의 취미·대중화를 목표로 한 통합 인문학적 관심과 시선은 『괴기』를 당시 유행하던 '에로 그로 난센스'와 교차하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창간호의 7~80원 적자와 그의 바쁜 개인사가 겹쳐 야심차게 출발했던 『괴기』는 결국 제 2호로 폐간되고 말았다.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의 한국(조선)판은 이렇게 채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들었던 것인데,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현재도 건재함을 떠올리면 당시 조선의 언론·출판 환경의 열악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해제: 공임순)

定價
壹部金拾錢 雜誌五頁(必要先金)
參個月以上先金注文設者에 가는 送料 不要
送金
年約二回增大號發行 定價郵稅無料
送金은 아무 것으로 하셔도 좋아서 좋
現金이나 「엔」 切手 또는 爲替로 하시는 것
「스탬프」 및 郵便三錢 以上 切手는 不取하기 때문에 필요
昭和四年五月十七日 印刷
同 二十日 發行
怪奇 第壹號
著作兼發行人 鄭鑑 京城仁寺洞一二五番地
印刷人 沈馮澤 京城府公平洞五五
印刷所 大東印刷株式會社 京城府鍾路六丁目一一
發行所 東明社 振替貯金京城六六四番
販賣所 京鄉各有名書舖

제1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핵 심 어 최남선, 괴기, 세상사의 학술적 탐구와 학술의 취미·대중화,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의 한국(조선)판

참고문헌

- 고정일, 『한국 출판 100년을 찾아서』, 정음사, 2012.
- 공임순, 『식민지 시기 야담의 오락성과 프로파간다』, 앨피, 2013.
- 김근수, 『한국잡지사』, 청록사, 1980.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3』, 현암사, 2004.

037 문예광

文藝狂
문예광사
1930. 2. 10

『문예광』은 1930년 2월 10일 편집 겸 발행인 성진호(成瑨鎬)의 주도로 충남 예산과 경성에서 발행한 문예지다. 발행소인 문예광사(文藝狂社)는 충남 예산에, 인쇄 및 총 판매소는 경성에 적을 두고 있었다. 『문예광』은 일종의 동인지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비 문인들이 작품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야심 차게 기획된 공간이었으나 어렵게 발행한 창간호에 이어 다음 호를 내지는 못하였다. 소설로는 김시훈(金時勳)의 「팔바위」, 허문일(許文日)의 「그 일광(日光) 비취는 곳」이, 희곡으로는 임상호(林尙浩)의 「바다를 건너서」가 발표되었다. 그 밖에 승응순(昇應順)의 평론 「조선소년문예고」, 채규삼(蔡奎三)의 수필 「늦가을을 당하여」, 김치식(金治植)의 「들국화」를 비롯한 26명의 시 34편이 실려 있다.

편집후기에서 창간호 준비가 오래되었음에도 "자유가 없는 몸이라 벌써 나오지를 못하고 갖은 고초를 당하여 가면서 오늘에야 겨우 응애응애 부르짖고 이십세기의 조선 땅에 나오게 되었노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창간호에 수록 예정이던 원고들을 다 싣지 못하였음도 후기에서 밝히고 있는데, 순문예 잡지에까지 일제의 검열이 가혹하게 작동하여 잡지의 기획과 발간에 치명적인 결과를 남겼다.

실제로 발행인 성진호의 소설 「머슴살이」는 목차에는 보이지만, 해당 면은 삭제되어 있다. 『문예광』의 인적 구성과 기획이 아나키즘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잡지의 발전을 위한 발행인의 계획은 상당히 진취적이었다. 우선 잡지의 안정적인 발간을 뒷받침할 후원인을 모집하였다. "문예광사 사우(社友) 대모집"이라는 광고에는 십 원 이상을 일시금으로 후원한 종신회원인 '제1사우', 일시금 5원을 선납(5년 구독료)한 '제2사우', 1년 구독료인 2원 40전을 선납한 '제3사우' 등에게 본사 발행서적 실비 제공, 본사 문고의 서적을 무료로 차람(借覽), 본사 주최의 강연회 음악회 강습회 등에 무료입장 등의 특전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또한 잡지 중간에 실린 "지사(支社) 사고(社告)"를 보면, 평원지사(평안남도 평원군)와 광시지사(충남 예산군 광시면)를 이미 개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잡지의 보급 등을 위하여 경성 외의 두 곳에 지역 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발행인의 의욕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문예광』은 특별히 창간호 표지 하단에 "무명작가 발표 기관지"라고 표기해 놓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명작가, 즉 아직 본격적인 등단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비 문인들의 작품을 주로 수록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는 필진의 진용을 구축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구독자를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창간호 권두에 "문예광 집필가 방명(芳名)"이라고 하여 30명 남짓의 필진 명단이 아호(雅號), 출신지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이 명단 안에 충남 예산 출신이 7명 들어 있긴 하지만 대체로 함경남도, 평안북도 및 경성, 동경 등 다양한 지역의 문사(文士)들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었다.

『문예광』은 이미 구축된 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동인지들과는 다르긴

『文藝狂』第一卷第一號

本誌定價

冊數	郵稅先金並	海外送料
一冊	普通號 二二錢	普通號 八錢
三冊	特大號 四二錢	增大號 一六錢
六冊	一、六〇	
十二冊	二、一〇	
	二、〇〇	

昭和五年二月七日 印刷
昭和五年二月十日 發行

京城府慶雲洞九六の四番地
編輯兼發行人 成鎬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一三九
印刷人 鄭敬德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一三九
印刷所 基督敎彰文社
忠淸南道禮山郡禮山面禮山里
發行所 文藝狂社
振替京城四五〇八番
京城府慶雲洞九六
總販賣所 金文堂
振替京城五七九六番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하지만, 이들 필진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의 동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창간호의 발행 취지에 공감하고 필진으로서 참여 의사를 이미 밝히고 있으므로 느슨한 형태의 동인이라고 볼 수 있다.

발행인은 창간호에 수록하지 못한 일부 원고를 포함하여 제2호는 "창작시편호(創作詩篇號)로 내어놓겠다"라고 하면서도 "만화(漫畵) 기타 보지 못한 여러 가지 무명작가의 결정(結晶)"을 기대하라고 밝히고 있다. 창간호 발간 과정에서 검열과 삭제의 부담이 있었으므로, 사회적 메시지를 덜어내고 순 문예지로서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여 검열의 칼날을 피하고자 하였다.

『문예광』은 성진호의 주도하에 열린 문학 공간으로서 기획되었고, 실제로 전문 작가들이 아닌 아마추어 문인들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수록하면서 문학의 대중화를 꿈꾼 매체였다. 다만 발행 주체들의 응집력이 충분하지 않은 탓으로 발행인의 기획만으로 실현되기에는 그 내적 동력이 충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발행인 성진호가 '흑기연맹 사건'에 연루되어 1933년경 공주 교도소에서 작고하였다는 사실이 이 기획을 지속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제: 노춘기)

핵 심 어 무명작가, 예비문인, 충남 예산, 동인지, 아나키즘

참고문헌

- 김택호, 「아나키즘 문예지 『文藝狂』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17, 한국현대문학회, 2005.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 최동호, 최유찬, 「한국 근대잡지 소재 문학텍스트 연구(III)」, 『서정시학』, 서정시학, 2013.

038

대중공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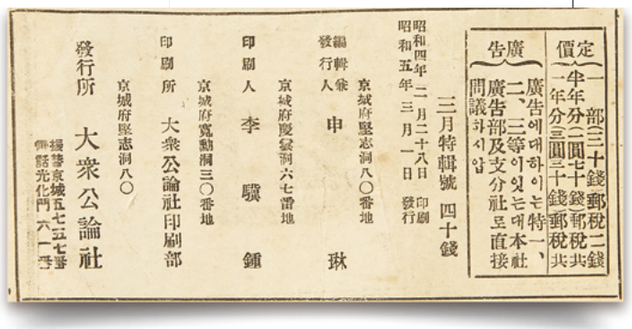
大衆公論
대중공론사
1930. 3. 1 ~ 1930. 9. 1

『대중공론』은 당대에 '평론잡지'로 소개된 문예교양지로 그 전신은 1929년 9월 10일에 창간되었던 『조선강단(朝鮮講壇)』이었다. 『대중공론』은 『조선강단』의 지령을 이어받아 1930년 3월에 2권 2호로서 창간되었다. 이후 1930년 9월까지 통권 5호, 그 전신이었던 『조선강단』까지 합하면 통권 8호까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중공론』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신림이었고, 인쇄인은 이기종이었다. 발행소는 대중공론사였고, 인쇄소는 대중공론사 인쇄부였다.

『대중공론』의 창간호, 곧 1930년 3월호에 수록된 기사 「제호를 고치면서」에서는 『조선강단』에서 『대중공론』으로 개편한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지금가지 걸어나온 몇 발자국 안되는 과거이지만 이것을 회고, 반성해볼 때 일반의 분투와 진출을 각오하여 고전적인 『조선강단』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번 제4호부터 『대중공론』이라는 참신한 제호 아래 힘세인 새 발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터이다."

『대중공론』의 전신인 『조선강단』을 '고전적인' 잡지로 규정한 까닭은 『조선강단』이 학술잡지로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조선강단』 창간호에서는 『조선강단』의 그러한 편집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조선에는 학술잡지라고는 없었었다. … 우리 조선학술계의 중책을 자부하려고 금번 돌연히 혜성과 같이 『조선강단』 창간호를 내게 되었다. … 『조선강단』은 순 학술잡지이다. 그리고 이것은 학술사상을 전반 대중에게 보급시키는 동시에 사회생활의 실이익을 촉진시키는 유일의 결정(結晶)인 것을 이에 절실히 말해둔다." 요컨대 『조선강단』의 학구적인 성격을 줄이고 좀 더 많은 독자에게 읽힐 수 있는 형태로 개편된 결과물이 『대중공론』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1930년 2월 10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에서도 그와 같은 개편의 목적을 "더 한층 대중화하기

제2권 제2호(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제2권 제2호(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위하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공론』이 『조선강단』을 일신한 잡지라고 공표했지만, 잡지의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조선강단』과 마찬가지로 『대중공론』도 학술적인 기사와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잡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잡지의 전체 분량이 2배 가까이 늘었고, 그만큼 기사의 집필자를 좀 더 다양하게 끌어모았던 점 등이 『조선강단』과는 다른 『대중공론』만의 면모였다.

이렇게 잡지를 일신함으로써 잡지의 생명력을 연장하려 했지만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1930년 9월호가 발간된 후 『대중공론』은 한동안 휴간 상태에 접어들었다. 1930년 12월에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대중공론사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사제를 도입한 것이 개편의 골자였다. 박문, 이승원, 정이경, 조열이 이사에 임명되었고, 그중 박문은 대표이사에 추대되었다. 이후 대중공론사는 1931년 3월에 속간호를 발행하려 했지만, 조선총독부의 불허로 좌절되었다. 이 일을 끝으로 『대중공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중공론』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여타의 잡지들처럼 단명했지만, 잡지의 시대적인 변화상만큼은 확실히 보여준 잡지라 할 수 있다. 1930년을 전후한 무렵은 당시 잡지들에게 변혁의 시기였다.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잡지인 『개벽』이나 『조선지광』과 1930년대를 대표하는 잡지인 『삼천리』나 『조광』이 그 변화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잡지의 대중성과 통속성은 점점 강화되어 갔다. 『조선강단』에서 『대중공론』으로의 변화는 그러한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던 셈이다. (해제: 유석환)

핵 심 어 학술잡지, 평론잡지, 잡지의 대중화, 조선강단

참고문헌

- 김근수, 『한국잡지연구』, 한국학연구소, 1992.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39 음악과 시

음樂과詩
음악과시사
1930. 8. 15

『음악과 시(音樂과 詩)』는 1930년 8월 15일자로 경성에서 월간지로 창간되었고 속간호를 내지는 못했다.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양창준(梁昌俊), 발행소는 경성의 음악과시사, 인쇄소는 경성의 대동인쇄주식회사, 인쇄인은 이주홍(李柱洪)으로 되어 있다.

원래 "푸르레타리아 음악과 시"라는 제목으로 잡지를 내려고 하였으나 "푸르레타리아"는 검열에 의해 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유로 7월 말에 8월호로 내려고 하던 것이 지연되어, 8월 15일에 총 50면짜리 9월호를 내게 된 것이다. 제2호를 10월호로 낼 것으로 예고한 점에서 본격 월간지로 발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호에서 빠진 프롤레타리아는 표지화에 공구를 든 노동자의 모습으로 대치되었다.

잡지의 이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권두언 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인적 구성과 수록된 작품의 경향에서 프로문학의 자장은 분명히 확인된다. 잡지의 제호에서 말하는 음악과 시의 만남이란 구체적으로는 노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노래는 구체적으로 동요, 창가, 민요 등을 포함한다.

잡지 앞부분에 동요라고 할 수 있는 「편싸움놀이」, 「거머리」, 「새훗는 노래」, 「알롱아 달롱아」 등의 노래 가사를 악보와 나란히 붙여 넣어 제시하고 있어 이러한 노래들을 소년들에게 널리 보급하려는 『음악과 시』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다. 매우 실용적이며 상세하게 제시된 「악보의 읽는 법」, 「작곡법」 등을 편집부 이름으로 싣고 있는데 이 또한 자신들의 동지들에게 노래를 실제로 제작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 의도로 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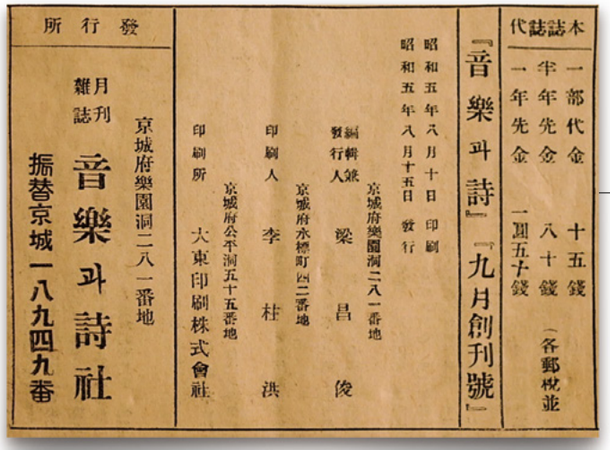
엄흥섭의 「노래란 것」, 양우정(梁雨庭:양창준)의 「민요소고」, 이주홍의 「음악운동의 임무와 실제」 등의 평론들은 대중의 혁신을 위한 음악이라는 동일한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가령 신고송(申鼓頌)의 평론 「음악과 대중」에서는 프롤레타리아를 위한 음악을 주장하고 있다.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우리는 어떤 의미의 파괴자였던 것이다. 물론 건설을 위한 파괴자인 것은 틀림없었다. 문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파괴자를 지나 건설자의 임무를 소행한 지 오래였으나 음악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전당과 상아탑을 파(破)하지 못하였다. (...중략...) 지금 조선의 음악가! 그것은 완전히 상아탑 속의 우상이며 프로레타리아트와는 몰교섭(沒交涉)의 유한계급인(有閑階級人)이다. 그들은 자신의 취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배웠으며 막연한 사회적 지위(그것도 부르조아지가 주는 명성)를 꿈꾸며 음악가가 되었으며 혹은 유행이란 연약한 삭제(索制)에 끌려 음악가가 되었으며 아니면 종교의 선전(善戰)을 위하여 음악가가 되었다.

그는 프로연맹(聯盟)의 열렬한 활동을 통해서 상아탑의 음악이 아니라 대중과 만나는 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대중을 위해 창작한 시를 작곡가들이 노래로 작곡하여 대중을 위해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병호는 「최근동요평」이라는 평론에서 다수의 동요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자칭 예술의 극치품 제작자(즉 예술지상주의자)"의 동요들을 극렬히 비판하고 계급적 메시지를 내세운 "우리 신흥동요작가"의 작품들을 상찬하며 "동무들 건필 일보 전진!하여 체계화하라"고 독려하고 있었다. 이들의 운동은 동인 내에서 그치지 않고 조선 사회 전체를 지향하였다.


發行所
月刊 雜誌
音樂과詩社
振替京城一八九四九番
京城府樂園洞二八一番地
本誌代金 一部 十五錢
半年先金 八十錢
一年先金 一圓五十錢 (各郵稅並)
『音樂과詩』『九月創刊號』
昭和五年八月十日 印刷
昭和五年八月十五日 發行
京城府樂園洞二八一番地
編輯兼發行人 梁昌俊
京城府水標町四二番地
印刷人 李柱洪
京城府公平洞五十五番地
印刷所 大東印刷株式會社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음악과 시』의 동인들은 이처럼 동지적 관계를 지향하고 있었다. 「우리들의 편지왕래」라는 코너에는 "풍산(楓山)이가 우정(雨庭)에게", "흥섭이가 병호에게"라는 소제목으로 두 편의 편지 일부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이 창간호 발간 과정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았으며 또한 진심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 중에 "여류시단신설"을 알리는 사고(社告)가 실려 있는데, 사정상 창간호에는 못하였으나 다음 달의 제2호부터 여류시단을 설치하기로 하였음을 알리고 "여류동지들"의 기고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동인 위주의 필진으로 이루어진 창간호의 외연을 확대하여 여성계 쪽으로도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보인다. (해제: 노춘기)

핵 심 어 음악, 노래, 동요, 동인지, 양창준, 권환, 김해강, 박아지, 김병호

참고문헌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40

시대공론

時代公論

시대공론사

1931. 9. 1 ~ 1932. 1. 1

『시대공론』은 1930년대 초에 발행된 사회주의 성향의 잡지다. 1931년 9월 1일에 창간되어 1932년 1월 1일에 통권 2호까지 발행되었다. 『시대공론』 창간호의 편집 겸 발행인은 김철묵이었고, 인쇄인은 최정희였다. 발행소는 시대공론사였고, 인쇄소는 선광인쇄주식회사였으며, 총판은 민중서원이었다. 주간은 김유영(김영득)이었다. 몇 달 후에 나온 2호에서는 편집 겸 발행인이 김영득으로, 인쇄인은 박신출로 바뀌었다. 인쇄소도 제3선사 인쇄부로 변경되었다. 발행소와 총판은 1호의 것과 동일했다.

1930년대에 들어설 무렵부터 잡지사들은 대중을 점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자본주의 문화의 만개에 따른 현상이었다. 이 때문에 잡지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잃어버리며 점점 통속적으로 변모해 갔다. 사실 그것은 인쇄매체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급적 억제하려고 했던 일제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다. 그 결과 그 어떤 잡지보다 정치적이고 학술적인 성격을 지향했던 사회주의 성향의 잡지들도 그러한 시대 흐름에서 예외가 되기는 어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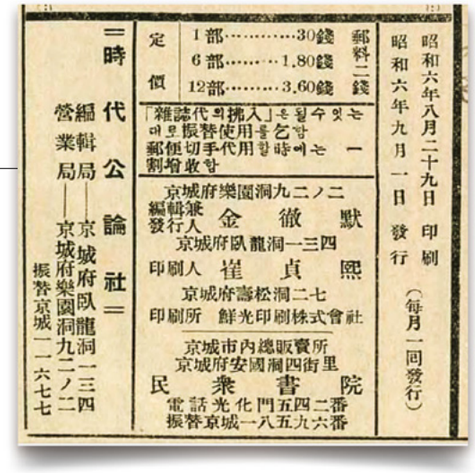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의 물결에 맞서기 위해 등장했던 사회주의 잡지가 곧 『시대공론』이었다. "프롤레타리아계급을 위한 엄정한 입장에서 전 세계의 제 문제를 검토하고 국내에서 직접으로 일어나는 모든 첨예적 사실을 신시대의 전위에 입각하여 비평할 '슬로건'을 파악해서 『시대공론』이 무산대중 앞에 출현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 『시대공론』이여, 현명한 대중 앞에서 노자협조와 인민주의에 의한 계급투쟁을 말살하고 왕래의 '에로티즘', '난센스'를 주로 한 잡지 등을 불살라버린 후 진정한 노동자, 농민, 학생의 기관지로서 '코스'를 정하여 나오기를 바랍니다."

창간호 표지
서울대학교 소장

이와 같이 『시대공론』은 대중성·통속성의 대명사였던 에로티시즘과 난센스를 철저히 제거하는 것을 잡지 편집 방침의 원칙으로 삼았다. 배성룡, 함상훈, 김장환, 김철묵, 유광렬, 윤기정, 이선근, 이여성 등이 시사적인 기사들을 『시대공론』에 수록했다. 박팔양, 박완식, 김명순, 이하윤, 김해강 등은 시가를, 이기영, 전무길, 최정희 등은 소설을 맡았다. 송영과 유진오는 희곡 작품을, 서광제는 시나리오 작품을 『시대공론』에 발표했다. 이로써 『시대공론』은 1920년대에 큰 영향을 발휘했던 사회주의 잡지 『신생활』이나 『조선지광』, 혹은 1920년대 중반을 전후해 좌경화된 『개벽』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 일은 여의치 않았다. 조선총독부의 검열은 말할 것도 없고, 대중성·통속성을 도외시하고는 잡지의 발행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창간호를 낸 후 몇 달 만에 두 번째 호를 간신히 발행했던 시대공론사는 「차호(次號)부터 제3선(第3線)으로 개제」라는 기사를 통해 『시대공론』의 개편을 다음과 같이 예고했다. "그러나 우리들은 조선의 × × 大衆과 迎合한 후 어디까지든지 힘을 다하여 계급분화가 첨예화한 현 단계에 있어서 회색적 태도를 없애고 분명히 정당한 계급운동의 소속으로 행진하려 함을 재차 여러분께 약속해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둘 중요사건은 차호부터 × × 으로 依하여 제3선으로 개제한 후 순 문예잡지로써 나가게 되겠사오니 한층 더 굳은 힘 있는 지지가 있기를 바라며 끝을 맺는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예 등을 종합했던 창간호의 편집방침을 버리고, 오로지 문예물만을 취급하는 문예잡지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시대공론사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시대공론』의 후속지 『제3선』은 끝내 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시대공론』과 비슷한 시기에 발행되었던 또 다른 사회주의 잡지들도 『시대공론』과 비슷한 행보를 보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32년 10월에 『조선지광』의 후속지로 발간된 『신계단』은 창간호에서 문예물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바로 그다음 호에서 그 편집방침을 철회했던 적이 있다. 그 말대로 『신계단』은 문예를 중시해 나갔지만, 그 전신이었던 『조선지광』의 십분의 일도 살지 못하고 잡지 시장에서 사라졌다.


昭和六年八月二十九日 印刷
昭和六年九月一日 發行 (每月一回發行)
定價 1部……30錢 郵料二錢
6部……1.80錢
12部……3.60錢
「雜誌代의拂入」을 할 수 있는 데는 振替使用을 乞함
郵便切手代用할 時에는 一割增收함
京城府樂園洞九二ノ二
編輯兼發行人 金徹默
京城府臥龍洞一三四
印刷人 崔貞熙
京城府壽松洞二七
印刷所 鮮光印刷株式會社
京城市內總販賣所
京城府安國洞四街里
民衆書院
電話光化門五四二番
振替京城一八五九六番
二時代公論社
營業局 京城府臥龍洞一三四
編輯局 京城府樂園洞九二ノ二
振替京城二六七七

창간호 판권지
서울대학교 소장

『시대공론』은 사회주의 계열의 잡지의 전통을 잇고자 했던 잡지였다. 그러나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단명하고 말았다. 『시대공론』의 생명력을 급속히 고갈시켰던 원인은 단순히 일제의 검열에만 있지 않았다. 자본주의 문화의 확산 속에서 대중성·통속성을 적절히 갖추지 못한 잡지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시대공론』은 사회주의 특유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중성·통속성의 균형점이 어느 지점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해제: 유석환)

핵 심 어 사회주의 잡지, 잡지의 대중화, 통속성, 제3전선

참고문헌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41

집단

集團
집단사
1932. 1 ~ 1932. 6. 1

『집단』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당시 공산주의 선전에 활용된 사회주의 잡지다. 1932년 1월에 창간되어 1932년 6월까지 통권 3호가 발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집단』 3호의 판권장을 보면, 편집 겸 발행인은 임인식(임화), 인쇄인은 이유기였다. 발행소는 집단사였고, 인쇄소는 동아사인쇄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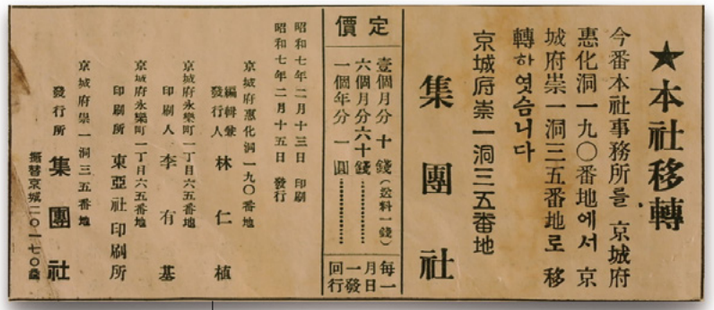
1925년 4월에 조직된 조선공산당은 1920년대에 일제의 대대적인 검거로 그 조직이 와해되었다. 1930년을 전후하여 조선공산당의 재건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중 한위건과 양명 등이 국외에서 조직한 '공산주의자협의회(共産主義者協議會)'는 그 재건운동의 한 흐름이었다. 공산주의자협의회는 카프(KAPF: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임화를 통해 국내에서 공산주의의 선전을 도모했는데, 그때 활용된 잡지가 바로 『집단』이었다.

1931년 7월 29일자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집단』은 『전선(前線)』이라는 잡지의 후신이었다. 카프에서는 그간 분쟁을 불러일으켰던 잡지 『군기(群旗)』를 대신하여 『전선』을 발행하려 했다. 하지만 일제의 불허로 좌절되고 말았다. 카프는 『전선』을 개편해 다시 잡지 발행을 시도했는데, 『집단』이 그 결과물이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연루되어 잡지 발행의 관계자들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검거됨으로써 『집단』 역시 한동안 발행이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32년 1월에 들어서 가까스로 『집단』의 창간호를 발행했다. 1932년 2월 6일자 《조선일보》의 기사에 의하면, 『집단』 창간호도 판매 도중 "만주 일중 충돌의 화보(畵報)가 기휘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미처 판매되지 못한 창간호의 잔부(殘部) 모두가 압수 조치를 당했다. 1932년 2월호(통권 2호)를 발행한 이후 조선총독부의 불허가로 『집단』의 발행은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1932년 6월호(통권 3호)를 끝으로 『집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제1권 제2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집단』의 주요 내용은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와 현황, 혹은 그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던 러시아의 정황에 관한 것이었다. 레닌과 같은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에 관한 기사도 실렸다. 안막, 송영, 이동규, 이찬, 박호, 이열 등이 『집단』의 주요 필자였다. 흥미롭게도 『집단』의 편집 겸 발행인이 저명한 시인으로 알려진 임화였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에는 문학작품이 거의 수록되지 않았다.


★本社移轉
今番本社事務所를 京城府 惠化洞一九〇番地에서 京城府崇一洞三五番地로 移轉하엿습니다
京城府崇一洞三五番地
集團社
定價
壹個月分 十錢(送料一錢)
六個月分 六十錢
一個年分 一圓
每月一日 一回發行
昭和七年二月十三日 印刷
昭和七年二月十五日 發行
京城府惠化洞一九〇番地 編輯兼發行人 林仁植
京城府永樂町一丁目六五番地 印刷人 李有基
京城府永樂町一丁目六五番地 印刷所 東亞社印刷所
京城府崇一洞三五番地 發行所 集團社
振替京城一〇一七〇番

제1권 제2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집단』은 일제의 검거 때문에 점점 기울어져 갔던 193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의 단면을 보여주는 잡지였다. 특히 강경노선을 굽히지 않은 사회주의 잡지의 운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해제: 유석환)

핵 심 어 사회주의 잡지, 군기, 조선공산당, 공산주의자협의회, 임화(임인식)

참고문헌

- 김문종,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잡지의 발행과 지국운영에 관한 연구」, 『일제강점기 언론사 연구』, 나남, 2008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42

신흥영화

新興映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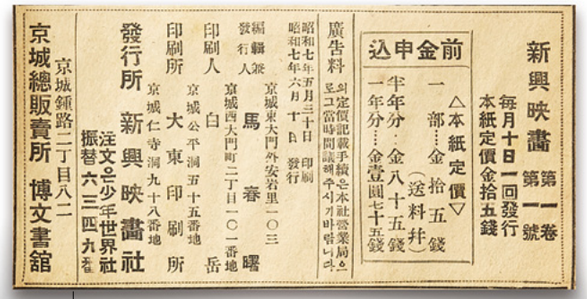
신흥영화사

1932. 6. 10

『신흥영화』는 1932년 6월에 경성에서 창간되었다. 발행인 겸 주간이었던 마춘서는 박누월, 임서방 등과 조선예술좌를 결성한 이후 대중극계에서 활동해온 인물로, 잡지 창간 무렵에는 조선연극사(朝鮮硏劇舍)에 몸담고 있었다. 그는 1932년 봄 "연극과 영화와 문예와 취미 오락 등을 종합하야 실익과 취미를 겸한 신잡지"(《동아일보》, 1932.4.20.)의 발간을 준비해 6월에 비로소 『신흥영화』를 내놓았다.

"예술은 인간의 진생활(眞生活)을 속임 없이 표현하는 것이며 그 시대의 사상을 발현하여 생활을 증명하는 콤파스", "인간을 떠나서는 예술이 없고 예술을 떠난 인생이란 우주 안에 하나도 없다" 등과 같이 인간의 생활과 예술 사이의 불가분성을 강조하며, "작일에 무미하던 생활을 금일에는 감미가 나도록, 다시 말하면 불영양적이던 것을 영양적으로 지도하는"(「창간사」) 것이 『신흥영화』의 목표였다. 발행인 마춘서에게는 그 목표가 영화를 통해 이루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신흥영화』라는 잡지명은 1930년대 초반 문화계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이 '신흥(新興)'과 '영화(映畫)'였음을 보여줄 뿐, 잡지의 대상을 한정하는 이름이 아니었다.

그러나 『신흥영화』가 1930년대 초반 해마다 조선의 영화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발행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비슷한 시기에 『대중영화』, 『신흥예술』, 『영화시대』 등이 창간되며 본격적인 영화 잡지의 시대를 열었고, 이들은 경쟁적이면서도 상보적인 관계를 맺었다. 풍성한 화보를 자랑하는 일본의 영화잡지나 단성사, 조선극장 등 영화상설관에서 발행하는 '주보(週報)'들이 관객·독자의 기대를 높여놓았을 당시에, 『신흥영화』는 권두에 빌리 도브(Billie Dove), 존 배리모어(John Barrymore), 메리 브라이언(Mary Brian) 등 할리우드 스타 화보와 단성사 개봉이 예


新興映畫 第一卷 第一號
毎月十日一回發行
本紙定價金拾五錢
△本紙定價▽
一部…金拾五錢（送料共）
前金申込
半年分…金八十五錢
一年分…金壹圓七十五錢
廣告料
昭和七年五月三十日 印刷
昭和七年六月十日 發行
編輯兼發行人 京城東大門外安岩里一〇三 馬春曙
印刷人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一〇一番地 白岳
印刷所 京城公平洞五十五番地 大東印刷所
發行所 京城仁寺洞九十八番地 新興映畫社
注文は少年世界社
振替六三四九番
京城總販賣所 博文書館
京城鍾路二丁目八一

창간호 판권지
서울대학교 소장

정된 나운규 감독의 〈개화당이문〉 광고를 깔아놓았다. 이어서 「조선극계 스타순례」라는 코너를 마련해 조선연극사 소속 배우들의 화보를 한 면에 배치했다. 이전에 발행된 『녹성』(1919)이나 『문예·영화』(1928) 등에 비하면, 『신흥영화』는 확실히 시각적 정보가 늘어난 잡지였다.

한편, 『신흥영화』는 이 시기 식민지 조선에 수입 상영되고 있었던 발성영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김효성의 「싸베트의 토키 이론」을 수록하였고, 나태영의 「영화와 표현」, 사중인의 「영화극배우술」 등을 통해 동시대의 영화 이론과 그 실제에 대해 소개했다. 반면 조선영화에 대한 관심과 비중은 크지 않았다. 1930년대 초반 조선영화는 여전히 변사의 해설이 동반되는 무성영화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데다가 그나마도 『신흥영화』가 발행된 1932년에는 조선영화의 제작이 겨우 2편에 불과할 정도로 '조선영화의 기근'이 두드러졌다. 『신흥영화』에서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것은 마춘서가 관계한 조선연극사를 비롯해 일본 쓰키지소극장(築地小劇場)에서 돌아온 홍해성의 귀국 후의 연출 활동, 그리고 극예술연구회 관계자들이 쓴 글들이었다. 『신흥영화』를 통해 1932년의 연극 지형을 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잡지는 당시 신극계와 대중극계를 아우르는 풍성한 자료를 담고 있다. 현철의 「조선신극계의 회고와 전망」, 홍해성의 「희극론」, 문학청년의 전유물이 되고 있는 연극이 대중에 한걸음 더 다가서야 한다는 유치진의 초기 연극론이 담긴 「연극의 대중성」 등 연극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연극인들의 글, 그리고 홍해성이 연출한 〈검찰관〉에 대한 평이 수록되어 있다. 무엇보다 변기종, 박영호, 왕평, 황철, 임선규, 신은봉, 지최순 등 1930년대 대중극계의 걸출한 인물들이 머물렀던 극단 조선연극사의 현장을 보여주는 단서가 많다.

『신흥영화』는 잡지를 구입하면 『세계영화소곡집』과 희곡집 『김영일의 사』, 『황야에서』를 증정하는 행사나 극단 조선연극사의 상연 극본 공모 등을 기획해 광고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그러나 여느 잡지들과 마찬가지로 그 수명은 매우 짧았다. 『조선출판경찰월보』 제48호(1932.8)에 따르면, 『신흥영화』 제2호는 조선총독부의 검열에서 '불허가 차압 출판물 목록'에 올랐다. 개의 목소리를 빌어 개를 식용하는 인간 주인을 비난한 「인간은 이렇게 악랄한 것일까?—어느 개의 호소」가 '불허'의 사유였다. 식민지 영화 잡지의 영세한 출판 구조에서 검열은 가뿐하게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었을 것이다. 이후로 『신흥영화』는 더 발간되지 못한 채, 창간호만을 남겼다. (해제: 이화진)

핵 심 어 마춘서, 조선연극사, 홍해성, 극예술연구회, 발성영화

참고문헌

- 김남석, 「조선연극사(朝鮮演劇舍)의 공연사 연구」,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 김종원, 「영화잡지의 역사 1919~1978 : 연속사진 시대의 '녹성'에서 '영상시대'까지」, 『공연과 리뷰』 20-4, 현대미학사, 2014.
- 이현경, 「한국 근대 영화잡지 형성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3.

창간호 표지
서울대학교 소장

043 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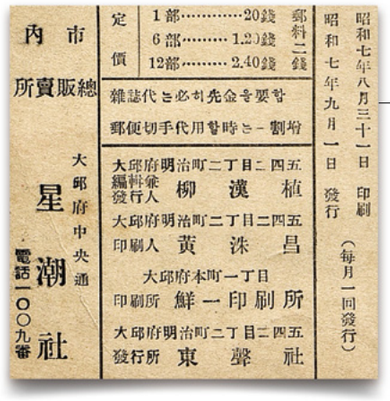
東聲
동성사
1932. 9. 1 ~ 1933. 1

『동성』은 1932년 9월 1일자로 대구에서 창간된 문예지다. 편집 겸 발행인은 유한식, 인쇄인은 황수창, 인쇄소는 선일인쇄소, 발행소는 동성사(지금의 대구 계산동 2가 245)였다. 제2호는 같은 해 11월 10일에 10·11월 합병호로, 제3호는 같은 해 12월에 송년호로 간행되었다. 창간호의 표지는 '타종(打鐘)'을 표제로 하여 태양을 배경으로 청년이 타종하는 강렬한 인상의 그림으로 표현했고, 창간사에서는 '소리, 힘, 빛으로 노래 부르자'와 같이 발간취지를 밝혔다.

창간호에는 '권두언'을 시작으로 시, 소설, 시나리오 등 문예 작품이 주로 수록되었고 평론이나 기행문도 실렸다. 창간 권두언은 척영이 쓴 글로 만등(蔓藤), 표구(剽寇) 등 당시로서도 난해한 한자어를 많이 사용했다. 『동성』 창간을 축하하는 효민의 글 「축 동성 창간」을 시작으로 논설 「인류평화를 동경하면서 소감을 논함」(현호), 평론 「문예소감」(YH生), 기행 「홍콩(香港)을 거쳐서 운남(雲南)까지」(장태공) 등이 수록되었다. 황이주는 '동성을 낳은 대구를 위하여' 「대구(大邱)는?」이라는 지면을 마련하여 신라 시대 이후의 대구의 역사를 소개했다. 시로는 「비봉산송」(이영원), 「엄마의 묘전(墓前)에서」[R생(生)] 등 6편을 수록했고, 소설로는 「가을」(정일수), 「과도기」(조동승), 「꿈」(청뢰) 등이, 시나리오로는 대구가 낳은 영화감독 이규환의 「하늘을 뚫는 자여」 등이 실렸다. 주목할 것은 '외래어 사전'이라는 코너를 설정하여 당시에 유통되던 서양 외래어를 뜻풀이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록한 외래어로 '카-보이', '크로-쓰-업', '그랜드·스탠드', '크래식', '쿠-폰', '코켓트', '꼬십', '콘트', '컨덕터', '코론타이즘' 등이다. 그런데, 외래어에 대하여 사전적 뜻풀이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편집진의 관점을 반영하여 뜻풀이를 하였다.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동성』 제2호에는 창간호 표지에 있던 타종 그림이 빠지고 '동성' 제호와 10·11월 합병호라는 표기만 있다. 원래 제2호는 10월 1일에 나왔어야 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뜻과 같지 못하여' 10월과 11월 합병호로 나왔고, 분량이나 수준이 창간호에 미치지 못하였다. 문예지를 표방하던 창간호의 성격을 다소 벗어나 논설의 분량이 느는 대신 문예란은 줄었다. 논설로 「윤자영씨에게」(박석홍), 「참 삶을 얻으려면」(PH생), 「자본주의와 우리 여성」(THC), 「죽음에 대한 소고」(박건양) 등 4편이 수록되었다. '밀정탐'이라는 필명으로 실린 「대구흑면탐사기」가 있다. 시는 창간호에 이어 「월광」(정희준) 등 6편이 수록되었고, 소설로 「과도기」와 「꿈」이 창간호에 이어 연재 형식으로 수록되었고, 산문으로는 「하녀와 잘 싸우는 부부」(정일수)가 게재되었다. 제2호에서 특기할 것은 영화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영화비평에 대한 변증법적 방


內 市
所賣販總
大邱府中央通
星潮社
電話一〇〇九番
定價 1部……20錢 郵料二錢
6部……1.20錢
12部……2.40錢
雜誌代는必히先金을要함
郵便切手代用할時는一割增
大邱府明治町二丁目二四五
編輯兼發行人 柳漢植
大邱府明治町二丁目二四五
印刷人 黃洙昌
大邱府本町一丁目
印刷所 鮮一印刷所
大邱府明治町二丁目二四五
發行所 東聲社
昭和七年八月三十一日 印刷
昭和七年九月一日 發行
(每月一回發行)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법」(이·쇼고로프, 황하석 번역)을 실었는가 하면 「세계 영화계의 지식」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중국, 러시아, 인도, '지에코' 등의 전년도 영화 제작비, 영화 관람료, 영화관 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3호는 1932년 송년호로 나왔고, 목차 없이 「임신년을 보내며」라는 '권두언'으로 시작하고 있다. 「민중의 예술적 재능」(약슬), 「농촌 문제에 대하여」(척영), 「사회생활의 본질적 상태」(유한식) 등 5편의 논설이 수록되었다. 문예물로는 시와 감상문 성격의 산문 비중이 커졌다. 시로는 「폭풍과 화염」(야강어부), 「탈몽서곡」(이구월), 「단상수장」(늘샘) 등 7편이, 산문으로는 「관념유희배의 망상」(일기자), 「초추잡감」(부론거사) 등 5편이 수록되었다. 제3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부인논단'이라는 특집을 구성하여 「남녀평등은 어디로!」(최동희), 「결혼과 매임」(정춘자), 「현모양처란 무엇」(김애라) 등의 여성주의 관련 논설들과, '부화(夫火)'라는 필명의 「여성들이여 악마의 뉘우침을 듣느냐」라는 장시를 실었다는 점이다.

『동성』은 1930년대에 종합문예지로 출발했지만 시나 소설에 한정하지 않고, 영화, 비평, 외국의 문예 사상을 번역 소개하는가 하면 농촌, 여성, 사회 등 시사 문제로 관심을 확장하며 종합 잡지로 변모해 갔다. 또한 편집진들이 창간호에서 제3호에 이르기까지 대구를 조명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대구에 기반을 둔 지방 잡지로서의 성격을 강조했다. 1933년 1월 통권 4호까지 발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해제: 유임하)

핵 심 어 동성사, 문예지, 대구, 영화

참고문헌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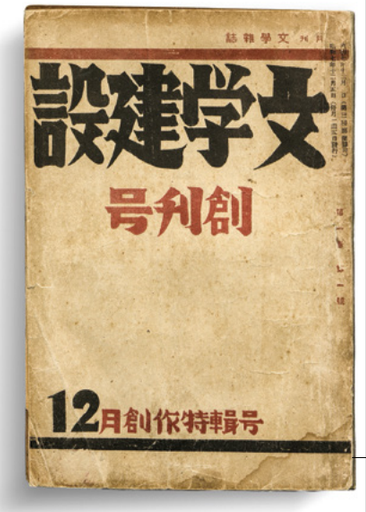
044 문학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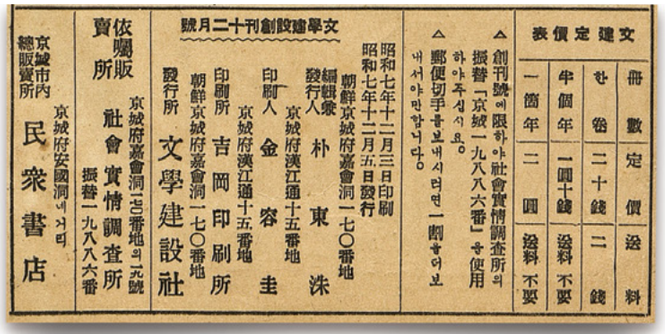
文學建設
문학건설사
1932. 12. 5

『문학건설』은 1932년 12월 5일에 창간된 종합 문학잡지로, 1호로 종간되었다. 판권장에는 편집 겸 발행인은 박동수, 인쇄인은 김용규, 인쇄소는 요시오까(吉岡)인쇄소(조선 경성부 가회동 170번지), 발행소는 문학건설사로 되어있다. 판형은 A5판 124면, 정가는 20전이다.

창간사가 없고 대신 「특고(特告)」를 통해 간행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문학건설』은 우리 문화교육활동의 전×적 분야에서 문학운동의 부문적 역할을 하고야 말을터인 제군의 친애하는 벗이 될 것이다. 『문학건설』은 ××계급의 ××, 뿔조아 반동문화에 대한 투쟁적 거×이 되기 위하야 대중적으로 ×장하려 한다. 그럼으로써 비로소 『문학건설』은 우리 문화교육활동의 문학부문적 역할을 하게 될 무기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문학건설』은 문화교육활동의 일환인 문학운동을 수행하는 매체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편집후기」에서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자 농민대중의 참된 벗"이 될 것이라고 서술된다.

이런 취지에 맞게 『문학건설』에는 많은 기사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소설로는 이기영의 「양잠촌」, 이북만의 「출근정지」, 김한(요산 김정한)의 「그물」, 이동규의 「우박」, 한설야의 「365일」, 박동수의 「개척군」 등이, 희곡으로는 한설야의 「절뚝발이」가 수록되었다. 평론으로는 박태양의 「창작방법문제 논의의 기운」, 신응식의 「싸벳트문학의 새로운 과제」, 백철의 「1932년도의 푸로레타리아 시의 성과」 등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작가 인상기로 이기영의 「송영군의 인상과 작품」, 한병도의 「윤기정 인상기」, 윤기정의 「창작가로서의 김남천군」 등이 있다. 시로는 권환의 「아버지 김첨지 어서 갑시다! 쇠돌아 간난아 어서 가자!」, 정용산의 「있어야 할 네가 없어」, 소인의 「이제는 나도」, 이찬의 「너희들을 보내구」 등이 수록되었다. 이찬의





창간호 표지 /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시에는 친구를 감옥으로 보내고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밤이 기펏나보다

아마두 퍽은 기펏나보다

이웃에서 몃홰챈가 자진닭이운지 이슥하구

서창에 서리웟든달그림자두 거진다 스러저간다

춘삼아 영길아

나는 엿태 쪽한잠도 못들구있단다

너이들을 보내구 오다가 '다모토리' 두어잔 하군

바루 드러와서 누엇다마는…

이리뒤굴 저리뒤굴 만치다가

푹 니불을 뒤집어쓴다 백이나 셈은센다하며

암만 애를 써봐두

아 부질업시 작구만치미는 너이들생각에

머리는 점점더 해맑어질뿐이다

(하략)

「1932년 창작총평」에서 한설야는 이동규의 「탈직(奪職)시대」, 김남천의 「공우회」, 만년설의 희곡 「전기(轉機)」, 피천득의 콩트 「은전 한닙」 등 56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설야는 박화성의 「하수도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 작품이 32년도 작품 중에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대중××의 방향을 ×으며 그들을 딴길로 ×만 하기 위하야서의 일은바 궁민××사업을 취재하엿기 때문"이라고 하며 비록 그 파악이 양심적이고 개량주의적이지만 그 대상을 현전 당면문제 중에서 삼아 온 것은 확실히 작가로서의 보다 나아간 감수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백철은 「1932년도의 푸로레타리아 시의 성과」에서, 첫째 시의 창작적 활동, 둘째 시의 작품과 비평적 활동, 셋째 이상 두 가지와 조직적 활동 등의 측면에서 32년도 시를 고찰한 뒤, 세 가지 모두 미흡하며,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조직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우리들의 당면과제인 다수자 획득문제와 관련하야, 기업, 농촌에 대한, 써-클, 통신망, 독자망의 조직화, 출판물의 확립과 유포의 조직화 등등, 어느것이나 우리들에게 중요 차(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하였다.

『문학건설』은 많은 시를 수록하여 1932년 당시 프롤레타리아 시단을 개관하게 만들고, 또 문학평론가 백철의 젊은 날의 문학활동의 한 단면을 엿보게 하였다. (해제: 강진호)

핵 심 어 문학건설, 박동수, 양잠촌, 그물, 작가 인상기

참고문헌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045

문학창조

文學創造
별나라社
1934. 6. 10

『문학창조(文學創造)』는 종합 문예지로 1934년 6월 10일자로 창간되었다. 소년잡지 『별나라』(1926.6.1 ~ 1935.2, 통권 80호)를 내던 별나라사(社)에서 발간하였으나 다음 호를 내지 못하고 종간되었다. 총 120쪽 분량으로 주로 카프 계열 문인들의 시·소설·평론 등이 실려 있다. 편집 겸 발행인 안준식(安俊植), 인쇄인 이유기(李有基), 인쇄소는 경성의 동아인쇄소, 발행소 별나라사다.

창간호 편집후기에서 "문학창조는 순연(純然)한 문학 동호인의 필경지(筆耕誌)"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때 '순연'이 곧 '순수문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작가다운 양심을 잃지 않고 참으로 진실하고 또는 위대하게 노력하고 있고 또는 하려고 하는 이의 글"만을 싣는다고 할 때, 그 '양심'에는 불가피하게 신념이 개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이념을 표방하던 『별나라』와 동일한 노선을 『문학창조』에서도 견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속한 저널리즘 또는 질곡(桎梏)된 에고이즘 같은 모든 공리(功利)적 문학, 영업적 문학"을 경계한다는 것도 곧 그 '양심'의 순수성을 내세우는 선언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소설로는 박화성(朴花城)의 단편 「논갈 때(春耕期)」, 엄흥섭(嚴興燮)의 단편 「방울 속의 참소식」, 이동규(李東珪)의 단편 「B촌삽화(村揷話)」 이기영(李箕永)의 중편 소설 「진통기(陣痛期)」 등이 실려 있었다. 대부분이 농촌 소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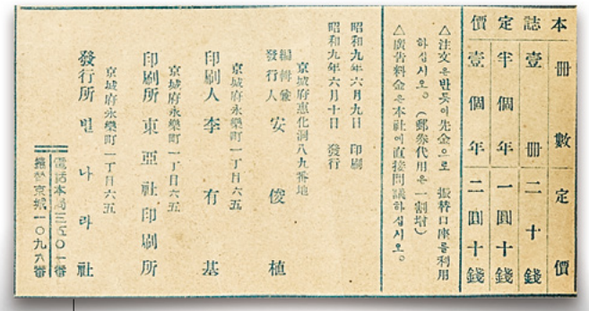
시 작품으로는 권환(權煥)의 「비 오는 봄밤」, 김해강(金海剛)의 「태양같은 나의 사나이여!」, 박세영(朴世永)의 「강남의 봄」, 박아지(朴芽枝)의 「봄을 그리는 마음」 등이 실려 있다. 임화(林和)의 시 「영원한 청년 – 세월」은 청년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확신과 용기를 가질 것을 독려한 작품이다.

우리들은
타는 가슴을 흥분에 두근거리면서 젊은 시대의 대오는
뜨거운 맥이 놉히 뛰는 두 손을 쩍버리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 끼고 닥쳐오는 세월! 미래!
그대를 이 지상에 굳건히 부여잡는다.

우리는 역사의 현실이 물결치는 대화 가운데서
써그러지며 물져가는 그것을 물리칠 확고한 계획과
그것을 행하야 독수리와 같이 돌진할 만신의 용기를 가지고
이 넓은 지상의 모든 곳에서 너의 품 안으로 다가선다

— 임화, 「영원한 청년 – 세월」, 부분

창간호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本誌定價
冊數 壹冊 二十錢
半個年 一圓十錢
壹個年 二圓十錢
△注文ハ必ズ先金ニシテ振替口座ヲ利用ヲ願ヒマス。(郵券代用ハ一割增)
△廣告料金ハ本社ニ直接問議ヲ願ヒマス。
昭和九年六月九日 印刷
昭和九年六月十日 發行
京城府蓮化洞八九番地
編輯兼發行人 安 俊 植
京城府永樂町一丁目六五
印刷人 李 有 基
京城府永樂町一丁目六五
印刷所 東亞社印刷所
京城府永樂町一丁目六五
發行所 빛 나 라 社
電話本局三二〇一番
振替貯金一〇九九番

창간호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문학창조』에는 소설, 수필, 시 작품 외에 문학 평론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박승극(朴勝極)의 「문학상 유산의 계승과 창조적 활동에 대하야」, 안함광(安含光)의 「창작방법 문제의 토의에 기(寄)하야」, 임화(林和)의 「언어와 문학 – 특히 민족어와의 관계에 대하야」 등의 평론은 사회주의적 창작방법에 대한 원론을 제시한 글들이다. 윤곤강(尹崑崗)은 시평(詩評)인 「시적 창조에 관한 시감(時感)」에서 "인간의 가슴 속에 거화를 뿌려줄 능동력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시는 시인 자신이 그들의 생활적 호흡 속으로 들어가 뿌리깊이 박히는 데 의하여서만 비로소 산 쇠북소리가 되어 그들의 가슴 속에 고도의 파동을 일으킬"것이라며 무력한 시풍을 배격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밖에 김윤석(金尹錫)의 「쉑스피어 비극인물론」, 김기진(金基鎭)의 「입센론(論) – 문학 문제에 관한 엥길스의 서간 초역」 등 희곡 관련 평론들이 수록된 것은 문학의 대중적 감화력 차원에서 희곡과 연극의 역할을 강조했던 카프 계열 문인들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문학창조』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계몽적 잡지 『별나라』의 연속선상에서 발간된 문학 잡지였다. 잡지에 참여한 필진들은 자신의 작품들에서 대중보다는 '동지'를 강력하게 호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중적 교감의 확대보다는 사회주의적 신념의 강화에 역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해제: 노춘기)

핵 심 어 문학창조, 별나라, 안준식, 카프, 안함광, 임화, 송영, 엄흥식

참고문헌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46

청년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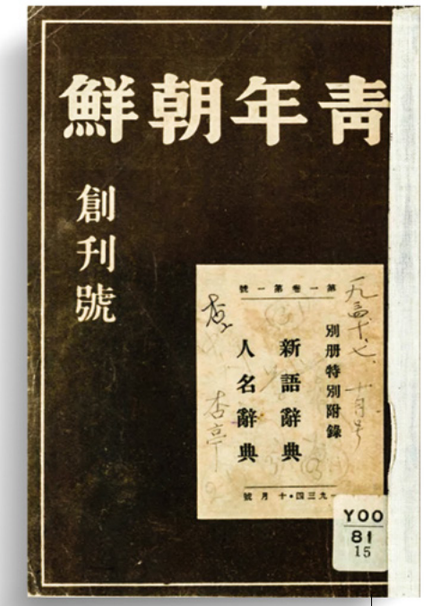
青年朝鮮
청년조선사
1934. 10. 5

『청년조선』은 1934년 10월 5일에 발행된 종합잡지이다. 발행인은 팔봉 김기진(金基鎭)이었는데, 이 잡지는 김기진과 김복진(金復鎭) 형제가 주도하여 설립한 '청년조선사'에서 발간하였으나 1호로 종간하였다. 1호에는 별책부록으로 『신어사전(新語辭典)』과 『인명사전(人名辭典)』이 제공되었다.

『청년조선』이 앞선 시기의 『개벽(開闢)』이나 『조선지광(朝鮮之光)』을 잇는 사상과 과학, 지식을 추구하였다는 사실은 이 잡지의 목차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과학성 옹호에 입(立)하야」라는 짤막한 창간사에서는 당시 조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엄숙한 과학적 방법'의 수립에서 찾고자 하였다. 창간사에서는 "조선의 온갖 출판물에서는 이 과학적 방법, 과학적 정신을 상실한 듯이 보인다. 현실의 정(正), 사(邪), 진(眞), 위(僞)를 탐구하고, 이중삼중의 가면을 벳기고서도 진리의 봉화를 높이 쳐들지 않고서는 말지 아니하는 백절불굴(百折不屈)의 우리들의 과학성을 옹립하고 엄수하는 행렬에 제군은 참가하지 아니하려는가"와 같이 권하면서 과학적 세계관의 수립을 역설하였다.

창간호에는 이에 값하는 여러 편의 논문을 싣고 있는데, 김광진(金洸鎭)의 「과학의 당파성, 역사성」, 신남철(申南澈)의 「조선연구의 방법론」, 김영건(金永鍵)의 「동양학사론」, 당시 세계의 시사를 다룬 안천민(安千民)의 「장개석정권의 중국은 어디로 가나」, 한보용(韓普容)의 「전미에 확대되는 노자쟁의(勞資爭議)」, 경제문제를 통계학적으로 접근한 이수일(李秀一)의 「조선농민의 상식」, 정대우(鄭大羽)의 「불경기란 웨 생기는 것인가」 등이 그것이었다.

또한 창간호에서는 "조선의 표정·세계의 동정"이라는 제하에서 세계정세의 여러 국면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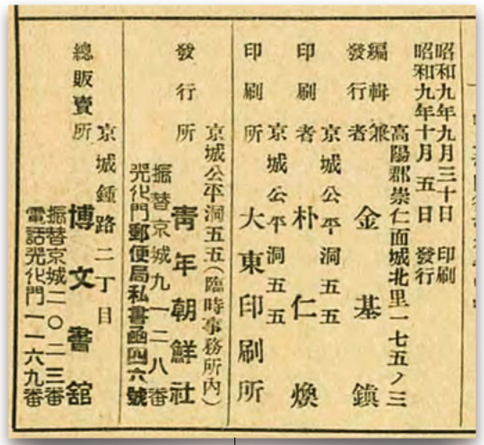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서울대학교 소장

조선의 현재를 지속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을 꾀하였다. 특히 양면 펼침으로 사진 화보가 실렸는데, '조선의 표정'에는 신당리 토막민의 철거 현장과 영흥농민조합 공판 때 피고의 친지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 '세계의 동정'에는 독일국가경찰대(獨逸國家警察隊)가 반(反)히틀러 분자(分子)의 탈출을 경계하는 사진과 군대를 국경에 결집시킨 이태리 군이 알프스를 넘는 장면이 실려 있다.

창간사와 별도로, 김기진은 「청년조선의 출발」이라는 글을 통해 잡지의 주요 독자로 예상되는 조선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젊은 조선아, 일어나거라, 포후(咆吼)하는 사자와 같이, 엽총의 탄환에 부상한 상처 같은 것은 잊어버리고 만신의 힘을 사지에 모아 가지고 뛰어넘는 산중의 웅자(雄者)를 본받지 않으려느냐. 고난을 극복하는 자 마땅히 이래야 한다. 나아가자 침착히, 물리치자 용감히, 우리가 있는 곳에 조선이 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조선이 간다"와 같이 조선의 청년들이 과학적 연구를 통해 민족적 주체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고 있다.

문예란에는 민촌생(民村生)의 「문예시평」, 이은상(李殷相)의 「수수당난고(愁愁堂亂藁)」, 이태준(李泰俊)의 「파초」, 임화(林和)의 「암흑의 정신」, 박아지(朴芽枝)의 「창궁(蒼穹)」, 조벽암(趙碧岩)의 「빈사(瀕死)의 병인(病人)」, 주요한의 「추풍인(秋風引)」, 장철(張徹)의 「포구에 선 옥(玉)아」 등과 함께 박화성(朴花城), 강경애(姜敬愛), 송영(宋影), 엄흥섭(嚴興燮), 이기영(李箕永)의 소설이 실려 있다. 특히, 목포청년회의 운동을 주요하게 다룬 박화성의 「허러진 청년회관」(전문삭제)에 대해 김기진이 「비오는 날, 회관 앞에서」라는 시로 응답·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과학성을 내세워 조선청년의 결집을 도모한 창간 의도 때문인지, 『조선청년』은 2호의 발간을 준비하고 있던 10월 말에 검열에 저촉되어 계획했던 11월호를 내지 못하고, 12월호로 연기되었다. 이후 '청년조선사'는 당시 항구 개설로 경기가 좋았던 나진을 돌면서 잡지에 대한 축하 광고비를 받아 경성부 와룡동 131번지에 '애지사(愛智社)'라는 인쇄소를 세우고 12월호 인쇄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일제 경찰은 이 모금 행위가 국제 공산당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혐의를 씌워 김복진과 김기진, 그리고 최창익(崔昌益)을 체포하였다. 결국 『청년조선』은 1호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해제: 안용희)


昭和九年九月三十日印刷
昭和九年十月五日發行
高陽郡崇仁面城北里一七五ノ三
編輯兼發行者 金基鎭
印刷者 京城公平洞五五 朴仁煥
印刷所 京城公平洞五五 大東印刷所
京城公平洞五五(臨時事務所內)
發行所 振替京城九一二八番 青年朝鮮社
兇化門郵便局私書函四六號
總販賣所 京城鍾路二丁目 博文書館
振替京城二〇二三番
電話兇化門一一六九番
창간호 판권지
서울대학교 소장

핵 심 어 김기진, 김복진, 과학성, 시사, 청년

참고문헌

-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 「『청년조선』 창간」, 《동아일보》, 1934.9.26.
- 「『청년조선』 잡지 11월호 원고 압수」, 《조선중앙일보》, 1934.10.26.
- 「『청년조선』사 인쇄소를 설치」, 《동아일보》, 1934.11.30.
- 「신건설 사건 확대 김씨형제도 압거」, 《동아일보》, 1934.12.31.

047 월간야담

月刊野談
계유사출판부, 월간야담사
1934. 10. 10 ~ 1939. 11. 10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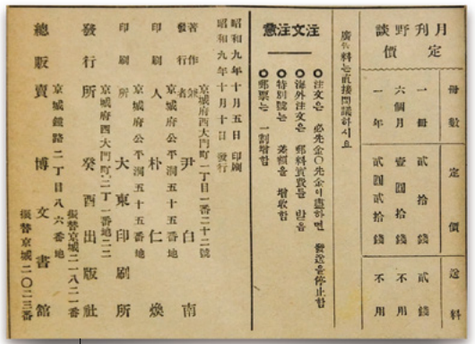
『월간야담』은 1934년 10월 10일 창간되어 1939년 11월 10일 통권 56호로 종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야담 전문잡지다. 『월간야담』은 1934년 9월에 창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비의 부족도 있었고 출판의 차지(差遲)"로 인해 1934년 10월에서야 창간호를 낼 수 있었다. 『월간야담』의 창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야담전집을 발간하여 수많은 독자를 포섭하고" 있던 계유출판사에서 "『월간야담』을 발행하기로 되어 이미 8월 창간호가 나왔"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는데, 이는 계유출판사가 『월간야담』 창간을 8월 신문 광고를 통해 미리 선전한 데서 빚어진 착오였다. 계유출판사는 『월간야담』 창간 전인 1934년 3월 '조선야사전집' 12권을 발간하겠다는 야심찬 선언(계획과 달리 1권 발행은 6월, 총 5권으로 마무리)으로 누구보다 발 빠르게 야담 시장에 뛰어들었다. 『월간야담』 창간도 이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A5판 백 면 내외 분량과 정가 20전의 『월간야담』은 윤백남이 편집 겸 발행을 도맡았다. 요샛말로 그는 핫한 엔터테이너였다. 연극, 영화, 방송, 소설, 야담, 출판을 두루 섭렵한 그는 진정한 엔터테이너로 손색이 없었다. 1933년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방송국인 JODK의 초대 제2방송과장에 취임하기도 했던 그는 연예와 아동 중심의 오락 방송을 확충하고, 야담 구연가로 직접 출연하여 낙양의 지가를 올리기도 했다. "윤 선생이 제일"이라는 상찬 속에서, "항상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듣지 못한 분은 한 번만 들었으면 원이" 없다고 하는 수백 명 팬들을 거느린 인기 야담가였다.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옛이야기를 자유자재로 풀어놓을 정도로 그는 입담이 대단했다. 방송과 공연을 종횡무진 누빈 야담 대가의 손에 의해 탄생한 『월간야담』은 발매 전부터 세간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동종업계의 출판인들을 바짝 긴장시켰다.

『월간야담』은 윤백남의 사전 기획력 때문인지 잡지계의 불황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당시 잡지가 "대개 3호를 간신히 내고 자빠지는 현황"에서 『월간야담』은 "조선 출판계에 있어 그만하면 기초가 확립된 것이라는 보장을 내릴 수 있는" 독자대중의 열띤 지지와 성원을 받았던 것이다. 5년여 동안 통권 56호라는 이례적인 장수를 기록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1935년 7월 통권 10호 첫 페이지에 "창간호 이하 우금(于今)까지의 것을 요구하시는 주문이 쇄도하므로 금반에 지형이 유(有)하온 제2호로 9호까지를 5백 부 한정판으로 재판"한다는 안내문이 실리는 등 『월간야담』은 잡지계의 판도 변화를 주도했다. "야담잡지의 발행 부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지방의 일례만 보더라도 문예잡지의 열 배, 조광이나 신동아의 약 삼사 배가 팔"린다는 신문 보도는 "경성, 평양 등의 대도시보다는 지방 소도시가 또한 촌읍으로 갈수록 비례는 보다 더 야담에게 유리"하다는 방방곡곡에 스며든 야담 잡지의 인기를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얄팍한 현대 문명으로서 두툼한 조선 재래의 정서에 잠겨보자. 그리하여 우리의 잊어진 아름다운 애인을 찾아보자"는 창간호 「권두언」을 필두로 "건실한 독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도 휴지통에 버리지 못할 기사"의 세 가지 모토를 내걸고, 『월간야담』은 옛이야기의 현대적 오락물로 자리매김했다. 사화를 창작한 경우가 50%, 야담을 개작한 경우가 15%, 기타 35%의 비율로 『월간야담』은 옛이야기를 현대적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하여 '귀로 듣는 활자', '눈으로 보는 구연'의 시청각을 모두 만족시키고자 했다. 제2권 제3호(통권 8호)까지 윤백남의 「권두언」 체재가 유지되다가 제2권 제4호(통권 9호)를 기점으로 「권두언」은 사라진 대신 "역사적 기담(奇談) 만재(滿載)"와 "윤백남 책임 편집"이 부각되며, "야승 중에서 재미있는 것만" 골라 싣는 재미와 효용을 극대화하게 된다.

조선의 대표적인 야담집인 『청구야담』, 『어우야담』, 『계서야담』, 『천예록』, 『동패낙송』, 『동야휘집』과 중국의 야담집, 풍물기, 심지어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까지 『월간야담』은 다양한 야담, 일화, 사화 등을 각색해 실었다. 전문 야담가가 부족한 현실에서 발행인 겸 편집자인 윤백남


昭和九年十月五日 印刷
昭和九年十月十日 發行
著作兼發行人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二番三十二號 尹白南
印刷人 京城府公平洞五十五番地 朴煥仁
印刷所 京城府公平洞五十五番地 大東印刷所
發行所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二番地二 癸酉出版社
振替京城二八二二番
總販賣 京城鍾路二丁目八六番地 博文書館
振替京城二〇三三番
廣告料ニ就テハ直接問議ヲ乞フ
月刊 定價 一冊 貳拾錢 貳錢
月刊 定價 六箇月 壹圓拾錢 不用
月刊 定價 一年 貳圓貳拾錢 不用
注意
○注文ハ必ズ先金ニテ郵便爲替ヲ以テ申込ミ
○郵料實費ヲ要シ
○特別號ハ一割增收ス
○郵料ハ一割增收ス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의 활동은 두드러진 것이었다. 『월간야담』에서 그가 출현한 회수는 총 22회에 이른다. 시기적으로는 고구려에서 조선까지, 공간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및 조선을 아우르는 옛이야기의 향연이었다. 「정열의 낙랑공주」, 「후백제 비화(秘話)」, 「괴승 신수(信修)」, 「홍윤성과 절부」,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an Poe)의 번안인 「흑묘이변(黑猫異變)」은 모두 윤백남의 작품이었다. 그 외 윤백남보다 출현 빈도가 높은 양백화(총 31회)를 비롯해 신정언, 김동인, 차상찬, 윤승한, 홍효민 등의 유수 야담가들도 중요 필진으로 참여했다. 다만 양백화가 중국 야담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간야담』의 성격을 틀지은 것은 역시 윤백남이었다.

하지만 '조선야담집' 발간으로 큰 빛을 안게 된 윤백남이 1937년 만주로 이주하면서, 『월간야담』은 1939년 1월(통권 47호) 박희도로 발행인이 바뀐 뒤 얼마 되지 않은 동년 11월에 마침내 종간되고 말았다. 이로써 『월간야담』이 한 축을 떠받치던 1930년대 '야담 전성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시 야담이 부활하는 1950년대를 기다려야만 했다. (해제: 공임순)

※ 자료조사 과정에서 통권 56호보다 많은 자료가 발견되었으나, 통권 번호의 표기가 없는 것, 판권지 누락된 자료 등이 있어 본 원고에서는 발행처가 표지에 적은 통권 56호를 반영해 서술했음을 밝혀둔다.

핵 심 어 최초의 야담전문잡지, 윤백남, 조선 재래의 정서, 역사적 기담 만재

참고문헌

- 공임순, 『식민지 시기 야담의 오락성과 프로파간다』, 앨피, 2013.
- 김근수, 『한국잡지사』, 청록사, 1980.
- 정부교, 「근대 야담의 전통 계승 양상과 의미」, 『국어국문학』 35,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998.
-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 100년』, 한국잡지협회, 1995.

048

소년중앙

少年中央
조선중앙일보사
1935. 1. 1 ~ 193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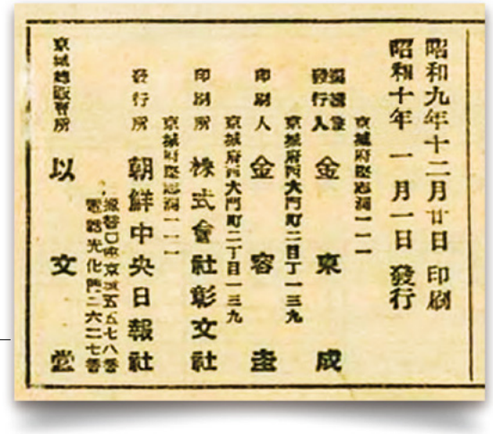
『소년중앙』은 1935년 1월에 조선중앙일보사에서 나온 월간 아동잡지다. 현재 1935년 7월호까지 파악되고 있다. 매호 70~90면 정도의 분량이었으며, 가격은 10~20전이었다. 아동문학가 윤석중이 편집을 맡았다. 윤석중은 자신이 조선중앙일보사에 들어갔던 것도 기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사장 몽초 최선익, 전무 윤희중을 졸라 아동 잡지를 하나 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회고한 바 있다. 당시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이었던 여운형은 창간사에서 "우리 『소년중앙』은 여러분의 호랑이 어머니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호랑이 젖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이담에 사납고 용감스런 훌륭한 일꾼이 되어주십시오."라며 어린이들을 향한 희망을 밝혔다.

『소년중앙』은 소설, 동화, 우화, 동요, 동시 외에도 삽화나 화보를 풍성하게 실어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그림얘기', '그림노래', '사진소설', '영화소설' 등과 같이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한 실험적인 글도 지속적으로 선보였다. 표지 및 삽화는 정현웅, 노수현, 이승만 등이 담당하였다. 필자로는 조선중앙일보사에 재직 중이었던 여운형(사장), 최선익(부사장), 김동성(편집국장), 이태준(문화부장) 이외에 마해송, 주요한, 김복진, 이영철, 이무영, 박태원, 윤해영, 신명균, 이광수, 박팔양, 이헌구, 정우해, 최영주, 박목월 등 유명문인들이 많이 참여했다. 김복진은 전래동화를, 김동성과 주요한은 번역동화를 자주 발표했다. 장편 연재물로 박태원의 탐정소설 「특진생」과 백신애의 소설 「푸른하늘」이 수록되었다. 이서구 원작을 바탕으로 편집부가 만든 소녀사진소설 「선생님도 우시엿다」, 엑토르 말로 원작의 영화를 이귀남이 각색한 소년영화소설 「집없는 아이」도 이채를 띤 작품들이다. 동요는 그림이나 악보와 함께 수록될 때가 많았는데, 특

히 제4호에는 윤석중의 동요 「저녁놀」에 정현웅이 삽화를 그린 시화(詩畵), 현제명이 곡을 붙인 악보, 박외선이 만든 '동무(童舞)'를 어린이가 시연한 사진 화보 등이 나란히 실렸다. 한 편의 동요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아동예술의 큰 범주에서 문학, 미술, 음악, 무용의 협업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준 흥미로운 기획이다.

『소년중앙』은 아동잡지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중앙"이란 제호에 "소년"을 덧붙여 만든 것이지만, 『소년중앙』은 아동 독자층을 다시 '소년'과 '유년'으로 구분하였다. 『소년중앙』이 창간될 때부터 부록으로 나온 『유년중앙』은 이러한 기획의 소산이다. 잡지의 주 독자층인 '소년'들 이외에도 '유년'을 위한 지면을 독립적으로 구성한 점은 『소년중앙』 체재의 특별한 점이다. 『유년중앙』은 『소년중앙』 창간호부터 1935년 3월호까지는 별책 형식으로 나왔으나, 4월호부터는 본

창간호 표지
서울대학교 소장



창간호 판권지
서울대학교 소장

권 속에 편집되었다. 그러나 본권으로 합쳐진 이후에도 『유년중앙』은 활자의 크기나 색깔이 다른 부분과 달랐으므로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유년중앙』의 필자로는 이태준, 김자혜, 노천명, 박영종(박목월)이 참여했으며, 목차에 '소설'이나 '동화'라는 장르명 대신 '이야기'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유년중앙』은 아동 출판물에서 유년 독자 그룹을 구분해 나간 과정 및 유년문학의 형성 과정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해제: 조은숙)

핵 심 어 조선중앙일보사, 윤석중, 유년중앙

참고문헌

- 이미정, 「1930년대 유년잡지 『유년중앙』과 『유년』 특성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7.
- 정진헌, 「아동문학의 장르 분화와 유년문학의 등장」, 『동화와 번역』 34,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17.

049

창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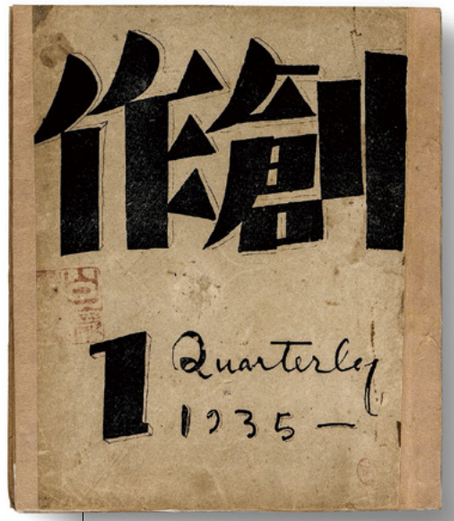
創作
창작사, 세기사
1935. 11. 19 ~ 1937. 7. 15

『창작』은 동경 유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문예 동인지로 1935년 11월 19일에 창간되어 1937년 7월 15일 통권 제3호로 종간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이 매호 바뀌어 제1호는 한적선(韓笛仙), 제2호는 한천(韓泉), 제3호는 신백수(申百秀)가 맡았다. 발행소 또한 제1, 2호가 동경의 창작사, 제3호는 경성의 세기사(世紀社)로 바뀌었다. 창간호 표지에 "Quarterly"라고 표기된 점에서 처음에는 연 4회 발행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제1, 2호를 1935년 겨울, 1936년 봄에 맞춰서 낸 후 1937년 여름에야 제3호를 펴낸 것이다.

창간호 동인은 주영섭(朱永涉), 정병호(鄭炳鎬), 신백수, 한천, 장영기(張永基), 김일영(金一英), 한적선, 김병기(金秉騏) 등이었는데, 제2호(1936년 4월 18일 발간)에 황순원(黃順元)과 박동근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제3호에는 한적선, 주영섭, 한천, 황순원 등 4명만이 작품을 수록하였다. 제1, 2호에서는 시의 비율이 높았으나 제3호에 오면 시는 단 한 편도 없고 희곡과 소설만 수록되었다.

창간호에는 주영섭의 「포도밭」, 「대낮의 논길」, 정병호의 「아킬레스와 거북」, 「TABOO」, 「석류알」, 신백수의 「용명기(溶明期)에 해안이 있던 전설」, 「Donnez moi une pome」, 한천의 「무지개」, 「메마른 풍경」 등 시 10편, 김일영의 단상(斷想) 「토막토막」과 한적선의 희곡 「장벽(障壁)(제1막)」이 각 1편씩 실려 있다. 제2호에는 황순원의 「도주」, 「잠」, 주영섭의 「해가오리」, 「세레나데」, 정병호의 「사마구」, 「천지현황우주홍황」, 장영기의 「옛 성계」, 「삼악사」, 한천의 「미사니의 노래」 등 시 9편 그리고 신백수의 소설 「송이」, 박동근의 평론 「방송극 소론」, 한적선의 희곡 「장벽(제2막)」 등이 수록되었다. 제3호에는 희곡으로 한적선의 「장벽(제3막)」과 주영섭의 「벌판」 등 2편, 소설로 한천의 「산골겨레들」과 황순원의 「거리의 부사」 등 2편이 실렸다.

창간호의 유일한 희곡 작품이었던 한적선의 「장벽」은 3막으로 구성된 것으로 1930년대 평양의 한 서민 가정의 생활 문제를 다룬 것으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막씩 나누어 연재되었다. 제2호의 편집후기에서는 "창간호에서 진지한 의도(意圖)를 보여준 적선군(笛仙君)의 「장벽(障壁)」은 시대를 호흡하는 심상(心象)의 풍경(風景)이다. 제3집에서는 그 완결편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제3집은 6월 중순 발행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계획대로는 되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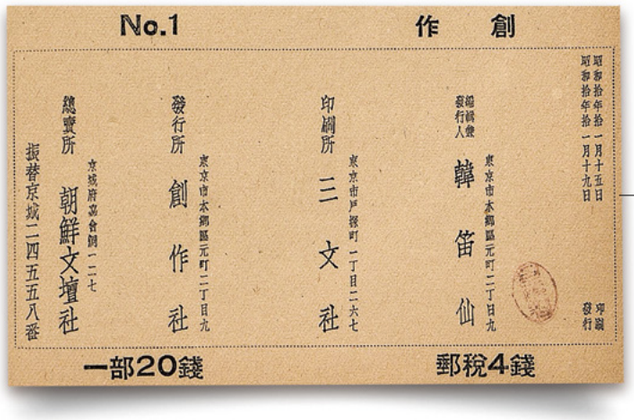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창작 동인의 이념이나 선언을 명시적으로 밝힌 글은 없다. 창간호 후기에 한적선이 "주장을 가지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것처럼 다양한 문학적 경향을 수용하고자 했다. 다만, 김병기의 삽화에 이어 창간호 서두에 "새로움의 탐구(探究)", "창작인 창작의 존재 가치", "진실한 조선 문학의 발전은 건전한 동인지(同人誌)의 생장(生長)에서"와 같이 간결하게 적어 둔 것이 그 선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간호 편집후기에서 정병호는 동인지를 묶는 과정에서 '빈약함'을 느꼈음을 고백하였다.

주영섭은 제1, 2호에서는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언어, 과감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시를 발표했다. 1934년 마완영(馬完英), 이진순(李眞淳), 박동근(朴東根), 김영화(金永華) 등과 함께 동경학생예술좌(東京學生藝術座)를 창단하고 기관지 『막(幕)』의 발간을 주도한 바 있는 주영섭은 『창작』 제3호에 희곡 「벌판」을 발표하였다. 같은 호에는 『막』 창간호의 광고도 실려 있다. 『창작』 제2호에 「방송극 소론」을 실은 박동근은 주영섭과의 이러한 인연으로 동인에 참여하게 된



창간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것으로 보인다.

황순원은 제2호에 「도주」, 「잠」 등 2편의 시를 수록하였고, 중간호 제3호에서는 단편소설 「거리의 부사(副詞)」를 발표하였다. 그는 첫 시집 『방가(放歌)』(1934)를 낸 이후 제2시집을 낼 무렵에 『창작』의 동인으로 참여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의 첫 소설이 발표된 『창작』 제3호에 제2시집 『골동품』의 광고가 함께 실려 있다는 점이다. 그는 1937년 『단층(斷層)』의 동인이 된 이후 창작의 중심을 소설 쪽으로 옮기게 된다.

『창작』 제3호 광고란에는 제4집에 대한 예고 광고가 실려 있다. "작품집"이라는 부제를 붙인 제4집은 9월 하순경 발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그 옆에 "1집 절판, 2집 이십전"이라고 부기해 놓았다. 그러나 끝내 4호는 나오지 못했다. (해제: 노춘기)

핵 심 어 동경, 유학생, 동인지, 주영섭, 황순원, 한적선, 신백수, 동경학생예술좌

참고문헌

- 김춘식, 「황순원의 초기 시작 활동과 재일조선인 아나키즘」, 『한국문학연구』 5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6.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 키워드: '주영섭', '황순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050

야담

野談

야담사

1935. 12. 1 ~ 1945. 3. 5

김동인이 주관한 『야담』은 『월간야담』의 높은 판매고에 자극받아 1935년 12월 1일에 창간되어 1945년 3월 5일 통권 110호로 종간된 보기 드문 장수 야담 전문잡지다. 『야담』의 창간에 대해서 김동인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회고담을 남겼다. "백남의 『월간야담』 경영 상태를 보니 수지는 제법 맞는 모양이었다. 『월간야담』은 거진 내 글로 꾸며진다. 그럴진대 그 내 글로써 내가 잡지를 간행하면 매번 구구하게 원고료 받지 않고도 내 살림은 영위가 될 것이다. 이리하여 나는 창간비(創刊費) 약간을 마련해 가지고 『야담』 잡지를 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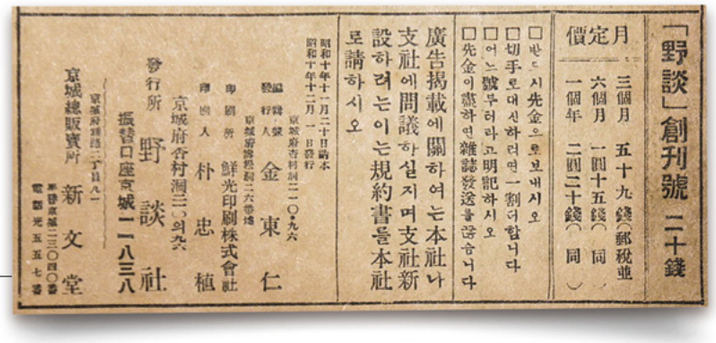
매번 9천 부 정도가 나갔다는 김동인의 주장에서 드러나듯이, 12월 1일 창간호 초판은 12월 4일 재판을 찍을 정도로 신생 잡지로서는 상당히 선방했다. "문예, 창작, 옛말, 사화, 일화 등등에서 순전히 취미 있고 이야기로 될 만한 것만을 편집하였으니 장래의 방침도 그러"할 것임을 창간호의 주지로 삼으며, "이즈음 흔히 건전치 못한 취미가 많음을 통탄하여 건전한 이야기 잡지"를 만들고자 했음을 강조했다. 《조선중앙일보》는 "취미 잡지 『야담』 금월 창간"의 소식으로 『야담』을 "문예, 야담, 역사, 취미의 종합잡지"로 소개하고 있기도 하다.

건전한 취미 잡지이자 누구나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잡지임을 자임한 『야담』은 후발주자가 지닌 제약을 문단과 야담계 중진들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다른 것보다도 가장 여러분께 자랑"하고 싶은 "『삼국유사』의 현대어 번역"으로 돌파하고자 했다. 『삼국유사』가 희서 중 희서로 "값이 비싸며 그 위에 또한 순한문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반에 보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국유사』의 전역 게재는 "근래에 있지 않은 대사업인 동시에 또한 본지의 자랑의 하나"로 『월간야담』과의 차별화를 꾀했던 것이다. "온갖 기담, 로맨스, 일화 등으로 본시 역사적 가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치보다 문학(취미문학)적 가치가 높"은 『삼국유사』는 "실지식과 취미"를 표방한 『야담』 간행의 취지와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이 창간호의 주장이었다. 『야담』은 『삼국유사』를 1937년 12월까지 전문 번역해 실었고, 이 외에도 「최근 60년의 비록(秘錄)」, 「한말비화」, 「용재총화」, 「고려사절요」, 「개화 전후 신문논설집」, 「이조오백년사가」, 「만복사저포기」, 「유응부선생 실기」 등과 같이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지만 한글 번역이 되지 않은 귀중본들을 발췌 내지 전문 번역하여 게재했다. "파묻혔던 희구(稀覯) 작품을 발굴하여 매호 양심적 편집을 해" 왔다는 1938년 10월 「편집실 통신」의 고전 소개와 해제에 대한 자부심은 『월간야담』과 경쟁 구도를 형성했던 『야담』의 생존전략이기도 했다.

후발주자로 문단과 야담계의 권위 있는 필진들의 도움을 받았다 해도, 『야담』은 기본적으로 김동인의 독무대나 다름없었다. 최독견, 이광수, 윤백남, 전영택, 방인근, 김안서, 류팔극, 박종화, 이무영, 이기영, 박태원, 김남천, 신정언, 유광렬, 윤효정 등의 유수 필자들이 『야담』의 지면을 다채롭게 구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매월 발간되는 『야담』의 "편집, 영업의 일체를 직접 감독"하기에 김동인은 늘 손이 부족했다. 게다가 "잡지 전권의 원고를 일자일구도 편집 책임자가 검열하고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증(고증)에 대한 압박감도 적지 않았다. 야담 전문잡지의 특수성과 맞물리는 과도한 작업 부담은 "본지를 창간하시고 기초를 튼튼히 공사(工事)하신 김동인 선생은 병마 때문에 거(去)오월부터 본사를 사임하시고 방금 산중에서 전심


「野談」創刊號 二十錢

月定價
三個月 五十九錢(郵稅進)
六個月 一圓十五錢(同)
一個年 二圓二十錢(同)

□만드시 先金으로 보내시오
□切手로대신하려면 一割더합니다
□어느號부터라고明記하시오
□先金이盡하면 雜誌發送을끊습니다

廣告掲載에關하여는本社나 支社에問議하실지며支社新設하려는이는規約書를本社로請하시오

昭和十年十一月二十日 納本
昭和十年十二月一日 發行
京城府寺村洞二一〇九六
編輯兼發行人 金東仁
京城府寺洞二一〇九六
印刷所 鮮光印刷株式會社
印刷人 朴忠植
京城府舍村洞三〇의九六
發行所 野談社
振替口座京城一一八三八
京城府壽洞二丁目九一
京城總販賣所 新文堂
電話光五五七番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요양 중"이라는 「사고」와 함께 1937년 7월 발행권을 임상호(임경일)에게로 넘기게 된다.

잡지 창간의 주역인 김동인은 1945년 3월 종간까지 몇 편의 야담만을 남겼을 뿐이다. 임상호(임경일)에 이어 1942년부터는 김송이 『야담』을 주도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과 함께 일제는 조선어 금지와 국어(일본어) 상용 방침을 내세워 한글(조선어) 잡지 발간을 규제하게 된다. 『야담』은 이 억압적 현실 속에서도 한글(조선어) 잡지의 명맥을 유지했다는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책 선전용 시국 기사와 근로 야담, 충렬 야담과 같은 전시 잡지의 성격을 피할 수 없었다. '일본 내지(內地) 야담'이나 '전선 미담' 등은 야담을 활용한 시국 선전의 장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시사는 되도록 피하고 건전한 이야기 잡지를 표방했던 『야담』은 한편으로 「실화 박어사」, 「함흥차사」 등의 옛이야기를 싣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열렸다 광영의 군문(軍門)」, 「방공(防空)에는 필승 신념이 제일」, 「결전의 진군보(進軍譜)」와 같은 지원병제도 나아가 징병제도에 그 보조를 맞추었다. 이러한 대일 협력의 태도가 『야담』을 최장수 잡지로 존속케 한 토대였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해제: 공임순)

핵 심 어 김동인, 실지식과 취미의 야담잡지, 고전 번역과 게재, 전시 오락과 야담

참고문헌

- 공임순, 『식민지 시기 야담의 오락성과 프로파간다』, 앨피, 2013.
- 김근수, 『한국잡지개관 및 호별 목차집』, 영신아카데미 한국학연구소, 1975.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 3』, 현암사, 2004.
-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 100년』, 한국잡지협회, 1995.

1936~1944

1936 문학
동화
가톨릭소년
탐구
문예가
광업조선
낭만
1937 요람
문원
시인춘추
1939 웅계
시림
작품
백지
순문예
1940 태양
업
국민총력
1943 월간 소국민
1944 국민시인

051 문학

文學
문학사
1936. 1. 5 ~ 1936. 4. 1

『문학(文學)』은 1936년 1월(표지에는 1936년 1월 1일 발간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판권지에는 1월 5일 발간으로 표기되어 있다)에 창간된 문학잡지로 같은 해 4월에 종간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김철웅(金哲雄), 인쇄소는 경성의 창문사(彰文社), 발행소는 경성의 문학사(文學社)로 되어 있다. 창간호는 100쪽, 제2호는 124쪽 분량으로 발행되었다.

제1, 2호를 통틀어 5편의 소설, 10편의 수필, 8편의 시, 24편의 평론, 1편의 희곡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종합문예지로서는 시는 다소 적은 편이고, 평론은 많은 편이다. 일반 독자가 투고한 단평 등의 글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설로는 이북명(李北鳴)의 「구제사업」, 엄흥섭(嚴興燮)의 「추회(追懷)」, 이기영(李箕永)의 「서화이후(鼠火以後)」 등이 실려 있다.

이북명의 「구제사업」은 H읍의 수도공사장을 배경으로 하여 하루 일의 대가로 전표를 받고 그것을 싼값에 팔아 연명해 나가는 인부들과 인부들에게 줄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십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엄흥섭의 「추회」는 농촌, 어촌, 산촌의 빈궁상, 도시의 공장, 직장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피폐상, 무직 실업군의 암담한 생활상을 그려냄으로써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명징하게 파악하는 것이 작가의 기본 임무임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이기영은 1933년 《조선일보》에 중편소설 「서화(鼠火)」를 발표한 바 있는데, 당대 농촌 현실의 황폐함과 함께 그 속에 내재해 있는 농민계층의 생명력을 담아낸 작품이었다. 단편 「서화이후」는 중편 「서화」의 후속작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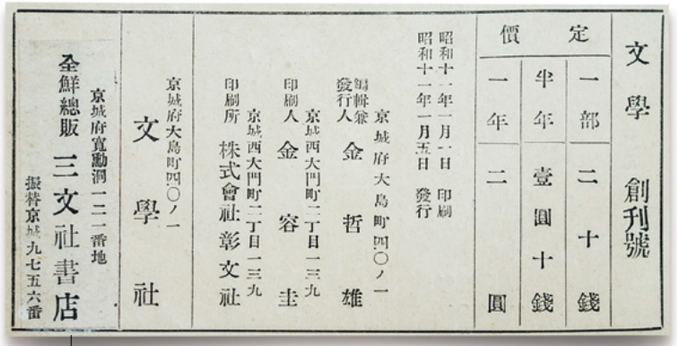
시 작품으로 박세영(朴世永)의 「악령」, 박팔양(朴八陽)의 「승리의 봄」, 김우철(金友哲)의 「도시의 사시(四時)」, 민병균(閔丙均)의 「병든 선구자」, 신석정(辛夕汀)의 「한산도 찾어가서」 등이 수록되었다.

> 그러나 자연의 힘은 마침내 어느 틈엔지
> 천만 년이나 지속할 것 같던 겨울의 폭위를 쫓고
> 우리도 모를 사이에 산과 언덕과 들에
> 생명의 소생을 재촉하는 다정한 봄바람을 보내어
> "일어나라 일어나라! 봄이 왔다!" 깨워 일으킨다.
>
> — 박팔양, 「승리의 봄」 부분

「승리의 봄」에서 박팔양은 자연의 순환과 역사적 현실을 중첩시키면서 "천만 년이나 지속할 것 같던 겨울" 속에 갇혀 있는 현실에 맞서 "겨울의 폭위를 쫓"아내고 "생명의 소생"을 재촉하는 봄의 자연스러운 각성을 드러냄으로써 희망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

주요 평론으로는 이병각(李秉珏)의 「농민문학의 본질과 농본주의의 폭로」, 홍효민(洪曉民)의 「노서아 문학과 두옹의 철학-그의 무저항주의를 평함」, 김환(金

창간호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文學 創刊號

定價

一部	二十錢
半年	壹圓十錢
一年	二圓

昭和十一年一月一日 印刷
昭和十一年一月五日 發行

編輯兼發行人 京城府大島町四〇ノ一 金哲雄
印刷人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一三九 金容圭
印刷所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一三九 株式會社彰文社

京城府大島町四〇ノ一 文學社

京城府寬勵洞一二一番地 全鮮總販 三文社書店
振替京城九七五六番

창간호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煥)의 「문학운동자들의 야심」, 윤고종(尹鼓鍾)의 「신인들의 거탄(巨彈)」 등이 중심을 이루었다.

희곡으로는 박영호(朴英鎬)의 「인간일번지」가 포함되어 있다. 전 1막 2장으로 이루어진 「인간일번지」는 중심인물 우훈과 순이의 갈등이 큰 줄기를 형성하면서 부수적인 갈등이 엇갈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우훈과 순이가 애욕의 충돌을 보여주고 여기에 또 다른 동리 소임 부부의 충돌이 겹쳐진다. 여기에 의사와 이성남이 우훈과 대립하는 복잡한 갈등의 과정을 통해서 삶에 찌든 식민지 노동자들, 실업자들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엿볼 수 있다.

「작가방문기-이광수씨편」, 이동규(李東珪)의 「추장(酋長)」 등의 수필과 박승극(朴勝極)의 「녯 벗에게」, 한효(韓曉)의 「오직 참으라」 등의 서간문이 수록되어 있다. (해제: 노춘기)

핵 심 어 문학, 김철웅, 이기영, 박팔양, 박세영, 한효

참고문헌

- 김향, 「박영호 희곡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16, 한국극예술학회, 2002.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52 동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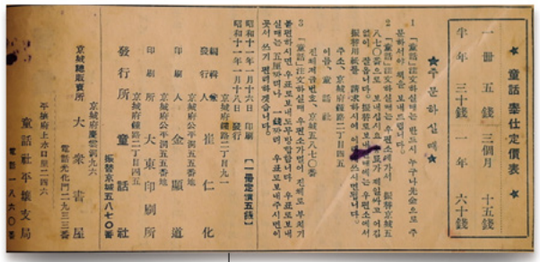
童話
동화사
1936. 1. 18 ~ 미상

『동화』는 동화사에서 발행한 월간 아동잡지로, 창간호는 1936년 2월호이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호는 1937년 5·6월 합본호다. 마지막 호 편집후기에도 폐간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이 없고, 연재 작품들 말미에 '다음호에 계속'을 밝혔다. 예정에 없던 갑작스러운 폐간이었거나 발굴되지 않은 몇 호가 더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7개월 동안 세 번 합본호가 발행되어 총 14호를 발행했다. B5판 26~27면 내외의 분량으로 편찬했고, 가격은 5전이었다.

창간호 판권지를 보면, 소화 11년(1936년) 1월 18일 발행, 편집 겸 발행인 최인화, 인쇄인 김현도, 인쇄소 대동인쇄소(경성 공평동 55번지), 발행소 동화사(경성 종로 2정목 45)로 되어있다. 총판매소는 대중서옥(大衆書屋, 경성 경운동 96)과 동화사 평양지국(평양 상수구리 246) 두 곳으로 밝혀져 있다. 그 뒤 2호는 창복인쇄소(昌福印刷所, 평양 서성리 31번지), 3호는 문명사(文明社, 평양 이문리 61번지), 9호부터는 대평인쇄합자회사(大平印刷合資會社, 평양 서성리 31번지)와 같이 인쇄소를 평양으로 옮겼다.

편집 겸 발행인 최인화는 평양 출신으로, 보통학교 교사와 조선주일학교연합회 간사로 오랫동안 일했다. 『세계소화집』(종교시보사, 1934), 『세계동화집』(대중서옥, 1936), 『기독교동화집』(교문사, 1940) 등을 출간했고, 전국 순회 동화 구연가로도 활약했다. 삼천리사와 아이생활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는데, 『동화』 창간호의 「편집동심(編輯童心)」에서 아이생활사를 그만두고 아동잡지 『동화』를 시작하지만 아이생활사는 '모교요 은인'이라 강조했다.

잡지 구성은 동화, 아동소설, 동요, 아동극 등의 문예물과 '선도자의 말씀', '성공의 길', '위인소학', '애국소년미담', '명인현답' 같은 교훈적 훈화, 위인 일화, 명언류, 재미와 웃음을 주는 '웃



창간호 표지 /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음방송국', '바보연극장', '꾀주머니', 만화 '아담쓰 할아버지'와 '엉터리 대발명', 주요 필진의 근황이나 동화회 소식 등을 담은 '똘똘이 신문', 편집후기인 '편집동심'으로 되었다. 적은 지면에 다양한 꼭지를 마련하려 했으나, 문예물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아쉽게도 아동문학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대표작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주요필진으로는 이광수, 전영택, 정인섭, 김동인, 주요섭, 방인근, 김태오, 노양근, 김복진, 모기윤, 윤복진, 정순철(정우해) 등이 참여했다. 삼천리사, 아이생활사 편집자 시절의 인맥이 두드러진다. 1933년 11월에 창립된 '조선아동예술연구협회'는 『동화』의 주요 기반이 된 것으로 최인화, 정인섭, 모기윤, 김성도 등이 협회 회원이었다. '조선아동예술연구협회'는 창립 이후 '동요동화대회'나 '동요동극의 밤'을 개최했고, 민족주의와 계급주의 계열 소년운동이 퇴조하던 1935년과 1936년에 어린이날 행사를 주도하였다. 『동화』 창간 시기인 1936년에 최인화는 협회 회장이었고, 협회 창립 당시 연구부장이었던 모기윤은 총무로, 실천부장이었던 윤희영은 서무부장으로 활동했다. 그 무렵 모기윤은 연희전문 학생기독청년회 회장이었고, 윤희영은 중앙기독교청년회 소년부에서 근무하였다. 1936년 8월, 제2회 '전(全)함흥소년소녀현상동요동화대회'에서 윤희영은 동요부 심판원, 모기윤은 동화부 심판원이었다. 잡지 창간 자금을 후원한 평안공업사 사장 김형진(金炯振)도 평양 기독청년면려회(CE)연합회 사교부장이었다. 조선아동예술연구협회와 동화사, 기독교 청년단체, '소년소녀현상동요동화대회' 등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독자작품 모집'에서 아동문학 연구가의 작품과 어린이 작품을 따로 모집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아동문학 연구가에게는 동화·소년소설·아동극·동요를, 어린이에게는 작문·편지글·동요를 모집했다. 아동극은 정인섭, 동화는 전영택, 동요는 윤석중, 소년소설은 김동인과 방인근, 어린이 작품은 모기윤과 최인화가 고선했다. 윤석중을 제외한 대부분이 『동화』의 장르별 대표 필자다. 전영택은 기독교 전도로서의 어린이 문화운동을 강조했고, 『동화』에 가장 많은 편수의 작품을 발표했다. 아동극 총 8편 중, 정인섭이 아동극 4편을 발표했다. 김동인은 '역사소년소설'을, 방인근은 '모험소년소설'을 연재했다. 동요는 윤복진이 주도했는데, 동요 투고작 선자(選者)였고 「아동문학강좌」를 연재하였다. 삽화는 김철학, 김상욱이 주로 담당하였다. 동성(童星) 김상욱은 만화 〈황금성〉을 연재했고, 주요섭의 중국동화 번역물과 노양근의 「뒝박대장」 등에 삽화를 그렸다. 그 외에 3~7컷의 '아담쓰 할아버지'와 '엉터리 대발명' 등 엉뚱한 캐릭터가 등장해 웃음을 유발하는 외국의 코믹 만화가 실렸다.

『동화』는 『어린이』, 『신소년』, 『별나라』가 1934~1935년 폐간된 뒤 1937년 4월, 조선일보사 출판부에서 『소년』을 발행하기까지의 공백을 메운 아동잡지다. 민족주의와 계급주의 양 진영이 주도했던 소년운동의 퇴조기에 기독교 계열 소년운동이 재부상하던 때 발간되었다. '조선아동예술연구협회'와 '기독교청년면려회'는 『동화』의 인적, 물적 주요 기반이었다. 『동화』는 아동문학사와 소년운동사에서의 기독교 계보를 조명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해제: 염희경)

핵 심 어 아동잡지, 동화사, 평양인쇄, 조선아동예술연구협회, 최인화, 기독교청년면려회, 소년소녀현상동요동화대회

참고문헌

- 손증상, 「『동화』를 통해 살펴본 1930년대 중반 아동극의 존재양상과 그 의미」, 『국어국문학』 179, 국어국문학회, 2017.
- 염희경, 「일제 강점기 번역·번안 동화 앤솔러지의 탄생과 번역의 상상력 (2)-기독교 계열의 번역 동화 앤솔러지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1,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 이재철, 『세계아동문학사전』, 계몽사, 1989.
- 정혜원, 「1930년대 아동문예지 『동화』에 구현된 아동서사의 특징」, 『한국아동문학연구』 23, 한국아동문학학회, 2012.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53 가톨릭소년

가톨릭少年
가톨릭소년사
1936. 3. 1 ~ 1938. 8

1936년 3월 1일 '간도용정천주당 가톨릭소년사'에서 발행한 소년소녀용 종합잡지다. 통권 28호인 1938년 8월호로 폐간되었다. '창간사'에 따르면 잡지의 모태는 연길교구 탈시시오 소년회 연합회에서 발행하던 『탈시시오연합회보』였다. 이것을 백화동(白化東, Theodor Brehr) 주교의 의지 아래 "전조선의 소년소녀들을 위"한 잡지로 개편한 것이 『가톨릭소년』이다.

실제로 『가톨릭소년』의 편집인은 만주국 간도성 연길시 천주당의 독일인 신부 백화동이며, 발행인은 만주국 간도성 용정시 천주당의 독일인 신부 배광피(裵光被, Baldium Appelmann)였다. 인쇄인은 고응민(高應敏), 인쇄소는 창문사(彰文社)로, 둘의 주소는 경성부 서대문정(町) 2정목(丁目) 139번지로 동일했다(참고로 창문사는 구인회의 『시와 소설』(1936)을 낸 곳이다). 정가는 1부 8전, 반년분 45전, 1년분 88전이다. 몇 달 뒤인 1936년 11월호(제1권 제8호)에는 약간의 변화가 보인다. 표지의 인가, 발행, 인쇄일은 만주국 연호 '강덕(康德)'을, 판권장의 그것은 일본연호 '쇼와(昭和)'를 사용했다는 점, 창간호에서 표지에 인쇄했던 발행소를 판권란으로 옮겼다는 점, 인쇄인과 인쇄소를 만주 소재의 서상렬(徐相烈)과 천주교 인쇄소(연길시)로 교체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창간호 표지는 삼단 구성을 취했다. 상단부에서는 짙은 청색 바탕에 흰 글씨로 '가톨릭소년'을, 바로 아래 붉은 글씨로 '創刊號'를 좌에서 우로 새겼다. 중간부에서는 흰색 두루마기 차림의 소년이 머리와 말발굽을 쳐든 적토마의 고삐를 오른손에 거머쥐고 왼손에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린 모습을 그렸다. 하단부에는 청색과 녹색 바탕 아래 붉은 글씨로 '間島龍井天主堂가톨릭小年社發行'이라고 적었다. 후기를 보면 표지와 삽화의 담당자가 화가 장발(張勃)임을 알 수 있는데, 당시 휘문고보 미술교사였던 그는 1936년 9월까지 5차례나 표지를 담당했다. 한편 이상(李箱)과 절친했던 화가 구본웅(具本雄)도 잡지 안의 만화와 삽화 등을 그림으로써 『가톨릭소년』의 대중화와 내실화에 일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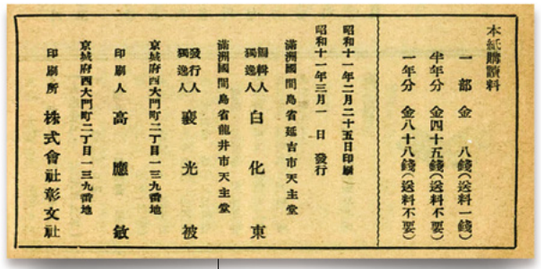
창간호 표지
서울대학교 소장

천주교의 포교와 성장이 『가톨릭소년』의 발행 목표였다는 사실은 "본지는 날로 성장하야 인제는 권위 잇는 전조선 오교구(五敎區) 주교공회의(主敎公會義)의 결의로써 전 조선적으로 지지를 받는 공공한 기관지가 되엇슴을 기뻐하는 바입니다"라는 1936년 10월호 사고(社告)에서 잘 드러난다. 실제로 『가톨릭소년』 앞부분의 천주교 관련 각종 사진과 문화행사, 신부를 비롯한 천주교 인사들의 머리말과 각종 글 양식, 함께 부를 「성탄송(頌)」과 같은 종교가요 등이 천주교 전파와 신앙심 강화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글의 제목은 주로 한글로 작성했다. 둘째, 목차란 상부를 나무 소재의 장난감 공작, 기차, 비행기, 자전거, 닭, 오리로 장식했다. 셋째, '독물(讀物)'란을 두어 동화, 이야기, 일화, 실화, 우화, 수신 등을 실었다. 넷째, 소년소설, 아동극, 동요, 동시 관련 창작란과 더불어 아동들의 창작 욕구와 실력을 진작하기 위해 소년 문예란을 두었다. 다섯째, '과학란'과 '만화페이지', '숨은 그림 찾기', '퍼즐' 등을 두어 과학지식의 습득과 취미 활동을 독려했다. 이런 구성은 『가톨릭소년』이 천주교 활동에 소용되는 '종교잡지'에 머물지 않고, 애국심 배양과 문예활동의 실력 양성에 필요한 "소년 계몽 운동에 한 기관이 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가톨릭소년』의 문학사적 위상과 가치를 짚어보라면, 역시 첫 요소는 이미 탁월한 아동

문학가와 시인·소설가로 활동 중이었거나 앞으로 그렇게 성장할 이들의 지속적인 등장에서 찾아진다. 『가톨릭소년』을 수놓은 아동문학가로는 윤극영·강소천·김영일 등을, 아동문학을 병행한 작가로는 이상·안수길·박영종(목월), 그리고 윤동주가 손꼽힌다. 후자를 중심으로 『가톨릭소년』에 실린 작품을 일별해보면 다음과 같다.


本紙購讀料
一部 金 八錢(送料一錢)
半年分 金四十五錢(送料不要)
一年分 金八十八錢(送料不要)
昭和十一年二月二十五日印刷
昭和十一年三月一日發行
滿洲國間島省延吉市天主堂
編輯人 兼 發行人 白化東
滿洲國間島省龍井市天主堂
印刷人 裵光彼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三九番地
印刷人 高應敏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一三九番地
印刷所 株式會社彰文社

창간호 판권지
서울대학교 소장

첫째, 이상(李箱)은 필명 '해경'으로 동시 「목장」(1936년 5월호)을 발표했다. 이즈음 창문사에서 일하던 시인은 해당 호를 비롯한 몇몇 표지화를 그렸으며, 자연스럽게 해바라기 꽃과 두 마리의 소가 등장하는 「목동」의 삽화도 스스로가 담당했다. 둘째, 윤동주는 '尹童柱'와 '尹童舟'란 필명으로, 1936~1937년 「병아리」, 「빗자루」, 「오좀싸개 지도」, 「무얼 먹구 사나」, 「눈 삼제(三題)—눈·개·이불」, 「거즛뿌리」를 발표했다. 셋째, 박목월은 '朴泳鍾'이란 본명으로 동요 「개암이 장」과 「꽃시계」, 「가얌」을 두 차례에 걸쳐 실었다. 넷째, 안수길은 아동극 「꽃과 나비」를 먼저 발표한 뒤 필명 '安祥'으로 어린이 소설 「떡보」를 게재했다. 이와 같은 작품 현실은 『가톨릭소년』이 조선의 아동문학에 대한 열정적인 후원자이자 예술적 감수성과 민족적 자긍심으로 빛나는 아동 양성의 교육자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지속적으로 경주했음을 널리 확증하는 결정적 요소라 할 만하다. (해제: 최현식)

핵 심 어 간도 용정과 연길, 가톨릭, 이상, 윤동주, 박목월, 안수길, 아동문학.

참고문헌

- 권오만 외, 「1930년대《가톨릭少年》에 발표된 이상·윤동주의 童詩 발굴」, 『문학사상』 445, 문학사상사, 2009.
- 장정희·최동호, 「청록파 시인의 동시 발굴과 그 의미」, 『서정시학』 24-1, 서정시학, 2014.
- 최기영, 「1930년대 《가톨릭少年》의 발간과 운영」, 『교회사연구』 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54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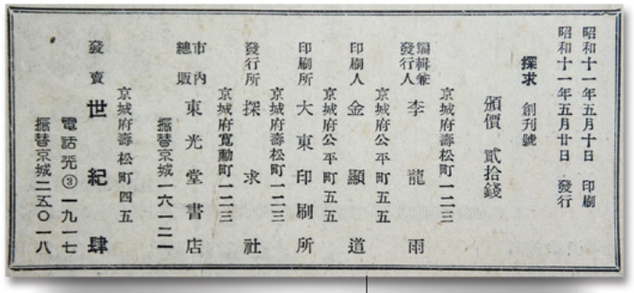
探究
탐구사
1936. 5. 20 ~ 미상

『탐구』는 1936년 5월 20일자로 창간된 문예 동인지다. 창간호 표지에 '문학 계간'이라고 표시했으나 같은 해 7월에 제2호가 발간되었다. 제2호 '편집 후기'에 "첫 호보다는 퍽 빈약하게 되었으나····· 다음부터는 격월(隔月)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으나 그 후 몇 호가 더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제2호의 판권지를 보면, 편집 겸 발행인 이용우(李龍雨), 인쇄인 김현도(金顯道), 인쇄소 대동(大東)인쇄소, 발행소 탐구사(경성·수송정 123), A5판 32면, 정가 10전이다. 제1호는 A5판 95면으로 제2호의 3배 분량이다.

『탐구』는 1934년 주로 연희전문 출신으로 결성한 동인지 『삼사문학』이 해체된 후 동인이었던 신백수, 이시우가 주영섭, 정병호 등과 다시 새롭게 만든 동인지였다. 제1호의 '편집 후기' 마지막에서 "이십시대 청년들의 일원적인 정열을 사주기 바란다"라고 한 점에서 평범이나 기존의 규율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움을 추구했던 청년들의 문학과 예술의 성과를 묶은 동인지를 표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1호의 표지에서는 세로 2단 구성의 검은색 배경에 붉은색으로 그린 여성의 모던한 모습이 강렬한 색조 대비 속에 몽환적이며 강렬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편집후기에서는 표지를 그린 정현웅에 대해 "정군의 표지는,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상찬하고 있다. 정현웅은 1927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고성」으로 입성한 후, 물리적이거나 사실적인 재현이 아닌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도회의 분위기를 그려내는 것으로 평가된 1920년대 말에서 30년대의 대표적인 화가의 한 사람이다. 제1호에는 소설 「무대장치」(신백수), 시 「의욕」(정병호), 소설 「외투」(이용우), 평론 「비판(批判)의 심리(心理)」(이시우), 소설 「이뿐이의 서름」(최인준), 시 「바 노바」(주영섭), 희곡 「산월(山月)이」(한태천) 등의 순서로 수록되었다.

제2호는 제1호에 비해 분량이 많이 줄어 32면으로 발간되었다. 유백영의 소설 「도벌」을 시작으로, 「환영」(이용우)과 시 「단상 3제」(차월훈), 「귀로」 외 3편(윤세중), 「생의 괴로움」(황용주)이 실렸다. 황휘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 일본 작가의 묘사 무용론, 신 낭만주의, 조선의 야담 유행 현상 등에 관한 짧은 소감을 담아낸 「단상」을 실었다.

『탐구』는 현재 제2호까지 확인할 수 있고 그 2호도 제1호에 비해 뚜렷하게 분량이 줄어든 형태이지만 당시 최고의 삽화가였던 정현웅의 표지, 시의 진보적 방법론과 초현실주의 이론을 전개한 이시우, 전위적이고 그로테스크한 시를 보여준 정병호 등의 작품을 수록하여 초현실주의나 다다이즘과 친밀한 성향을 보였다. 주요 필진이나 동인의 구성으로 볼 때, 『탐구』의 성격은 이전의 동인지인 『삼사문학』의 전통을 계승하여 새롭고 전위적인 성향을 추구했던 동인 문예지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해제: 유임하)


昭和十一年五月十日 印刷
昭和十一年五月廿日 發行
探求 創刊號
頒價 貳拾錢
京城府壽松町一二三
編輯兼發行人 李龍雨
京城府公平町五五
印刷人 金顯道
京城府公平町五五
印刷所 大東印刷所
京城府壽松町一二三
發行所 探求社
京城府寬勳町一二三
市內總販 東光堂書店
振替京城一六一二一
京城府壽松町四五
發賣 世紀肆
電話光⑧一九一七
振替京城二五〇一八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핵 심 어 삼사문학 계승, 신백수, 이시우, 정병호, 정현웅, 초현실주의

참고문헌

- 정현웅, 「신백수와 삼사문학과 나」, 『상아탑』 7, 상아탑사, 1946.
- 조풍연, 「'삼사문학'의 신백수」, 『현대문학』 8-12, 현대문학사, 1962.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055

문예가

文藝街
한성도서주식회사
1936. 5 ~ 1937. 12. 1

『문예가』는 한성도서주식회사가 발행한 문예 종합잡지다. 1936년 5월에 창간하여 1937년 12월까지 간행되었다. 아단문고에서 5집, 9집, 11집, 12집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잡지백년3』(최덕교)에서 제4집에 관한 서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제5집의 판권란을 보면, 편집 겸 발행인은 공진항(孔鎭恒), 인쇄인은 김진호(金鎭浩), 인쇄소는 한성도서(주), 발행소는 한성도서출판부였다. 『문예가』는 다른 문예잡지와 달리 잡지 체제가 표지, 목차, 본문 등으로 구성되는 일반 형식이 아니라 세로 5단 형식의 신문 체제에 가깝다. 영문명 'LITERARY STREET'를 1면 상단 '문예가' 제호와 함께 실었고, 전체 12면 내외에 정가는 5전이었다. 이은상, 이기영, 박영희, 백철, 홍효민, 한설야, 변영로 등 주로 카프 계열 문인들이 주요 필진에 해당한다.

『문예가』는 문학 작품을 비롯하여 문예 관련 논문, 국내외 문학·연극·영화·음악·미술·무용계 등의 소식, 한성도서가 발행한 서적 홍보와 광고, 사진 등으로 구성되었다. 7호부터는 1면에 '노방초'를 코너명으로 삼아 이은상의 수필을 수록했다. 또한 '출판 특집' 코너를 마련하여 한성도서가 발간한 '현대조선장편소설전집'의 수록 작가와 작품을 두 면이나 할애하여 집중 조명했다. 「김기진씨작 '청년 김옥균' 출판 특집」(제5집), 「함대훈씨작 '순정해협' 출판 특집」(제7집), 「이태준씨작 '제2의 운명' 출판 특집」(제8집), 「염상섭씨작 '모란(牧丹)꽃 필 때' 출판 특집」(제9집) 등 작가와 작품에 관한 다양한 관점의 특집 원고를 실었다. 제7집에서는 『조광』(1936.1~8)에 연재되었던 함대훈의 장편소설 '순정해협'이 한성도서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고 영화로도 제작된 것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함대훈씨작 '순정해협' 출판 특집」을 마련했다. 2면에 평론 「함대훈씨의 작품」(백철)을 비롯하여 「순정해협' 영화화에 제(際)하여」(박기채)를, 3면

제4호 1면
한국잡지정보관 소장

P. 1 LITERARY STREET No. 4

文藝街

第四輯
一部五錢

京街偶感……(一)

行尸走肉

李殷相

오늘도 벌서 해가 커분다。오늘은 무슨 일인지 한時間의 緊張도 없이 어느덧에 해가 커분다。終日토록 쉬지않고 일한것도 아무 한건마는、돌아서매 아무 일 없이 해가 커분다。

鍾路를 한바퀴 돌았다。진고개로도 한바퀴 돌았다 그러나 아무일도 없었다。나는 畢竟 지는해를 고서 西岡精舍로 돌아왔다 돌아와 생각하매 안 아무 더더구나 한일이 없었고나。

아무런 回顧도 없었고、아무런 計劃도 없었고、또 아무런 發心도 없었고、아무런 善行도 없었다。무엇 하며 오늘 하로를 보내었는고。부끄러워라。허수아비와 같았고나。넋없이 오늘 하로를 보내었네。綠葉에 걸린 者같이 멍하니 하로 해를 지웠고나。

「行尸走肉。衣架飯筒」이란 말을 文字로만 보았더니、오늘 하로야말로 내가 바로 걸어다닌 송장이었고、다를길친 고기덩이었고、옷 걸어놓은 횃대였고、밥통은 통이었다。

귀해가 山넘어 꺼지기前에 지금이라도 잡깐이나마 人生의 默想속에 잠겨야겠네。사람 다니는 내 門前이라도 쓸어야겠네。

—十月十五日—

松一……鬱憂

海外文藝寸報

●倫敦國際作家會議

六月十九日도 同二十三日까지 文化擁護國際作家協會는 그 會合을 푸렌스·하우스에서 開催하였다。이 會議는 協會員만에 限하는 私的 會合이었다。

協會의 樞要人物 때마츰 인「막심·꼬리—키—」의 逝去로서 會議는 始終一抹의 暗雲속에서 續行되었다。그리고「꼬리—키—」의 逝去로 因하야 露西亞支部에서는 豫定된바 숄멤버—의 出席에 支障을 招來하였고 또 그 關係로「안드레이·지이드」는 倫敦에 있지를못하는 處地였다。

그러나 이러한 數多의 支障속에서도 會議의 討論은 活潑하게 進行되었고 따라서 多大한 成果를 얻은데 이른것이다。

●펜·크럽大會

今年度 世界펜·크럽大會는 지난九月五日 아르젠치의 首都「부에노스아이레스」의 市廳에서 開會되었다。

最終日에 歌來各國代表 六十餘名은 大會의 開催地를 左記와如히 決定하였다。

一九三七年에는 羅馬에서
一九三八年에는 푸라—그에서
一九三九年에는 스톡크호르므에서
一九四〇年에는 東京에서

그리고 그들은 閉會席上에서 런던·펜·크럽의 會長인 H·G·웰스氏에게 七十의 老齡으로서 文壇에 活躍하는 老大家의 健康을 祝福하는 電報를 친것이다。

●펜·크럽의 新會長

今年으로 펜·크럽의 會長인 H·G·웰스氏가 滿期이므로 이번에는 佛蘭西의 作家인「쥬—루·롤랭」氏가 會長으로 되었다。氏는 所謂 歸一主義(Unanimisme)의 人、劇作家、小說家로서 그의 作品「크눅크」、「좋은意志의 사람들」等의 作品을 通하야 암려진 佛蘭西의 中堅作家이다。

●西班牙文豪와革命

西班牙에 動亂이勃發하자 多數한文豪가 被殺되었다는 報道가있었거니와 그後 正確한通信에 依하면「비나벤레니、「긴레이—로」兄弟等이 然히 살아있다고한다。

에 「간결세련된 문장」(장문경), 「순정아 함대훈」(유치진), 「정열적 작품」(최정희), 「통속소설의 최신 경지」(안회남) 등을 작가의 말에 해당하는 「순정해협에 대하여」(함대훈)와 함께 실었다. 제8집에는 김남천이 쓴 「'고향', '청년 김옥균' 출판기념회기」를 두 면에 걸쳐 상세하게 실었다. 「고향」과 『청년 김옥균』 출간을 기념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기까지의 과정, 작가나 작가 소속 단체는 물론 출판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김남천이 스스로 발기인의 대표를 맡아 행사를 주관해야만 했던 상황, 회비 1원을 참석 회비로 정한 불가피했던 사정과 미안함 등을 '기념회장 광경', '당야(當夜)에 참석한 제가(諸家)의 필적(筆跡)' 사진으로 생생하게 전했다.

『문예가』는 문인들의 일상을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공유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펼쳤다. 문인들의 최근 동정을 알려주는 '문단거래', '인사왕래' 등의 지면을 마련하여 '김억씨'가 성북동에서 돈의정으로 이사를 했고 신혼생활 중이라는 소식이나, 박영희가 1월 중순부터 2월 상순까지 전남 광주와 목포로 영화제작 관계로 여행 중이라는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문인들의 독서 습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하는 '독서 사색'이라든가, 12호에서 1편으로 기획된 「예술가 서재 순방기」는 예술가의 작업공간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대중적인 기획이다. 또한 '독자통신'란을 통해 『문예가』를 읽은 독자의 반응과 요구를 들려주었다. 이 코너에서 독자들은 번역 출판을 희망하는 작품명을 보내기도 했는데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버나드 쇼, 고리키 등의 작품에 대한 번역 요청이 많았다. 『문예가』는 한성도서주식회사의 문예 기관지 성격이 강하지만 출판사 발행 도서의 홍보에 머물지 않았다. 이 잡지는 문학은 물론 영화,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비평이론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소식을 전함으로써 독자와 소통하고자 했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문예계 소식란도 만들어 해외 문예 동향도 활발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해제: 유임하)

핵 심 어 한성도서주식회사, 이은상, 김남천, 박영희, 현대장편소설전집

참고문헌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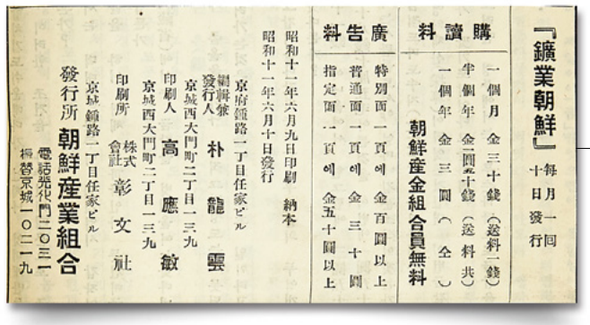
056 광업조선

鑛業朝鮮
조선산금조합
1936. 6. 10 ~ 미상

『광업조선(鑛業朝鮮)』은 1936년 6월 10일 창간한 최초의 광업전문 잡지다. 통권 50호(1941.2) 정도까지 존재가 확인되나 그 이후 언제까지 발간했는지는 알 수 없다. 잡지의 편집 겸 발행인은 초기 박용운(朴龍雲)에서 1937년 8월호부터는 이종만(李鍾萬)으로 바뀐다. 이종만은 1937년 6월 대동광업주식회사를 세우고 대동광산중앙조합과 대동농촌사, 대동출판사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 박용운이 조선산금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다가 이종만이 대동출판사를 세운 것을 계기로 『광업조선』의 발행권도 넘긴 것으로 추측된다.

이 잡지는 1920년대부터 식민지 조선에 불었던 '황금열(黃金熱)'을 계기로 당시 조선에서 중요한 산업이 된 광업에 관한 다양한 학술적인 기사와 정보를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광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 광업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전문 잡지들과 변별된다.

창간호에는 조선은행을 배경으로, 그 앞에 '금은고가매입'이라는 깃발이 날리는 사진이 실려 있고 그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다. "금값(金價) 대폭 인상 후의 조선은행은 매일 지금(地金) 매입에 극망(劇忙) 중인데 5월 중의 매입고는 실로 2백 6십만 원에 달하야 종전의 월액 평균에 비하면 물경 일약 60배의 격증을 보았다. 이리하야 금 보유 국책은 적극화하고 경기상승은 만세를 부른다!" 이로부터 『광업조선』이 어떤 배경에서 창간된 것인가를 여실히 알 수 있다. 창간사에서는 그 의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조선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조선산금조합(朝鮮産金組合)의 창립을 보았다. 멀리는 기 천 년 전


『鑛業朝鮮』毎月一回十日發行
購讀料 一個月 金三十錢（送料一錢）
半個年 金一圓五十錢（送料共）
一個年 金三圓（全）
朝鮮産金組合員無料
廣告料 特別面一頁ニ付 金百圓以上
普通面一頁ニ付 金三十圓
指定面一頁ニ付 金五十圓以上
昭和十一年六月九日印刷納本
昭和十一年六月十日發行
京府鍾路一丁目任家ビル
編輯兼發行人 朴龍雲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一三九
印刷人 高應斂
京城西大門町二丁目一三九
印刷所 株式會社彰文社
京城鍾路一丁目任家ビル
發行所 朝鮮産業組合
電話光化門二〇三一
振替京城一〇二一九

창간호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부터 산금사업의 사적을 찾을 수 있고, 가까이는 반세기 이래의 사업 발전을 보아 왔다. (중략) 우리는 이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창립된 조선산금조합의 원칙적 정신에 즉하야 산금사업으로 하야금 하로 밧비 본 궤도의 진행을 조성하며 나아가 산금경기로서 조선의 일반적 경기 회복을 국민 경제 생활의 윤택과 일반 문화 수준의 향상을 가져오자는 본의와 그 노력의 일단으로서 본지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광업조선』의 대부분 기사들에는 산금을 중심으로 한 광업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고, 광산업을 통해 조선 경제를 부흥하겠다는 의욕도 드러내고 있다. 금광 개발과 기술 습득의 두 가지 방향에서 조선총독부에 근무하고 있던 기사나 기수 등 '테크노크라트'들의 글 역시 다수 싣고 있다. 『광업조선』은 조선인들을 중심으로 창간된 잡지였지만, 탄탄한 자본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금광 개발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인들의 글도 자주 번역하여 소개하였다.

이 잡지에서는 많지 않지만 문학 작품들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양백화(梁白華), 신정언(申鼎言), 차상찬(車相瓚) 등이 비교적 가벼운 읽을거리인 야담을 싣고 있음은 물론, 함대훈(咸大勳), 이기영(李箕永), 김남천(金南天), 엄흥섭(嚴興燮), 이무영(李無影), 이효석(李孝石), 김유정(金裕貞), 안회남(安懷南), 이주홍(李周洪), 현경준(玄卿駿), 박노갑(朴魯甲), 안동수(安東洙) 등 다양한 작가군이 길고 짧은 소설들을 발표하였다. 작품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당시 풍속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 이 중 함대훈은 조혼으로 인한 갈등을 다룬 장편소설 「방파제」를 1937년 11월호부터 이듬해 1월호까지 3회에 걸쳐 게재하다가 이후의 분량을 『조광』에 이어서 연재하기도 하였다. 또한, 광업 잡지임에도 김남천의 「가애자(可愛者)」(1938.3), 안동수의 「여광주(女鑛主)」(1938.4), 이효석의 「공상구락부(空想倶樂部)」(1938.9), 박노갑의 「노다지」(1939.1), 이기영의 「삽화」(1939.4) 등에서는 금광 등의 폐해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족의 희망과 좌절을 담아낸 김남천의 「단오」(1939.10)는 기생 누이와 소년의 관계에서 「남매」, 「소년행」 등 1930년대 후반 일련의 창작활동과 연관되기도 한다.

『광업조선(鑛業朝鮮)』은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 최초로 발간된 광업전문 잡지로, 1920~30년대의 시대 풍조 중 하나였던 금광열을 반영하면서 자본주의의 명암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해제: 안용희)

핵 심 어 조선산금조합, 금광, 황금열, 광업, 자본주의

참고문헌

- 안남일, 「『광업조선(鑛業朝鮮)』 소재 문예물 연구」, 『한국학연구』 4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 전봉관, 『황금광시대 : 식민지 시대 한반도를 뒤흔든 투기와 욕망의 인간사』, 살림, 2005.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창간호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057 낭만

浪漫
낭만사
1936. 11.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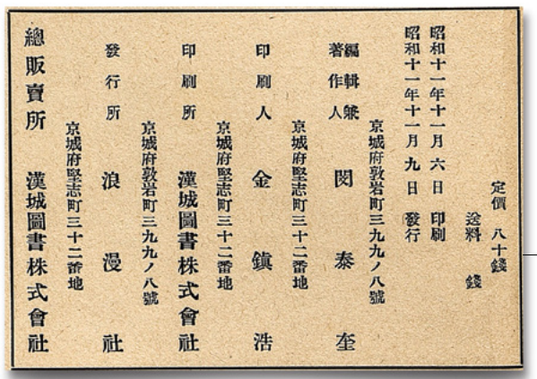
1936년 11월 9일에 창간된 시 동인지로 1집 발행에 그쳤다. 편집 겸 저작인은 민태규이고 인쇄인은 김진호이다. 인쇄소는 한성도서주식회사, 발행소는 낭만사였다. 인쇄소인 한성도서주식회사의 주소지는 경성부 견지정 32번지, 낭만사의 주소지는 경성부 돈암정 399의 8호로 되어 있다. 낭만사의 주소지와 편집 겸 저작인 민태규의 주소지가 동일하다. 정가는 80전이고 총판매소는 한성도서주식회사였다. 장정은 공진형이 맡아 했고, 비화(扉畵)는 심형구가 그렸다. 표지화에는 원시 자연을 배경으로 여인의 나신이 그려져 있다. 「편집전기」에 잡지의 제호인 '낭만'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낭만이 문학의 어버이로서 시라는 방탕한 불행아를 가진 것"이라는 구절을 통해 이 잡지의 창간에 관여한 이들이 '낭만'이라는 제호를 붙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뚜렷한 문학적 입장을 견지한 잡지는 아니었으나 "시인을, 치열한 감정의 첨단으로, 경험의 전위로, 시대의 안테나로 비유하든 허버-드-리-드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시대의 안테나이자 전위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낭만』은 짤막한 「편집전기」와 박세영, 임화, 이찬, 김해강, 윤곤강, 오장환, 이용악, 반상규, 박석정, 민태규 등의 시작품 29편을 실어놓았다. 시인들의 면면을 보면 임화, 이찬, 윤곤강 등의 프로문학 계열 시인들의 시가 주류를 이루었고 이용악, 반상규, 이성악 등 함경도 지역 시인들과 이후 북한 시단에서 중요한 시인으로 자리 잡는 박세영, 박석정 등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1집 발행에 그쳤고, 동인지라고 하기에는 동인 의식이 희박해 보여 오히려 사화집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유명 시인들의 작품이 많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요 수록 작품으로는 박세영의 「산제비」, 임화의 「단장」, 오장환의 「수부」, 이용악의 「오월」

제1집 표지
아단문고 소장

등이 있다. 박세영의 「산제비」는 "남국에서 왔나/ 북국에서 왔나/ 산상에도 상상봉/ 더 오를수 없는곳에 깃드린 제비."라고 산제비를 호명하며 시작되는 시로, "자유의 화신" 산제비와는 대비되는 시인의 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가난한 농민을위하야" 훨훨 날라는 데서 산제비에 시인의 바람을 투영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함께 실린 「최후에온소식」에서는 "늙은 어머니와 어린자식들을 데리고/ 대담히도 북만으로 떠난지도 이미삼년"이 된 "남편도 없는 그대"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유이민의 비참한 현실을 그리고 있다. 임화의 「단장」은 "희망을 갖는다는것은 어려운일"이지만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일층더어려운일"임을 아는 시의 주체가 등장해 시인으로서의 길을 고민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려놓았다. 오장환의 장시 「수부(首府)」는 번성하고 비만해져 가는 수도의 풍경을 통해 근대 자본주의가 지배해 가는 식민지 근대 도시의 풍경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이용악의 「오월」은 "나는 오월의수염없는 입술을/ 여인의기약보다도 더살틀히 간직해주려니/ 오월은 내품에 영원하여라"라는 표현을


定價 八十錢
送料 錢
昭和十一年十一月六日 印刷
昭和十一年十一月九日 發行
京城府敦岩町三九九ノ八號
編輯兼著作人 閔泰奎
京城府堅志町三十二番地
印刷人 金鎭浩
京城府堅志町三十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敦岩町三九九ノ八號
發行所 浪漫社
京城府堅志町三十二番地
總販賣所 漢城圖書株式會社

제1집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통해 오월을 감각적으로 그리며 오월에 대한 예찬을 보여주는 시로, 이용악의 초기 시의 이미지즘적 특성을 보여준다. 그 밖에도 「갈님ㅅ길」이라는 시를 실은 이성악을 두고 「출발」 동인과 동일 인물이자 반상규, 이용악 등과 함께 관북 지역의 동향의 시인임을 밝힌 선행 연구가 있었다. 이용악과 이성악이 동일 인물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

『낭만』은 프로문학 계열 시인과 관북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인들의 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록된 동인지였던 만큼 고향 상실의 안타까움이나 유이민의 현실, 시대 현실 앞에 직면한 시인들의 고뇌를 표출한 점에서 가치가 있다. (해제: 이경수)

핵 심 어 시 동인지, 민태규, 박세영, 임화, 이찬, 오장환, 이용악, 윤곤강, 박석정, 산제비, 수부

참고문헌

- 이경수, 「관북의 로컬리티와 이용악의 초기 시-이성악, 신동철, 이수형, 반상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41, 한국시학회, 2014.
-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한아진, 「이용악 시의 서사성과 장소 체험」,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058 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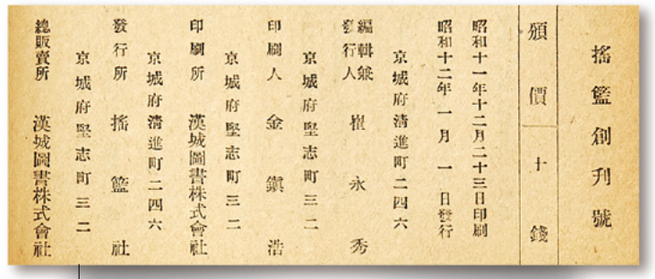
搖籃
요람사
1937. 1. 1 ~ 1939. 2. 13

1937년 1월 1일자로 창간되어 통권 3호까지 발간된 문학 동인지이다. 2집은 1937년 9월 25일에, 3집은 1939년 2월 13일에 발행되었으며, 시와 시조, 소설을 실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최영수, 인쇄소는 한성도서주식회사, 발행소는 요람사이다. 3집은 동아사인쇄소에서 인쇄되었고 발행소는 같다. 창간호 표지의 오른쪽 절반에는 여러 그루의 나무 그림이 밝은 녹색과 갈색으로 모던하게 그려져 있고 왼쪽 상단에는 '요람'이라는 한자가, 그 밑에는 비스듬히 '1'이라는 숫자가 크게 밝은 녹색으로 표기되어 있다. 왼쪽 하단에 '순문예동인지'라고 붉은 글씨로 한자로 쓰여 있다.

창간호에 동인으로 이름을 올린 문인은 김종천, 이응렬, 이철, 백영, 지운 등 모두 5명이다. 2집과 3집에는 목천, 김일묵, 이화, 해연, 채운 등의 작품이 추가되었다. 이름이 알려진 문인은 없는 것으로 보아 문학에 뜻을 함께 하되 지면을 얻지 못한 젊은 문학도들이 시와 소설 등의 창작문예를 실어 '순문예동인지'를 표방하고 발간했으나 별다른 반향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1집의 속표지에는 한복을 입고 산발한 여인이 선 채로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발행인 최영수의 작품으로 보인다. 1집에는 시 5편과 소설로 보이는 '창작' 3편이 실려 있다. 김종천의 「요람」과 「시인」, 지운의 「초생달」과 「그대여」, 이철의 「오동잎」이 1집에 실린 시작품이다. 동인지 제목과 동일한 제목의 시 「요람」은 각 연이 3행으로 이루어진 3연으로 된 시인데, 마지막 행은 아기를 바라보며 갖는 어머니의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웃는것까지 아버지를 닮었다」고", "「내가 몹슬년이라」고", "「며느리는 배운것을 얻어야겠다」고"가 각각 1, 2, 3연의 3행을 구성하고 있는 시로 각 행의 문장 구성이 유사하고 반복법이 많이 쓰였다.

표제시의 성격을 지닌다고 해서 동인지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치기 어린 문학청년의 시 형식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정도이다. 「시인」에는 밤늦게 마을에 찾아든 길손이 행선지를 묻는 질문에도 웃기만 하더니 다음날 아침이 오자 별치사도 없이 "나의 마을"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런 그를 따라가던 시의 화자는 샘을 찾는 그의 여정을 보며 "미의 순례", "시인!"이라고 외친다. 김종천이 생각하는 시인의 모습은 미의 순례를 하는 바로 이 길손의 모습에 가까운 낭만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집에 실린 창작 소설은 백영의 「그날의분이」, 이철의 「늦가을의독백」, 갈닢의 「탁류」 세 편이다.

창간호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창간호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2집에는 목천의 「취향」, 「호반일순」, 김일묵의 「미련」, 이화의 시 「밤의 열차」, 시조 「춘수」, 「원가」, 해연의 「눈보라치는 황혼」, 「꿈」 등이 실려 있고, 소설로는 채운의 「철없는애들」, 해연의 「아홉식구」, 백영의 「왜가리」가 실려 있다. 2집부터는 '창작' 대신 '소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장르 의식이 좀 더 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3집에는 해연의 「배떠나간항구」, 「혈흔」, 리화의 「권련」, 목천의 「C항의 밤」 등의 시가 실려 있다. 소설로는 백영의 「망월」, 채운의 「평면도」, 리화의 「촌의사」가 실려 있는데 이화(리화)는 의학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3집에 꽤 긴 분량의 '편집후기'가 실려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요람』이 2집까지 나왔을 때 김남천이 《동아일보》(1937.9.26.~10.1)에 「동인지의 임무와 그 동향」이라는 평론을 발표했는데, 그 글에서 『요람』 동인지에 대해 "새로운 문학정신"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편집후기에서는 요람을 묵살했다고 언급하며, 김남천이 분발을 요구했음에도 새로움을 갖추고 잘 준비된 채로 3집을 내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요람』은 3호까지 발간된 순문예 동인지로 당시 문단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문학청년들의 작품 발표 지면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3호까지 동인지를 내긴 했지만 매호 작품을 실은 동인들이 달랐으며, 동인을 표방할 만큼의 특정한 경향이나 방향성을 드러내지는 못했다. (해제: 이경수)

핵 심 어 순문예동인지, 최영수, 무명시인, 김남천

참고문헌

- 김남천, 「동인지의 임무와 그 동향」, 《동아일보》, 1937.9.26~10.1.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59

문원

文園
문원사
1937. 4. 1 ~ 1937. 5

『문원』은 1937년 4월에 창간하여 그다음 달인 5월에 제2호가 나오고 곧바로 종간하였다. 『문원』은 신삼수(申三洙)를 발행인으로 하여 대구 '문원사'에서 발간한 문예 전문잡지였다.

『문원』의 창간호는 첫 장부터 소설들을 빼곡하게 싣고 있으며, 그 뒤에 시조, 평론과 시가, 수필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발행인 신삼수가 창간호에 「고혼(苦魂)」이라는 장편 소설을 발표한 소설가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문원』 창간호에 작품을 발표한 필자들의 면면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대부분 '소연(小然)', '서광(曙光)', '의향(義香)', '물망초(勿忘草)' 등 필명을 쓰고 있는 데다, 신삼수를 포함하여 본명을 쓰고 있는 이윤기(李潤基), 정명헌(鄭明憲) 등도 문학사 내에서 흔적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원』 2호에는 당시 경성 문단에서 활동하고 있던 홍효민(洪曉民), 김동환(金東煥), 김문집(金文輯) 등이 『문원』에 보내는 문단 차원의 응원을 싣고 있어서 흥미롭다. 홍효민은 「『문원』을 낸다는 S에게」에서 "미지의 벗이여! 귀하의 문학의 도(道)로 출발한 것을 먼저 쌍수를 거(擧)하야 환영합니다. 정치가 또는 경제가 여하(如何)하니 여하히 하겠다는 것보다도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야 출발한 우리 현우(賢友)를 어찌 환영 아니하오리까."라면서 창간을 환영하는 뜻을 표시하였고 '순수예술'로서의 문학을 권하였다. 또한 잡지 『삼천리』의 주간이었던 김동환은 「선비의 혼」이라는 짧은 글에서 '선비의 혼'을 잃지 말고 상업적인 것에 너무 마음 두지 말 것을 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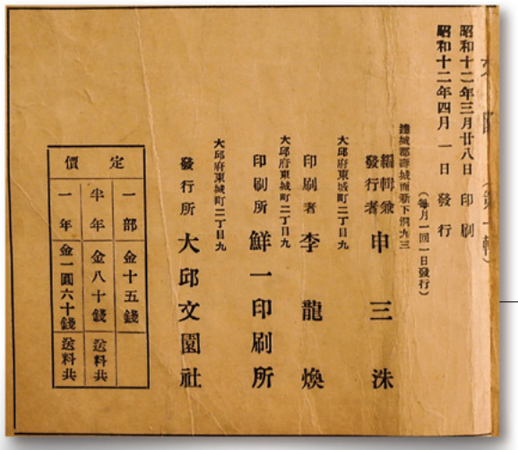
김문집의 경우에는 신삼수가 그를 만나고 쓴 「김문집 인상소묘(金文輯印象素描)」에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 신삼수는 김문집이 드나든다는 경성의 '백십자약국'을 무작정

제1집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찾아간 끝에 겨우 그를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김문집은 『문원』의 목차만 보았는데 퍽 유치했다고 하여 신삼수를 낙심하게 한다. 그래도 김문집은 "될 수 있는 대로 원고도 주겠고 중앙문단으로 소개도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돌려보냈는데 신삼수는 이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며 돌아온다.

이처럼 『문원』의 발행자였던 신삼수는 『문원』이 대구지역에 한정된 문예지가 아니라 조선 전체의 문예지 혹은 종합지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1호에 주로 대구지역에 한정된 문인들의 글만이 실렸던 것에 비하면, 2호에는 축사의 형태로나마 '중앙문단'에서 활동하는 평론가의 글이나 백신애(白信愛)의 수필 「화초」도 실려 있어 지방문예지라는 인상을 벗어난다. 또한, 2호에 시 「시골의 가을」을 발표한 박유상(朴裕相)은 이후 『조광』이나 『사해공론』에도 시를 실었고 해방 이후에는 박훈산(朴薰山)이라는 필명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2호에는 백운인(白雲人)의 「귀농」, 정명헌의 「병원행(病院行)」, 취불산인(聚佛山人)의 「중추야경(中秋夜景)」, 신삼수의 「고혼」 등의 소설도 함께 실려 있다. 「귀농」은 "온순하고 다정하고 또한 도덕적(道德的)의 현대청년"인 '태식'이 우연히 기생 '홍녀'을 만나 번민하다가 홍녀의 변심으로



제1집 판권지
연세대학교 소장

고향으로 돌아가 강습소에서 '문맹아들'을 가르칠 결심을 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 청년의 막연한 다짐보다는 당시 경성의 거리 풍경이 상세히 묘사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사랑으로 고뇌하는 지식인 청년의 형상은 야학교사를 다룬 「중추야경」에서도 등장한다. 1회에 이어 연재된 「고혼」에서는 4살에 사고무친이 되어 평생 머슴으로 살아온 '봉대'가 각성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후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순박한 봉대와 악랄한 주인 '와촌'의 대비를 통해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 의도가 엿보인다.

2호의 「사고(社告)」를 살펴보면 다음 호부터는 '독자문예란'과 '독자통신란'을 만들고, 영화나 무용계의 소식도 전하겠노라는 의욕을 보이는데, 이 『문원』이 왜 2호를 마지막으로 종간되었는지 이유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의 수합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사실 정도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지역 문예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에서 발간된 『문원』은 식민지 조선에서 지방의 문학 열기를 보여주는 실체로서 최소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해제: 안용희)

핵 심 어 신삼수, 대구, 지역 문예지, 지식청년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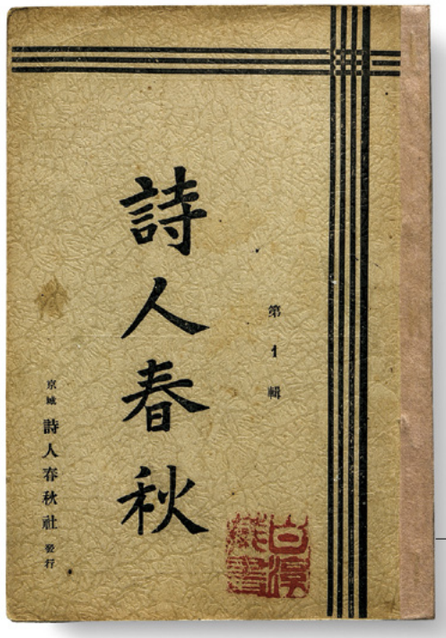
- 신삼수, 『어디로 와서 어데로 가나』, 철야당서점, 1951.
- 최덕교 편저, 『한국잡지백년2』, 현암사, 2004.

060 시인춘추

詩人春秋
시인춘추사
1937. 6. 8 ~ 1938. 1. 31

1937년 6월 8일 창간되어 2집까지 발행된 시 전문 동인지이다. 2집은 1938년 1월 31일에 발간되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이인영이고 인쇄인은 김성균이다. 인쇄소는 한성도서주식회사, 발행소는 시인춘추사이다. 시인춘추사의 주소지는 경성부 본정 4정목 5번지로 편집 겸 발행인인 이인영의 주소지와 동일하다. 정가는 20전이고 총판매소는 남송당서점으로 되어 있다. 1집의 표지에는 '詩人春秋'라고 한자로 세로로 제호가 쓰였고 테두리를 표시하는 선이 가로 세 줄, 세로 네 줄 제호의 위쪽과 오른쪽에 그려져 있을 뿐 별도의 표지화가 있지는 않았다. 2집에는 '詩人春秋'라는 제호가 위쪽에 가로로 놓이고 매화나무가 표지화로 그려져 있다. 2집의 표지화는 근대 화단의 대표적 여성 화가인 추강 정용희가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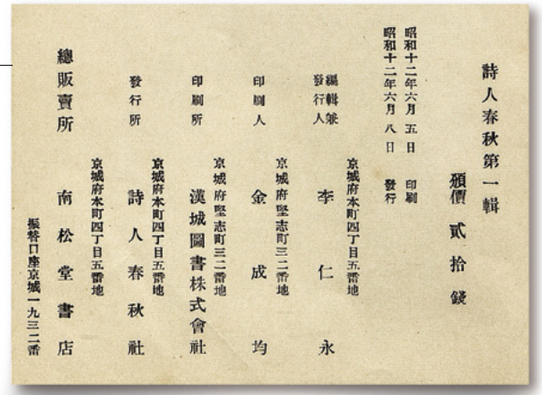
창간호 목차를 보면 크게 '시'와 '시어·시론·기타'로 부가 나뉘어 있고 제일 앞에 「서시」가 실려 있다. 그 밖에 문예지 『두만강』과 남송당서점에 대한 광고와 시인춘추사에서 근간 예정인 이해문 시집 『바다의 묘망』에 대한 광고가 실려 있다. 「서시」에서는 "지나간 춘추 얼마나많은 시인들이 다한한 심경을 자위했"었는지를 언급하면서 "새벽의 암로우 허터진서광을 찾는 정열의 나그네"로 시인을 지칭하고 있다. 새벽의 어두운 길 위에서 서광을 찾는 정열의 나그네처럼 시의 길을 찾아 떠나는 존재가 바로 시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창간호에 시를 발표한 시인으로는 박노춘, 이능구, 조은호, 마명, 이고려, 박노홍, 김북원, 김치식, 김광섭, 김서호, 이가종, 목일신, 김대홍, 이해문(이고산) 등이 있다. 이가종과 목일신은 '가종'과 '일신'으로도 시를 발표했고 이해문은 이고산이라는 이름으로도 시를 발표했다. '시어·시론·기타'로 분류된 부에는 조마사, 박노춘, 이가종, 김북원, 마명, 이고산이 시 또는 시어에 대한 자신의 생



제1집 표지
아단문고 소장

각을 산문 형식으로 짤막하게 쓴 것이 실렸다. 시와 시론에 글을 실은 이름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동인지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중 문단에 이름이 알려져 있거나 다른 지면에서도 이름이 확인되는 시인으로는 박노춘, 마명, 김북원, 김광섭, 목일신 정도가 있다. 창간호의 「편집후기」를 보면 필진의 면면이 화려하지 못한 데 대해 잡지 발행 주체들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 호를 내기까지의 어려움을 피력하면서도 『시인춘추』를 멀리는 『장미촌』, 『금성』, 『조선시단』 등의 시 전문잡지와 가까이로는 『낭만』, 『시건설』, 『시인부락』 등의 시 전문지의 계보를 잇는 자리에 위치시키고 있다. 편집후기를 작성한 동인은 이고산으로 추정되는데, 마명, 박노춘, 김북원에게 각별한 감사를 표하고 예정과 달리 창간호에 작품을 싣지 못한 사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시인춘추』 2집은 속표지에서 '순수시집'이라고 밝히고 있다. 잡지의 체제는 시와 시론·기타로 부가 나뉘어 있다. 2집에 시를 실은 시인으로는 박세영, 조벽암, 유창선, 신석정, 윤곤강, 오장환, 김조규, 한흑구, 배상철, 마명, 김북원, 황백영, 조은호, 이가종, 김대홍, 한명천, 정천, 박노춘, 이해문, 김광섭, 이종철, 장기방, 오악교, 방수룡, 이광섭, 김욱, 이춘강 등이 있다. 1집에 비해 이름 있는 기성 시인들이 많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박세영의 「등풍산」은 단풍이 든 가을 산을 오르는 모습을 그린 시이다. "물에 뜬 낙엽아 너도 이렇듯 한이 있드냐" 같은 구절에서 화자의 고뇌가 느껴진다. 신석정의 「옛이야기」는 아우의 죽음을 그린 시로 '구고에서' 골라 보낸 것이다. 오장환의 시도 「적야」, 「상렬」 두 편이 실렸다. '시론·기타'에도 이해문의 「중견시인론」, 금오산인(이해문)의 「시인인상기」 등 1집에 비해 본격적인 시론들이 실린다. '조선의시가는어디로가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중견시인론」에서 이해문은 중견시인들을 선구파, 카프계급동반자파, 선구아류급잡파, 현역중견파, 기타 역량 있는 중견급신진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해문이 금오산인이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시인인상기」에는 김화산, 심훈, 이은상, 박팔양, 조벽암, 노춘성 등의 시인에 대한 인상기가 그려졌다. 「편집후기」가 1집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2집을 준비하면서 따로 편집후기를 쓸 여력은 없었던 듯하다.


詩人春秋第一輯
頒價 貳拾錢
昭和十二年六月五日 印刷
昭和十二年六月八日 發行
京城府本町四丁目五番地
編輯兼發行人 李仁永
京城府堅志町三二番地
印刷人 金成均
京城府堅志町三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本町四丁目五番地
發行所 詩人春秋社
京城府本町四丁目五番地
總販賣所 南松堂書店
振替口座京城一九三二番

제1집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시인춘추』는 어떤 주의나 경향을 내세우지 않고 주로 중견시인들이 순수시 건설을 목표로 발간한 시 전문 동인지이다. 발간의 주축을 이룬 시인들은 이가종, 황백영, 박노춘, 이해문 등 충남 예산 및 그 인접 지역 출신들이다. 순수시 잡지를 표방했음에도 2집에서 박세영, 조벽암, 윤곤강, 오장환 등의 시를 싣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해문이 이고산, 금오산인 등의 필명으로도 시와 시론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시인춘추』의 주축이었음이 확인된다. (해제: 이경수)

핵 심 어 시 전문 동인지, 이해문(이고산/금오산인), 박노춘, 김북원, 마명, 박세영, 신석정, 오장환, 순수시

참고문헌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심원섭, 「고산 이해문의 시 연구」, 『국제어문』 35, 국제어문학회, 2005.
- 이규식, 「고산 이해문의 삶과 예술」, 『호서문학』 13, 호서문학회, 1987.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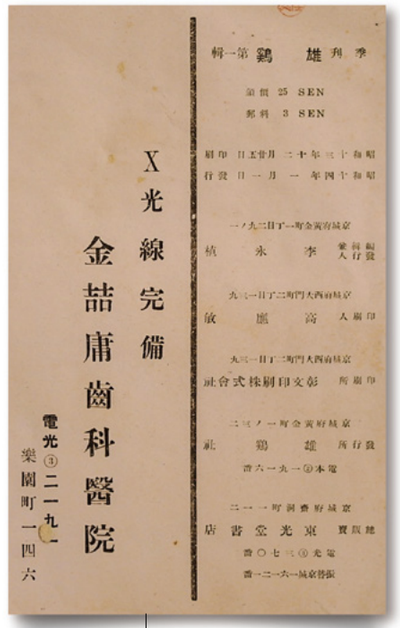
061 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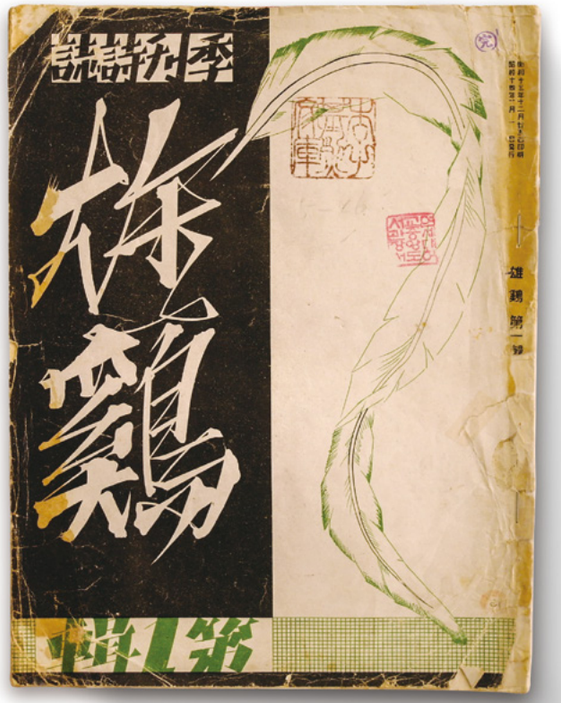
雄鷄
웅계사
1939. 1. 1

『웅계』는 1939년 1월 1일 창간된 시 동인지다. 창간호에 계간지임을 밝혔으나 속간되지는 못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이영식(李泳植), 인쇄인은 고응민(高應敏)이었다. 인쇄소는 창문인쇄(彰文印刷), 발행소는 웅계사(경성 황금정1가 32), 총판은 동광당서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판형은 B5판 30면이고 정가는 25전이다. 표지 도안은 구본웅(具本雄)이 맡았다.

『웅계』는 특정 사조나 유파를 지향하지 않는 시 전문 잡지를 표방하였다. 그러한 편집 방향은 시 작품만 수록하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잡지에는 22인의 작품 24편을 수록했는데 시의 경향 또한 사상성이 드러나지 않는 서정적인 작품이 대부분이다. 수록된 시들은 가을의 정취를 노래했거나(춘원의 「맘」, 모윤숙의 「밤에 본 코스모스」, 김남인의 「추야」, 박정호의 「귀뚜리」, 노양근의 「사향(思鄕)」, 김동옥의 「달 밝은 밤」 등), 시대고를 좌절감과 허무감으로 풀어내었다(김우철의 「허(虛)한 무덤」, 이찬의 「고원」, 마명의 「금붕어」, 「생(生)의 한(恨)」, 조우식의 「궁전(宮殿)처럼 슬픈 아내의 의자」, 이영식의 「낙오자의 노래」 등).

이찬과 김우철의 경우 카프 출신이나 카프 해소 이후 프로 시의 경향을 벗어나 시대에 대한 좌절을 담아내는 특징을 보여준다. 모윤숙은 1931년 등단한 뒤 극예술연구회 동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한 경우이다. 시인이자 기자로서 『시건설』 발행인이었던 김남인(金嵐人, 본명 김의부), 아동문학가로 활동하며 시를 창작한 노양근, 화가이자 언론인이었던 조우식, 대구 출신 노동운동가 마명(馬鳴, 마승주, 본명 정우호), 『시인부락』 2호에 동인으로 참여했던 이시복, 1938년 창간된 『맥(貘)』의 창간호 동인으로 의사이자 시인, 소설가로 활동한 김대봉, 「애수의 소야곡」의 작사자이자 극작가, 영화제작자인 이고려(李高麗, 본명 박노홍), 시인이자 국문학자인 박노춘 등등, 이들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동인지에 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1930년대 후반 세대론을 촉발시킨 것도 이들이었다.





제1집 판권지 / 표지
연세대학교 소장

『웅계』에 실린 시편들은 좌우 이데올로기나 세대를 불문하고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든가 특정 이념이나 유파에 묶여 있지 않다든가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발행인 이영식과 편집인 고응민은 1938년 7월에 창간호와 동년 9월에 2호를 내고 종간한 시 동인지 『아(芽)』의 발행인과 편집인이기도 했다. 『웅계』는 동인지 중심의 시 전문지가 활성화되는 1930년대 후반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수록 시인들은 『시학』, 『시인부락』, 『맥』, 『아』 등에도 시를 수록하는 등 느슨한 형태의 동인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해제: 유임하)

핵 심 어 시 동인잡지, 1930년대 후반 잡지, 신세대 시인

참고문헌

- 강호정, 「1930년대 후반 동인시지 연구」, 『한국학연구』 3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1.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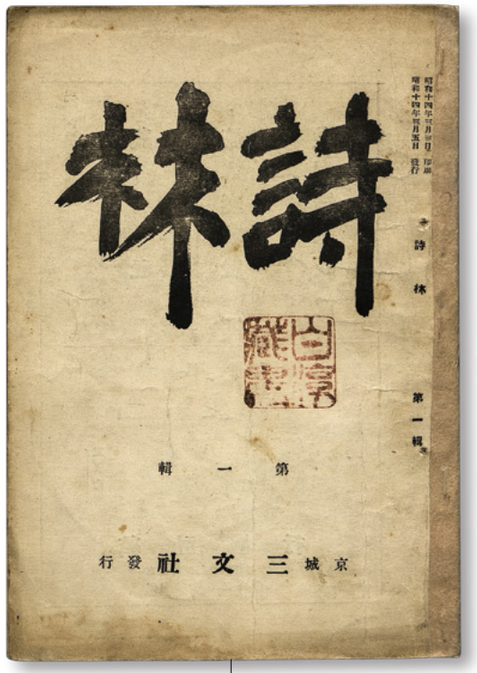
시림

詩林
삼문사
1939. 3. 5 ~ 1939. 6. 10

1939년 3월 5일자로 창간된 시 전문 동인지이다. 1939년 6월 10일 3집까지 간행되었는데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1집과 3집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고경상, 인쇄인은 고응민이다. 인쇄소는 창문인쇄주식회사이며, 발행소는 경성 삼문사로 되어 있다. 삼문사의 주소지는 경성부 관훈정 121번지이다. 『시림』 1집은 국판 22면으로 되어 있다. 발간을 축하하는 광고가 맥사, 시인춘추사, 교육정보사의 이름으로 상단에 실려 있고, 하단에는 맥사에서 발행된 김대봉 시집 『이심(二心)』 광고가 실려 있다. 편집 후기가 "이땅에 권위있는 시지(紙)가 잇때껏 한아도 없었다는건 심히 유감된일"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권위 있는 시 전문지를 내려는 의욕에서 창간된 잡지로 보이지만 의욕에 값하지는 못했다. 아울러 권위 있는 시 잡지가 없었음을 비판하면서도 근일 간행된 『시건설』, 『맥』, 『시인춘추』가 꾸준한 진보를 보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발간 축하 광고가 맥사, 시인춘추사의 이름으로 실려 있는 것을 보면 『맥』, 『시인춘추』 등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편집후기를 조연현이 쓴 것으로 보아 잡지의 편집 실무를 조연현이 맡아 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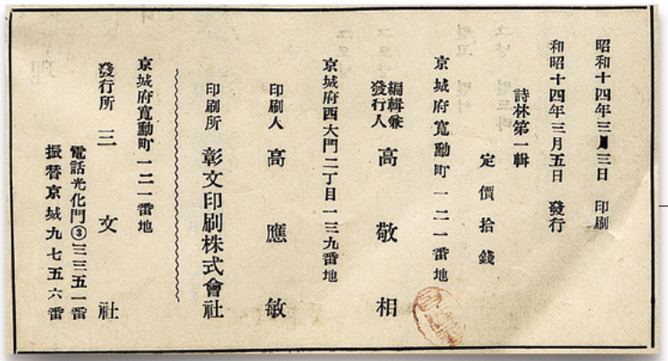
1집 목차를 보면 김봉, 정낭파, 조연현, 최재형, 김유섭, 정태용, 박준열, 권홍석, 양기준, 정HC생, 조수완, 한진옥, 배종섭, 김포백, 김상옥, 박일연, 조현, 이정희, 윤군선, 정태, 일영, 이세열, 한백숙, 김수향, 조옥윤, 고영 등의 시가 1~2편씩 실려 있다. 이름 있는 시인들은 거의 없었고 조연현, 김상옥 정도가 시단에 이름을 남긴 시인이었다. 사실상 잡지의 편집 및 원고 모집 등의 실무를 조연현이 전담한 잡지였다고 볼 수 있다. 시가 실린 지면 사이사이에 근간 예정인 시집의 광고가 짤막하게 실려 있는데, 양우정 시집 『청춘』, 조연현 시집 『구름』, 윤군선 시집 『탁조』 등의 출간을 알리고 있다. 그 밖에 의학 잡지 『대중의학』이 근일 창간호가 나올 예정임을 알리는 광고도 실렸다.

김상옥의 「고목」은 "한아름 굵은줄기는/ 창천높이 들내여 북극의 소식을듯고/ 땅을굿게 파악한 뿌리는/ 뜨거운 지심을 호흡하는 오오랜 고목"을 예찬한 시다. "찬기압을 뚤고 우흐로 우흐로만 뻗는/ 오! 그 장한 심간(心肝)이여"라는 표현에 드러나듯 시의 화자는 찬 기압을 뚫고 위로 뻗어 올라가는 고목의 기상을 높이 사고 있다. 고목의 임종마저 통쾌하겠다고 보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해방 후에는 비평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조연현은 이 시기에 『아』(1938), 『시림』(1939) 등의 잡지 편집자로 활약하면서 시도 발표했다. 조연현의 시는 「밤」과 「여급카츄샤」 두 편이 실려 있다. "벗도 사랑도 없는밤/ 마음 은조개껍지 보다 드욱 슳다/ 이웃집 아가씨 창란이는/ 웨 오늘밤도/ 노래를 불러주지 않는고"라는 표현에서 보듯 「밤」은 화자의 외로움을 다소 감상적으로 채색하였다. 「여급카츄샤」에서도 카츄샤라는 이름의 동향의 여급을 만난 반가움을 노래하면서도 "그러나 나앞에서 마는 애써/ 마음에없는 우슴과노랠랑은 짓지 않어도좃타"라며 그녀의 외로움과 슬픔을 마음 깊이 공감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정태용도 해방 이후에는 문학평론가로 활동하지만, 『시림』 1집에 「무등의 튼넬」이라는 시를 발표하며 문단 활동을 시작한다. 빛이 없는 터널을 향해 "태양의 본영!/ 지극한 나의 애인/ 무등의 기-ㄴ 튼넬이여"라고 외치며 자신이 걷는 길의 비유로 활용하고 있는 시이다.



제1집 표지
아단문고 소장

3집에 작품을 실은 시인으로는 조연현, 김광섭, 마명, 정태용, 김경린 등이 눈에 띈다. 조연현은 「시론부정론」이라는 평론과 「어느 여급의 애시」, 「실제」 등 2편의 시를 실었다. 「시론부정


昭和十四年三月三日 印刷
和昭十四年三月五日 發行
詩林第一輯
定價 拾錢
京城府寬勳町一二一番地
編輯兼發行人 高敬相
京城府西大門二丁目一三九番地
印刷人 高應敏
印刷所 彰文印刷株式會社
京城府寬勳町一二一番地
發行所 三文社
電話光化門③三三五一番
振替京城九七五六番

제1집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론」은 시론을 부정하는 글이라기보다는 시를 위한 시론이어야 함을 역설하는 글에 가깝다. 정태용은 시 「"요렇게사는마음은어데서왔느뇨」와 수필을 함께 실었는데 수필 「수상 A·B·C」는 편집후기에서 특별히 언급된다. 김광섭의 시 「담배」와 김경린의 시 2편 「양등(洋燈)」과 「턴넬」이 실린 점도 눈에 띈다. 1939년에 《조선일보》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한 것으로 알려진 김경린의 초기 시 2편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3집에는 1집보다는 기성 문인들의 시가 좀 더 많이 수록되었다.

1939년은 『문장』, 『인문평론』이 창간된 해이기도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이기도 해서 식민지 조선 사회의 분위기는 점점 전쟁 국면으로 치달아 엄혹해지고 있었다. 조선어 과목이 폐지되고 조선어로 시를 발표하는 일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었으며, '황국신민의 서사'를 외쳐야 했던 시기였음을 감안하면 아직 시단에 이름을 알리지 못한 젊은 시인들이 시 전문 동인지를 내며 권위 있는 시 전문지를 꿈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투고와 후원을 독려하는 편집후기의 조연현의 글에서 시 전문지 출간을 향한 남다른 애정과 의욕을 읽을 수 있다. (해제: 이경수)

핵 심 어 시 전문 동인지, 고경상, 조연현, 삼문사, 김상옥, 정태용

참고문헌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63

작품

작품
작품편집부
1939. 6. 1

『작품』은 1930년대에 대표적인 출판사 중 하나였던 영창서관에서 발행한 잡지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939년 6월 1일에 발행된 『작품』의 창간호가 곧 종간호가 되었다. 『작품』의 편집 겸 발행인은 영창서관 사장 강의영이었고, 인쇄인은 김용규였다. 발행소는 작품 편집부였고, 인쇄소는 주식회사 대동출판사였으며, 총판은 영창서관이었다.

『작품』은 박문서관의 기관지였던 『박문』과 같은 유의 잡지였다. 1930년대에 출판계를 주름잡았던 박문서관은 1938년 10월에 박문서관의 출판 활동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 아래 『박문』을 창간했다. 분량이 20~30쪽 정도에 불과했던 『박문』의 내용은 박문서관의 출판활동상과 당대 문인들의 수필로 채워졌다. 이 때문에 외형상 『박문』은 수필 전문잡지와도 같았다. 『박문』은 1941년 1월까지 통권 23호가 발행되었다.

이와 꼭 같은 형태로 『작품』도 편집되었다. 약 30쪽 분량의 『작품』 지면이 영창서관의 출판물을 홍보하는 기사와 함께 문인들의 수필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1939년 5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도 『작품』의 그와 같은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창서관에서는 이번에 『조선작가명작전집』을 간행키로 하고 준비 중이라는바 동 전집에 수록될 작가와 작품은 동 편집부에서 방금 교섭 중이라 하며 그 준비사업으로 우선 수필잡지 『작품』을 월간으로 발행하기로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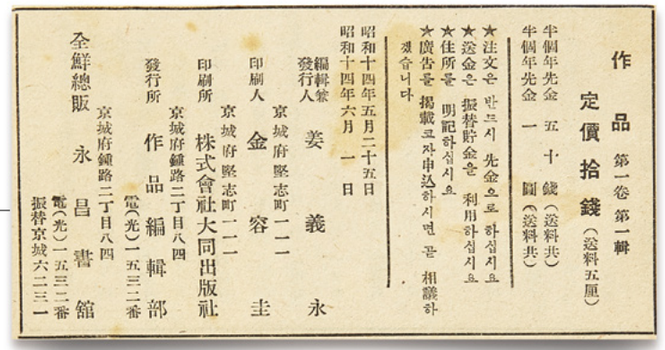
그런데 그 기사에서 언급된 『조선작가명작전집』은 1930년대 중·후반에 일어났던 문학 앤솔러지 출판 붐에 따른 것이었다. 삼천리사의 『신문학선집』(1932), 『이광수전집』(1935), 『조선문학선집』(1935), 『조선문학전집』(1936) 등을 시작으로 중앙인서관의 『조선문학전집(고대편)』(1936),

제1집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일보사의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1937), 『현대조선문학전집』(1938), 『신선(新選)문학전집』(1938), 삼문사의 『조선문인전집』(1937), 한성도서주식회사의 『현대조선장편소설전집』(1938), 박문서관의 『현대걸작장편소설전집』(1938), 『신찬역사소설전집』(1939) 등이 기획, 출판되었다. 1939년 6월 20일부터 『조선작가명작전집』의 1권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니 영창서관은 뒤늦게나마 그 대열에 합류했던 것이다.

영창서관은 『조선작가명작전집』을 모두 10권으로 기획했다. 이무영의 『먼동이 틀 때』(1권)와 김동인의 『수평선 넘어로』(2권)를 필두로, 이기영의 『어머니』, 이광수의 『꿈』, 엄흥섭의 『행복』, 윤백남의 『해조곡』, 방인근의 『결혼전야』, 박태원의 『우맹』, 한설야의 『황혼』 등이 그것이다(나머지 1권은 미정). 『작품』의 첫 페이지는 『조선작가명작전집』과 그 첫 권인 이무영의 『먼동이 틀 때』의 광고로 도배되어 있다. 『작품』의 초반도 이무영에 관한 글과 이무영의 글로 장식되어 있다. 한마디로 말해 『작품』은 외형상 수필 잡지를 표방했지만 기실은 영창서관의 야심찬 기획이었던 『조선작가명작전집』의 홍보잡지였던 셈이다.

그러나 영창서관의 기대와 달리 『작품』은 창간호만 발행된 후 종적을 감추었다. 아무래도 영창서관의 본래 목적이었던 『조선작가명작전집』의 출판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가장


作品 第一卷 第一輯
定價 拾錢 (送料五厘)
半個年先金 五十錢 (送料共)
半個年先金 一圓 (送料共)
★注文은 반드시 先金으로 하십시요
★送金은 振替貯金을 利用하십시요
★住所를 明記하십시요
★廣告를 掲載코자 申込하시면 곧 相議하겠습니다
昭和十四年五月二十五日
昭和十四年六月一日
編輯兼發行人 姜義永
京城府堅志町一一一
印刷人 金容圭
京城府堅志町一一一
印刷所 株式會社大同出版社
京城府鍾路二丁目八四
發行所 作品編輯部
電(光)一五三二番
京城府鍾路二丁目八四
全鮮總販 永昌書館
電(光)一五三二番
振替京城六二三一

제1집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큰 이유였던 것 같다. 『조선작가명작전집』이 출판되기 시작한 1939년 무렵은 일제의 총동원체제와 전시경제에 따른 물자, 특히 용지부족 등의 문제로 출판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었던 때였기 때문이다. 영창서관은 그 난국을 『조선작가명작전집』과 그것의 홍보잡지 『작품』으로 타개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미 그러한 출판기획은 때늦은 것이었다. 그 결과 『작품』도 창간호가 종간호가 되는 운명을 맞이했다. (해제: 유석환)

핵 심 어 출판사 기관지, 영창서관, 이무영, 조선작가명작전집, 수필잡지

참고문헌

- 장두식, 「박문서관 기관지 『박문』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2-2,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3.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 최호석, 「영창서관의 고전소설 출판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37, 우리어문학회, 2010.

064 백지

白紙
백지사
1939. 7. 1 ~ 1939. 10. 28

『백지』는 1939년 7월 1일에 창간하여 2호는 같은 해 8월 10일에, 3호는 10월 28일에 내고 종간한 시 전문잡지다. 잡지 발행인은 최익연(崔翼然)이었으나, 창간호 편집동인은 김용태(金容泰), 김해진(金海鎭), 박수래(朴洙來), 이재영(李載榮), 조동탁(趙東卓) 등 5인이었다. 조동탁은 '청록파' 조지훈(趙芝薰)의 본명으로, 동인을 통틀어 『백지』에 가장 많은 시를 발표하였다. 그는 『문장』 1939년 3월호에 「고풍의상(古風衣裳)」으로, 12월호에는 「승무(僧舞)」로, 이듬해 2월에는 「봉황수(鳳凰愁)」로 추천을 완료하고 등단하였는데, 등단과 맞물려 『백지』의 편집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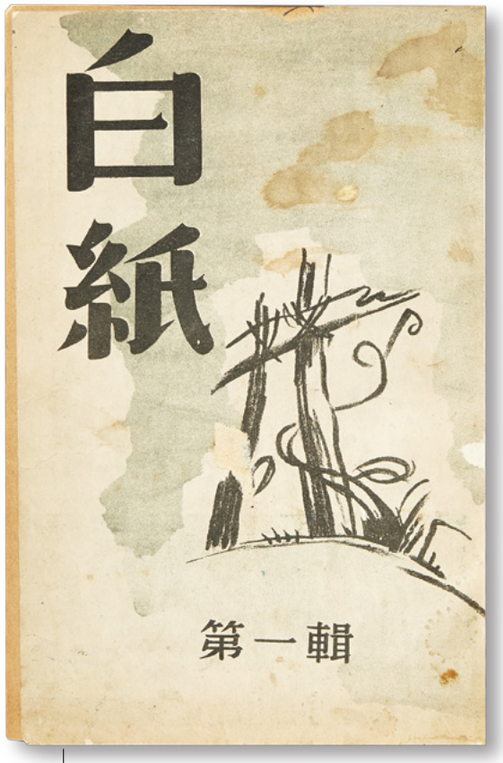
주목할 것은 편집동인인 김용태, 김해진이 조지훈과 함께 중앙불교전문학교 학생회 회지 『룸비니(藍毘尼)』에서 창작활동을 한 바 있다는 사실이며, 이외에 『백지』 창간호에 글을 실은 오화룡(吳化龍), 신상보(申尙寶), 장상봉(張祥鳳), 김석준(金晳埈), 장성진(張星軫) 등도 모두 『룸비니』의 필자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이들은 준문예지적 성격을 갖는 교지에서의 활동을 기반으로 직접 잡지를 발간하게 된 것이다.

『백지』는 그 이름처럼 흰 종이에 문학을 써나가듯이 특별한 이념이나 주의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소설, 희곡, 수필도 게재하지만 '시'를 중심으로 한다는 편집 원칙 정도만 있었던 것 같다. 창간호에는 '수휴록(愁休錄)'이라는 편집후기가 실렸다. 김해진과 조지훈이 함께 이름을 걸고 "당초에는 희곡 외에 소설 두 편과 산문, 수필 합하야 세 편을 넣으랴든 것이 동인의 사정으로 모두 한 편씩밖에 못 실리니 너무 단조로운 것 같으나 2집부터는 평론도 싣고 편집에도 좀 참신한 수법을 보일 작정입니다"라고 남긴 후기를 보면, 『백지』의 동인이 주로 시인들로 구성되었다는 사실과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소설이나 희곡, 평론, 수필 등을 추가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원래 계간으로 하랴든 것이나 월간 혹은 격월간으로 좀 더 우리의 열을 쏟기로 했습니다"라고 쓰고 있는 것을 보면, 편집동인들이 이 잡지를 유수의 월간 문학잡지로 만들려는 의지와 열의를 갖고 있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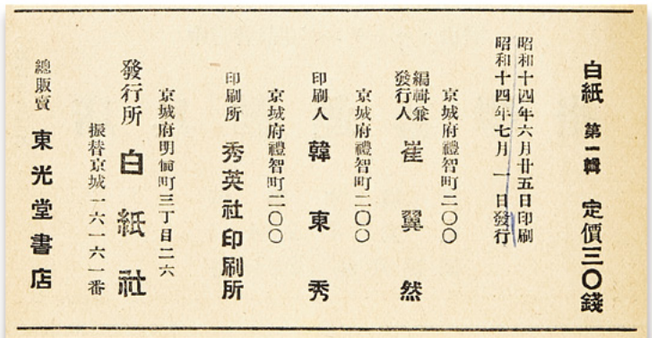
창간호에 발표한 시 「계산표(計算表)」에서 조지훈은 "67분의 노동대가(代價) 일금(一金) 5전(錢)야(也). 막걸리 일배(一盃) 쾌음(快飮) 소요시간 1분 3초. 67분과 1분3초의 나의 정가(定價)는 5전. 5전에 괴롭고 5전에 즐거우니 67분에 괴롭고 1분3초에 즐거웁다."라고 노동의 고통을 그림으로써 「고풍의상」 등과는 다른 색채를 보여주었다. 창간호에 함께 실린 김용태의 소설 「축방도(逐放圖)」에서는 전염병으로 헤어졌던 고향의 이웃 남매들을 재회하면서 사랑의 감정에 괴로워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아쿠타가와 류노스케(芥川龍之介)의 텍스트가 활용되고 있음이 눈에 띈다.

『백지』 2호는 한 달 만에 발간했는데, 시 중심이라는 잡지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은 채, 소설 2편, 희곡 1편을 함께 실었다. 2호에 실린 김해진의 소설 「은야무(銀夜舞)」에서는 돈에 휘둘리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지식인 남성이 아내와 자식을 잃고 삶의 비극을 통감하는 내용을 나비의 꿈이라는 설화적 요소를 차용해 탐미적인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백지』 3호는 시 특집으로 꾸며졌다. 3호에서 김용태는 장시(長詩) 「사택(舍宅)」을 통해 "사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



제1집 표지
고려대학교 소장


白紙 第一輯 定價三〇錢
昭和十四年六月廿五日印刷
昭和十四年七月一日發行
京城府禮智町二〇〇
編輯兼發行人 崔翼然
京城府禮智町二〇〇
印刷人 韓東秀
京城府禮智町二〇〇
印刷所 秀英社印刷所
京城府明倫町三丁目二六
發行所 白紙社
振替京城一六一六一番
總販賣 東光堂書店

제1집 판권지
고려대학교 소장

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서 거듭하는 생활은 사택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서 거듭하오"처럼 이상의 「오감도」를 연상시키는 실험적 표현을 선보이기도 했다.

『백지』는 비록 문학사에 많은 의미를 남기기 어려웠던 수많은 문예 동인지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점차 고조되어가던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도 시에 대한 열망을 살려내려는 의기를 짐작하게 한다. 또한 조지훈의 습작 시절 발자취를 확인하게 해주는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해제: 안용희)

핵 심 어 조지훈, 시전문잡지, 동인지, 중앙불교전문학교

참고문헌

- 전도현, 「식민지 시대 校誌의 준문예지적 성격에 대한 일고찰: 중앙불전 학생회지 『룸비니』를 대상으로」, 『한국학연구』 2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 조광렬, 『승무의 긴 여운, 지조의 큰 울림 : 아버지 조지훈-삶과 문학과 정신』, 나남출판, 2007.
- 조지훈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편, 『조지훈의 시와 학문과 생애』, 조지훈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2002.
- 최동호, 「청록파 조지훈의 시적 계보와 역정」, 『국제언어문학』14, 국제언어문학회, 2006.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65

순문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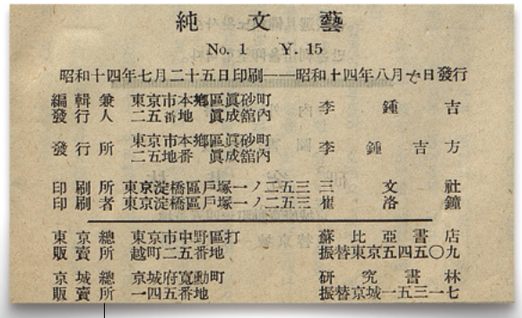
純文藝
이종길방
1939. 8. 1

『순문예』는 도쿄에서 발행된 문예동인지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1939년 8월 1일에 발행된 『순문예』의 창간호가 종간호이기도 했던 것 같다. 판권장을 보면, 『순문예』의 편집 겸 발행인은 이종길이었고, 인쇄인은 최낙종이었다. 발행소는 도쿄 소재의 이종길방이었고, 인쇄소는 삼문사였다. 도쿄의 총판은 소비아서점(蘇比亞書店)이었고, 서울의 총판은 연구서림(研究書林)이었다.

『순문예』는 30쪽 정도의 분량으로 출판된 잡지였다. 그 내용을 일별하면, 김광섭의 시론(詩論)인 「시(詩)」를 필두로 6편의 번역·창작시가 『순문예』의 전반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종길이 번역한, 폴 발레리와 스테판 말라르메의 시 「꿀벌」과 「바다의 미풍」 외에 창작시로는 이용악의 「두메산골」, 조원환의 「까치」·「가을 느티나무」, R생의 「승리의 '네안」 등이 있다. 『순문예』의 후반부에는 안함광의 평론 「순수문학론」과 김영수의 단편소설 「병실」이 배치되어 있다. 『순문예』의 앞부분에는 김광섭과 이용악의 시집 『동경』과 『낡은 집』의 출판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순문예』의 내용은 잡지 제목 그대로 아주 담백하고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순문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순문예』를 대변하는 「순수문학론」을 안함광이 맡았다는 점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안함광은 1920년대 말부터 카프의 맹원으로 활약했던 평론가였다. 『순문예』의 책임편집자였던 이종길이 프랑스 상징파의 시인 말라르메와 발레리의 시를 번역, 수록했던 점은 제쳐두더라도 『순문예』를 뒤덮고 있는 모더니즘 경향도 안함광과 맞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였는지 안함광도 원고 청탁을 받고 글을 집필했다는 사실과 함께 자신의 「순수문학론」이 " 『순문예』지로서의 의견이 아니라 어디까

제1집 표지
아단문고 소장


純　文　藝

No. 1　Y. 15

昭和十四年七月二十五日印刷——昭和十四年八月七日發行

編輯兼發行人	東京市本鄕區眞砂町二五番地　眞成館內	李鍾吉
發行所	東京市本鄕區眞砂町二五地番　眞成館內	李鍾吉方
印刷所	東京淀橋區戸塚一ノ二五三	三文社
印刷者	東京淀橋區戸塚一ノ二五三	崔洛鐘
東京總販賣所	東京市中野區打越町二五番地	蘇比亞書店 振替東京五四五〇九
京城總販賣所	京城府寬勳町一四五番地	研究書林 振替京城一五三一七

제1집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지든지 필자 일 개인의 의견일 따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었다. 『순문예』의 창간호 외에는 『순문예』에 관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현재로서는 『순문예』의 동인 혹은 그 책임편집자였던 이종길이 왜 안함광의 글을 수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창조』, 『백조』, 『폐허』 등의 동인지가 한국 근대문학사의 분수령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순문예』는 그와 같은 동인지의 전통을, 그것도 바야흐로 한국 근대문학사가 황혼기에 접어든 무렵에 잇고 있는 잡지라고 할 수 있다. 역사의 우연인지는 몰라도 한국 근대문학사에서 동인지의 시대를 열며 동인지의 대명사로 불리는 『창조』와 똑같이 『순문예』도 도쿄에서 출판되었다. 김동인이 없었다면 『창조』가 태어날 수 없었듯이 『순문예』도 이종길이 아니었으면 태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역사의 서막이 아니라 폐막에 위치해 있었던 탓에 『순문예』는 『창조』만큼 빛을 보기는 어려웠다. (해제: 유석환)

핵 심 어　문예동인지, 순수문학, 이종길, 도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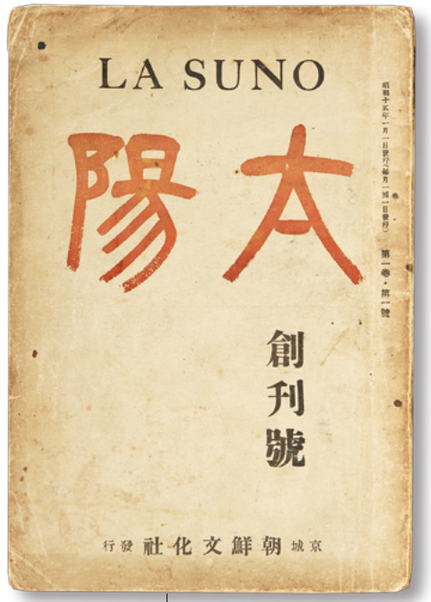
참고문헌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66

태양

太陽
조선문화사
1940. 1. 1 ~ 1940. 2. 20



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40년 1월 1일 창간되어 같은 해 2월 20일 제2호를 내고 폐간된 잡지이다. 당시 모든 잡지의 서두를 장식하던 「皇國臣民の盟詞(황국신민의 맹사)」 앞쪽에 '성수무강(聖壽無彊)'이란 기원 아래 일왕 쇼와(昭和) 부부의 어진을 실음으로써 체제 협력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편집 겸 발행인은 서춘(徐椿)으로, 경성부 종로 1의 77번지가 주소지다. 이곳은 발행소 조선문화사가 자리한 한양빌딩의 소재지이기도 했다. 인쇄인은 김동옥(金東玉), 인쇄소는 한성도서주식회사이다. 분량은 110면 내외로, 정가는 1책 40전, 반년 2월 25전, 1년 4원이다. 문체의 경우, 일본인은 일문으로, 조선인은 한글로 원고를 작성한 특이성이 눈에 띈다.

표지는 상단에 검은 글씨의 에스페란토어 'LA SUNO'를, 중간부에 붉은 예서체로 새긴 '太陽'을, 그 아래 오른쪽에 세로글씨로 '創刊號'를, 하단부에 검은 인쇄체 글씨 '京城 조선문화사 발행'을 새겼다. 뒷장에는 조선문화사와 태양사(太陽社) 명의로 새해를 축하하는 인사말 '근하신년'과 '근하신춘'을 새겼다. 그러면서 보통의 일왕 연호 대신 '皇紀 二千六百年'을 취함으로써 '태양'이 천황을 상징하는 것을 암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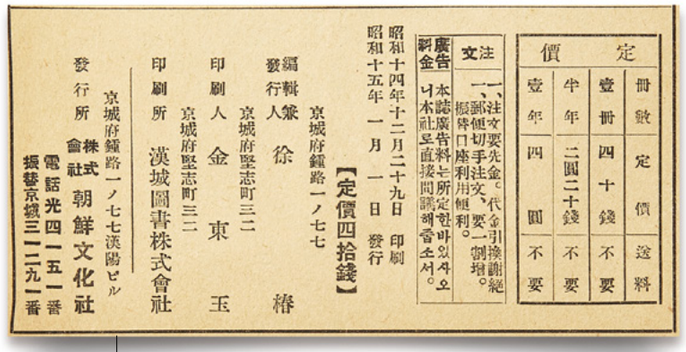
창간 목적은 서두에 놓인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車郎)의 「興亞維新に邁進せん(흥아유신에 매진하자)」, 주간 서춘의 「皇紀 二千六百年を迎へて(황기 2600년을 맞아)」등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것을 권말에 실린 '편집여묵(編輯餘墨)'을 빌려 소개한다면, "본지는 건전한 국민으로의 사상과 생활을 지도하는 동시에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의 변천과 추

이 같은 것을 소개하야 써 국민의 상식을 향상케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편집방침을 취했습니다"라는 선언과 상통할 것이다. '건전한 국민'의 내용과 목표는 서춘이 작성한 일문 「創刊辭(창간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태양』은 신동아건설 및 내선일체의 구현, 그것에 관련된 신이론 체제의 창설, 건전한 사상의 양성, 개인 위인의 배출 조성, 시비선악(是非善惡)의 견별(甄別) 등의 성취를 목적으로 삼는다. 그 구체적 실천 방법으로 내선일체의 구현, 일본정신의 앙양, 시국인식의 철저, 단체훈련의 조장, 국민협력의 고조, 과학지식의 보급, 취미오락의 선도, 동양문화의 재건 등을 내세웠다.

『태양』에는 중견 문인들이 조선어로 표기한 글이 여러 편 실려 있다. 창간호의 경우, '신춘수필첩'에 김진섭의 「청운정(淸雲町)의 달밤」, 정지용의 잠언 「천주당」, 김광섭의 「신계사(神溪寺)의 밤」, 정인택의 일기 「마즐카 환상」,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공개한 이효석과 유진오의 「편지」 두 편, 안석영의 「천국」이 실렸다. 또한 '시가'로 김안서(김억)의 백낙천 번역시 「琵琶行(비파행)」, 이하윤의 「물」, 이병각의 「추억」 등이 실렸다.

무명작가 곽석정(郭石亭)은 조선 청년이 일본군을 지원하여 만주 북지에서 천황을 위해 싸우는 모습을 그린 친일소설 「北風(북풍)」을 발표했다. 임화는 「문예시평」에서 자신의 비평의 요체인 '현실', '레알리즘', '경향', '진실', '생활', '세태소설', '내성' 등의 개념을 점검하면서, "내성에의 세계로 침잠"과 "심리적 경향의 레아리즘" 개척이 리얼리즘 미학의 심화와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춘기증대호'로 기획된 2호의 경우, '문론(文論)'에는 대동아전쟁의 목적과 이상, 도덕을 강조하며 최대 애국행위로서 지원병 제도를 예찬하고, 국가총력의 발휘와 애국반 활동을 독려하는 글들이 여러 편 실렸다. 조선인으로는 현영섭이 유일하게 일본어 문장 「內鮮一體論に於ける科學的僞裝に就て(내선일체론에서의 과학적 위장에 대하여)」를 발표했다. '수필'란에는 함대훈의 「감상 1, 2」, 계용묵의 「효조(曉鳥)」, 김내성의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양주동의 「금주령」이, '시가'란에는 권상로의 「시조 한역(漢譯)」, 김안서의 유정지(劉廷芝) 한시 번역인 「대비백두옹(代悲白頭翁)」, 신석정의 「꽃상여 가는 길」, 장만영의 「춘야(春夜)」 등이 실렸다. 소설로는 박태원의 「그의 감상(感傷)」, 이석훈의 「바다의 탄식」이, 논문으로 고유섭의 「신라의 미술」과 인정식의 「물 이야기」가 발표되었다.


昭和十四年十二月二十九日 印刷
昭和十五年 一月 一日 發行
【定價四拾錢】
京城府鍾路一ノ七七
編輯兼發行人 徐 椿
京城府堅志町三二
印刷人 金 東 玉
京城府堅志町三二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鍾路一ノ七七漢陽ビル
發行所 株式會社 朝鮮文化社
電話光四一五一番
振替京城三一二九一番

注文
一、注文ハ先金。代金引換ノ場合ハ郵便切手ヲ注文ノ一割增。
一、振替口座利用ハ便利。

廣告料
本誌廣告料ニ所定ノ割引ヲ設ケ本社ニ直接問議ヲ請フ。

定價			
冊數	定價	送料
壹冊	四十錢	不要
半年	二圓二十錢	不要
壹年	四圓	不要

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편 서춘은 2호 표지에 "입학 급 졸업생 특집"을 내걸고, 새로 바뀐 입시 제도를 설명하는 일기자의 「입학시험신제도」와 더불어 자신의 「수재범화론(秀才凡化論)」 및 「독학권장문(獨學勸奬文)」을 실었다. 일종의 '실력양성론'인데, 1차적으로는 새로 변모한 입학시험에 대한 안내를 의도한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지원병 출정이 강요되고, 내선일체를 위한 '국어(일본어) 상용, 조선어 금지'의 구호가 공공연히 제창되던 현실을 생각하면, '국가총력의 발휘'에 관련된 정책 선전과 독려를 위해 기획된 특집이라고 할 수 있다.

『태양』은 총력전을 선전하는 국가시책에 관련된 글들은 대체로 일본인들이 일본어로 집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반해 조선 문인들은 한글로 시와 소설, 수필과 평론 등을 발표했다. 그 내용도 노골적인 친일의 문장과 거리가 있을뿐더러, 집필진 역시 당대의 유명한 중견 문인들인지라 총력전의 시대를 돌파하는 조선문학의 한 국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태양』의 근본 목적은 내선일체의 강조와 대동아전쟁의 독려에 있었다. 이를 생각하면, 조선문학은 폭력적이며 전체주의적인 일제와 전쟁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해 동원되었다는 판단도 가능해진다. (해제: 최현식)

핵 심 어 서춘, 내선일체, 임화의 문예시평, 김억의 번역시, 박태원과 이석훈의 소설

참고문헌

-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067

업

業
장학사
1940. 5. 1

제1집 표지
아단문고 소장

『업』은 1940년 5월 1일에 발행된 문학 동인지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윤봉주, 발행사는 장학사(동경시 신전구 원락정 2-4)이다. 판형은 국판 111면, 정가는 30전이다. 일본에 유학 중인 조선 청년들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업』에는 창간사나 편집후기가 없고, 목차와 시 5편, 소설 3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김병길의 「무제」, 윤봉주의 「신비」, 「방랑」, 장세무의 「고향에 가서」와 「아스팔트길」이고, 소설은 탁시연의 「정맥」, 문성빈의 「흐름」, 김희선의 「세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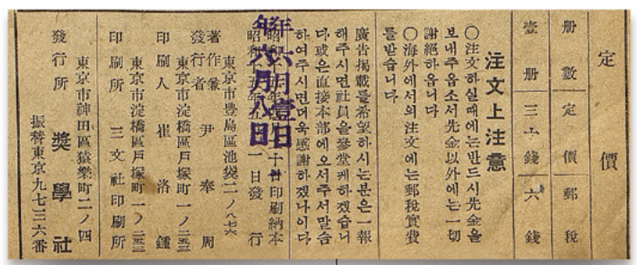
책명인 '업(業)'은 불교 용어로,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말과 동작과 생각, 그 인과를 뜻하는 말이다. 업보설은 이생에서의 삶이 전생에서 행한 행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업'을 표제로 내세운 것은 불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그런 취지를 반영하듯 첫 시 「무제」는 불교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

바람이 몹시 부는밤/ 나는 초롱불을 껍니다// 그리곤/ 가슴에 말러붙은/ 그리운 말들을 따서/ 나는 긴 염주를 만듭니다.// 나무아미타불 …… / 바람이 몹시 부는 밤/ 초롱불 꺼진밤// 물래방아여

시의 화자는 "바람이 몹시 부는 밤", 어둠을 밝히는 '초롱불'을 끄고 가슴속에 담겨 있는 "그리운 말들"을 염주처럼 꿰고 있다. 밖에서 부는 바람은 밤새 뒤척이는 화자의 심정처럼 멈추지 않고, '나'는 "나무아미타불"에 그 마음을 담아 되뇐다. 염주를 굴리듯, 물레방아가 돌아가듯 시간은 흐르고 언젠가 그 번뇌도 끝나게 될 것이라는 예감도 들어있다.

윤봉주의 「신비」에서, 화자인 '나'는 일찍이 진정한 '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미몽의 상태이기 때문에 거울 앞에 서 있다 해도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 이러한 나를 찾기 위한 헤맴의 상태는 갑작스러운 '선생의 말씀'을 통해 깨어진다. 깨달음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찾아오고, 비가역적이라는 점에서 '신비'하다는 내용이다. 「방랑」은 '석탄'은 스토브 안에서 "타고 싶어"하는 존재이고, '나'는 스스로를 불사르는 격렬한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 그 상반된 상황에서 '나'는 "벌써 황혼이 된 골목"을 가고 있다. 「고향에 가서」는 "현실은 멀"고, "낭만은 가까이" 있는 화자의 느낌을 드러낸다. 화자는 타지에서 떠돌면서 현실의 무력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 때문에 '새벽바람'을 쏘이는 '낭만'을 느끼고, 그것을 넘어서서 강물(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심경을 보여준다.

문성빈의 소설 「흐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자는 고향에 돌아와서 먼저 귀향한 친구 기석과 함께 술집으로 간다. 3년간 동경에서 문학을 공부하다가 집안 사정으로 귀국한 기석은 집안과 시국의 급격한 변화로 기가 꺾여 있는 상태다. 기석은 단골 술집의 여자로부터 큰 위안을 받는다고 하면서 화자와 그 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화자는 그 여자가 이전에 사랑했던 실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실단이 역시 화자를 알아보고 치마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한다. 술집 여자로 전락한 실단의 기구한 사연을 듣고 '나'는 동정하지만, 기석이 그녀와 서로 의지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를 기석에게 맡기고 술집을 뛰어나오게 된다.



제1집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업』은 일본에 유학 중인 조선 문학청년들의 창작

욕을 담고 있는 잡지로 유학생 잡지의 대부분이 기독교 회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 반해 『업』은 불교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업'이라는 책명처럼 불교적 가르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정치적 이념이나 구호와는 거리가 먼 순수문학 작품들을 수록하였다. (해제: 강진호)

핵 심 어 업, 장학사, 윤봉주, 김병길, 불교기반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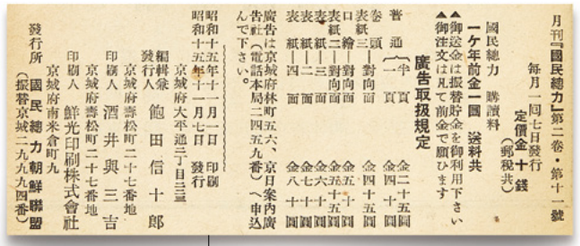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4.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068 국민총력

國民總力
국민총력조선연맹
1940. 11. 7 ~ 미상

1940년 11월 7일 창간되어 1944년 8월호(제6권 제15호)까지 확인되는 체제 협력 잡지로, 전신인 『總動員(총동원)』의 제목을 바꿔 발행하기 시작했다. 통권을 "제2권 제11호"로 적고, 머리말 제목을 「題號を改む(제호를 고치며)」로 정한 까닭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전과는 달리 1944년부터 매월 2호씩 발간했다는 사실이다. '대동아전쟁'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총동원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조치였다. 매월 1회 7일 발행에 정가 1책 10전, 1년분 1원이다. 다른 잡지와 달리 광고가 실리는 지면 등급에 따라 광고 단가를 규정한 '광고취급규정'이 제시되어 있어 인상적이다. 편집 겸 발행인은 니시야마 치카라(西山力), 인쇄인은 사카이 요산기치(酒井與三吉), 인쇄소는 선광(鮮光)인쇄주식회사였다. 발행소는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주소는 경성부 남미창정(南米倉町)이다. 한편 분량은 월 1회시 100~140면 내외, 월 2회시 40면 이하로, 총량에서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첫 호 표지는 굵고 검은 붓글씨로 제호 '國民總力'을 오른쪽에 내려썼다. 그 옆에 총을 어깨에 멘 조선인 지원병을 앞에 내세우고 흰옷 입은 조선 노인을 뒤에 놓은 총천연색 표지화를 배치했다. 당시의 주된 선전책이었던 전선총후(前線銃後)를 환기하는 구도인 것이다. 제호와 표지화 아래 '신체제 특집'과 '국민총력조선연맹 발행'을 차례로 새겼다. 1941년부터 제호는 가로쓰기로 변화되었다. 창간호에서도 그랬듯이, 『국민총력』의 표지화는 해당 호의 '특집'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프로파간다의 장이었다. 이를테면 '지원병특집호'에는 집집마다 걸린 일장기, '해군특집호'에는 거대한 쇠사슬(닻)과 욱일승천기가, '국토방위특집호'에는 체조하는 선수 2인이, '사변개전4주년기념'호에는 일본군+일장기, 독일군+나치 문장이 추상화 형


月刊『國民總力』第二卷・第十一號
毎月一回七日發行
定價金十錢（郵稅共）
國民總力 購讀料
一ケ年前金一圓 送料共
▲御送金は振替貯金を御利用下さい
▲御注文は凡て前金で願ひます
廣告取扱規定
普通 一頁 金二十五圓
半頁 金四十圓
表紙裏頭 一頁 金四十五圓
表紙裏口絵 三頁 金五十圓
表紙裏 二頁 金五十五圓
表紙裏 三頁 金六十圓
表紙裏 四頁 金七十圓
廣告は京城府林町五六、京日案内廣告社（電話本局二四五九番）へ申込んで下さい。
昭和十五年十一月一日 印刷
昭和十五年十一月七日 發行
京城府大平通三丁目三三
編輯兼發行人 飽田信十郎
京城府壽松町二十七番地
印刷人 酒井與三吉
京城府壽松町二十七番地
印刷所 鮮光印刷株式會社
京城府南米倉町九
發行所 國民總力朝鮮聯盟（振替京城二九九九四番）

제2권 제11호(창간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식으로 그려져 있다.

창간호(제2권 제11호)에서는 가야마 미쓰로(香山光郎, 이광수)가 「志願兵訓鍊所の一日(지원병훈련소의 일일)」을 발표했다. 군대는 조선 지원병에게 못된 악습을 극복하고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게 하는 '인생도량'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제3권 제1호(1941년 1월호)에는 '조선신궁' 명의의 「神國日本(신국일본)」, 본부의 「국민총력조선연맹실천요강」 및 공식가요 「國民總力の歌(국민총력가)」「愛國班の唄(애국반의 노래)」, 「총력운동표어」 등이 실렸다. 유진오는 이런 정황이 반영된 단편소설 「汽車の中(기차 안)」을 게재했다. 경성행 기차에 탑승한 일본 여성이 조선 유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동아 신질서 건설'과 '동아 공영권 확립'에 나선 조선의 새로운 면모를 파악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편 제3권 제7호 및 9호 목차 컷(cut)은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 고희동(高羲東)의 제자로 가와바타 미술학교(川端美術學校)를 졸업한 삽화가 이승만(李承萬)이 담당했다. 전자에선 해금강(海金剛)류의 바닷가 풍경을, 후자에선 폭격기와 함정이 함께 이동하는 태평양 함대의 순항 장면을 그렸다. 또한 조선미술전람회를 휘젓던 서양화가이자 미술평론가였던 윤희순(尹喜淳)도 제3권 제9호의 목차 컷을 그렸다. 조선 여성들이 허리와 발목 부분을 고무줄로 처리한 부인 표준복인 '몸뻬'를 입고 소방 훈련에 열중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윤희순은 '絵と文(그림과 문장)'이라는 항목 아래 「衣裳の間素美(의상의 청초한 아름다움)」(제3권 제5호)과 「新來の府民(새로운 부민)」(제3권 제7호)도 실었다. 앞의 글은 조선 여성의 부인복을 예찬한 글이다. 그는 조선 여성의 한복이 질박한 재단과 청초한 색채의 균정미(均整美) 때문에 세계적인 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글은 아이러니하게도 두어 면 뒤에 일본 남성의 「國防色の娘(국방색의 젊은 여성들)」라는 수필과 대조된다. 뒤의 글이 전쟁 상황에 권장되던 국방색 국민복이 남성은 물론 여성에게도 아름답다는 사실을 국방색 옷감에 흰색의 목둘레 옷깃을 단 젊은 여성들을 보고 깨달았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제2권 제11호(창간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편 「新來の府民(새로운 부민)」은 조선의 젊은 농촌 여성들이 핸드백을 갖겠다는 일념으로 상경했으나 인플레 경기 때문에 여공이나 기생으로 전락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진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멸사봉공'의 전쟁영웅이 가득한 '신국의 땅'(일본)을 견학시키는 일이 효과적이라는 것, 그 예로 충군애국을 위해 목숨 바친 한 군인의 일화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총력』은 식민지 조선인과 재조 일본인을 대상으로 '전선총후' 시대에 적합한 천황의 병사형 신민을 생산하고 육성하기 위해 발간한 군국주의적 전쟁 잡지이다.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를 필두로 대다수의 일본인 필자가 일본어로 각종 글쓰기를 담당했지만, 그 계몽 대상은 황국신민화와 내선일체에 내몰린 채 강제로 학생 지원병, 각종 정신대(挺身隊), 보국운동(報國運動)에 대거 차출당할 운명이었던 식민지 조선인들이었다. 이들 모임에 참가한 조선인들의 좌담이나 경험담이 매 호마다 실렸다는 사실이 이를 뚜렷하게 입증한다. (해제: 최현식)

핵 심 어 국민총력조선연맹, 내선일체, 신체제, 총후봉공, 흥아(興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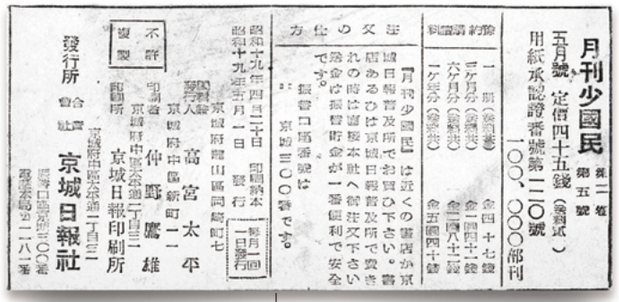
참고문헌

- 조남현, 『한국문학잡지사상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최덕교, 『한국잡지백년3』, 현암사, 2004.
- 키워드: '국민총력조선연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069

월간 소국민

月刊 小國民
경성일보사
창 · 종간일 미상


月刊少國民 第二卷 第五號
五月號 定價四十五錢（郵稅共）
用紙承認證番號第二一〇號
一〇〇、〇〇〇部刊
發行所 合資會社 京城日報社
昭和十九年四月二十日 印刷納本
昭和十九年五月一日 發行
一部 金四十七錢
三ケ月分（郵稅共） 金一圓四十二錢
六ケ月分（郵稅共） 金二圓八十五錢
一ケ年分（郵稅共） 金五圓四十錢
『月刊少國民』は近くの書店か京城日報社及所でお買ひ下さい。書店あるひは京城日報社及所で費きれの時は直接本社へ御注文下さいその仕方
發行人 高宮太平
印刷者 仲野鷹雄
印刷所 京城日報印刷所

제2권 제5호 판권지
아단문고 소장

1943년 1월 1일 창간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어 전용 아동잡지로 폐간일은 알 수 없다. 1944년 5월호(제2권 제5호), 8월호(제2권 제8호), 11월호(제2권 제11호) 등 3호만 확인되고 있다. 편집 겸 발행인은 다카미야 다헤이(高宮太平), 인쇄 및 발행소는 경성일보사로, 주소는 경성부 중구 태평통(通) 1정목(丁目) 31이다. 분량은 100면 내외, 가격은 1책 47전, 1년 구독 5원 40전이며, 월 100,000부를 발간했다. 함께 인쇄된 "용지승인증번호 120호"는 원활한 전쟁 물자 보급을 위해 민간의 종이 사용에 일정한 통제가 가해졌음을 알려준다.

표지는 굵직한 붉은 글씨로 제호 '月刊 小國民'을, 그 아래 세로글씨로 발행호수를 새겼다. 표지화는 계절과 행사에 어울리는 아동들의 각종 노동과 놀이를 다채로운 색채로 그려 넣었다. 5월호는 잉어 그림을 매단 노보리(幟)를 흔들며 승전과 풍년을 기원하는 소년이, 8월호는 낫을 들고 보리 수확 중인 소녀가, 11월호는 머리끈을 두르고 나무칼로 도검 연습에 매진 중인 소년 소녀가 등장한다. 이런 표지화들은 메이지 시대에 발명된 '소국민', 곧 병영 교육과 노동 활동을 통해 '충군애국'하는 아동을 육성한다는 군국주의 교육체계를 그대로 반영한 파시즘적 예술에 해당된다.

목차 다음에는 비행사, 폭격기, 군견 등의 사진을 배치했으며, 뒤이어 군함의 해군, 활공기 훈련 중인 소년 지원병, 적을 추격하는 포병을 묘사한 전쟁화를 실었다. 이들 전쟁화는 책의 장정과 삽화 작가로 유명했던 정현웅(鄭玄雄)이 그렸다. 또한 그는 책 속의 각종 삽화와 만화도 담당하여 예술을 통한 체제 협력의 결과를 남겼다. 「黃鷲の出陣(용맹한 독수리(비행사)의 출진)」, 「突擊(돌격)」, 「雷擊(어뢰 공격)」, 「艦上の見張り(함상의 감시)」, 「魚雷をつむ(어뢰를 싣다)」 등과 같이 전황을 치밀하게 스케치한 그림들이 실려 있다. 이상의 장면들은 상상이나 미경험, 미확인의 사태들을 눈앞의 현실로 펼쳐내는 시각매체들이 전후방의 전쟁 상황을 권력의 의도에 맞게 그려내는 한편 그와 어울리는 전선(前線)의 애국담과 총후(銃後)의 미담을 널리 전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동원되었음을 입증한다.

화가 정현웅 외에 눈에 띄는 조선 작가로는 『국민문학』에서 맹활약하던 시인 김종한(金鍾漢)이 있다. 하늘을 나는 글라이더를 보면서 미래의 비행사를 꿈꾸는 소년의 심정을 노래한 「ぐらいだあ(글라이더)」(5월호), 무더운 8월에 휴일도, 휴가도 없이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근로봉사에 나선 아동들을 노래한 「勤勞奉仕(근로봉사)」(8월호)가 그의 작품들이다.

하지만 『월간 소국민』은 이와는 별개로 조선 아동을 '총력전'의 용사로 동원하기 위한 각종 이미지와 이야기를 잡지 곳곳에 배치했다. "출정하라! 반도의 소년병이여"이란 제목 아래 지원병의 출정을 응원하는 소년의 웅변 장면,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지원병, 신사에 들러 요배하는 지원병을 촬영하여 실은 꼭지, 정한론(征韓論)의 요체 '임나일본부설'을 역사적 사실로 각색한 이야기, 순자와 복동에게 캐러멜을 나눠주며 전장으로 달려가는 병사를 예찬하는 이야기, 군수산업에 필요한 광산 개발에 나선 아버지를 기다리는

제2권 제5호 표지
아단문고 소장

어여쁜 남매 이야기, '근로보국'을 실천하는 각종 정신대(挺身隊)를 칭송하는 교사 이야기, 지원병으로 공산 비적과 맞서 싸우다 전사하여 2계급 특진한 조선 청년 이야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아동들의 애국심 함양 및 그를 위한 성정과 호기심에 부합하는, 그럼으로써 미래 총력전의 자산으로서 '소국민'을 양성하는 교육 장치 세 가지를 들어본다.

하나는 국기 일장기와 만주국기 '오색기'에 대한 소개다. 전자에는 "순백의 바탕은 평화와 정의를, 붉은 태양의 적색은 불타는 애국심과 진취적인 기지(氣持)를 표상한다"는 설명이, 후자에는 황(黃), 적(赤), 청(靑), 백(白), 흑(黑) 다섯 색깔로 구성된 '오색기'를 대상으로 "이것은 만주국에 살고 있는 한인(漢人), 만주인, 몽고인, 내지인, 조선인 다섯 민족이 사이좋게 손에 손을 잡고 즐겁게 생활하는 아름다운 국가를 건설하자는 뜻이라"라는 설명이 붙여졌다.

다음으로 '아동 센류(川柳)'의 모집과 발표이다. 센류(川柳)는 에도(江戶)시대 서민층에서 성행한 5·7·5 세 구(句)의 짧은 시로, 주로 풍자와 해학의 기법을 활용했다. 조선 '문인보국회 센류 지회'에서 본 잡지에 보낸 센류와 삽화는, '대전과', '위문문', '전사', '군사우편', '별 두 개', '맹폭' '작업복' '방공' '모형 비행기' 등 군사와 전쟁 관련 용어 및 장면 일색이다.

이런 양상은 「과학문답」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전개된다. 자연과 우주의 원리나 과학 법칙의 설명 같은 보편 지식에 대한 배려는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일본제 전투기와 특급열차의 우수성, 군함의 용도, 대포와 포탄의 종류를 안내하는 글만 가득하다. (해제: 최현식)

핵 심 어 소국민, 소년병,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군국주의, 전쟁, 정현웅, 김종한.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 「일제의 식민지교육 정책」, 『서울 육백년사』 4, 서울특별시, 1995.
- 원종찬, 「전시 체제와 소국민문학」, 『창비어린이』 56, 창작과비평사, 2017.
- 유 철, 「일제강점기 황국신민 교화를 위한 '신체'론 : 국어독본, 체조, 창가, 전시가요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070 국민시인

國民詩人

인문사

1944. 12. 1 ~ 1945. 2. 1

1944년 12월 1일 창간되어 1945년 2월 1일 2호 발간 후 폐간된 일본어 전용의 시 잡지다. 편집 겸 발행인은 스기모토 나가오(杉本長夫), 인쇄인은 하시모토 요사부로(橋本與三郎), 인쇄소는 하시모토(橋本) 인쇄소이다. 발행소는 인문사(人文社)로, 주소는 경성부 종로구 종로정(町) 3정목(丁目) 76번지이다. 1945년 1·2월호에서 경성부 종로구 이화정(梨花町) 26-1로 바뀌었다. 배급은 일본출판배급주식회사 조선지점에서 맡았다. 분량은 35면 내외, 정가는 1책 50전(錢), 반 년 3원(圓), 1년 6원이다. 편집 실무는 다츠시로 시즈오(達成靜雄), 곧 서정주가 맡았다.

잡지 말미에 '인문사 내 국민시인 편집부' 명의로 "시론 시작품 공모"를 내걸며 "시는 취미가 아니므로, 전심혼(全心魂)을 담은 시와 시론을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다. 이때의 '전심혼'은 시와 예술 자체보다는 천황의 '대동아공영' 실현을 위해 문예보국(文藝報國)하겠다는 총후(銃後) 실천의 '일본 정신'에 가깝다.

『국민시인』 창간호는 '12월호', 2호는 '1·2월호'로 호수를 표기했으며, 후자에는 '제5권 제1호'라는 통권도 붙였다. 이렇게 창간 시점보다 잡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호수 표시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첫째, '조선문인보국회'가 결성되면서 반도의 시인 전체를 포괄할만한 기관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 재조 일본인 중심의 '국민시가연맹'에서 발행하던 『국민시가(國民詩歌)』(1941년 9월호 창간)와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창간호의 '12월호'는 『국민시가』와의 연속성을 밝히는 표지인 셈이다. 둘째, 2호의 '제5권 제1호'는 『국민시가』 및 『국민문학』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장치로, 『국민문학』 1945년 1월호도 동일한 호수를 기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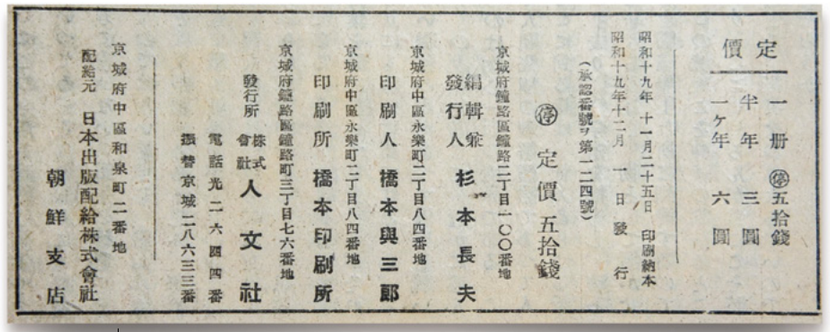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과 관련된 『국민시인』의 창간 과정은 『국민문학』 1944년 9월호 광고란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발행자들은 "『국민문학』의 자매지", "본지는 조선문인보국회의 기관지다", "본지는 반도유일의 시 전문잡지다", "본지는 신인 유일의 등용문이다"라는 모토를 내세웠다. 그러면서 첫째, 점점 동인적 소집단으로 고착되는 시단의 통폐를 해결하기 위해, 둘째, 현대시와 단카(短歌) 공동의 장이었던 『국민시가』를 과감히 분리하여 시 전문 잡지로 새로 출발하기 위해, 셋째, 신인에게 발표의 장을 충분히 제공하여 뛰어난 신인을 육성하기 위해 『국민시가』를 창간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표지는 1호와 2호 동일하다. 상단에 제호 '國民詩人'을 검은 붓글씨로 큼지막하게 적고, 그 아래 발행호수 '一二月號'를 작은 붉은 글씨로 인쇄했다. 중앙에는 높은 산과 거센 파도의 바다, 하늘을 덮은 푸른 잎(불로초), 약초 상자를 받쳐 든 신선을 조각한 청동거울(?)을 촬영한 이미지를 배치했다. 하단부에는 붉은 글씨의 '조선문인보국회 시지부 기관지'와 검은 글씨의 '인문사 발행'을 위와 아래로 배치했다. 목차 부분에서는 창간호의 경우, 여러 종류의 과일과 기명(器皿), 커피, 담배와 재떨이 등이, 2호의 경우 소로 써레질하며 모내기하는 농부의 모습이 삽화로 그려졌다.

『국민시인』이 천황의 '일본 정신'과 '대동아공영'론에 바쳐진 전쟁문학의 집합지였음은 창간호의 「やまと歌の世界性(일본 노래의 세계성)」, 발행자 스기모토 등 4인이 참여한 좌담회 「體當りと詩精神(몸 바침과 시 정신)」 등에서 분명하게 밝혀진다. '시편'란에는 조선 문인의 시로 신석정의 일본어 시 「子守唄(자장가)」와 「印度の歌—印度の民に代りて(인도의 노래—인도 민중을 대신하여)」, 조우식(趙宇植)의 「冬眠の章(겨울잠의 장)」, 「夜の中にありて(한밤중에)」, 조영출(趙靈出)의 「餞別賦(전별부)」 등이 실렸다. 조우식과 조영출의 시는 '전쟁 찬미'의 노래로 읽힐 소지가 다분하다. 신석정의 「印度の歌(인도의 노래)」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도인에 연대감을 표하는 내용인 듯하다. 그러나 '인도'에 대한 관심이 당시 일본군이 미얀마를 넘어 인도로 진격했던 「임팔 작전(Battle of Imphal)」과도 연결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같은 해 폐병으로 요절한 친일시인 김종한(金種漢)의 유고 「光塵(광진)」과 그의 시적 생애를 간단히 점묘한 노리다케 미츠오(則武三雄)의 「金種漢の思ひ出(김종한의 추억)」도 함께 실렸다.

제4권 제4호 표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45년 1·2월호 특집은 경성제대 교수로서 '조선문인보국회'의 일본 측 지도자로 군림하던 사토 기요시(佐藤淸)를 위해 편성되었다. 시인 자신의 평론 「詩魂の動因(시혼의 동인)」과 그의 시적 성취를 다룬 좌담회 「佐藤氏の人と作品を語る(사토 씨의 인간성과 작품을 말한다)」가 바로 그것이다. 좌담회에는 시인의 조선인 제자 이시다 코조(石田耕造, 최재서)를 비롯하여, 『국민문학』에도 깊이 관여했던 스기모토 나가오, 노리다케 미츠오, 그리고 조선인 편집자 다



제4권 제4호 판권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츠시로 시즈오(서정주)가 참석했다. 서정주는 사토의 시집 『內鮮の律動(내선의 율동)』에 대해 "동일한 전쟁시의 하나라고 평가한다 해도, 여타의 시인과 달리 무언가 주제를 우격다짐으로 제시하는 무리한 장면 없이, 매우 필연적인 생명의 유로(流露)를 이끌어낸다"라고 고평했다.

'시편'란의 조선 문인 작품으로는 조우식의 「詩章(시장)」, 주요한의 동생 마쓰무라 나가루(松村永涉, 주영섭)의 「夜間飛行(야간비행)」 등이 보인다. 한편 '신인삼인집'에는 신진 시인 김촌두생(金村斗生), 이용해(李庸海), 신도동(申道東)의 시편이 실렸다. 이것들 역시 전쟁 시국을 찬미하고 총력전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전쟁문학'의 울타리에 갇혀 있다. 편집 겸 발행인 스기모토는 「滿洲國決戰藝文大會のこと(만주국결전예문대회의 일)」을 작성하여 '결전문예(決戰文藝)'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윤리성을 역설했다.

『국민시인』은 일제 말 천황의 허구적인 '대동아공영론'에 봉공하는 식민지 조선발(發) 전쟁문학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조선문인들과 일본문인들은 '조선문인보국회' 기관지인 『국민시인』을 통해 '문예보국론'을 실천에 옮겼다. 이와 같은 성격의 『국민시인』은 전쟁이 격화되면서 친일의 체제 협력 문학이 어떻게 재편되고 강화되는가를 흥미롭게 보여주는 유의미한 문학사적 참조점이라 하겠다. (해제: 최현식)

핵 심 어 조선문인보국회, 국민문학, 국민시가, 신석정, 石田耕造(최재서), 達城靜雄(서정주)

참고문헌

- 곽형덕, 「『국민시인』 소재 신석정·조영출 시작품 발굴 소개」, 『근대서지』 14, 근대서지학회, 2016.
- 서정주, 『문학적 자서전(천지유정)—미당 서정주 전집』 7, 은행나무, 2016.
- 최현식, 「일제 말 시 잡지 『國民詩歌』의 위상과 가치 (1)—잡지의 체제와 성격, 그리고 출판 이데올로그들」, 『사이間SAI』 14,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3.

목록 및 색인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1	大韓留學生會學報	창간호	동경 : 대한유학생회	1907.03.03	고려대학교
		제2호	동경 : 대한유학생회	1907.04.07	고려대학교
		종간호	동경 : 대한유학생회	1907.05.26	고려대학교
2	우리의 가뎡	창간호	경성 : 신문사	1913.12.15	국립중앙도서관
		제2호	경성 : 신문사	1914.01.15	아단문고
		제3호	경성 : 신문사	1914.02.15	아단문고
		제4호	경성 : 신문사	1914.03.15	아단문고
		제5호	경성 : 신문사	1914.04.15	아단문고
		제6호	경성 : 신문사	1914.05.15	아단문고
		제7호	경성 : 신문사	1914.06.15	아단문고
		제8호	경성 : 신문사	1914.07.15	아단문고
		제9호	경성 : 신문사	1914.08.15	아단문고
		제10호	경성 : 신문사	1914.09.15	아단문고
		제11호	경성 : 신문사	1914.10.15	아단문고
		종간호	경성 : 신문사	1914.11.15	아단문고
3	近代思潮	창간호/종간호	동경 : 근대사조사	1916.01.26	아단문고
4	朝鮮文藝	창간호	경성 : 조선문예사	1917.04.20	국립중앙도서관
		종간호	경성 : 조선문예사	1918.10.20	국립중앙도서관
5	學友	창간호/종간호	경도 : 학우사	1919.01.01	연세대학교
6	綠星	창간호/종간호	동경 : 녹성사	1919.11.05	아단문고
7	現代	창간호	동경 : 조선기독교청년회	1920.01.31	아단문고
		제2호	동경 : 조선기독교청년회	1920.03.02	아단문고
		제3호	동경 : 조선기독교청년회	1920.03.20	아단문고
		제4호	—	—	발포금지 처분
		제5호	동경 : 조선기독교청년회	1920.05.10	아단문고
		제6호	동경 : 조선기독교청년회	1920.06.18	아단문고
		제7호	—	—	미확인
		제8호	동경 : 조선기독교청년회	1920.10.30	아단문고
		종간호	동경 : 조선기독교청년회	1921.02.05	아단문고
8	新女子	창간호	경성 : 신여자사	1920.03.10	국립중앙도서관
		2호	경성 : 신여자사	1920.04.25	국립중앙도서관
		3호	경성 : 신여자사	1920.05.31	국립중앙도서관
		종간호	경성 : 신여자사	1920.06.20	국립중앙도서관
9	麗光	창간호	개성 : 여광사	1920.04.05	국립중앙도서관
		종간호	개성 : 여광사	1920.06.27	국립중앙도서관
10	文友	창간호	경성 : 문흥사	1920.05.15	아단문고
		종간호 미상			
11	學生界	창간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0.07.01	국립중앙도서관
		2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0.09.01	국립중앙도서관
		3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0.10.01	국립중앙도서관
		4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0.11.03	국립중앙도서관
		5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0.12.12	국립중앙도서관
		6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1.02.22	국립중앙도서관
		7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1.04.12	국립중앙도서관
		8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1.05.23	국립중앙도서관
		9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1.08.10	국립중앙도서관
		10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2.02.15	국립중앙도서관
		11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2.03.15	국립중앙도서관
		12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2.04.17	국립중앙도서관
		13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2.05.17	국립중앙도서관
		14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2.06.15	국립중앙도서관
		15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2.07.15	국립중앙도서관
		16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2.08.15	국립중앙도서관
		17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2.09.15	국립중앙도서관
		18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2.11.01	국립중앙도서관
		19호~21호	—	—	미확인
		22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24.06.05	미확인
		23호	—	—	미확인
		종간호 미상			
12	啟明	창간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1.05.01	고려대학교
		2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1.06.15	고려대학교
		3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1.09.01	연세대학교
		4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1.11.01	연세대학교
		5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2.02.01	아단문고
		6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2.03.01	아단문고
		7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2.04.01	아단문고
		8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2.05.19	연세대학교
		9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2.06.01	아단문고
		10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2.07.20	아단문고
		11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2.09.01	아단문고
		12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2.10.01	연세대학교
		13호	—	—	미확인
		14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6.10.01	고려대학교
		15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6.11.01	고려대학교
		16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6.12.01	고려대학교
		17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7.01.01	아단문고
		18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7.03.20	아단문고
		19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27.05.10	국립중앙도서관
		20호	—	—	미확인
		21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31.12.21	아단문고
		22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32.07.30	고려대학교
		23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32.12.31	고려대학교
		24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33.01.27	고려대학교
		종간호	경성 : 계명구락부	1933.07.31	연세대학교
13	新天地	창간호	경성 : 신천지사	1921.07.10	국립중앙도서관
		1권2호	경성 : 신천지사	1921.08.20	국립중앙도서관
		1권3호	경성 : 신천지사	1921.10.10	국립중앙도서관
		2권1호	경성 : 신천지사	1922.01.18	국립중앙도서관
		2권2호~2권5호	—	—	미확인
		2권6호	경성 : 신천지사	1922.06.10	국립중앙도서관
		2권7호~2권10호	—	—	미확인
		2권11호	경성 : 신천지사	1922.11.04	국립중앙도서관
		2권12호	경성 : 신천지사	1922.12.01	국립중앙도서관
		1923년 신년호	경성 : 신천지사	1923.01.01	아단문고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3권2호	경성 : 신천지사	1923.02.01	아단문고
		3권4호	경성 : 신천지사	1923.04.01	아단문고
		3권7호	경성 : 신천지사	1923.07.01	국립중앙도서관
		속간2호	경성 : 신천지사	1924.04.26	아단문고
		종간호 미상			
14	崇實活泉	창간호~3호	—	—	미확인
		4호	평양 : 숭실학생회	1925.12.28	연세대학교
		5호	평양 : 숭실학생회	1926.02.25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
		6호	평양 : 숭실학생회	1927.12.16	장로회신학대학교
		7호	—	—	미확인
		8호	평양 : 숭실학생회	1930.02.19	장로회신학대학교
		9호~11호	—	—	미확인
		12호	평양 : 숭실학생회	1932.10.24	연세대학교
		13호	—	—	미확인
		14호	평양 : 숭실학생회	1934.10.20	아단문고
		15호	평양 : 숭실학생회	1935.10.30	장로회신학대학교
		종간호 미상			
15	婦人	창간호	경성 : 개벽사	1922.06.01	국립중앙도서관
		1권2호	경성 : 개벽사	1922.07.10	국립중앙도서관
		1권3호	경성 : 개벽사	1922.08.20	아단문고
		1권4호	경성 : 개벽사	1922.09.10	국립중앙도서관
		1권5호	경성 : 개벽사	1922.10.20	국립중앙도서관
		1권6호	경성 : 개벽사	1922.12.10	국립중앙도서관
		2권1호	경성 : 개벽사	1923.01.01	미확인
		2권2호	경성 : 개벽사	1923.02.10	아단문고
		2권3호	경성 : 개벽사	1923.03.01	미확인
		2권4호	경성 : 개벽사	1923.04.01	국립중앙도서관
		2권5호	경성 : 개벽사	1923.05.01	국회도서관
		2권6호	경성 : 개벽사	1923.06.01	미확인
		2권7호	경성 : 개벽사	1923.07.01	미확인
		종간호	경성 : 개벽사	1923.08.10	미확인
16	東明	창간호	경성 : 동명사	1922.09.03	국립중앙도서관
		1권2호	경성 : 동명사	1922.09.10	국립중앙도서관
		1권3호	경성 : 동명사	1922.09.17	국립중앙도서관
		1권4호	경성 : 동명사	1922.09.24	국립중앙도서관
		1권5호	경성 : 동명사	1922.10.01	국립중앙도서관
		1권6호	경성 : 동명사	1922.10.08	국립중앙도서관
		1권7호	경성 : 동명사	1922.10.15	국립중앙도서관
		1권8호	경성 : 동명사	1922.10.22	국립중앙도서관
		1권9호	경성 : 동명사	1922.10.29	국립중앙도서관
		1권10호	경성 : 동명사	1922.11.05	국립중앙도서관
		1권11호	경성 : 동명사	1922.11.12	국립중앙도서관
		1권12호	경성 : 동명사	1922.11.19	국립중앙도서관
		1권13호	경성 : 동명사	1922.11.26	국립중앙도서관
		1권14호	경성 : 동명사	1922.12.03	국립중앙도서관
		1권15호	경성 : 동명사	1922.12.10	국립중앙도서관
		1권16호	경성 : 동명사	1922.12.17	국립중앙도서관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1권17호	경성 : 동명사	1922.12.24	국립중앙도서관
		2권1호	경성 : 동명사	1923.01.01	국립중앙도서관
		2권2호	경성 : 동명사	1923.01.07	국립중앙도서관
		2권3호	경성 : 동명사	1923.01.14	국립중앙도서관
		2권4호	경성 : 동명사	1923.01.21	국립중앙도서관
		2권5호	경성 : 동명사	1923.01.28	국립중앙도서관
		2권6호	경성 : 동명사	1923.02.04	국립중앙도서관
		2권7호	경성 : 동명사	1923.02.11	국립중앙도서관
		2권8호	경성 : 동명사	1923.02.18	국립중앙도서관
		2권9호	경성 : 동명사	1923.02.25	국립중앙도서관
		2권10호	경성 : 동명사	1923.03.04	국립중앙도서관
		2권11호	경성 : 동명사	1923.03.11	국립중앙도서관
		2권12호	경성 : 동명사	1923.03.18	국립중앙도서관
		2권13호	경성 : 동명사	1923.03.25	국립중앙도서관
		2권14호	경성 : 동명사	1923.04.01	국립중앙도서관
		2권15호	경성 : 동명사	1923.04.08	국립중앙도서관
		2권16호	경성 : 동명사	1923.04.15	국립중앙도서관
		2권17호	경성 : 동명사	1923.04.22	국립중앙도서관
		2권18호	경성 : 동명사	1923.04.29	국립중앙도서관
		2권19호	경성 : 동명사	1923.05.06	국립중앙도서관
		2권20호	경성 : 동명사	1923.05.13	국립중앙도서관
		2권21호	경성 : 동명사	1923.05.21	국립중앙도서관
		2권22호	경성 : 동명사	1923.05.27	국립중앙도서관
		종간호	경성 : 동명사	1923.06.03	국립중앙도서관
17	徽文	창간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23.01.25	서울대학교
		2호	—	—	미확인
		3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25.12.25	아단문고
		4호	—	—	미확인
		5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28.03.01	아단문고
		6호	—	—	미확인
		7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29.12.27	아단문고
		8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30.12.20	아단문고
		9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31.12.04	아단문고
		10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33.02.20	아단문고
		11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33.12.20	아단문고
		1935년 임시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35.03.04	아단문고
		13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35.12.00	국회도서관
		14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36.12.22	아단문고
		15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37.12.23	아단문고
		16호	—	—	미확인
		17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39.12.21	아단문고
		18호	—	—	미확인
		19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42.05.08	아단문고
		20호	경성 : 휘문고등보통학교 문우회 학예부	1948.08.15	아단문고
		종간호 미상			
18	新少年	창간호	경성 : 신소년사	1924.10.03	아단문고
		1권2호~2권4호	—	—	미확인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2권5호	경성 : 신소년사	1924.05.03	미확인
		2권6호~4권1호	—	—	미확인
		4권2호	경성 : 신소년사	1926.02.01	서울대학교
		4권3호	경성 : 신소년사	1926.03.01	서울대학교
		4권4호	경성 : 신소년사	1926.04.01	서울대학교
		4권5호	—	—	미확인
		4권6호	경성 : 신소년사	1926.06.01	서울대학교
		4권7호	경성 : 신소년사	1926.07.01	서울대학교
		4권8/9호	경성 : 신소년사	1926.09.01	서울대학교
		4권10호	경성 : 신소년사	1926.10.01	서울대학교
		4권11호	경성 : 신소년사	1926.01.01	미확인
		4권12호	—	—	미확인
		5권1호	경성 : 신소년사	1927.01.01	미확인
		5권2호~5권4호	—	—	미확인
		5권5호	경성 : 신소년사	1927.05.01	한국잡지정보관
		5권6호	경성 : 신소년사	1927.06.01	한국잡지정보관
		5권7호	경성 : 신소년사	1927.08.01	고려대학교
		5권8호~6권12호	—	—	미확인
		7권1호	경성 : 신소년사	1929.01.05	서울대학교
		7권2호~7권6호	—	—	미확인
		7권7/8호	경성 : 신소년사	1929.06.01	서울대학교
		7권9호~7권11호	—	—	미확인
		7권12호	경성 : 신소년사	1929.12.01	서울대학교
		8권1호	—	—	미확인
		8권2호	경성 : 신소년사	1930.02.01	미확인
		8권3호	경성 : 신소년사	1930.03.01	미확인
		8권4호	경성 : 신소년사	1930.04.01	미확인
		8권5호	경성 : 신소년사	1930.05.01	미확인
		8권6호	경성 : 신소년사	1930.06.01	미확인
		8권7호	—	—	미확인
		8권8호	경성 : 신소년사	1930.08.01	미확인
		8권9호~8권10호	—	—	미확인
		8권11호	경성 : 신소년사	1930.11.01	미확인
		8권12호~9권1호	—	—	미확인
		9권2호	경성 : 신소년사	1931.02.01	미확인
		9권3호	경성 : 신소년사	1931.03.01	미확인
		9권4호	경성 : 신소년사	1931.04.01	미확인
		9권5호	경성 : 신소년사	1931.05.01	미확인
		9권6호	경성 : 신소년사	1931.06.01	미확인
		9권7호	—	—	미확인
		9권8/9호	경성 : 신소년사	1931.09.01	미확인
		9권10호	경성 : 신소년사	1931.10.01	미확인
		9권11호	경성 : 신소년사	1931.11.01	미확인
		9권12호	—	—	미확인
		10권1호	경성 : 신소년사	1932.01.01	미확인
		10권2호	경성 : 신소년사	1932.02.01	미확인
		10권3호	—	—	미확인
		10권4호	경성 : 신소년사	1932.04.01	미확인
		10권5호	경성 : 신소년사	1932.06.0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0권6호	경성 : 신소년사	1932.06.01	미확인
		10권7호	경성 : 신소년사	1932.08.01	서울대학교
		10권8호~10권9호	—	—	미확인
		10권10호	경성 : 신소년사	1932.10.0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0권11호	경성 : 신소년사	1932.11.01	서울대학교
		10권12호	경성 : 신소년사	1937.12.0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1권1호	—	—	미확인
		11권2호	경성 : 신소년사	1933.02.0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1권3호	경성 : 신소년사	1933.03.0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1권4호	—	—	미확인
		11권5호	경성 : 신소년사	1933.05.0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1권6호	—	—	미확인
		11권7호	경성 : 신소년사	1933.07.0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1권8호	경성 : 신소년사	1933.08.0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1권9호~12권1호	—	—	미확인
		12권2호	경성 : 신소년사	1934.02.0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종간호	경성 : 신소년사	1934.04.28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9	淸凉	창간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25.05.18	국립중앙도서관
		2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25.12.18	서울대학교
		3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26.03.16	서울대학교
		4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27.01.01	서울대학교
		5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28.04.10	서울대학교
		6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28.12.15	서울대학교
		7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29.12.15	서울대학교
		8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0.03.13	서울대학교
		9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0.07.04	아단문고
		10호	—	—	미확인
		11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1.03.15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2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1.09.01	서울대학교
		13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2.03.16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14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2.09.01	서울대학교
		15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3.03.25	서울대학교
		16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3.11.08	서울대학교
		17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4.03.09	서울대학교
		18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4.07.10	아단문고
		19호	—	—	미확인
		20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5.11.30	아단문고
		21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6.07.31	연세대학교
		22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6.12.19	연세대학교
		23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7.09.08	서울대학교
		24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8.02.04	아단문고
		25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8.11.25	아단문고
		26호	—	—	미확인
		27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39.10.06	아단문고
		28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00.00.00	서울대학교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29호	—	—	미확인
		종간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학우회	1941.03.15	아단문고
20	黎明	창간호	대구 : 여명사	1925.07.01	국립중앙도서관
		2호	대구 : 여명사	1925.00.00	아단문고
		3권1호	대구 : 여명사	1926.01.01	아단문고
		6월호	대구 : 여명사	1926.06.01	연세대학교
		종간호 미상			
21	새벗	창간호	경성 : 새벗사	1925.11.01	아단문고
		1권2호	경성 : 새벗사	1925.12.01	국립중앙도서관
		2권1호	—	—	미확인
		2권2호	경성 : 새벗사	1926.02.01	국립중앙도서관
		2권3호~2권6호	—	—	미확인
		2권7호	경성 : 새벗사	1926.07.01	국립중앙도서관
		2권8호	경성 : 새벗사	1926.08.01	국립중앙도서관
		2권9호~2권10호	—	—	미확인
		2권11호	경성 : 새벗사	1926.11.01	아단문고
		2권12호	경성 : 새벗사	1926.12.01	아단문고
		3권1호	경성 : 새벗사	1927.00.00	연세대학교
		3권2호~3권4호	—	—	미확인
		3권5호	경성 : 새벗사	1927.05.01	아단문고
		3권6호~3권9호	—	—	미확인
		3권10호	경성 : 새벗사	1927.11.01	국립중앙도서관
		4권1호	경성 : 새벗사	1928.01.01	고려대학교
		4권2호	경성 : 새벗사	1928.02.01	아단문고
		4권3호	경성 : 새벗사	1928.03.01	아단문고
		4권4호	경성 : 새벗사	1928.04.01	아단문고
		4권5호	—	—	미확인
		4권6호	경성 : 새벗사	1928.06.01	아단문고
		4권7호	경성 : 새벗사	1928.07.01	아단문고
		4권8호	경성 : 새벗사	1928.08.01	아단문고
		4권9호	경성 : 새벗사	1928.09.01	아단문고
		4권10호	경성 : 새벗사	1928.00.00	이화여자대학교
		4권11호	경성 : 새벗사	1928.11.01	고려대학교
		4권12호	경성 : 새벗사	1928.12.01	아단문고
		5권1호~5권2호	—	—	미확인
		5권3호	경성 : 새벗사	1929.03.01	고려대학교
		5권4호	경성 : 새벗사	1929.04.01	아단문고
		5권5호~5권6호	—	—	미확인
		5권7호	경성 : 새벗사	1929.07.01	아단문고
		5권8호~5권12호	—	—	미확인
		6권1호	경성 : 새벗사	1930.05.10	연세대학교
		—	—	—	미확인
		종간호	경성 : 새벗사	1933.03.00	미확인
22	文友	창간호~3호	—	—	미확인
		4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문우회	1927.02.20	아단문고
		종간호	경성 : 경성제국대학예과문우회	1927.11.10	아단문고
23	아이생활	창간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6.03.10	연세대학교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1권2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6.04.15	가톨릭대학교
		1권3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6.05.15	아단문고
		1권4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6.06.15	아단문고
		1권5호~1권8호	—	—	미확인
		1권9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6.11.01	연세대학교
		1권10호~1권12호	—	—	미확인
		2권1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7.01.01	가톨릭대학교
		2권2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7.02.01	가톨릭대학교
		2권3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7.03.01	가톨릭대학교
		2권4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7.04.01	아단문고
		2권5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7.05.01	아단문고
		2권6호	—	—	미확인
		2권7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7.07.01	가톨릭대학교
		2권8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7.08.01	가톨릭대학교
		2권9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7.09.01	가톨릭대학교
		2권10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7.10.01	아단문고
		2권11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7.11.01	아단문고
		2권12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7.12.01	가톨릭대학교
		3권1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8.01.01	연세대학교
		3권2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8.02.01	가톨릭대학교
		3권3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8.03.01	가톨릭대학교
		3권4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8.04.01	가톨릭대학교
		3권5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8.05.01	가톨릭대학교
		3권6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8.06.01	가톨릭대학교
		3권7호~3권8호	—	—	미확인
		3권9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8.09.01	가톨릭대학교
		3권10호	—	—	미확인
		3권11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8.11.01	연세대학교
		3권12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8.12.01	가톨릭대학교
		4권1호	—	—	미확인
		4권2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9.02.01	가톨릭대학교
		4권3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9.03.01	가톨릭대학교
		4권4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9.04.01	가톨릭대학교
		4권5호~4권6호	—	—	미확인
		4권7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9.07.01	가톨릭대학교
		4권8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9.08.01	가톨릭대학교
		4권9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9.09.01	가톨릭대학교
		4권10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9.10.01	가톨릭대학교
		4권11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29.11.07	국회도서관
		4권12호	—	—	미확인
		5권1호	경성 : 아희생활사	1930.01.01	연세대학교
		5권2호~5권11호	—	—	미확인
		5권1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1.12.20	가톨릭대학교
		6권1호	—	—	미확인
		6권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1.02.01	고려대학교
		6권3호	—	—	미확인
		6권4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1.04.01	연세대학교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6권5호~6권6호	—	—	미확인
		6권7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1.07.01	연세대학교
		6권8호~6권10호	—	—	미확인
		6권1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1.11.02	연세대학교
		6권1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1.12.02	연세대학교
		7권1호	—	—	미확인
		7권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2.02.02	연세대학교
		7권3호~7권6호	—	—	미확인
		7권7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2.07.01	연세대학교
		7권8호~7권9호	—	—	미확인
		7권10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2.10.01	연세대학교
		7권1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2.11.01	연세대학교
		7권1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2.12.01	연세대학교
		8권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3.01.02	연세대학교
		8권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3.02.02	연세대학교
		8권3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3.03.02	연세대학교
		8권4호~8권8호	—	—	미확인
		8권9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3.09.02	연세대학교
		8권10호	—	—	미확인
		8권1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3.11.03	연세대학교
		8권1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3.12.02	연세대학교
		9권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4.01.01	연세대학교
		9권2호~9권3호	—	—	미확인
		9권4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4.04.02	연세대학교
		9권5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4.05.02	연세대학교
		9권6호~9권7호	—	—	미확인
		9권8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4.08.02	연세대학교
		9권9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4.09.03	연세대학교
		9권10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4.10.03	연세대학교
		9권1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4.11.03	연세대학교
		9권1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4.12.03	연세대학교
		10권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5.01.03	연세대학교
		10권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5.02.04	연세대학교
		10권3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5.03.04	연세대학교
		10권4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5.04.04	연세대학교
		10권5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5.05.04	연세대학교
		10권6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5.06.04	연세대학교
		10권7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5.07.04	연세대학교
		10권8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5.08.05	연세대학교
		10권9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5.09.05	연세대학교
		10권10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5.10.05	연세대학교
		10권1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5.11.05	연세대학교
		10권1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5.12.05	연세대학교
		11권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6.01.06	연세대학교
		11권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6.02.06	연세대학교
		11권3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6.03.06	연세대학교
		11권4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6.04.06	연세대학교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11권5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6.05.06	연세대학교
		11권6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6.06.06	연세대학교
		11권7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6.07.06	연세대학교
		11권8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6.08.06	연세대학교
		11권9/10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6.10.07	연세대학교
		11권1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6.11.07	연세대학교
		11권1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6.12.07	연세대학교
		12권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7.01.07	연세대학교
		12권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7.02.08	연세대학교
		12권3호~12권5호	—	—	미확인
		12권6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7.06.08	연세대학교
		12권7호~13권9호	—	—	미확인
		13권10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8.12.01	연세대학교
		13권11호~13권12호	—	—	미확인
		14권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9.01.02	연세대학교
		14권2호~14권4호	—	—	미확인
		14권5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9.05.03	연세대학교
		14권6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9.06.03	연세대학교
		14권7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9.07.03	연세대학교
		14권8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39.08.03	연세대학교
		14권9호~14권12호	—	—	미확인
		15권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0.01.01	연세대학교
		15권2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0.02.01	연세대학교
		15권3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0.03.01	연세대학교
		15권4호~15권7호	—	—	미확인
		15권8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0.10.01	연세대학교
		15권9호	—	—	미확인
		15권10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0.12.01	연세대학교
		15권11호~16권3호	—	—	미확인
		16권4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1.04.01	연세대학교
		16권5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1.05.01	연세대학교
		16권6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1.06.02	연세대학교
		16권7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1.08.02	연세대학교
		16권8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1.10.02	연세대학교
		16권9호~16권12호	—	—	미확인
		17권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2.01.01	연세대학교
		17권2호~17권3호	—	—	미확인
		17권4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2.06.01	연세대학교
		17권5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2.07.01	연세대학교
		17권6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2.08.01	연세대학교
		17권7호~17권8호	—	—	미확인
		17권9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2.11.01	연세대학교
		17권10호~17권12호	—	—	미확인
		18권1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3.01.01	국회도서관
		18권2호	—	—	미확인
		18권3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3.03.01	연세대학교
		18권4호~18권5호	—	—	미확인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18권6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3.08.01	연세대학교
		18권7호~18권8호	—	—	미확인
		18권9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3.11.01	연세대학교
		—	—	—	미확인
		종간호	경성 : 아이생활사	1944.01.01	연세대학교
24	별나라	창간호	경성 : 별나라사	1926.06.01	미확인
		1권2호	경성 : 별나라사	1926.07.01	연세대학교
		1권3호~1권6호	—	—	미확인
		1권7호	경성 : 별나라사	1926.12.01	국립중앙도서관
		1권8호~2권3호	—	—	미확인
		2권4호	경성 : 별나라사	1927.04.01	국립중앙도서관
		2권5호	경성 : 별나라사	1927.05.01	아단문고
		2권6호	경성 : 별나라사	1927.06.01	연세대학교
		2권7호	경성 : 별나라사	1927.07.20	아단문고
		2권8호	경성 : 별나라사	1927.08.18	연세대학교
		2권9호	—	—	미확인
		2권10호	경성 : 별나라사	1927.10.10	연세대학교
		2권11호~3권2호	—	—	미확인
		3권3호	경성 : 별나라사	1928.03.15	연세대학교
		3권4호	—	—	미확인
		3권5호	경성 : 별나라사	1928.07.31	연세대학교
		3권6호~4권3호	—	—	미확인
		4권4호	경성 : 별나라사	1929.05.03	연세대학교
		4권5호		—	미확인
		4권6호	경성 : 별나라사	1929.07.20	연세대학교
		4권7호~5권4호		—	미확인
		5권5호	경성 : 별나라사	1930.06.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5권6호	경성 : 별나라사	1930.07.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5권7호~5권8호	—	—	미확인
		5권9호	경성 : 별나라사	1930.10.01	아단문고
		5권10호	경성 : 별나라사	1930.11.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6권 임시호	경성 : 별나라사	1931.02.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6권2호	경성 : 별나라사	1931.03.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6권3호	경성 : 별나라사	1931.04.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6권4호	경성 : 별나라사	1931.05.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6권5호	경성 : 별나라사	1931.06.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6권6호	경성 : 별나라사	1931.08.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6권7호	경성 : 별나라사	1931.09.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6권8호	경성 : 별나라사	1931.11.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6권9호	경성 : 별나라사	1931.12.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7권 신년임시호	경성 : 별나라사	1932.01.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7권2호	경성 : 별나라사	1932.03.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7권3호	경성 : 별나라사	1932.04.01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7권4호	—	—	미확인
		7권5호	경성 : 별나라사	1932.07.25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7권6호~8권1호	—	—	미확인
		8권2호	경성 : 별나라사	1933.02.09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8권3호	—	—	미확인
		8권4호	경성 : 별나라사	1933.05.05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8권5호~8권6호	—	—	미확인
		8권7호	경성 : 별나라사	1933.08.12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8권8호~8권9호	—	—	미확인
		8권10호	경성 : 별나라사	1933.12.15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8권11호~8권12호	—	—	미확인
		74호	경성 : 별나라사	1934.01.22	미확인
		75호	경성 : 별나라사	1934.02.11	미확인
		76호	경성 : 별나라사	1934.04.20	미확인
		77호	경성 : 별나라사	1934.09.10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78호	경성 : 별나라사	1934.11.15	미확인
		79호	경성 : 별나라사	1934.12.15	미확인
		10권1호	경성 : 별나라사	1935.02.15	경희대학교 한국아동문학센터
		해방속간호	경성 : 별나라사	1945.12.15	한국잡지정보관
		—	—	—	미확인
		종간호	경성 : 별나라사	1946.02.10	미확인
25	學潮	창간호	경도 : 재경도조선학우회	1926.06.27	아단문고
		2호	—	—	미확인
		종간호 미상			
26	長恨	창간호	경성 : 장한사	1927.01.10	연세대학교
		1권2호	경성 : 장한사	1927.02.12	연세대학교
		종간호 미상			
27	習作時代	창간호	인천 : 습작시대사	1927.02.01	개인소장
		1권2호	—	—	미확인
		1권3호	인천 : 습작시대사	1927.04.01	연세대학교
		종간호	—	—	미확인
28	桂友	창간호	경성 : 중앙고등학교동창회	1927.03.20	고려대학교
		2호	—	—	미확인
		3호	경성 : 중앙고등학교동창회	1928.03.20	고려대학교
		4호~9호	—	—	미확인
		10호	경성 : 중앙고등학교동창회	1931.09.18	고려대학교
		11호	경성 : 중앙고등학교동창회	1932.03.18	고려대학교
		12호	경성 : 중앙고등학교동창회	1932.07.16	고려대학교
		13호	경성 : 중앙고등학교동창회	1933.07.16	고려대학교
		14호	경성 : 중앙고등학교동창회	1934.07.20	고려대학교
		15호	경성 : 중앙고등학교동창회	1935.07.20	고려대학교
		종간호	경성 : 중앙고등학교동창회	1936.07.20	고려대학교
29	白雉	창간호/종간호	평양 : 백치사	1928.01.01	아단문고
30	白熊	창간호	공주 : 백웅사	1928.02.01	아단문고
		종간호	공주 : 백웅사	1928.03.12	개인소장
31	文藝·映畵	창간호/종간호	평양 : 문예영화사	1928.03.10	아단문고
32	如是	창간호/종간호	경성 : 여시사	1928.06.01	국립중앙도서관
33	新詩壇	창간호/종간호	진주 : 신시단사	1928.08.01	국립중앙도서관
34	新生	창간호	경성 : 신생사	1928.10.01	아단문고
		1권2호	경성 : 신생사	1928.11.01	아단문고
		1권3호	경성 : 신생사	1928.12.01	연세대학교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2권1호	경성 : 신생사	1929.01.01	아단문고
		2권2호	경성 : 신생사	1929.02.01	아단문고
		2권3호	경성 : 신생사	1929.03.05	아단문고
		2권4호	경성 : 신생사	1929.04.01	아단문고
		2권5호	경성 : 신생사	1929.05.01	아단문고
		2권6호	경성 : 신생사	1929.06.01	아단문고
		2권7/8호	경성 : 신생사	1929.07.03	아단문고
		2권9호	경성 : 신생사	1929.09.01	아단문고
		2권10호	경성 : 신생사	1929.10.01	아단문고
		2권11호	경성 : 신생사	1929.11.06	아단문고
		2권12호	경성 : 신생사	1929.12.06	아단문고
		3권1호	경성 : 신생사	1929.12.28	연세대학교
		3권2호	경성 : 신생사	1930.02.07	연세대학교
		3권3호	경성 : 신생사	1930.03.04	아단문고
		3권4호	경성 : 신생사	1930.04.10	아단문고
		3권5호	경성 : 신생사	1930.05.06	연세대학교
		3권6호	경성 : 신생사	1930.06.06	아단문고
		3권7/8호	경성 : 신생사	1930.07.06	아단문고
		3권9호	경성 : 신생사	1930.09.06	아단문고
		3권10호	경성 : 신생사	1930.10.05	아단문고
		3권11호	경성 : 신생사	1930.11.08	아단문고
		3권12호	경성 : 신생사	1930.12.10	아단문고
		4권1호	경성 : 신생사	1931.01.01	연세대학교
		4권2호	경성 : 신생사	1931.02.01	연세대학교
		4권3호	경성 : 신생사	1931.03.01	연세대학교
		4권4호	경성 : 신생사	1931.04.01	연세대학교
		4권5호	경성 : 신생사	1931.05.07	연세대학교
		4권6호	경성 : 신생사	1931.06.06	연세대학교
		4권7/8호	경성 : 신생사	1931.07.14	연세대학교
		4권9호	경성 : 신생사	1931.09.01	연세대학교
		4권10호	경성 : 신생사	1931.10.12	연세대학교
		4권11호	경성 : 신생사	1931.11.09	연세대학교
		4권12호	경성 : 신생사	1931.12.01	연세대학교
		5권1호	경성 : 신생사	1931.12.31	연세대학교
		5권2호	경성 : 신생사	1932.01.31	연세대학교
		5권3호	경성 : 신생사	1932.03.03	연세대학교
		5권4호	경성 : 신생사	1932.04.08	연세대학교
		5권5호	경성 : 신생사	1932.05.02	연세대학교
		5권6호	경성 : 신생사	1932.06.01	연세대학교
		5권7/8호	경성 : 신생사	1932.07.06	연세대학교
		5권9호	경성 : 신생사	1932.09.03	연세대학교
		5권10호	경성 : 신생사	1932.10.06	아단문고
		5권11호	경성 : 신생사	1932.11.03	연세대학교
		5권12호	경성 : 신생사	1932.12.07	아단문고
		6권1호	경성 : 신생사	1932.12.31	연세대학교
		6권2호	경성 : 신생사	1933.02.08	연세대학교
		6권3호	경성 : 신생사	1933.03.04	연세대학교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6권4호	경성 : 신생사	1933.04.11	연세대학교
		6권5호	경성 : 신생사	1933.05.11	아단문고
		6권6호	경성 : 신생사	1933.06.13	연세대학교
		6권7/8호	경성 : 신생사	1933.07.17	연세대학교
		6권9호	경성 : 신생사	1933.09.01	아단문고
		6권10호	경성 : 신생사	1933.10.01	연세대학교
		6권11호	경성 : 신생사	1933.11.01	연세대학교
		6권12호	경성 : 신생사	1933.11.27	연세대학교
		종간호	경성 : 신생사	1934.01.01	아단문고
35	無産者	창간호	동경 : 무산자사	1929.05.13	연세대학교
		종간호	동경 : 무산자사	1929.07.26	아단문고
36	怪奇	창간호	경성 : 동명사	1929.05.20	국립중앙도서관
		종간호	경성 : 동명사	1929.12.20	국립중앙도서관
37	文藝狂	창간호/종간호	예산 : 문예광사	1930.02.10	아단문고
38	大衆公論	창간호	경성 : 대중공론사	1930.03.01	국립중앙도서관
		2권3호	경성 : 대중공론사	1930.04.01	아단문고
		2권4호	—	—	미확인
		2권5호	경성 : 대중공론사	1930.06.01	연세대학교
		2권6호	경성 : 대중공론사	1930.07.01	아단문고
		종간호	경성 : 대중공론사	1930.09.01	연세대학교
39	音樂과詩	창간호/종간호	경성 : 음악과시사	1930.08.15	연세대학교
40	時代公論	창간호	경성 : 시대공론사	1931.09.01	서울대학교
		종간호	경성 : 시대공론사	1932.01.01	연세대학교
41	集團	창간호	—	—	미확인
		1권2호	경성 : 집단사	1932.02.15	연세대학교
		종간호	경성 : 집단사	1932.06.01	아단문고
42	新興映	창간호/종간호	경성 : 신흥영화사	1932.06.10	서울대학교
43	東聲	창간호	대구 : 동성사	1932.09.01	아단문고
		2호	대구 : 동성사	1932.11.10	아단문고
		3호	대구 : 동성사	1932.12.10	아단문고
		종간호	대구 : 동성사	1933.01.00	미확인
44	文學建設	창간호/종간호	경성 : 문학건설사	1932.12.05	아단문고
45	文學創造	창간호/종간호	경성 : 별나라사	1934.06.10	고려대학교
46	靑年朝鮮	창간호/종간호	경성 : 청년조선사	1934.10.05	국립중앙도서관
47	月刊野談	창간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4.10.10	국립중앙도서관
		1권2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4.11.10	국립중앙도서관
		1권3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4.12.10	국립중앙도서관
		1권4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5.01.10	서강대학교
		2권1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5.01.10	아단문고
		2권2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5.02.10	서강대학교
		2권3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5.03.10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2권4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5.04.10	아단문고
		2권5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5.05.10	아단문고
		2권6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5.06.10	미확인
		2권7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5.07.10	국립중앙도서관
		2권8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5.08.10	국립중앙도서관
		2권9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5.09.10	국립중앙도서관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2권10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5.11.10	서강대학교
		2권11호	경성 : 계유출판사	—	서강대학교
		3권1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6.01.10	서강대학교
		3권2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6.02.10	아단문고
		3권3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6.03.10	아단문고
		3권4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6.04.10	아단문고
		3권5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6.05.10	아단문고
		3권6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6.06.10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3권7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6.07.10	서강대학교
		3권8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6.08.10	아단문고
		3권9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6.09.10	아단문고
		3권10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6.10.10	미확인
		3권11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6.11.10	아단문고
		3권12호	경성 : 계유출판사	1936.12.10	서강대학교
		4권1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7.01.10	서강대학교
		4권2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7.02.10	아단문고
		4권3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7.03.10	아단문고
		4권4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7.04.10	서강대학교
		4권5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7.05.10	국회도서관
		4권6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7.06.10	아단문고
		4권7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7.07.10	아단문고
		4권8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7.08.10	서강대학교
		4권9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7.09.10	아단문고
		4권10/11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7.11.10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4권12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7.12.10	서강대학교
		5권1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8.01.10	서강대학교
		5권2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8.02.10	국립중앙도서관
		5권3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8.03.10	서강대학교
		5권4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8.04.10	서강대학교
		5권5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8.05.10	국립중앙도서관
		5권6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8.06.10	서강대학교
		5권7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8.07.10	서강대학교
		5권8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8.08.10	서강대학교
		5권9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8.09.10	서강대학교
		5권10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8.11.10	국립중앙도서관
		5권11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8.11.10	아단문고
		6권1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9.01.10	서강대학교
		6권2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8.02.10	국립중앙도서관
		6권3/4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9.03.10	서강대학교
		6권5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9.05.10	서강대학교
		6권6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9.06.10	국립중앙도서관
		6권7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9.07.10	서강대학교
		6권8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9.08.10	미확인
		6권9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9.09.10	국회도서관
		6권10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9.10.10	서강대학교
		종간호	경성 : 월간야담사	1939.11.10	국립중앙도서관
48	少年中央	창간호	경성 : 조선중앙일보사	1935.01.01	서울대학교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1권2호	경성 : 조선중앙일보사	1935.02.01	연세대학교
		1권3호	경성 : 조선중앙일보사	1935.03.01	연세대학교
		1권4호	경성 : 조선중앙일보사	1935.04.01	연세대학교
		1권5호	경성 : 조선중앙일보사	1935.00.00	아단문고
		1권6호	—	—	미확인
		1권7호	경성 : 조선중앙일보사	1935.07.01	연세대학교
		종간호 미상			
49	創作	창간호	동경 : 창작사	1935.11.19	아단문고
		2호	동경 : 창작사	1936.04.18	아단문고
		종간호	경성 : 세기사	1937.07.15	아단문고
50	野談	창간호	경성 : 야담사	1935.12.01	국립중앙도서관
		2권1호	경성 : 야담사	1936.01.01	국립중앙도서관
		2권2호	경성 : 야담사	1936.02.01	국립중앙도서관
		2권3호	경성 : 야담사	1936.00.00	아단문고
		2권4호	—	—	미확인
		2권5호	경성 : 야담사	1936.05.01	국회도서관
		2권6호	경성 : 야담사	1936.06.01	국회도서관
		2권7호	경성 : 야담사	1936.07.01	국립중앙도서관
		2권8호	경성 : 야담사	1936.08.01	국립중앙도서관
		2권9호	경성 : 야담사	1936.09.01	국립중앙도서관
		2권10호	경성 : 야담사	1936.10.01	국립중앙도서관
		2권11호	경성 : 야담사	1936.11.01	국립중앙도서관
		2권12호	경성 : 야담사	1936.12.01	국립중앙도서관
		3권1호	경성 : 야담사	1937.01.01	국립중앙도서관
		3권2호	경성 : 야담사	1937.02.01	국립중앙도서관
		3권3호	경성 : 야담사	1937.03.01	국립중앙도서관
		3권4/5호	경성 : 야담사	1937.05.01	국립중앙도서관
		3권6호	경성 : 야담사	1937.06.01	국립중앙도서관
		3권7호	경성 : 야담사	1937.07.01	국립중앙도서관
		3권8호	경성 : 야담사	1937.08.01	국립중앙도서관
		3권9호	경성 : 야담사	1937.09.01	국립중앙도서관
		3권10호	경성 : 야담사	1937.09.01	국립중앙도서관
		3권11호	경성 : 야담사	1937.11.01	국립중앙도서관
		3권12호	경성 : 야담사	1937.12.01	국립중앙도서관
		4권1호	경성 : 야담사	1938.01.01	국립중앙도서관
		4권2호	경성 : 야담사	1938.02.01	국립중앙도서관
		4권3호	경성 : 야담사	1938.03.01	국립중앙도서관
		4권4호	경성 : 야담사	1938.04.01	국립중앙도서관
		4권5호	경성 : 야담사	1938.05.01	국립중앙도서관
		4권6호	경성 : 야담사	1938.06.01	국립중앙도서관
		4권7호	경성 : 야담사	1938.07.01	국립중앙도서관
		4권8호	경성 : 야담사	1938.08.01	국립중앙도서관
		4권9호	경성 : 야담사	1938.09.01	국립중앙도서관
		4권10호	경성 : 야담사	1938.10.01	국립중앙도서관
		4권11호	경성 : 야담사	1938.11.01	국립중앙도서관
		4권12호	경성 : 야담사	1938.12.01	국립중앙도서관
		5권1호	경성 : 야담사	1939.01.01	국립중앙도서관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5권2호	경성 : 야담사	1939.02.01	국립중앙도서관
		5권3호	경성 : 야담사	1939.03.01	국립중앙도서관
		5권4호	경성 : 야담사	1939.04.01	국립중앙도서관
		5권5호	경성 : 야담사	1939.05.01	국립중앙도서관
		5권6호	경성 : 야담사	1939.06.01	국립중앙도서관
		5권7호	경성 : 야담사	1939.07.01	국립중앙도서관
		5권8호	경성 : 야담사	1939.08.01	국립중앙도서관
		5권9호	경성 : 야담사	1939.09.05	국립중앙도서관
		5권10호	경성 : 야담사	1939.10.05	국립중앙도서관
		5권11호	경성 : 야담사	1939.11.05	국립중앙도서관
		5권12호	경성 : 야담사	1939.12.05	국립중앙도서관
		6권1호	경성 : 야담사	1940 01.05	국립중앙도서관
		6권2호	경성 : 야담사	1940. 02.20	국립중앙도서관
		6권3호	경성 : 야담사	1940. 03.05	국립중앙도서관
		6권4호	경성 : 야담사	1940.04.05	국립중앙도서관
		6권5호	경성 : 야담사	1940.05.05	국립중앙도서관
		6권6호	경성 : 야담사	1940.06.05	국립중앙도서관
		6권7호	경성 : 야담사	1940.07.05	국립중앙도서관
		6권8호	경성 : 야담사	1940.08.05	국립중앙도서관
		6권9호	경성 : 야담사	1940.09.05	국립중앙도서관
		6권10호	경성 : 야담사	1940.10.05	국립중앙도서관
		6권11호	경성 : 야담사	1940.11.10	국립중앙도서관
		6권12호	경성 : 야담사	1940.12.10	국립중앙도서관
		7권1호	경성 : 야담사	1941.01.10	국립중앙도서관
		7권2호	경성 : 야담사	1941.02.10	국립중앙도서관
		7권3호	경성 : 야담사	1941.03.10	국립중앙도서관
		7권4호	경성 : 야담사	1941.04.10	국립중앙도서관
		7권5호	경성 : 야담사	1941.05.10	국립중앙도서관
		7권6호	경성 : 야담사	1941.06.10	국립중앙도서관
		7권7호	경성 : 야담사	1941.07.10	국립중앙도서관
		7권8호	경성 : 야담사	1941.08.10	국립중앙도서관
		7권9호	경성 : 야담사	1941.09.10	국립중앙도서관
		7권10호	경성 : 야담사	1941.10.05	국립중앙도서관
		7권11호	경성 : 야담사	1941.11.05	국립중앙도서관
		7권12호	경성 : 야담사	1941.12.05	국립중앙도서관
		8권1호	경성 : 야담사	1942.01.05	국립중앙도서관
		8권2호	경성 : 야담사	1942.02.05	국립중앙도서관
		8권3호	경성 : 야담사	1942.03.05	국립중앙도서관
		8권4호	경성 : 야담사	1942.04.05	국립중앙도서관
		8권5호	경성 : 야담사	1942.05.05	국립중앙도서관
		8권6호	경성 : 야담사	1942.06.05	국립중앙도서관
		8권7호	—	—	미확인
		8권8호	경성 : 야담사	1942.08.05	아단문고
		8권9호	경성 : 야담사	1942.09.05	아단문고
		8권10호	경성 : 야담사	1942.10.05	아단문고
		8권11호	경성 : 야담사	1942.11.05	아단문고
		8권12호	경성 : 야담사	1942.12.05	아단문고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9권1호	경성 : 야담사	1943.01.05	아단문고
		9권2호	경성 : 야담사	1943.02.05	아단문고
		9권3호	경성 : 야담사	1943.03.05	아단문고
		9권4호	경성 : 야담사	1943.04.05	아단문고
		9권5호	경성 : 야담사	1943.05.05	아단문고
		9권6호	경성 : 야담사	1943.06.05	아단문고
		9권7호	—	—	미확인
		9권8호	경성 : 야담사	1943.08.05	국립중앙도서관
		9권9호	경성 : 야담사	1943.09.05	아단문고
		9권10호	경성 : 야담사	1943.10.05	아단문고
		9권11호	경성 : 야담사	1943.11.05	아단문고
		9권12호	—	—	미확인
		10권1호	경성 : 야담사	1944.01.05	국립중앙도서관
		10권2호	경성 : 야담사	1944.02.05	아단문고
		10권3호~10권5호	—	—	미확인
		10권6호	경성 : 야담사	1944.06.05	아단문고
		10권7호	—	—	미확인
		10권8호	경성 : 야담사	1944.08.05	아단문고
		10권9호	—	—	미확인
		10권10호	경성 : 야담사	1944.10.05	아단문고
		10권11호	—	—	미확인
		10권12호	경성 : 야담사	1944.12.05	아단문고
		11권1호	—	—	미확인
		종간호	경성 : 야담사	1945.03.05	국회도서관
51	文學	창간호	경성 : 문학사	1936.01.05	연세대학교
		종간호	경성 : 문학사	1936.04.01	연세대학교
52	童話	창간호	경성 : 동화사	1936.01.18	연세대학교
		1권2호	경성 : 동화사	1936.03.14	연세대학교
		1권3호	경성 : 동화사	1936.04.12	연세대학교
		1권4호	경성 : 동화사	1936.05.06	연세대학교
		1권5호	경성 : 동화사	1936.06.05	연세대학교
		1권6호	경성 : 동화사	1936.07.19	연세대학교
		1권7호	경성 : 동화사	1936.09.01	연세대학교
		1권8호	경성 : 동화사	1936.10.01	연세대학교
		1권9호	경성 : 동화사	1936.11.13	연세대학교
		1권10호	경성 : 동화사	1936.12.18	연세대학교
		2권1호	경성 : 동화사	1937.02.01	연세대학교
		2권2호	경성 : 동화사	1937.03.19	연세대학교
		2권3호	경성 : 동화사	1937.04.15	연세대학교
		2권4호	경성 : 동화사	1937.06.10	연세대학교
		종간호 미상			
53	가톨릭少年	창간호	용정 : 가톨릭소년사	1936.03.01	서울대학교
		2호~2권9호	—	—	미확인
		2권 10호	용정 : 가톨릭소년사	1937.12.01	연세대학교
		—	—	—	미확인
		종간호	용정 : 가톨릭소년사	1938.08.00	미확인
54	探究	창간호	경성 : 탐구사	1936.05.20	국립중앙도서관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2호	경성 : 탐구사	1936.07.01	고려대학교
		종간호 미상			
55	文藝街	창간호~3호	—	—	미확인
		4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36.11.01	한국잡지정보관
		5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36.12.01	아단문고
		6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01.01	아단문고
		7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02.01	아단문고
		8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03.01	아단문고
		9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04.01	아단문고
		10호	—	—	미확인
		11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07.01	아단문고
		12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09.01	아단문고
		13호~14호	—	—	미확인
		15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11.01	한국잡지정보관
		종간호	경성 : 한성도서주식회사	1937.12.01	한국잡지정보관
56	鑛業朝鮮	창간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6.06.10	고려대학교
		1권 2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6.07.10	연세대학교
		1권 3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6.09.01	아단문고
		1권 4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6.10.01	아단문고
		1권 5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6.11.01	아단문고
		1권 6호/2권1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7.01.01	연세대학교
		2권 2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7.02.01	연세대학교
		2권 3호	—	—	미확인
		2권 4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7.04.01	연세대학교
		2권 5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7.06.01	연세대학교
		2권 6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7.08.01	국립중앙도서관
		2권 7/8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7.10.01	국립중앙도서관
		2권 9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7.11.01	국립중앙도서관
		2권 10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7.12.01	국립중앙도서관
		3권 1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8.01.01	국립중앙도서관
		3권 2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8.02.01	국립중앙도서관
		3권 3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8.02.01	국립중앙도서관
		3권 4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8.04.01	국립중앙도서관
		3권 5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8.05.01	국립중앙도서관
		3권 6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8.06.01	국립중앙도서관
		3권 7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8.07.01	국립중앙도서관
		3권 8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8.08.01	국립중앙도서관
		3권 9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8.09.01	국립중앙도서관
		3권 10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8.10.01	국립중앙도서관
		3권 11/12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8.11.01	국립중앙도서관
		4권 1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9.01.01	연세대학교
		4권 2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9.02.01	연세대학교
		4권 3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9.03.01	연세대학교
		4권 4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9.04.01	연세대학교
		4권 5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9.05.01	연세대학교
		4권 6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9.06.01	연세대학교
		4권 7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9.07.01	국립중앙도서관
		4권 8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9.08.01	국립중앙도서관
		4권 9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9.09.01	국립중앙도서관
		4권 10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9.10.01	국립중앙도서관
		4권 11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9.11.01	국립중앙도서관
		4권 12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39.12.01	국립중앙도서관
		5권 1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40.01.01	국립중앙도서관
		5권 2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40.02.01	국립중앙도서관
		5권 3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40.03.01	국립중앙도서관
		5권 4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40.04.01	국립중앙도서관
		5권 5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40.05.01	국립중앙도서관
		5권 6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40.06.01	국립중앙도서관
		5권 7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40.07.01	국립중앙도서관
		5권 8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40.08.01	국립중앙도서관
		5권 9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40.09.01	국립중앙도서관
		5권 10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40.10.01	국립중앙도서관
		5권 11/12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40.12.01	국립중앙도서관
		6권 1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41.01.01	아단문고
		6권 2호	경성 : 조선산금조합	1941.02.05	아단문고
		종간호 미상			
57	浪漫	창간호/종간호	경성 : 낭만사	1936.11.09	아단문고
58	搖籃	창간호	경성 : 요람사	1937.01.01	고려대학교
		2호	경성 : 요람사	1937.09.25	고려대학교
		종간호	경성 : 요람사	1939.02.13	고려대학교
59	文園	창간호	대구 : 문원사	1937.04.01	연세대학교
		종간호	대구 : 문원사	1937.05.00	아단문고
60	詩人春秋	창간호	경성 : 시인춘추사	1937.06.08	아단문고
		종간호	경성 : 시인춘추사	1938.01.31	아단문고
61	雄鷄	창간호/종간호	경성 : 웅계사	1939.01.01	연세대학교
62	詩林	창간호	경성 : 삼문사	1939.03.05	아단문고
		2호	—	—	미확인
		종간호	경성 : 삼문사	1939.06.10	서울대학교
63	作品	창간호/종간호	경성 : 작품편집부	1939.06.01	국립중앙도서관
64	白紙	창간호	경성 : 백지사	1939.07.01	고려대학교
		2호	경성 : 백지사	1939.08.10	고려대학교
		종간호	경성 : 백지사	1939.10.28	고려대학교
65	純文藝	창간호/종간호	동경 : 이종길방	1939.08.01	아단문고
66	太陽	창간호	경성 : 조선문화사	1940.01.01	국립중앙도서관
		종간호	경성 : 조선문화사	1940.02.20	국립중앙도서관
67	業	창간호/종간호	동경 : 장학사	1940.05.01	아단문고
68	國民總力	창간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0.11.07	국립중앙도서관
		2권12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0.12.07	국립중앙도서관
		3권1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01.07	아단문고
		3권2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02.07	국립중앙도서관
		3권3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03.07	국립중앙도서관
		3권4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04.07	국립중앙도서관
		3권5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05.07	국립중앙도서관
		3권6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06.07	국립중앙도서관

목록

연번	잡지명	권호	발행(발행지 : 발행처)	발행일	원본 소장처
		3권7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07.07	국립중앙도서관
		3권8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08.07	국립중앙도서관
		3권9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09.07	국립중앙도서관
		3권10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10.07	국립중앙도서관
		3권11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11.07	국립중앙도서관
		3권12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1.12.07	국립중앙도서관
		4권1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2.01.07	국립중앙도서관
		4권2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2.02.07	국립중앙도서관
		4권3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2.03.07	국립중앙도서관
		4권4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2.04.07	국립중앙도서관
		4권5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2.05.07	국립중앙도서관
		4권6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2.06.07	국립중앙도서관
		4권7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2.07.07	국립중앙도서관
		4권8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2.08.07	국립중앙도서관
		4권9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2.09.07	국립중앙도서관
		4권10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2.10.07	국립중앙도서관
		4권11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2.11.07	국립중앙도서관
		4권12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2.12.07	국립중앙도서관
		5권1호~6권4호	—	—	미확인
		6권5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4.03.01	연세대학교
		6권6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4.03.15	연세대학교
		6권7호~6권14호	—	—	미확인
		6권15호	경성 : 국민총력조선연맹	1944.08.01	연세대학교
		종간호 미상			
69	月刊 小國民	창간호~2권4호	—	—	미확인
		2권5호	경성 : 경성일보사	1944.05.01	아단문고
		2권6호~2권7호	—	—	미확인
		2권8호	경성 : 경성일보사	1944.08.01	아단문고
		2권9호~1권10호	—	—	미확인
		2권11호	경성 : 경성일보사	1944.11.01	아단문고
		3권3호	경성 : 경성일보사	1945.03.01	미확인
		종간호 미상			
70	國民詩人	창간호	경성 : 인문사	1944.12.01	국립중앙도서관
		종간호	경성 : 인문사	1945.02.01	아단문고

※ 목록 중 발행일 미확인 자료는 00으로 표시하였으며 원본 소장처는 대표기관 한 곳만 제시하였습니다.

잡지명 색인

ㄱ

가톨릭소년 176
계명 44
계우 95
광업조선 185
괴기 123
국민시인 225
국민총력 219
근대사조 14

ㄴ

낭만 188
녹성 26

ㄷ

대중공론 129
대한유학생회학보 8
동명 57
동성 144
동화 173

ㅁ

무산자 120
문예가 182
문예광 126
문예·영화 104
문우 38
문우 77
문원 194
문학 170
문학건설 147
문학창조 150

ㅂ

백웅 101
백지 208
백치 98
별나라 83
부인 54

ㅅ

새벗 74
소년중앙 159
순문예 211
숭실활천 51
습작시대 92
시대공론 135
시림 202
시인춘추 197
신생 114
신소년 65
신시단 111
신여자 32
신천지 47
신흥영화 141

ㅇ

아이생활 80
야담 165
업 216
여광 35
여명 71
여시 108
요람 191
우리의 가뎡 11
웅계 200
월간 소국민 222
월간야담 156
음악과시 132

ㅈ

작품 205
장한 89
조선문예 18
집단 138

ㅊ

창작 162
청년조선 153
청량 68

ㅌ

탐구 179
태양 213

ㅎ

학생계 41
학우 22
학조 86
현대 29
휘문 62

한국근대문학 해제집 Ⅳ 문학잡지(1907~1944)

해제 강진호(성신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공임순(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김종훈(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노춘기(강남대학교 참인재대학 교수)
신현규(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교수)
안용희(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염희경(한국방정환재단 연구부장)
유석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유임하(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이경수(중앙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화진(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장정희(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후연구원)
정선혜(한국아동문학학회 부회장, 동심치유연구소 소장)
조은숙(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최현식(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감수 조남현(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발행일 2018년 12월 26일
발행인 박주환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TEL : 02-3483-8830
FAX : 02-590-0607
http://www.nl.go.kr

편집디자인 (주)디자인그룹더블유
사진 AJ Studio 박두진

ⓒ 2018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ISBN : 979-11-89585-18-1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8041191)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